

青海伯李之蘭

青海李氏宗親會



〈청해이씨 원조 악비장군 영정〉

악비장군(1103~1141)은 중국남송(南宋) 시대의 명장(名將)으로 하남성 안양현에서 출생하였고 성은 악(岳)이요 이름은 비(飛) 자(字)는 봉거(鵬舉)이다. 무목(武穆)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악충무왕(岳忠武王)으로 추서되었다. 학자로서도 뛰어나 저서 악충무왕집(岳忠武王集)이 있으며 악충무왕묘(岳忠武王墓)에 배향되었다. 문무(文武)를 겸비한 구국(救國)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청해이씨 시조(始祖)인 청해백(靑海伯)의 6대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무목왕 악비능정문(중국 항주)〉



〈악비 기념관내 악비 동상〉



〈청해백이지란 영정〉



〈청해백 가훈〉

- 충(忠) : 참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 청(淸) : 사리사욕을 버리고 청렴결백하게 살고
- 효(孝) : 사랑된 도리로 어버이에게 효성을 다하도록 하고
- 근(謹) :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독정 청해백 사당〉



〈무후공 이화영 사적비〉



〈추밀공 이화상 추모비〉



〈무후공 이화영 묘〉



〈독정리 효온공파 묘역〉



〈무후공 六子 충좌위 부사직 효강묘〉



〈예산 의주공파 묘역〉



〈예산효자 이규 정려 외부(上)와 내부(下) 전경〉



〈청해백 8세손 충장공 이준노 영정〉



〈포천 충장공 사당〉

발 간 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변화의 기류는 인류사회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식민지배와 전란이 휩쓸고간 동토에서도 우리 민족은 송조효친사상과 예의범절을 생의 근본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단일민족이니 동방예의지국이니 하는 말이 전설이 되버린 지 오래고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다문화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국가정책까지도 그 기류에 편승하면서 호적법까지도 개정하게 되는 등 옛날의 유교사상을 기초로 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는 그 명맥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문제는 송조효친 사상은 대가족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핵가족 제도로 변모하면서 많은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이 우리 종친회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원조이신 중국의 악비장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고 악씨문중과 상호교류방문을 통하여 유대를 공고히 하며 정보도 공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송곡 응섭종인이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다.

이처럼 악비장군에 관한 연구는 활발했으나 정작 우리의 시조이신 청해백 이지란 장군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청해백 이지란”이란 이책은 창성종인께서 추천해 주셔서 발행하게 되었는데 시조님의 출생에서부터 종신까지 일대기를 기술한 책이다

40여년 전에 발간된 책으로 희소성이 있고 또 난해한 한자병기로 한문에 익숙치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워 번역본으로 다시 펴낸다.

또 몇군데 내용중에 고증되지 않은 양론의 여지도 있으나 그 문제는 후세

2 발 간 사

들에 의하여 정리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종인들이 이책을 읽고 훌륭하신 조상님의 후손이라는 자부와 긍지로 흐려지는 송조사상에 불씨가 되길 바란다.

2017년 2월 17일

청해이씨종친회 회장 이 순 용

간행사

이 책은 조선조 개국의 원훈공신이며 명철한 위인인 청해백 이지란공의 일대기이다.

고대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기록이 후세에 전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각 왕조의 창업주를 신으로 승화시켜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이씨왕조 조선의 개국 당시 기록도 역시 창업주인 이태조를 신무로 승화하며, 고려말의 다난하였던 왜구의 약탈과 북호의 침입을 모두 이태조의 신무로 소탕 평정한 것으로 기록한 관계로 다른 사람들은 빛을 잃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 개국 후 정종, 태종대왕이 청해백에게 내린 공신책봉 교지에 “호인 납합출, 호발도, 승천부와 황산의 왜관 등을 격멸한 것이 상왕(이태조)의 능군이나, 이는 모두 경의 작전지휘와 통솔의 능함과 장창과 쾌검을 잘 쓴 힘이다.”하였고, 영조대왕은 경연에서 “사탄새탄지설(射彈塞彈之說) 및 약위형제(約爲兄弟)”를 논하고, 또한 정조대왕이 청해백에게 내린 제문에서는 “사천칠찰(射穿七札) 용탈삼군(勇奪三軍)”이라 하였으며, 순조대왕의 치제문(致祭文) 역시 “천양묘기” 하는 등 청해백의 궁술 및 전공에 대하여 극구찬양(極口讚揚)한 기록이 역력하나 조선조 초기 실록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말들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기록을 후세에서 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한편의 기록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 예가 흔히 있다.

예를 들면 청해백은 엄연히 남송의 명장 악비장군 무목왕의 칠세손임에

도 불구하고 일시 여진 땅에서 살며 여진인을 다스렸다하여 여진족이라고 단정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 역사를 왜곡 기술하여 후학에까지 왜곡된 역사를 배우게 하는 이중삼중의 과오를 범하게 됨을 민망하게 여기고 후손들의 역사관 확립의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이 책을 내는 바이다.

1975년 10월 30일

청해이씨종친회 회장 이 재 욱

서 문

이 세상에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관계가 있어 낳고 또 낳고 하여 수 만년을 서로 대를 이어가는 동안에 기록이 있는 것은 기록에 의하여 전하여 지고 기록이 없는 것은 전설에 의하여 전하여지는 것이 자연현상이므로 금 번 청해백 양렬공 이지란공의 전기 편찬 역시 기록에 있는 사실을 위주로 하고 전설은 〈傳說〉이라고 명기한다.

청해백의 본명은 동두란(修豆蘭)이고 여진 추장의 칭호로서 고론두란첩목아(쿠룬투란티므로, Kurunturan Timur)라 하고 고려에 출사하면서 성을 이씨로 개성, 본관은 무목왕 악비장군의 본거지인 중국 청해성의 지명을 따서 '청해'라 하고 조선개국 후 이름을 지란으로 다시 바꿨다.

청해백은 서기 1331년(고려 충혜왕 원년)에 북청 포정사에서 남송 무복왕의 칠세손으로 태백성의 정기와 장백산의 영기를 타고 나시었다. 어려서 부터 총명 영웅하여 큰 뜻을 품고 나유선생에게 천문·지리·육도삼약·손오병서를 배우고 이태조를 만나 남만주합병의 웅지를 안고 70평생을 오직 진충보국의 일념으로 황산대첩과 전주위정벌을 비롯, 술한 왜구와 호적을 막아 남정북벌로 한만국경과 영해를 주름잡던 당대의 명장이며 또한 여진인을 교화유치하여 함경도 일대를 국토로 병합 편입 조선 건국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고 출장입상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이태조는 개국 즉시 청해백을 개국원훈 공신에 봉하고, 청해백이 서거하시자 태종은 3일간 철조하고 태조 종묘에 배향하여 역대 임금인 청해백의 위훈을 길이 추모하여 조선 최종 임금인 고종황제 때까지 치제문과 대신급 제관을 청해사에 파견 치제하여 왔다.

한 나라를 창업하고 외적을 막고 국토를 확장하는 사례야 어느 시대엔들 없으랴마는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연개소문·을지문덕·강감찬·윤관

등 여러 영웅이 많았었으나 청해백과 같이 부귀영화에 탐약하지 아니하고 여생을 깨끗이 종신한 분이 그 누구인가!.

조선 창업기에 악명 높은 포은 정몽주 격살 때 “충신을 어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그 일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음은 물론 한때 국토를 넓혀 새 왕조 창건의 대업을 이룩하고 국태민안한 태평성대를 바랐으나 거둬드는 왕자난에 회의를 느껴 조선 건국 후 인신으로서 최고의 권좌인 그 높은 시중 벼슬도 초리같이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 삭발위승하여 여생을 남정북벌에서 남살한 전장고혼들의 명복을 빌어 참회하며 생애를 마쳤고 서거 후에도 나라에 큰 변란이 생길 때마다 영혼이 출현하여 이를 계시한 일과 일생동안 그 풍운 많고 다사다난한 고려말 조선초에 한 번의 중상과 모해를 받은 바 없는 그 고결한 인격은 고금 어느 현인·영웅에 비할 바 아니며 또 그 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화살에 맞거나 창에 상한 일이 없이 자기의 천명을 다함은 실로 만고에 드문 일이다.

그 후손 중에는 충신·효자·열녀가 계출하여 국난에 창의순절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수절하여 가통을 빛내 왔다. 특히 청해백의 아드님 사형제 추밀공 화상·무후공 화영·판윤공 화미·예판공 화수, 모두 나라에 진충보국하였고 창렬공 회당·충장공 중로, 그 외에 많은 후손들이 순국하였고, 부모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며, 유복자를 위하여 수절하다가 아들이 장성 성취하자 지아비를 따라 순절하는 등, 이 모두 위대한 선조의 숭고한 유훈과 음덕이 아니냐!. 그 위업은 천추에 빛이 되고 이글을 영혼에 바쳐 후세에 전함으로써 유풍을 따르고 보답하리라.

1975년 6월 30일

저자 대표 이 호 성

차 례

◆ 발 간 사

◆ 간 행 사

◆ 서 문

I. 태백성의 하강 / 11

1. 청해백 탄생	11
2. 남송과 악비	12
3. 악왕의 후예	16
4. 나유(羅流)선생과 수도	21
5. 양웅의 상봉	23
6. 석왕사	31
7. 소도원 결의	33
8. 적지의 용<전설>	35

II. 남정북벌 / 37

1. 고려 군제	37
2. 몽가독 격멸	37
3. 홍건적 격퇴	38
4. 남합출(納哈出) 대파	42
5. 덕흥군(德興君)의 난	46
6. 삼선 삼개	48
7. 동녕부 격파	49
8. 고려의 여진 병합	51
9. 황산대첩	52

10. 호발도 격멸	62
11. 요동사 응징	64
12. 함주 개선	72

Ⅲ. 조선조 창건 / 75

1. 위화도 회군	75
2. 폐가 입진	82
3. 녹전 폐지	92
4. 민심이 천심	96
5. 건주위 정벌	100
6. 이태조의 등극	101
7. 청해군 서작	104
8. 여진교화	108
9. 한양 천도와 해안택	110

Ⅳ. 초야의 은거 / 112

1. 1차 왕자란	112
2. 2차 왕자란	121
3. 낙 향	129
4. 관 작	131
5. 채 읍	133

Ⅴ. 태백성의 승천 / 134

1. 청해백의 하세	134
2. 종묘 배향	135
3. 북청도호부	136
4. 영혼의 계시	137

ㄱ. 병자호란	137
ㄴ. 신도비석	138
ㄷ. 자 식형	138
ㄹ. 수해	139
ㅁ. 군졸과 차마	139
5. 청해백 화상	139
ㄱ. 청해백 영정(英祖 22년(1746) 9월)	139
ㄴ. 영조대왕 신장	140
ㄷ. 화상찬	141

VI. 유 적 / 142

1. 별안대	142
2. 청해백의 능	143
3. 유 허	143
4. 괴 정	147
5. 청해사 서원	148
ㄱ. 청해사 춘추중정 찰향 축문	150
ㄴ. 충열묘 증건기	151
ㄷ. 청해사 증건상량문	152
ㄹ. 청해사 육육정기	156
6. 삼의사	159
7. 신도비명 병서	161
8. 송포백운	170
9. 영 당	171
ㄱ. 봉산서호방영당봉정기	172
ㄴ. 양덕용연리영당봉안기	174
10. 치제문	176

VII. 후 손 / 182

1. 추밀공 화상	182
2. 무후공 화영	190
3. 판윤공 화미	195
4. 예판공 화수	196
5. 충신통훈대부 창렬공 희당	197
6. 충장공 중로	201
7. 봉군록	204
8. 공신록	206

부 록 / 209

1. 송시고금만성통보악씨세계(宋時古今萬姓統譜岳氏世系)	209
2. 행렬약서(行列略叙)	211
3. 청해백양렬공묘소개봉축사기(青海伯襄烈公墓所改封築事記)	212

참고문헌 / 219

발 문 / 221

I. 태백성의 하강

1. 청해백 탄생

우리나라는 크지는 않으나 삼천리강산이 수려하여 위인과 영웅이 때를 맞추어 태어나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어 국가와 민족을 지켜왔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당태종의 십만 대군을 안시성에서 무찔렀고, 을지문덕은 수나라 백만 대군을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고려의 강감찬은 계단의 십만 대군을 구주(지금의 구성)에서 각각 크게 쳐부수었으며, 고려말 조선 초기의 청해백 이지란장군은 왜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현 함경도 일대(그 당시 원나라 영토)의 여진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귀화시켜 민족의 안정과 국토의 확장을 이룩한 분이며, 청해이씨의 시조가 되시는 분이다.

청해백은 지금으로부터 684년전 고려 충혜왕원년 신미(서기 1331년)에 함경도 북청에서 태백성(太白星)의 정기와 장백산의 영기를 타고 중국 남송 무목왕(南宋 武穆王) 악비장군(岳飛將軍)의 6세손(원나라 정서대장군) 아원(아라부카·아라불화)의 장자로 태어났다.

청해백이 태어나기 3년전부터 밤이면 태백성이 집 앞 우물에 비치며 광채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이웃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기며 이집에 이처럼 상서로운 기운이 비치니 반드시 위인이 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오던 중 과연 3년만에 청해백이 태어났다.

청해백은 태어나면서 부터 남달리 성품이 온후하고 인자하며 천부적 기질이 영특하고 기골이 장대하여 용맹스러웠다. 또한 외모가 단정 수려하여 인근 사람들의 축복과 경모를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청해백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아원이 세상을 떠나 어머니의 품에

서 자랐다.

청해백의 어릴 때 이름은 도난(逃難)이라고 불렀고, 자라면서 얼굴이 둥글다하여 두란(豆蘭)으로 고쳐 부르고 장성하여 원나라의 천호장(千戶將)이 되면서부터 몽고풍의 쿠룬두란티무루(古論豆蘭帖木兒)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주: 帖木兒는 몽고에서 높은 사람의 존칭어임). 그리고 성은 원나라의 모계풍을 따라 어머니의 성인 동(修)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두란(修豆蘭)이라고 하다가 고려말 공민왕 20년 2월에 고려에서 벼슬하면서부터 이두란(李豆蘭), 조선개국 후에는 이지란(李之蘭)으로 성과 이름을 바꾸고 본관도 청해(靑海)라 하였다.

2. 남송과 악비

악비장군은 중국남송시대(1103~1141)의 명장이다. 송나라 휘종(徽宗) 2년 인오(1103)에 하남성(河南城) 안양현(安陽縣) 상주(相州) 업군(鄴郡)에서 출생하였으며 성은 악(岳)이요 이름은 비(飛)요 자는 봉거(鵬舉)이다. 등에 충자가 그려져 있고 젊어서부터 의지가 굳고 기세가 당당하고 좌씨춘추(左氏春秋)와 손오병서(孫吳兵書)를 즐겨 읽고 충의로 입신한 분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학문을 열심히 배워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달하고 세상을 관찰하니 그 당시 송나라의 형편이 문만 가지고는 도저히 억조창생(億兆蒼生)을 구출하고 나라를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고 다시 병서와 무예를 배운 후 자진하여 일선의 전사가 되었다.

그 당시 송나라는 문치(文治)에만 힘을 기울이고 군사력에 대하여는 등한히 하였다. 그 때 북방 계단족(契丹族)인 요(遼)나라의 침략을 자주 받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던 중 만주지방에 여진족 완안부락(完顔部落)의 추장 아구타(阿骨打)가 휘종(徽宗) 5년 정월에 금나라를 건국하고

제(帝)라 자칭하고 그 위세가 만주 일대를 통합하였다.

宋나라는 오랫동안 요(遼)나라에게 시달려온 원한을 갚기 위하여 신흥국인 金나라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宋·金 두 나라가 연합하여 요(遼)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

송나라는 휘종(徽宗) 선화(宣和) 7년(1125) 정월에 요(遼)나라 천조제(天祚帝)를 사로잡아 요가 멸망하자 전국이 환희와 안락에 빠져 더욱 국방에 대하여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나 金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군비와 군량을 충분히 준비한 후 그해 10월에 대거 남침하였으나 전세불리로 일시 휴전하였다가 그 다음해 8월에 재 침입하여 9월에 송나라 수도인 개봉부를 함락하고 흙종(欽宗)과 그 아버지 휘종(徽宗) 부자를 포로로 하여 만주 金나라로 납북하였다. 그것이 요(遼)나라를 멸망시킨지 2년도 못되는 흙종 2년(1127)이다. 이 난을 후세에서 정강(靖康)의 난(亂)이라고 한다.

그 후 송나라는 수도가 함락되고 황제는 포로가 되고 국토의 대부분이 金나라의 영토가 되자 휘종(徽宗) 황제의 둘째아들 고종(高宗)이 다음 해 정미(1128) 5월에 강남으로 내려가서 임안 항주를 중심으로 남경에서 남송(南宋)을 세우고 즉위하여 연호를 건염원년(建炎元年)이라 칭하고, 金나라에 납북되어간 아버지 휘종(徽宗)과 형 흙종의 두 임금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끝내 아무 성과없어 두 황제는 일생을 쓸쓸히 만주에서 보내고 말았다.

남송을 세운 고종은 金나라에게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金나라와 치열하게 전쟁을 하였다. 이때에 남송의 군사를 이끌고 金나라와 싸운 대표적인 인물은 한세충(韓世忠)과 청해백 6대조인 악비장군 신국무목왕(岳飛將軍 信國武穆王)이다.

악비장군은 남달리 용맹하고 지략이 겸비하여 고종 4년 경무(1131) 5월

에 金나라 군사와 싸워 정안(靜安)에서 김군(金軍)을 대파하고 고종소흥 3년 계축(1134) 6월에 강광(江廣)을 평정, 그 다음해 5월에 형남제치사(荊南制置使)를 겸임, 또 그 다음해 을묘(1136) 6월 호상을 평정하여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자 그 위명이 사해에 진동하여 그의 직위는 날로 높아졌다. 이 소식과 전과의 보고를 받은 고종황제는 친히 정충악비(精忠岳飛)라는 네 글자를 써서 군기를 만들어 하사하였다.

악비장군이 이 기(旗)를 앞세우고 이르는 곳마다 金나라 군사는 망풍이 미(望風而靡)하여 남송은 전차 실지를 회복하여 가고 있었다. 또 송나라를 배반하고 金나라에 항복한 유예(劉豫) 등의 반역도배들을 소흥5년(1136) 9월에 당주에서 무찔렀고, 소흥10년 경신(1140) 5월 7월에 주선진(朱仙鎭)에서 금군(金軍)을 대파하였다.

이리하여 악비장군의 지위는 점점 높아져 태위(太尉), 하남북제로초토사(현종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그 뒤에도 계속 진군하여 개봉매로하동안에서 또다시 金나라 군사를 크게 쳐 무찔렀다. 金나라는 하는 수 없어 소흥 11년 신유(1141) 3월에 북으로 철군하고 평화교섭을 벌이었다.

이처럼 악비장군은 金나라를 정벌하여 실지를 회복하고 군정을 인의로 실시하니 민심은 순화되고 민심이 안정되니 국민의 신망은 물론 고종황제의 충애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때에 누가 “천하는 어느 때 태평하여 집니까” 한즉 악비장군은 문신불애전(文臣不愛錢) 무신불석사(武臣不惜死) 천하태평의(天下太平矣) “문관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무장은 죽음을 두려워 아니하면 천하가 태평하여 지리라” 하였다.

이 당시 남송에는 주전파(主戰派)와 화친파(和親派)의 두 파가 있었다. 주전파는 실지를 회복하여 옛날의 宋나라 영토를 전부 회복해서 다시 국권을 회복하자는 애국충성파의 종주(宗主)는 악비장군이고, 화친파는 金나라와 내통하고 화친하여 현전선에서 정전하자는 안일주의(安逸主義)로 종주

(宗主)는 진회라는 재상(국무총리)이다. 이 두 파의 의견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 갔다.

주전파의 영수인 악비장군은 계속 진격하여 金나라의 근거지인 만주지경까지 이르러 金나라는 풍전등화 격이 되었다. 일이 급하게 된 金나라는 많은 금은보화를 진회(秦檜)에게 보내어 화친할 것을 부탁하자 진회는 금은보화에 탐이 날 뿐 아니라 악비장군의 공이 너무 커서 후일에 제 자리가 유지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종황제에게 악비장군을 모해하기 시작하였다. 진회는 고종 4년 10월에 金나라에서 해금되어 남송으로 돌아와 그 다음해(1131)에 재상이 되어 남송의 정권을 한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金나라와의 평화공존이라는 미명 하에 회복한 회수이북지방을 金나라에 도로 주고 화친하자는 굴욕적인 평화안을 내세워 감언이설로 고종에게 주전파인 악비장군을 모함하여 결국 고종 소흥11년(1141) 10월에 악비장군을 일선총사령관직(一線總司令官職)에서 해임하고 엉뚱한 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11월에 金나라에게 신(臣)이라 칭하고 회복한 땅 대부분을 金나라에 돌려준 후 12월에 악비장군을 처형하니 그 때에 악비장군의 나이 겨우 39세였다.

진회는 엉뚱한 죄명을 씌워 악비장군을 처형 후 주전주의자들을 조정에서 몰아냄은 물론 주전의 기운을 없이하기 위하여 주전파의 거두인 악비장군이 살던 집에 태학을 설치하고 악주(岳州)를 순주(純州)로 고쳐 악자(岳字)를 말살하였다.

그 후 진회는 1150년 1월에 시전(施全)이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암살될 뻔하였다. 위기를 모면한 진회는 1155년 10월에 죽고 그의 일당은 고종에 의하여 정치권력에서 전부 추방되었다.

그 후 남송은 주전파의 장준(張浚)등이 정치실권을 쥐게 되었다. 악비장군이 진회에게 너무나 무참하게 모해처형된 것을 고종의 아드님 효종황제

가 잘 알고 있어 즉위하자 전의 죄명을 벗겨 줌은 물론 악비장군의 무공과 그의 충성심과 용맹을 높이 추존하여 익호를 무목(武穆)이라 하고 옛 지위를 추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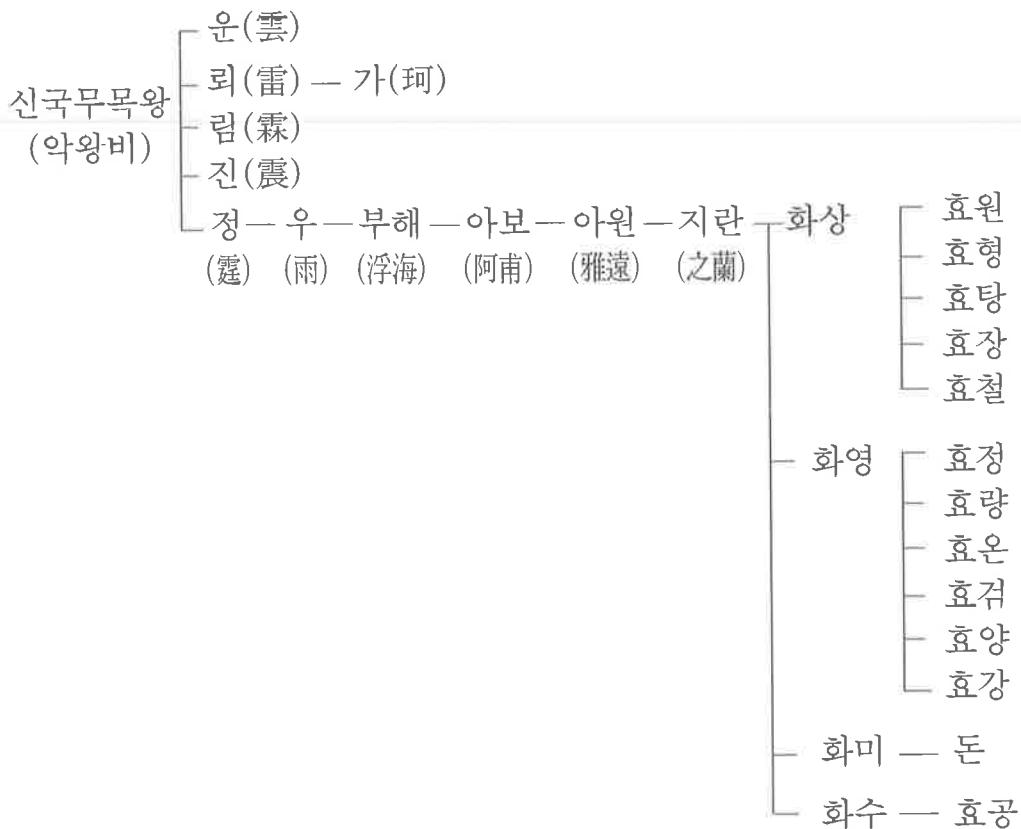
그 후 영종은 가태(嘉泰) 4년(1204) 5월에 악왕(鄂王)으로 추봉하고 다시 익호를 충무로 고쳐 주었다.

악비장군의 분묘는 지금 절강성(浙江省) 항현(杭縣) 서호(西湖)에 있어 지방 사람들이 악왕분(岳王墳)이라 칭하고 있다.

악비장군은 무인이면서 문학에 밝아 전쟁터에서 여가 있을 때 집필한 유고(遺稿)가 오늘날 악무목집(岳武穆集)이라는 서책으로 남아 있다.

3. 악왕의 후예

이지란의 세계



무목왕악비(武穆王岳飛)는 아들 오형제가 있었다. 첫째가 운(雲)이요, 둘째가뢰(雷), 세째가 림(霖), 네째가 진(震), 다섯째가 정(霆)이다.

첫째아들 운은 탕음에서 태어나 18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으나, 아버지가 그 때마다 그 공을 숨겨서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힘이 세어서 팔십근철추(八十斤鐵椎)를 한 손에 하나씩 양손에 들고 휘둘렀으며 영창대전에서 단신으로 적진 속으로 몇 차례나 뛰어들어서 갑옷 치마가 피로 물들었으며 영주(안휘성치부현)지방에서도 금나라 군사와 십여 차례 싸워 승리한 많은 전공으로 좌무대부(左武大夫)에 올랐다. 아버지가 진회의 모함에 의하여 처형된 후 운도 진회의 일당인 만후설(萬侯嵩)의 참소에 의하여 아버지와 같이 부당한 죄명으로 처형당하였고, 그 후손이 없다.

둘째아들뢰는 뛰어난 글재주가 있어서 문관으로 23세에 하세(下歲)하였다. 효종임금이 안원군승선사(安遠軍承宣使)를 증직하였다.뢰(雷)의 아들가(珂)도 아버지와 같이 글을 잘하였다.가(珂)는 창덕 또는 탕음에서 살았으며 자는 숙지 호는 권옹이라 하였다.가는 뛰어난 글재주가 있어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고, 영종임금 때에는 가흥군부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권농사를 겸하였다.

가는 그의 할아버지 악비장군이 진회의 모함에 의하여 무참하게 처형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서 금타수편·유천변무집·천정록(金陀粹編·籲天辯誣集·天定錄) 등의 3책을 지어서 영종임금에게 받쳤으며 또 계사·괴담록·구경삼전연혁례(桂史·傀鄰錄·九經三傳沿革例) 등의 여러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들은 그의 할아버지 악비장군이 억울하게 처형된 것을 밝힌 책들이다. 악비장군은 영종임금에 의하여 악왕에 추봉되고 무목이라는 시호가 충무로 고쳐진 것은 이 책들에 의한 것이다.

세째아들 림은 효종 때에 경주(열하성의 임서·경봉 2현과 찰함미성의 북부)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경주도사(慶州道師)가 되어서 지방을 순찰할 때에 노인들이 자제를 데리고 마중을 나와 울면서 “오늘에 다시 공자를 만날 줄 몰랐다”하였으니 이것은 악비장군의 공덕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주에서 군사를 지휘하다 전사하였고, 그 후손이 없다.

네째아들 진은 아버지가 반역자 李成(이성)을 토벌하기 위하여 황매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 어명(고종임금 명령)이 홍주로 진군하라 하므로 그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지방이 다년간 전쟁에 시달려서 민심을 무마시킨 사람이 없으므로 악비장군이 넷째 아들 진을 시켜서 자기를 대신하여 그 곳을 선무시켰다. 그 뒤에 진희의 모해로 악가 일족이 멸망하게 되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여진민간에 숨어 살게 되어 그 후 자손도 영원히 그 곳 사람이 되었다.

다섯째 아들 정은 악비장군의 제2부인 고려인 이충일의 딸 이씨 부인의 유복자로 악비장군이 참형당한 후 영고탑에서 출생하였다.

악비장군의 제2부인 이씨는 이태조의 먼 조상 여열의 아들 충일이 아버지는 죽고 관부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세금관계로 전 가족이 병적에 편입되었다. 만이로 딸 하나를 낳고 늦게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겨우 말을 배울 때에 금인(金人)의 난리가 나자 송나라에서는 고려에 구원병을 요청하므로 충일이 나이 육십에 군대로 끌려가게 되어서 가족들이 우미령까지 따라가서 울음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그 때에 충일의 딸 이씨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늙어서 병환이 심하신데 만리 전장에 나가시니 살아서 돌아오시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아버지가 타국 전장에서 돌아가신다면 내가 아무리 딸자식이지만 아버지의 해골을 찾아 모시고 와야 할 터이니 차라리 내가 남자로 변장해서 군복을 입고 활과 칼을 들고 싸움터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여자인 줄 모를 것이니 한

쪽으로는 나라에 충성이 되고 한쪽으로는 아버지에게 효도가 될 것이다.

이태백의 시에도 ‘십자불여일여영 명수남녀정척일(十子不如一女英 名殊男女情則一)(아들 열이 딸 하나 영특함만 못하니 남녀가 비록 다르나 정은 한가지다)’라고 하였으니 아들과 딸이 이름은 다르지만 정은 일반이니 활을 잡고 싸움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이 있겠나” 한즉, 동민들이 모두 반대하였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여자가 남자로 변장하는 자체가 나라를 속이는 죄가 되므로 대신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딸 이씨는 또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안 가시면 군를 범할 것이고 딸이 아버지를 대신하면 첫째는 나라의 큰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늙은 아버지의 멀리 가시는 수고를 면하게 해드리는 것이니 무지한 말로 나의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한 즉 아버지 충일은 하는 수 없이 대신 딸을 보냈다.

딸 이씨는 악랑(樂浪)에 도달했다. 도원수(都元帥) 이민행(李敏行)이 군대를 점검하다가 충일의 딸 이씨를 본즉, 손에 활을 잡고 허리에 활통을 찻는데 그 자세와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지라, “너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은즉, “청림현(靑林顯) 이충일의 아들이 올시다” 하므로, 군관을 삼아서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 송나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 때 송나라 대도독 악비장군이 우리나라 원수 이민행과 같이 군대를 또 점검하는데 이씨 앞에 이르러서 악비장군이 한참동안 물끄러미 이씨를 바라보고 나서, “어떻게 되어 여자의 몸으로 군인이 되었느냐” 하고 물으므로 이씨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바쳤다.

占戊赴難老爺各 充軍背操細腰躬
羅衣渙着鐵衣寒 塞外行宜男子風

전쟁터에 나가게 된 늙은 아비를 대신하여 군인이 되어 가는 허리에 칼을 차고 등에 활을 졌도다. 비단옷을 찬 갑옷으로 갈아입고 타국 전쟁터

에서 남자의 행세를 하도다.

악비장군은 이씨의 시를 보고 놀라, “고려가 나라는 작으나 충신효자는 중국보다 많은 줄은 알았지만 어찌 여자의 몸으로 이같은 효심과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하며 감탄하여 마지 아니하다가 이씨를 군중에 머무르게 하고 성취하여 제2부인을 삼았다.

그 후 얼마 가지 아니하여 제상 진회의 모해로 이별하게 되어 악비장군은 이씨의 배를 어루만지며 “이씨의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음과 같은 영결의 시를 지어 주었다.

千兵驅處與篤之 百戰軍中俱老期
長脚奸臣說反間 一日金牌來十二

전쟁터에서 서로 만나 백 년을 해로 하자고 약속하였는데 다리 긴 간신의 이간질로 하루에 금패(구속 영장)가 열 두 번씩 오는구나.

이씨 부인은 남편 악비장군이 나포되어 간 뒤에 몸을 지키기 위하여 긴 머리를 깎고 예쁜 얼굴의 오탁하게 생긴 코를 잘라 흉한 모습을 하여 다른 남성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도록 변모하고 영고탑 변수정장 가을일(寧古塔 沔水亭長 可乙一)의 집에 의지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분이 악비장군의 다섯째 아들이며 청해백 5대 조부인 정이다.

정은 영고탑에서 출생하여 어머니 품에서 자라나 성을 악이라 칭하고 여진인들과 같이 황매촌 원(元)때 장수오매촌(長水烏梅村) 현 함경도 삼수지방)에서 살았다. 아들 우(雨) 하나를 두었고, 우는 아들 부해를 두었다.

부해는 금(金)나라의 군관이 되어 성진(함경도 삼수)에 부임하였다.

그후 금(金)나라 정남대장군 이백의 휘하가 되어 수차의 전공을 세워 오

천호의 지휘장이 되었다가 금(金)나라가 원나라에게 멸망되자 부해는 그대로 지방관인 오천호장으로서 티무르(첩목아)라 칭하였고 아들 아보를 두었다. 아보는 하보라고도 칭하며 원나라에 벼슬하여 천호장이 되었고 아들 아원을 두었다.

아원은 원나라에 벼슬하여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이 되었으나 조졸(早卒)하였고, 아들 청해백 이지란이 조선왕조 개국원훈공신이 되자 조선왕조에서 보조공신(補祚功臣) 영의정 청해부원군(靑海府院君)을 추증하였다.

4. 나유(羅流)선생과 수도

청해백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고 몸이 날라서 자연 활쏘기와 사냥에 전력하였는데, 어느날 신인이 장백산에서 내려와서 “너 같은 재주로 장래에 큰일 할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로 산속에서 세월만 보내고, 이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면, 장차 도적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나를 따라서 공부하러 가자” 하므로 바로 따라가서, 산중에 들어가 글공부를 시작해서 두어 달 동안에 배운 글을 거지반 통달하게 되니 선생이 주역을 내어 주며 공부하라는 것이다.

하루종일 연구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선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큰 재주가 아니면 아무리 주역을 배워도 종당은 깨닫기가 어렵다.” 하고 자그마한 책 한권과 활륜도를 내어 주므로 두어 달 동안에 모두 깨우쳐 버렸다. 공부를 끝마치고 서로 작별하게 되자 나유선생이 특별히 엄한 태도로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후일 좋은 창업주를 만나 큰일을 한 후에 틀림없이 인륜의 변이 있을 것이니, 부귀와 영화에 연연하고 탐약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명심하여 비의를 범하지 말라.” 하였다.

이 나유선생은 송나라에서 30여대를 청관으로 지내온 명재상라중소(名

宰相羅仲素)의 후손으로서 송나라가 망하고 원나라의 세상이 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세상을 주류 은거생활을 하던 학자로서 주로 장백산과 만주 영고탑 근방에 살고 있었다.

위에서 나유선생의 엄훈은 후일 태종과 그 부하 군신이 일으킨 소도세자(昭悼世子) 방석(芳碩)의 변란을 지칭한 것으로 이같은 세상사를 예견한 높은 도학에 대하여 실로 경탄하여 마지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고명한 선생에게서 학문과 도학을 배웠으니 청해백의 학문과 도학도 가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청해백은 공부를 마치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왔다가 어머니와 나유선생에게서 들은 선조 악비장군과 6대 조모에 대한 일이 일치하므로 6대 조모가 5대 조부 정(霆)을 낳으신 영고탑을 찾아보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어느 날 요동지방에 있는 정숙지(丁淑池)라는 곳을 지나다가 무인지경인 모래밭에 해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를 살펴본즉 동철 10개가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호기심이 생겨 집어보고 싶었으나 혹 불결한 물건이 아닌가하고 망설이며 또다시 주위를 자세히 살핀즉 사슴뿔로 만든 허리에 차는 물건이 있어 집어 자세히 본즉 고려 북진장군 이행리(北鎭將軍 李行里)라고 글자가 조각되어 있었다. 청해백은 그 해골이 녹각의 주인 이행이 장군임을 즉각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해골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서 마을로 갈 수가 없어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

잠자리도 편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망망한 평야에서 더구나 혼자서 누웠으니 세상만사의 잡념이 꼬리를 이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어떤 노장군이 나타나 하는 말이 “나는 고려장수 북진장군 이행리이다. 타국에서 죽어 오늘까지 백사장에 해골이 유리하여 안식하지 못해 원귀가 되었

는데 그대가 나를 물어주니 이제는 내가 편안히 쉴 수가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대의 은공에 보답하는 뜻에서 내가 지니고 있던, 요락지 백룡(瑤樂地 白龍)의 보물인 동철을 주겠다. 이 동철은 한 번 던지면 용이 되고 두 번 던지면 호랑이가 되며 세 번 던지면 신병이 되어 조화무궁하니 잘 간직하였다가 후일에 나의 후손이 그대 나라의 창업주가 될 것이니 그 때에 잘 사용하여 큰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라.” 하고 사라져 버렸다.

청해백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날이 밝자 동철을 집어들고 꿈에서 들은 대로 시험하여 본즉 과연 꿈에 노장군이 말한 바와 일치한지라 심히 기뻐하며 동철을 품속 깊이 간직한 후 이행리 무덤에 절하고 치하하며 그 자리를 떠나 영고탑으로 가서 선조의 고향을 다녀서, 고향으로 돌아와 무술과 학문을 더욱 수련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5. 양웅의 상봉

북절도사 왕준길이 이태조<이성계>가 용맹하고 재주가 비상하다는 말을 듣고 이태조로 하여금 개강정장(함북온성 유원파수)을 삼았다. 이태조는 임지에 부임하고자 하는 전일 밤에 그 어머니 최씨의 꿈에 백발의 신선이 나타나 하는 말이 “너는 아들이 이번에 멀리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번 행차에 반드시 후일 임금이 될 때에 도와줄 큰 인물을 만날 것이다” 하고 간 곳이 없는지라 아들 이태조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하고 “이번 가는 개강 근처에 후일에 너의 왕업을 보필할 큰 인물이 살고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찾아 깊이 사귀어라.” 신신당부하였다. 이때가 고려 충정왕 2년(1350) 11월 1일이다.

이태조는 현지 개강정장에 부임하여 모든 일을 적절히 처리하고 지내다가 그 다음해 어느날 마침 산에 올라 산천경치를 두루 살피며 변방 수비 방책을 생각하고 있던 중 큰 골짜기에서 한 초부(나무꾼)가 다음과 같은 시를

옳고 있었다.

卞和連城采夫得 齊門笙瑟人誰知
由來蘭菊各有節 不嘆良不虛棄遺
相如佇見赤車迎 李白得揚青雲眉
人生自古達未達 必在時之宜不宜

변화의 아름다운 구슬은 아직 얻지 못하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부는 피리와 타는 거문고를 다른 사람이 어찌 알리오?. 난초와 국화는 각기 절기에 따라 꽃이 피고 좋은 나무는 헛되이 버려두는 것을 탄식하지 아니하도다. 가마상여는 자기를 좋은 차로 맞이하러 오기를 기다렸고 이태백은 스스로 벼슬길에 올라 의기양양하도다. 자고로 인생이 출세하고 못 하는 것은 반드시 때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에 있노다.

이태조는 이 초부가 옳은 시의 뜻이 깊을 뿐 아니라 그 음성이 마치 용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웅장하여 자연 경건한 마음이 생겨 나무꾼 앞으로 가서 초부의 용모를 살펴본즉 외모는 장량·진평같이 선풍도꼴이나 그에게서 풍기는 위엄은 마치 관운·장비 같아 범하기 어려운지라 이에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어머니 최씨의 꿈 생각이 나서 심히 기뻐하였다.

이태조는 초부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청하여 서로 통성명한 후 크게 기뻐하며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바로 나를 도와 창업을 이루게 하여 줄 사람이다.” 하였다.

초부가 대답하기를 나는 “송나라 악비장군 무목왕의 칠세손으로서 선조의 불행한 일로 때를 만나지 못하여 천하를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호지에 살고 있으며, 옛적 일과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대략 말하자면 나의 6대조 악비장군이 송말 간신

진회의 참소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금산사 도단이라는 도승을 찾아가 길흉을 물었더니 그 도승이 점을 쳐서 말하기를 ‘장군과 같이 명성을 떨친 자손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 변방에서 태어나 자란 내가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나는 실상인즉 조선 사람이며 예의를 지켜온 사람의 후손입니다. 늘 강개한 마음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어제 꿈에 머리를 깎은 여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악무목의 처이며 너의 육대조모 이씨다. 나의 친가 후손 중 임금 될 사람이 있으니 너는 반드시 세상을 구제하여 한 나라를 일으킬 재목이 될 것을 명심하라.’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상봉하니 이는 하늘이 시킴이요 우연한 일이 아니다.”고 하였다.

이태조는 글자를 써서 대답하였다. “나의 먼 조상 충일의 따님이 악왕의 제2부인이 되었다가 악왕이 죽은 뒤에 머리를 깎고 현연길현 영고탑에서 살았다 하니 그렇다면 그대와 나는 서로 골육의 정이 있으니 서로 떨어져서야 되겠소.” 하며 이름을 물으니 초부는 말하기를 “처음 이름은 도난(逃難)인데 중국 사람이 나의 상(相)을 보고 나서 두란(豆蘭)으로 고쳐 주었지요. 내가 나서 석달도 못 되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유리표백하며 영고탑(현연길현)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이 동가(修哥)이므로 원나라 풍속을 따라 동가로 행세합니다. 나의 서러운 사정을 말하자니 눈물부터 납니다. 당신은 본래 북방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태조는 한숨을 길게 쉬며 “우리 조상도 환난을 겪은 것이 당신 조상과 비슷하오. 본래 전라도 완산(현 전주)에서 살았는데 집이 점점 어렵게 되어서 육대조가 아무 죄도 없이 사형을 당하시고 남은 식구는 전부 북방으로 도망을 와서 우리 5대조께서 고생하신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국으로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한 즉 초부는 “안 되요. 몽가독

(蒙可毒)이 쳐들어 올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집 주인이 몽고 사람으로서 대열에 같이 왔소. 내가 대신 그 일을 할 것이요. 그 번을 대기하고 강변에 서 있다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몽고 도적놈이 온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 내가 그 소리에 맞추어 강을 건너와서 도와 드리겠다.”고 하였더니 이태조가 청해백의 손을 잡고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 당부한 후 서로 작별하였다.

삼백걸음을 채 못 가서 몽가독의 삼천여 기마대가 뒤로 달려오며 “오늘은 누가 도적놈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이면 우리들이 되려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쫓아와서 이태조가 거의 붙잡히게 되었다.

태조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도 도망칠 수가 없는지라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살아가든 죽든 간에, 이런 때에 요약지의 백용은 안도와 주나” 하고 외치니 도적의 군사가 어느 틈에 세겹으로 에워쌌다. 그 순간에 공중에서 연기 한 줄기가 내려오므로 쳐다보니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공중에서 말하기를 “이공의 재주로 어찌 신병에 겁을 내느냐? 용도가 허리에 있으니 휘두르면 될 것이다.” 하므로 이태조가 그제야 자기 허리를 돌아보니 과연 용도가 차여져 있으므로 칼을 뽑아서 휘두르며 외치니 신병이 저절로 없어졌다.

청해백이 위에서 크게 웃으면서 “왜 그렇게 겁을 내시오.” 하니 이태조가 그 손을 잡고 “그대가 나를 어찌해서 이렇게 속이느냐.” 하고 또 “그 재주는 어디서 배웠소.” 하고 물으니 청해백은 “내가 요동 정숙지를 지내다가 꿈에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고려 북진장군 이행리이다’ 하고 그가 가졌던 패물을 나더러 가지라 해서 배우게 된 것이니 오늘 호병의 변란을 만든 것은 나의 자그마한 재주를 부린 것이요. 실지 호병이 아닌데 당신은 그런 것을 모르는 듯 하니 당신은 소국을 다스릴 작은 그릇은 될 수 있으나 대국을 다스릴 큰 그릇은 못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태조가 웃으면서 “옛 제갈량이 목우유마를 만들어서 군량을 실어 날랐다 하더니 그대의 재주는 제갈량보다 낫다고 할 수 있소. 또 이 신검은 우리 조상의 유물로 이 칼을 그대에게 주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표로 하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시험해 보니 과연 청해백의 말과 틀림 없었다.

이태조는 청해백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오늘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고 서약하기를 “싸움터에서 백 번을 싸워도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자.”고 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돌아가다가 기강을 막 건너려고 하는데 청해백이 홀연 간 곳이 없으므로 이태조가 그 자취를 밟아서 찾아가니 청해백이 왼손을 떼어서 땅에 버려두고 바위속(지금 유덕 동네)으로 들어갔으므로 태조는 참 이상한 재주라고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하고 겁을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과 나는 정의가 골육이나 다를 바 없거늘 이처럼 배신하고 바윗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귀신이나 사람이냐 어쩌서 이같은 약속을 어기느냐?” 그러자 바윗속에서 말하기를 “대장부가 뜻을 이룰때가 아니면 바윗속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태조가 또 말하기를 “당신 손을 땅에다 버린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다시 대답하기를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옛날 류현덕은 나라를 중흥시킨 영웅이지만 제갈량의 초당을 세번이나 찾아갔다. 내 재주가 제갈량만은 못하나 뜻은 제갈량과 같으니 내 손을 가지고 돌아가서 후일에 다시 만날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쓰일 것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 하였다.

이태조는 하는 수 없이 혼자 기강변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기를 “하늘을 떠받치는 지팡이는 동서남북의 사극이요 나라를 떠받치는

지팡이는 훌륭한 장수이다. 역대의 충신과 명장을 추려보면 여왕(厲王)이 무도하여 주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자 윤길보가 떠받쳐서 다시 일어섰고, 환제와 영제가 정치를 잘못해서 한나라가 망하게 되자 제갈량이 떠받쳐서 몇 해 더 지냈고, 안록산의 난으로 당나라가 망하게 되자 이곽이 떠받쳐서 황태자가 다시 일으켜 세웠고, 완안이 난을 일으켜서 송나라가 망하게 되자 한세충과 악비가 떠받쳐서 송나라를 부지하게 했으니, 주나라의 길보나 한나라의 제갈량이나, 당나라의 이곽이나, 송나라의 한·악 같은 이들이 특별히 주나라·한나라·당나라·송나라에서만 태어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아 슬프다. 깊은 산의 나뭇가지가 만약에 굽어서 기둥과 보감이 안 되고, 아래가지는 울퉁불퉁해서 그릇도 못 만들고 차를 만들면 쉬 썩고 배를 만들면 가라앉아 세상에 쓸 데가 없으나,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어 몸을 지탱하면 훌륭하리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칼 한자루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면 길보가 주나라를, 제갈량이 한나라를, 이곽과 한·악이 당과 송나라를, 이렇게 모두 기울어져가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없어져 가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들었으니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내 복에 넘치는 것일까. 정성이 부족한가 대접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 탄식하며 있노라니.

청해백이 뒤에서 꺾꺾 웃으며 “물건으로써 사람을 보면 사람도 한낱 물건이고, 풀이 저절로 흔들리고 꽃이 저절로 피듯이 마침내 사람 오는 것도 모르니 무슨 께가 있겠나, 옛 말에 충신과 양장은 사람의 지팡이와 같아서 위태로움을 건너도 얹어지지 아니하고 험한 데에 빠져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예가 삼고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태가 급박해서 온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몽가독의 만여 기병이 기강에 거의 도달하였으므로 청해백과 이태조가 서로 말하기를 “신병을 강변에 매복시켜서 빨리 쳐부수어야 한다.”

하고 강변에 복병을 배치해 두고 북을 울리고 고함을 치면서 진격하니 만여 호병이 강 한복판에 들어서 모두 귀가 먹고 병어리가 되어서 물에 빠져 죽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강물이 잘 흐르지 못하였다.

이태조는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相顧魚水一席同 去暴除殘笑談中

고기와 물처럼 서로 관계가 깊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에 못된 것을 없이하자고 웃으며 말하고 있다.

청해백이 이에 화답하여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奸巨國賊此可除 丈夫臨危寧有躬

간신과 나라를 쪼먹는 도적은 없이함이 옳고, 대장부가 위태로운 일을 당하면 힘을 다할 것이로다.

이태조가 또 읊기를,

胸中先抱濟世志 夢中飛入潘溪翁

가슴에는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편안히 할 뜻을 품고, 꿈속에서는 세상을 편안히 살고 있도다.

청해백이 또 이에 화답하기를,

生民塗炭豈越視 一去吾能成大功

민생이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으리오.

내가 한번 일어서면 큰 공을 세우리라.

이렇듯 이태조와 청해백은 날이 갈수록 정이 두터워져 골육의 형제보다 더 의가 좋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냥하며 무예를 더욱 수련하였다.

하루는 청해백이 온데간데없이 없어졌다가 이튿날 새벽에 돌아오는지라 이태조는 이상히 생각하여 그 사유를 물은즉 청해백은 “나의 스승이 영고탑(현 연길현)에 계시기에 잠깐 뵈옵고 돌아오는 길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태조는 또 다시 “그 선생이 누구시오” 하고 물었다.

청해백은 “나의 선생은 송나라 명재상 라중소의 후손으로 문옹관 나유선생으로서 세상에 뜻이 없어 주류천하하시며 은거생활을 하고 있는 도학이 높은 분이요. 늘 말씀하시기를, “중국에는 성인이 있고 고려에는 진용이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영고탑 근처 숙릉산에 은거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태조가 손뼉을 탁 치며 “아무리 좋은 재주를 가졌더라도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청해백이 “장수가 되려면 과거와 현재의 사리를 환하게 통달하게 되면, 인(仁)은 문(文)즉 덕(德)과 지(知)를 닦고 의(義)는 무(武) 즉 용기(勇氣)와 의기(義氣)를 길러서 문무겸전(文武兼全)하면, 남의 마음과 수단을 먼저 판단해서 되고 아니될 것을 미리 알면 백만의 적군을 당한들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이태조는 감탄하면서 “형의 재주는 내가 따를 수 없도다.” 라고 말하였다.

이태조는 어머니 최씨 부인을 뵈옵기 위하여 청해백과 같이 밀성산(안산)으로 갔다. 최씨 부인은 아들 이태조를 보고 반기면서 “내가 꿈에 너를 보필할 사람을 만날 것이라 하였는데 과연 그러한 인재를 만났느냐?” 한즉 이태조가 청해백을 만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청해백이 읊은 시를 재삼 암송하여 드렸다.

최부인이 첫 구(句)의 변화련성채미득(卞和連城采未得) 제문생슬인수지

(齊門笙瑟人誰知)를 재삼 음미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기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상여저견적차영(相如佇見赤車迎) 이백득양청운미(李白得揚靑雲眉)를 “이 사람은 심중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며 조선 사람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종구의 필재시지의 불의(必在時之宜不宜)를 “이 사람은 장군의 후예로 너를 도와줄 것을 자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태조가 “어머니는 어찌하여 조선 사람이며 장군의 기상이 있다합니까” 묻자 최부인이 거울(확대경)을 들어 청해백의 얼굴에 비춰 보며 말하기를 “조상중에 명장이 있어 자기 명대로 못살았으며 반드시 조선 사람의 혈연관계가 있을 것이다. 내 나이 많고 병이 있어 사람의 상을 잘 보지 못하여 틀리는 일이 있으나 이번일은 틀림없다.” 라고 하였다.

청해백이 땅에 엎드려 조상에 명장이 있었고 그 경위와 아버지를 일찍 잃고 고생한 일을 말씀드리니 최부인이 같이 환담하며 말하기를 “전일에 읍은 시와 금일에 이같이 모이게 된 것이 다 하느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다.” 하고 사랑함이 친아들 같았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늘 같이 무예를 수련하는데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6. 석왕사

석왕사는 이태조, 청해백, 안변부사의 아들 김인찬공 삼인이 소도원결의 형제를 맺고 조정에 대하여 힘껏 도울 것을 맹세한 곳이다. 청해백은 불교를 숭배했고, 이태조는 함남영흥에서 탄생하였고 함흥에 이사하여 이곳 제일 높은 운주봉 밑 귀주사에서 도를 닦았으며, 김인찬은 안변 작은 절에서 도를 닦는 등 삼인이 다 같은 불교의 신자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사를 도울 것을 이 안변 땅에서 굳게 결의하였다.

이태조가 소년시절에 이곳을 지나다가 작은 암자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 꿈이 왕이 될 꿈이었다. 또 청해백이 이태조와 같이 기강에서 맞아 의형제가 된 후 같이 고향인 북청에 와서 궁술을 수득하고 개경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 이곳 작은 암자에서 잠을 잤다. 이 때 꿈에 한 중이 와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장군께서는 장래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돕고 있으며 이 나라 최고의 장군이 되시며 일등공신이 될 분이옵시다” 하고 금도를 주면서 “대사를 성취하신 후에 이곳에 절 하나 이룩하소서” 하는 말에 깨고 보니 꿈이었다.

이상히 생각한 청해백은 이태조와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한즉 이태조도 역시 소년 시절 이곳을 지나다가 작은 암자에서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말이었다. 이태조의 꿈은 등에 서까래 세개를 진 것을 보았고 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마침 그 절에 파자점과 해몽을 잘하는 도승이 하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신수점을 쳐달라고 하였던바 그 중은 태조를 보고 합장재배하면서 “좌우로 보아도 임금이 되실 신분이 옵시다” 하였다. 이 두 형제의 꿈이 일치되자 청해백과 태조는 그 중의 말이 근사한 말이라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하였다.

그 후 청해백과 이태조는 그 중을 다시 찾아가서 해몽을 요구하였다. 그 중은 두 형제에게 재배하면서 “소승의 범명은 무학이옵니다. 소승이 용우하오나 약간 법술이 있사와 오늘 귀인이 강림하실 줄까지 알았습니다. 근심마시옵고 대사를 성취하신 후 절하나 지어 천세를 축수하는 원당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다. 이때에 이태조와 청해백은 그제야 무학이 보통 승이 아님을 알고 엄숙하게 합장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같은 불교의 신자였음으로 후일 뜻을 성취하면 꼭 원당을 그 자리에 신축하리라 마음먹었다. 과연 그 뒤에 조선왕조를 창건하고 청해백은 개국일등공신이 되었다. 청해백은 전일 안변에서의 일을 생각하

고 다망중인 이태조에게 여쭙어 조정에서 관리를 안변에 보내어 무학대사와 상의하여 그 암자자리에 절을 짓고 절 이름을 석왕사라 하였다. 그 후 무학대사를 종종 조정에서 불러 국사에 많은 도움을 보였다. 이리하여 석왕사란 뜻은 이태조가 임금에 될 꿈과 청해백이 일등공신이 될 꿈을 해석했다는 데 기인한 것이다.

7. 소도원 결의

청해백과 이태조는 의지상합(意志相合)하여 서로 큰 뜻을 품고 중원을 도모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중국은 원(元)나라가 쇠약하여지고 강남에서 주원장(朱元璋)이 일어나 오(吳)나라를 세우고 그 세 날로 강성하여 점점 북상하고 있었다.

이에 두 영웅은 우선 혜성같이 나타나 중국을 휩쓸며 도처무적으로 원나라를 치며 북상중에 있는 주원장을 한번 만나 보기로 하고 천리준마(千里駿馬) 두 필을 구하여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중국 낙양에 가서 중국 군복으로 변장하고 명진중(明陣中)에 잠입하여 주원장의 기상을 엿보니 과연 용안에 의표가 늠름하여 천자의 기상이 뚜렷한지라 이태조는 진 밖으로 나와 “내가 이제야 천자가 될 사람이 기상을 알았다” 하고 두 사람이 다같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고국의 산천과 인물을 찾기 위하여 두 사람은 개경을 향하여 길을 떠나서 상경하던 중 안변 석왕사 근처 대로변에서 조반을 객주집에 청하였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쌀은 있으나 반찬이 없다”고 하였다. 이태조는 “밥이나 많이 지어 달라” 하고 활을 메고 밖으로 나갔다. 마침 동구 박뽕나무에서 두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가는지라 활을 당기며 살을 쏘았다. 살 한대에 비둘기 두 마리가 한데 꿰어져서 떨어졌다.

이때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안변부사의 아들 김인찬이 그 활숨씨에

감탄하여 극구 칭찬하며 이태조에게 정중히 경례하면서 자기의 성명과 신분을 밝히며 통성명을 청하므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삼인이 동석하여 한담하던 중 서로 의지상합하여 삼인이 결의형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때마침 삼춘가절이라 객주집 후원에 도화가 만개하여 도원경을 이룬지라 세 사람은 옛날 중국 후한말시대(後漢末時代)의 류현덕·관운장·장비 세 사람의 도원결의를 연상하며 의식과 절차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고천문을 낭독하고 결의형제하였다. 후세에서 이를 소도원결의(小桃園結義)라 한다.

上天文

一體三人一世同 一生苦樂一心中
才疎敢望三千弟 身老願從八十翁
濟世安民其就任 尊君立紀有吾躬
關張之誼皆知己 豈爲他年竹帛功

세 사람이 결의(結義)하여 한 세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살자.

재주가 없어 감히 공자(孔子)는 바랄 수 없으나 몸은 늙어서 강태공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을 바로 잡고 백성을 편안히 함에 그 맡은 바 힘을 다하고 임군을 높이 받들고 기강을 세움에 내 몸을 바칠 것이다.

세 사람이 결의형제되어 서로 믿고 알아주는 데 있고 어찌 후일에 큰 공을 세워 사기에 공을 기록함을 위함이리오.

이 글은 후세에 높이 찬양되고 전하여 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나이로 청해백·이태조·김인찬(忠民公益和君安城伯)의 순서로 위차를 정하고 그 후 삼인이 늘 같이 동고동락하며 합심협력하여 행동하였다.

8. 적지의 용<전설>

청해백과 이태조는 청년시절 함북경흥에서 무술연마를 하며 상호 친밀하게 지내던 그 어느 날이었다. 이태조 모친 최씨의 꿈에 신선이 말하기를 “북해 흑룡이 백룡이 사는 요락지를 빼앗으려고 날마다 성가시게 구니 거들어 주면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하고 사라지므로 꿈에서 깨어 이태조에게 말했다.

이태조와 청해백이 활을 끼고 무자년(戊子年) 7월 13일 만고봉(富寧綱川峯臺)으로 올라가 용의 동정을 살핀즉 사방이 고요하고 아무 종적이 없더니 갑자기 찬바람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이 사방을 덮고 북해에 파도가 험악하고 비바람이 삼대같이 쏟아지고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산더미처럼 일어나는 중 용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므로 풀 속에 엎드려서 멀리 바닷가를 바라보니 요락지와 의 거리가 불과 20여리 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치면서 못으로 뛰어들어 서기가 번쩍나며 별안간 요락지의 물이 하늘 높이 끓어 올라오고 새와 짐승들이 떼를 지어 짓으며 뛰어다니는 한편 물속에서 이를 가는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다.

이태조와 청해백이 풀 사이로 가만가만히 걸어서 거의 못 가까이까지 간즉 흑룡이 길다란 뿔과 어금니를 물 밖으로 내밀므로 청해백은 활을 힘껏 당겨서 흑룡의 양미간을 쏘아 맞히니 흑룡이 고개를 숙여 꼬리를 늘어뜨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므로 이태조가 뒤미처 쏘아서 비늘 밑을 맞히니 흑룡이 굽이를 치며 피를 내뿜어서 못물이 다 붉게 되자 흑룡은 뛰어서 북해로 되돌아가니 바람도 그치고 비도 멈추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해졌다.

이태조가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최씨는 “그럴줄 알았다” 하시므로 청해백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하고 물은 즉 “천문을 보니 관양성이 변해서 죽은 용성이 되므로 알았노라” 하였다.

또한 이태조의 꿈에 용이 사람이 되어 “내가 형세가 급박해서 시각을 다 투었는데 다행히 나를 도와주어서 나 있는 장소를 보전하게 되었으니 그 은

공을 후하게 갚겠노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룡은 요락지를 차지하고 동해바다로 꼬리를 쳐나가 도통 승천함으로써 뒷날 이태조를 용상에 오르게 하였고 자신의 위력만 믿던 청해백 선조의 웅기를 탄 흑룡은 그 자손의 화살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아픔에 꼬리를 쳐나간 강물의 굽이가 99굽이요, 그 흑룡의 피가 흘러 붉게 물들었다 하여 후에 요락지를 적지 높이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다.

II. 남정북벌

1. 고려 군제

이자춘은 이태조의 부친으로서 함주에서 출생하여 변방수호에 공이 있어 공민왕 10년(1361) 2월에 동북면병마사로 승진된 고려말의 명장의 한 사람이다.

청해백과 이태조가 결의형제를 하였으므로 늘 이자춘의 휘하에서 크고 작은 군무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영웅을 앞에 둔 이자춘은 어느 전쟁에서도 패하는 일이 없어 명성과 지위가 날로 높아져 공민왕 10년에 동북면병마사가 되었다.

그 당시에 고려의 군사제도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군사제도와 달리 가병 제도로서 무인이 되면 자기 집에서 가병을 많이 둘 수가 있고 그 지위에 따라 군인의 수가 증감되게 되어 무인정치를 하고 있어 전공기록에도 그 가장 ○○○외 ○○인이라고 하였다.

2. 몽가독 격멸

공민왕 5년(1365) 몽가독이 박달천이란 별호를 가진 왜놈 우영이란 자를 장수로 삼아서 광성(匡城)으로 몰래 쳐들어 왔다. 이 우영이란 자는 자칭 진인으로 천리밖을 내다본다 하며 세상에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조선을 빼앗으려고 대군을 칠저(선성에 있는 운부락)에다 집결시키고 몽가독과 꾀를 꾸몄다.

“지금 천하가 서로 싸우고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천하가 한 사람의 차지가 될 것이니 우리가 조선부터 먼저 빼앗으면 모린위(여진땅:명태조가 여

기에 있었음)는 조선에서 거리가 백리도 못 되니 며칠 안 가서 그곳마저도 차지하게 되리라” 하였다.

이때에 이관(李貫)이란 사람이 나서서 “이제 상의한 일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내가 천문을 보니 은하가 맑고 탁한 기색이 없으니 중국에 성인이 나와 있고, 조선에 명장이 있으니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였더니 우영이 쫓아와서 이관(李貫)을 죽이면서 “어저께는 길하고 흉하지 않다 하더니, 이제 행군하는 마당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하고 행군을 계속했다.

이때에 절도사 강안민이 삼천 병력을 거느리고 이에 대비하여 강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태조를 초관으로 삼고 청해백은 서기로 삼았다. 두 분이 떠나갈 때에 최씨가 적색돌 4개를 두 분에게 나누어 주면서 “후일 만드시, 위급한 일이 있을 터이니 이 돌로 길을 막고 도망을 가면 살길이 생길 것이다” 하므로 그대로 하였더니 적군이 크게 놀라서 “앞에는 높은 성이 있고, 뒤에는 100척이나 되는 깊은 못이 있으니 우리 군대가 멸망할 징조이다” 하고 물러가 버렸다.

3. 홍건적 격퇴

공민왕 8년(1359) 원나라가 점차 쇠퇴하게 됨에 따라 중국 각 지방의 군도(群盜)가 봉기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유복통이라는 자가 요술로 민심을 현혹케 하고 도당을 모아 수십만의 군중을 거느리고 산동지방에 웅거하여 그 형세 매우 강성하였다.

그해 2월에 고려에 글을 보내오고 12월에 모거경이라는 장수에게 군사 4만을 주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정주·인주를 거쳐 철주를 점령하고 서경(평양)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고려조정에서는 모든 군병과 승병을 모집하여 이를 대적하였다. 그 때에 이 적도들은 모두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홍건적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해 공민왕 9년 정월에 이방실·안우로 도원수·부원수를 삼고 지회사 김득배, 서경류수 이춘부, 서북면안무사 이인재 등이 서경을 회복하고 2월에 홍건적을 대파하였으므로 패잔병의 홍건적은 전부 압록강 이북으로 도주하였다.

그 다음해 공민왕 10년(1361) 2월에 이태조의 부친 이자춘이 동북면병마사가 되었다.

그해 10월에 이태조와 청해백은 독로강 만호 박의를 정벌하여 포살하고 회군하려는데, 작년에 패주한 홍건적이 원한을 풀기 위하여 주원수라는 자에게 군사 10만을 주어 다시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범하여 삭주를 함락시키고, 11월에 절령책을 점령하였다.

고려 공민왕은 회군중에 있는 이태조에게 금오상장군 겸(金吾上將軍)겸 서북면병마사를 봉하고 홍건적 주원수의 군사를 맞아 공격하게 하였다. 이태조는 청해백으로 선봉장을 삼아 적군과 싸우게 하였다.

주원수는 청해백과 이태조의 군대와 마주 싸워 창성·삭주에서 수차 패하여 왕원수를 잃고 군졸 1000여명과 장수 10여명을 잃었다. 이같이 전세가 불리하여지자 주원수는 피를 내어 수십처에 진을 치되 허장성세로 기치창검을 많이 꽂아 놓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병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알도록 하여 놓고 다른 길로 우회하여 바로 개경으로 쳐들어갔다.

공민왕은 일선에서 승전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수도방위에 아무 준비도 아니하고 무심이 있다가, 별안간 주원수의 적군 10만여명이 쇄도하여 도성을 포위 공격하게 되자, 고려의 왕 이하 여러 중신 등 모두 당황하여 개경을 버리고 남하, 복주(현 안동)로 내려갔다.

적장 주원수는 힘도 아니 들이고 개경을 점령한 후 부고를 열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궁녀를 모두 겁탈할 뿐 아니라 민간의 재물과 부녀자를 노략

질하여 궁중에 두고 민가에 있는 소와 말을 모두 약탈하여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겹겹으로 이어 군장처럼 둘러치고 물을 끼얹어 빙성을 이루고는 그 속에서 풍악을 울리며 술을 마시고 진탕치며 놀았다.

황주·평양·안주 등 후방에 진을 치고 있던 장수 안유·김득배·정세운·이방실 등이 개경이 함락되었음을 듣고 모두 패한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도성을 행하여 올라왔다. 그러나 도적의 흉폭한 형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성 밖 십리에 진치고 있었다.

이때에 평안도 영변에서 이태조와 청해백은 적병이 허장성세로 거짓 진세를 벌여 놓고 다른 길로 우회하여 개경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적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주야 배도로 회군하여 개경 근처에 도달하니 성 밖에 둔취하여 있던 제장이 금오상장군(金吾上將軍)의 기를 보고 반가히 영접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영접나온 장수에게 적세를 물은즉 그 장수가 하는 말이 “적병은 현재 성 안에서 가진 악행을 다하고 그 군세가 강하여 감히 접전을 못하고 있노라” 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그 장수를 꾸짖어 말하기를 “적병이 두려우면 오지 않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왔으면 싸워야 마땅하거늘 오기는 왔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적병이 저절로 죽기를 바라는가? 임금님이 몽진하시어 밖에 계신데 신하된 도리로 어찌 이같이 한만하며 또 무서워하는가? 무서워서 감히 싸우지 못하면 이는 도적에게 약함을 보임이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한가” 하고 곧 기치를 정제하고 북을 울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때에 청해백은 선봉장으로서 장검을 휘두르며 동문으로 쳐들어가며 제장들로 하여금 남문과 북문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에 적병은 고려군이 성 외 십리에 둔취하여 있고, 감히 접근하지 못함을 보고 업신여겨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질탕히 놀며 방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별안간 고려군이 성을 사면에서 포위하고 공격함을 알고 술취한 군사를 지휘하여 대적하려 하니 그 군대의 대열이 제대로 정돈될리 만무하다. 질서없이 제멋대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고려군의 선봉장 청해백은 운제(구름 사다리)를 성에 걸쳐놓고 장검을 휘두르며 성벽위에 뛰어 올라가 성첩을 지키고 있는 적장의 목을 한칼에 쳐 버리니 고려군의 사기가 충천하여 성내로 쳐들어가서 동문을 지키는 적군을 전부 무찌르고 동문을 만개하고 고려군을 맞아들이니 고려군사는 함성을 지르며 물밀 듯 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때에 청해백과 이태조는 말을 타고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진격하였다. 이 찰나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던 홍건적은 대열이 혼란하고 기강이 문란하여 지휘계통이 서지 아니하여 제대로 항거도 못하고 있는 중 여러 곳에서 공격하던 고려군은 성첩을 넘어 성(城) 안으로 물밀 듯이 쳐들어왔다.

청해백은 선두에서 활을 쏘아 화살 한 대 날으면 적장 한사람씩 죽어갔다. 그렇게 되니 고려군은 사기충천하여 창과 칼·철편(쇠도리깨)을 휘둘러 적을 시살하니 1명이 적 100명을 당하는지라 적의 시체가 산같이 쌓이고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다.

이 싸움에서 적장 주원수의 부장 사유와 판선생 등이 모두 청해백과 이태조의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외의 장수는 다른 고려 장수들에게 죽게 되자 적병은 통솔자를 잃고 자상 천답(自傷踐踏)하며 우왕좌왕하고 갈 길을 잃고 아비규환하여 생지옥을 이루었다.

이 광경을 본 이태조와 청해백은 군령을 내리되 “궁적물추(窮賊勿追)라 저렇게 궁지에 몰린 무리를 마구 치면 도리어 우리 군사가 많이 상할 것이니 도주할 길을 일부 내어 주라” 하고 북쪽으로 탈주할 길을 열어 주었다. 이리하여 홍건적의 패잔병은 활로를 찾아 구명도생(求命圖生)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달아나 압록강 이북으로 도주하였는데 도중에서 많은 아사자와 동사자의 시체가 길에 깔리었다.

그런데 이번 홍건적의 침입의 군세를 한국사연표에는 1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동국야사에는 15만이라 하였으므로 정사의 기록대로 10만명으로 기록한다.

홍건적이 대패하고 개경이 수복되자 공민왕은 북주로 부터 개경으로 환도(還都)후 논공행상할 때 평장사 김용이란 자가 거짓말로 정세운·안우·이방실 등 무인 원로급 인물을 참소하여 전쟁의 책임을 지워 주었다.

4. 납합출(納哈出) 대파

고려 공민왕 8년부터 11년(1359~1362) 정월까지 3년간 홍건적의 침입으로 국력이 심히 피폐하여지고 또 겸(兼)하여 간신 김용의 참소로 무인의 원로 중신급이 처형되어 국방력이 심히 허약하여졌다.

이때를 틈타서 원나라 벼슬아치에 붙어 동쪽을 깃뚫던 조소생·탁도경이라는 자가 공민왕 5년(1358)에 쌍성이 함락되어 원나라 세력이 북으로 쫓겨나자 처자를 버리고 야간도주하면서 변양에 있던 원나라 장수 납합출을 유인하여 공민왕 11년 2월에 삼철 흘면 등지에 침입하니 그 군세 매우 강성하여 그 지방의 수비관원이 모두 패하자 동북면지방이 거의 적지가 되었다.

원나라 장수 납합출은 삼철 흘면(홍원)을 점령하고 남진하여 함관령을 넘나들면서 함흥평야를 엿보고 있었다. 공민왕은 또 다시 이태조에게 납합출을 평정하라는 출정명령을 하였다. 이태조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개경을 떠나 북진하여 그해 7월에 의주(덕원)땅에 당도하였다.

이때에 막하 장수 4~5명만 인솔하고 급히 북진하는 중이라 청해백과 같이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의주(이곳은 이태조의 고조 이안사(목조)가 전주

에서 강원도 삼척을 거쳐 해로로 북상하여 첫발을 디딘 곳이다)의 푸른 산과 맑은 바다를 대하니 자연 조상들의 감회를 이야기 하며 서서히 말을 몰고 북상하여 화주에 당도하자 함주에서 내려온 영접부대의 마중을 받았다.

이튿날 새벽에 관동수(성천강)를 건너 함주에 도착하자 즉시 군영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적정을 파악한 후 우선 군량의 준비를 명령하고 “전군에 충분한 급식을 하도록 하며 군량에 대하여 부정한 일이 생길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령에 처한다”라는 포고령을 발하였다.

이태조는 다시 막료회의를 열고 전략을 검토한 후 어둠이 깔리자 휘하장병 만여명이 행동을 개시하여 비밀리에 관동수우안(關登水右岸)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이회를 불러 “이장군은 즉시 부하 300명을 인솔하고 도연포(서호진) 해안에 가서 포진하되 관동수 좌안을 따라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은밀히 행동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군고를 총 동원하여 요란하게 울리고 군막을 내리쳐서 허장성세하여 대병력이 새로 상륙한 것처럼 가장하라” 지시하였다.

이태조는 청해백 이하 막료들과 같이 정예 100여기를 이끌고 함관령 동쪽 덕산에 이르러 10개 반으로 분대 남쪽기슭 전역에 퍼뜨려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가장하여 끊임없이 왕래하고 자신과 막료들은 함주 홀면 가도를 따라 적진 바로 앞까지 진출하여 적정을 살피고 날이 밝을녘에 본영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적(敵)은 날마다 계속되는 이 작전에 적 납합출은 대부대의 출동으로 오인하고 함관령 이북에서 대책을 강구하노라 시일이 지연되었다. 한편 고려군은 그 사이에 군량을 충분히 준비하여 군사에게 충분한 급식과 휴식을 주어 사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일의 지연작전과 아울러 현지 징집과 한편 청해백은 여진인을 규합, 응원병을 모집 충원하여 군세가 대진하자 총동원령을 내려 관동수를 건너 공

격태세로 들어갔다. 이때에 납합출은 고려군의 기선을 제압하고자 나연을 주장, 백안을 부장으로 하여 병력 1천을 주어 선봉을 삼아 함관령을 넘어왔다. 고려군은 압도적인 다수의 병력으로 일격에 전멸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납합출은 대노하여 즉시 진군, 그날 밤으로 함관령과 차유령까지 진출하고 지휘본부를 덕산골에 두었다. 고려군은 밤에 험준한 산길을 넘어 피로에 지친 그들에게 숨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납합출의 지휘본부를 야습하여 짓밟아 버리니 납합출은 잠결에 별안간 야습을 당하였으므로 수습할 도리가 없어 10여기를 거느리고 도망하여 달단동(홍원 남방 진진근처)으로 돌아갔고 고려군은 사읍동에 주둔하였다.

납합출은 심양(봉천)을 떠나 고려 동북면의 중심지를 점령하니 산수가 아름답고 동해에서 나오는 생선과 맑고 푸른 동해의 경치는 심양에서 맛볼 수 없는 절경이며 일기가 온화하여 영주할 마음으로 함관령 이북을 모두 점령하고 달단동에 사령부를 설치한 후 가족을 전부 불러다가 새로운 환경속에서 호화로운 생활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태조가 인솔한 고려군에게 거듭 참패를 당하니 심히 불안하였다.

수차에 걸쳐 승전한 고려군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함관령 남쪽 기슭에 포진, 정예부대 천여기를 인솔하고 청해백을 선두로 이태조는 함관령을 넘어 납합출의 본영 앞에 진출하여 적세를 살피니 적은 진형을 정비, 임전태세로 대기하고 있다가 고려군의 진출을 맞아 서로 싸우다가 이태조는 거짓 후퇴하였으나 적병은 추격하지 않아 유인작전에 실패하고 다시 함관령을 넘어 본영으로 돌아왔다.

고려군은 다시 정주까지 후퇴하여 비밀리에 군세를 정돈하면서 “고려군은 적병보다 수가 작아 연전연패, 군세가 몹시 피로하여 재차 싸울 힘이 없어 후퇴, 정주에서 양병중이나 너무 군세가 약화되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이때에 납합출은 비밀히 척후병을 보내 고려군의 군정을 살피니 모든 척후병의 보고가 전부 일치되는지라 이 땅을 영원히 점령하여 군림하기로 결심하고 함주로 내려와 본영을 설치, 주민을 무마하여 권농과 선정을 베풀었다.

정주까지 후퇴한 고려군은 납합출이 함주로 남하 포진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함주 평야에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일대결전할 계획을 수립, 좌우중 삼대로 편성하여 좌군은 청해백 인솔하에 성곶, 우군은 이희가 인솔하고 해안을 따라 도련포, 중군은 이태조 직접 인솔하에 송두를 경유하여 각각 서남 양면으로 적을 포위할 태세로 진격하였다. 이때에 납합출은 복산 서단에서 응봉에 이르는 선에 포진하고 고려군이 관등수로 도강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였다.

관등수를 도강한 고려군은 배수진을 치고 선봉장 청해백과 이태조는 진두에 나섰다. 적진에서 준마를 탄 3명의 장수가 육박하여 왔다. 이때에 이태조와 청해백은 싸우지 아니하고 말을 돌려 후퇴하니 적장은 다급하게 추격하여 왔다. 도중에서 옆길로 빠지는 척하다가 별안간 말을 돌려 정면으로 대립하니 적장의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고 곤두서는 순간 청해백과 이태조의 활에서는 화살이 날아 적장을 명중하니 세 장수 모두 낙마하여 죽어 넘어졌다.

고려군은 소단위로 군대를 편성한 수많은 부대들이 분산 돌진하여 나오고 납합출의 부대는 전 전선에 걸쳐 충공격령이 내려져 노도와 같이 총 공격을 가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군은 정면충돌을 피하고 이리 저리 사면팔방으로 뛰어 달아나기만 하니 적군도 자연 소부대로 분산되어 맹렬히 추격, 쫓기는 고려군과 쫓는 적군은 개미떼같이 퍼져 넓은 함주평야 전역에 걸쳐 짹 깔려 버렸다.

납합출은 수적으로 배나 되는 군세로 이번 한번에 총력을 경주하여 고려

군 전 병력을 제압, 관등수에 쏘아 넣을 계획이었으나 전쟁이 예상외로 분산되어 질서없이 혼돈 되므로서 작전지휘를 할 수 없게 되니 납합출도 별수 없어 소부대를 인솔하고 돌진하며 고려군의 일개 소부대를 진격하여 운흥곡에 이르자 숲속에서 복병이 일어나 측면에서 공격하고 쫓기던 고려군이 되돌아 반격하니 자연 포위망에 싸였다.

납합출은 분전하여 겨우 사, 오기와 더불어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북산에 올라 전황을 주시하니 고려군은 이리 저리 뛰면서 적군을 유인하여 함정에 몰아넣고 적병을 몰살하는 작전계략에 빠진 것을 알았으나 함주평야 전역에 퍼져 있는 혼전을 수습할 수 없어 무참히 죽어가는 부하를 구할 길 없어 탄식만 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납합출의 2만 군졸이 거의 전멸되고 살아남은 3백여 명의 패잔병은 군기를 버리고 덕산골을 향해 도주하는지라 납합출은 부하들을 시켜 가축을 데리고 뒤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패잔병을 수습하면서 호연천을 따라 곧바로 북상하여 토끼령을 넘어 심양으로 도주하였다.

동북면 지방이 평정되어 민정을 수습하고 승전 축하연을 베풀어 병사를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태조는 만족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제장을 돌아보며 “말을 달리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두란(청해백)장군을 따를 사람은 더러 있겠지만 전장에서 대적을 쳐 부수는 전략을 세우고 적을 쳐 부수는 일에는 두란장군을 따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며 청해백에게 술잔을 권하였다.

그 후 납합출은 고려에 출병하였던 것을 후회하고 사람을 보내 공물로 말과 소(우) 북을 바치며 소인의 말을 잘못 듣고 이번 침범한 죄를 사죄하면서 앞으로 우의 좋게 우방으로서 영구히 친선할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5. 덕흥군(德興君)의 난

덕흥군은 고려 충선왕의 서자(庶子)이며 공민왕의 서삼촌숙(庶三寸叔)

이 되는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라는 자로서 고려의 왕위 계승을 은근히 바라고 있던 중 충정왕 3년(1351) 10월에 공민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불평을 품고 원나라로 도망하여, 전년에 원나라로 망명하여 간 최유형제를 만나 갖은 재주를 다부려서 원나라 황제에게 공민왕의 실정을 참소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중신급인 김용 등과 내통하여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약속하였다.

김용(金鏞)등은 덕흥군(德興君)의 입국을 반대한 중신급중 안우(重臣級中 安祐), 이무실, 정세운 등을 모함하여 죽이고 공민왕 12년 3월에 왕이 홍왕사행궁에 행차한 틈을 타서 비밀히 군대를 동원하여 행군을 범하였다가 최영장군에게 나포되어 유배되었다가 참수되었다.

최유는 계속하여 원나라 조정에서 공민왕을 참소하여 원나라 황제로부터 덕흥군을 고려왕으로 봉하는 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때의 중국의 정세는 각처에 군웅이 봉기하여 각 지방을 움거하니 원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위령이 잘 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판국에 고려인들 그 명령이 잘 통할 리 없다. 그리하여 덕흥군의 입국을 거부하고 전국의 군대를 서북면 지방에 집결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니 새로 임금에 임명된 덕흥군은 하는 수 없이 원나라에게 부탁하여 원나라 군사 만명을 빌어 최유로 원수를 삼아 그 다음해 공민왕도 12년 12월에 요동에 와서 진치고 평화적인 교섭을 하였으나 고려에서는 불응하였다.

그 다음해 공민왕 13년 정월에 최유는 원나라 군사 일만명을 인솔하고 덕흥군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 땅으로 입국을 강행하였다.

고려의 도원수 최영(崔瑩) 이하 제장은 원나라 군사를 상국의 군사라 하여 감히 맞아 싸우고자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때에 청해백과

이태조는 개연히 부르짖기를 “전장에서 용기가 없으면 효도가 아니고 임금을 섬김에 몸을 아끼면 충성이 아니다. 공(公)등은 어찌 충효를 돌아보지 않느냐” 하고 외치고 앞에 나가 맹렬히 최유와 덕흥군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이에 용기를 얻은 고려의 군사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원나라 진중을 향하여 진격하였다. 이때에 청해백은 선두에서 적장 네 사람을 활로 쏘아 죽이고 무인지경 같이 적진으로 쳐들어가니 적군은 상국의 군대라는 위세만 믿었으나 워낙 군사의 수가 월등한 차이로 도저히 대적이 되지 못하여 궤도하고 덕흥군 최유 등은 원나라로 도망하였는데 원나라에서 최유의 죄상을 알고 그해 10월에 최유를 잡아 고려로 압송하여 처형하였다.

6. 삼선 삼개

고려 공민왕 13년(1364) 정월에 삼선·삼개 형제가 동북면 지방에 입구(入寇)하여 화주 이북을 점령하였다. 이 삼선·삼개는 이태조의 조부 이춘의 외손자이며 이태조와는 내외종사촌간으로서 여진땅에서 자라났다.

삼선·삼개 두 형제는 늘 철령이북을 점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중 고려조에서는 원나라에서 새로 임명한 공민왕의 서삼촌숙(西三寸叔)인 덕흥군이 원나라 군사 일만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고려군과 일대접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해백 이태조 및 기외 국내명장이 총동원되어 서북면 방어에 임하고 있는 틈을 타서 여진족의 군사를 이끌고 대거침입하여 홀면(홀원) 삼산(북청)을 거쳐 함주를 함락하고 남하하였다.

이 땅을 수비하던 김이도·이희 등은 패하여 군사를 버리고 도망하고 도지휘사 한방신, 병마사 김귀(金貴)도 화주(영흥)로 진군하였다가 삼선·삼개군에게 대패하고 철관(덕원)으로 후퇴하여 원군을 보내 달라고 조정에 주달

하였다.

이때에 고려조에서는 덕흥군의 난을 평정한 이태조에게 또 다시 삼선·삼개의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출정명령을 받은 이태조는 선례대로 청해백을 선봉장으로 삼고 서북면에서 동북면으로 진군하여 철령에 이르러 거기에 있던 도지휘사 한방신과 병마사 김귀(金貴)와 만나 적세를 탐문한 후 군대를 삼면으로 쳐들어가 화주·함주 등을 전부 회복하고 삼선·삼개는 패주하여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7. 동녕부 격파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망하여 가고 명나라가 신흥함에 따라 고토를 회복할 생각을 가지고 친명정책을 세우고 공민왕 17년(1368) 11월에 명태조에게 사신을 보내고 그 다음해 4월에 명나라로부터 사신(설사)가 오고 5월부터는 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교하는 한편 의주·이성·강계 등지의 국경지대 수비를 강화하고 12월에 원수 이태조를 보내어 동녕부를 공격케 하였다.

이태조는 출정명령을 받고 청해백으로 선봉장군을 삼고 길일을 택하여 출정하는 날 밤에 홀연히 붉은 기운이 하늘에 사무쳤다. 공민왕은 그 기운을 바라보고 좌우를 돌아보며 저 기운은 장수의 기운이다. 내가 이원수를 동령부로 보냈으니 “저 기운이 나타난 것이다. 이원수는 과연 하늘이 낸 명장이로다” 하였다. 그러나 이 기운은 명장의 기운이 아니라 왕기라고 후인들이 말하며 공민왕의 어리석음을 조소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행군하여 동녕부에 이르러 진을 치고 싸움을 시작하였다. 동녕부를 수비하고 있던 장수 울로첩목아(將帥 兀魯帖木兒)가 나와 청해백과 맞아 싸웠다.

이때에 이태조가 장대에서 두 장수의 싸우는 광경을 보니 적장 올로첩목아가 효용이 절인(絶人)하므로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을 생각을 하고 그가 모르게 가만히 살의 촉을 빼고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를 쏘았다. 적장은 화살을 7대나 투구에 연속적으로 맞아도 다치지 아니함을 이상히 생각하고 그 화살을 본즉 촉이 없는지라, 이는 저를 아끼여 죽이지 아니한 것인데 만일 이 뜻을 거역하면 진짜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 생각하고 즉시 말에서 내려 항복하며 땅에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소장이 금일에야 하늘같이 높으신 장군을 뵈옵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소장도 원래는 고려인(高麗人)이오니 부하(部下)에 두시면 건마의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태조는 혼연히 적장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후일에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는 이태조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워 북면병마사만호가 되었다. 올로첩목아(兀魯帖木兒)가 항복한 후에도 동녕부의 수장 고안례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성문 문루에 올라앉아 군졸을 지휘하여 항전을 계속하는지라 이태조는 가만히 활을 쏘아 살 3대를 모두 고안례의 면상에 맞혔다. 적병들은 그 광경을 보고 탈기되어 전의를 상실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였다. 그러나 고안례는 원래 용력이 과인하여 살 3대를 맞고도 살아서 도망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동녕부를 공취하고 이태조는 회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나라와의 단교를 명나라에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다음해 공민왕 19년 정월에 무라산성(無羅山城)을 공격하여 승전하고 다시 요양까지 공파하여 친원세력의 근거지를 모두 격파하고 그해 7월부터 명나라 연호(年號) 홍무(洪武) 2년을 사용하였다.

8. 고려의 여진 병합

공민왕 17년(1368) 중국 명나라 홍무(洪武) 원년(元年)에 오왕 주원장은 원나라를 공격하여 중원에서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내고 정월에 국호(國號)를 명(明)이라 하고 스스로 제(帝)라 칭하여 천자가 되고 원나라는 도읍(都邑)을 대도(大都)로 또 다시 개평(開平)으로 또 다시 응창등(應昌等) 북방으로 쫓겨 갔으므로 세상에서 북원이라 불렀다.

북원은 이같이 국운이 쇠퇴하여지자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명장을 찾던 중 청해백이 원래 여진 땅에서 성장하였고 그 아버지 아원이 원나라 금패천호(金牌千戶)를 지낸 것을 미끼로 이를 세습한다는 명분을 붙여 청해백에게 참산맹안첩목아(지금의 북청) 천호를 봉하였다.

청해백은 이태조와의 굳은 언약이 있어 고려를 위하여 봉사하여 오던 중이라 북원의 회유정책을 역 이용하여 포청사(지금의 북청 서도리)로 이사하고 여진인을 규합하여 안은정착을 권유하여 인심을 수습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고려의 공민왕은 원나라가 쇠약하여지고 명나라가 강성하여 중원의 주권이 바뀌어지자 배원친명정책(背元親明政策)으로 전환하고 원나라에게 빼앗긴 고토를 회복함과 동시에 명나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해 11월에 이태조로 하여금 동녕부를 치고 무라산성·요양 등지를 공파하여 친원의 근거지를 전부 공략함으로써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신임을 받는 데 청해백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공민왕은 친명정책을 단행하기 위하여 공민왕 19년(1370) 7월부터 명나라 연호 홍무를 사용하여 연호를 홍무 3년이라 하고 또 8월에는 호복(원나라 복색)을 금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의복을 다시 입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청해백은 고려와 여진부족들의 병합할 시기가 성숙함을 깨닫고 공민왕 20년(1371) 2월에 함주(咸州) 이북의 여진부족을 인솔하고 고려에 병합하였다. 고려에서는 청해백이 이태조를 도와 누차의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것을 참작하여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수작(授爵)함으로써 고려의 장군이 되었고 성명을 이두란(李豆蘭)이라고 개성명하고 고려인이 되었다. 그리고 원나라의 철령위 관할의 땅은 전부 고려의 영토가 되었다.

9. 황산대첩

ㄱ. 왜구 침입의 원인

왜구라 함은 즉 일본의 해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일본의 해적은 신라시대에도 간간이 있었으나 고려말 공민(高慮末 恭愍), 우(禡), 공양왕(恭讓王)시대 약 40년간처럼 극심한 시대는 없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 충렬왕 7년 원나라 세조 18년(1281)에 원나라와 연합하여 일본을 토벌하다가 7월에 태풍으로 원(元)·고연합(高聯合) 병선(兵船) 전부가 침몰되어 참패당한 후 일본과 원나라와의 교역이 두절되어 해변에서 교역 생활하던 일본인의 생활방도가 없어져 생활의 한 방편으로 해적이 된 것이다.

② 일본은 그 당시 남북조시대로서 전국에 군웅(群雄) 활거로 각지의 변주정치로서 중앙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여 사회질서가 심히 혼란하였던 시대라 해변주민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일본의 유랑무인(流浪武人)의 단속이 잘 안 되어 유랑무인(流浪武人)의 생활수단으로 해적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③ 고려의 국력이 피폐하여 일본 해적에게 침략을 당하여도 이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고 번번이 약탈을 당하기만 하므로, 업신여기고 해적행위를 자행하게 된 것이다.

ㄴ. 왜구의 침해로 고려의 피해상황

① 왜구는 본성이 잔인무도하여 양곡과 물자만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다. 상륙하면 우선 방화하여 가옥을 전부 소각하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여 부녀자 아동까지 전부 몰살하여 왜구가 한번 지나가면 풀 한포기 남지 아니하였다.

② 왜구의 침략이 하도 잦아 해상운수를 마음대로 못하여 물자교류가 원활하지 못함은 물론 나라의 조세곡(租稅穀)까지 운송이 잘되지 못하여 국가 경제마저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③ 해변 가까운 곳에는 해적의 침입이 언제 있을지 몰라 생활이 불안하므로 농민이 평야의 옥토를 버리고 산간벽지로 피난하게 되어 해변부근의 평야가 묵어 황량하고 양곡산출이 격감하여 민생고가 심해졌다.

ㄷ. 왜구의 침략 역사

고려 충정왕 2년(1350)부터 우왕 14년(1388)간의 왜구침입 상황을 약기한다.

충정왕 2년(1350) 2월 왜구가 고성, 거제에 입구한 것을 쳐서 왜구 300명을 죽였음.

그해 4월에 왜선이 순천부에 침구하여 조선(漕船)을 약탈하여 갔음.

그해 6월에 합포(合浦)에 왜구가 또 침략하였음.

그 다음해 충정왕 3년(1351) 8월 왜선 100척이 침입하여 자연삼목도(紫燕三木島)를 약탈하였음.

공민왕 1년(1352) 3월에 왜구가 교동 9월에 합포(合浦) 두 차례 입구(入寇)하였음.

공민왕 3년(1354) 4월에 왜선이 전라도 조선(漕船)을 약탈하였음.

그 다음해 공민왕 4년(1355) 3월에 왜구가 전라도에서 약탈하였음.

공민왕 6년(1357) 9월에 왜구가 승천부에 입구(入寇)하여 해운이 불통 되었음.

그 다음해 공민왕 7년(1358) 4월에 왜구 각산성(角山城)에 입구(入寇), 5월에 왜구 교동을 불태우고 약탈, 7월에 왜선 전라도 조선(漕船)을 불태우고 약탈하였음.

공민왕 8년(1359) 5월에 왜구 예성강과 웅진에 입구(入寇) 약탈하였음.

그 다음해(1360) 왜구 개경을 침범하여 7월에 천도를 위하여 왕이 임진 현과 백악에 행차. 11월에 백악의 신궁에 이어(이사)함.

공민왕 10년(1361) 3월 왕이 개경으로 환궁, 4월에 왜구 남해에서 약탈하였음.

공민왕 12년(1363) 왜선 교동에 침입 수안에서 약탈하였음.

공민왕 13년(1364) 경상도 해변에 왜구 침입하여 약탈하였음.

그 다음해 공민왕 14년(1365) 3월에 왜구 강화·교동 일대에서 약탈하였음.

공민왕 15년(1366) 5월 왜인(倭人) 교동(喬桐)에 주둔하므로 이를 격퇴시키고 11월에 김일(金逸)을 일본에 보내어 금구(禁寇)를 청하였다.

그 다음해 공민왕 16년(1367) 3월에 강화에 왜구 침입 약탈함.

공민왕 18년(1369) 11월 왜선 충청도 조선을 습격 약탈함.

그 다음해 (1370) 왜구 선주에 침입 약탈함.

공민왕 20년(1371) 3월 왜구 해주(海州)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7월에 예성강에 입구하여 병선 40척을 불태우고 약탈하였음.

그 다음해 공민왕 21년(1372) 3월 왜구 순천·장흥 등에서 약탈하였다.

그 다음해 (1373) 6월 왜구 한양부에 침입하여 약탈하고 7월에 교동과 서강에서 약탈하였다.

공민왕 23년(1374) 4월 왜구 각처에서 약탈하여 그새 점점 창궐(猖獗)하다.

그해(1374) 2월에 일본에 통신사를 보냄. 3월에 왜인 등경광(藤經光)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여 이를 받아들이자 국내 사정을 염탐하여 가지고 7월에 도망간 후부터 왜구의 침입이 더욱 치열하여 졌음.

우왕 2년(1376) 7월에 왜구 공주를 함락 점거하므로 최영이 이를 홍산(부여)에서 대파함. 9월에 왜구 다시 고부·태산 등을 거쳐 전주를 점령하여 일전의 해운을 중지하고 그 다음해(1377) 5월에 이태조와 청해백으로 이를 치게 하여 지리산에서 왜구를 대파하고 6월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 금구를 청하고 9월에 정몽주를 또 일본에 보내 금구(禁寇)를 청하였으나 별효과없이 삼남(三南) 및 경기일대의 왜구침입 여전하였음.

이와 같이 왜구의 침입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가서 우왕 5년(1379) 5월에는 왜구는 해적이 아니라 노골적인 침략으로 기병 7백 보병 2천여명이 남해에 상륙하여 진주를 점령하자 윤 5월에 일본 해도포착관 박거사가 왜적과 싸우다 패하였다.

ㄹ. 황산싸움

그 다음해 우왕 6년(1380) 6월에 왜선 5백여 척이 진포(서천금강 어귀)로 들어와 왜병 수만명이 일시에 상륙하여 일부는 선박을 지키고 대부분은 충청도 각 주군으로 분대 난입하여 닥치는 대로 마을을 불태우고 양식과 가축을 약탈하며 사람을 마구 죽여 거리에는 송장이 즐비하고 약탈하여 운반하다 흘린 곡식이 밭목까지 묻혔다고 하였다.

이에 놀란 고려조정에서는 라세충·심덕부·최무선 등이 즉각 출동하여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적선을 쳐서 불태우니 연기가 하늘을 가려 일광이 보이지 아니하고, 왜선을 지키던 왜병은 전부 물에 빠져 죽고 왜선은 한 척도 남김없이 다 타버렸다.

이리하여 약탈하러 육지에 있던 왜적들은 돌아갈 선박이 모두 불에 타 갈

길이 막히자 부대를 편성하여 내륙으로 침공하여 상주·선주·금산·옥천·영동 등지로 돌아다니며 그 행패와 만행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왜적은 다시 서남으로 향하여 경산·성주를 지나 사근내역·함양에 집결하여 인근 주군을 약탈·방화·살육을 자행하여 민생이 말이 아니었다.

우왕은 이 왜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토벌군을 재편성 정비하여 이태조를 양광·전라·경상의 삼도도순찰사에 봉하고, 찬성사 변안렬을 도순찰사에 평리 왕복명·우인렬, 우사 도고부, 지문하 임인종, 상의 홍인계, 밀직 임성매, 척산군 이원계를 각기 원수에 임명하였다.

그전에 왜구를 공격하던 원수 배극렴·지용기·박민수 등은 왜적에게 패하여 고려 군사 5백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남원산성을 굳게 지키고 더 전진하지 못하고 원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적은 함양을 무찌른 후에 남원산성을 공격하였으나 함락하지 못하고 물러가 운봉현을 불태우고 운봉 인월역에 주둔하고 앞으로 북진하겠다고 호언하였다. 이때의 백성들은 이처럼 끔찍한 참상을 본 일도 없고 왜구가 내륙까지 침입횡행한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적세가 호대하여 닥치는 주군이 하루아침에 잣더미로 변하니 언제 그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새로 임명된 도순찰사 이태조는 청해백으로 선봉을 삼아 군대를 정돈하여 가지고 남진하여 남원까지 내려오니 남원산성을 지키고 있던 배극렴 등이 나와 영접하여 합류하였다. 그 때의 왜적은 남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이태조는 군마를 하루 휴식케 하고 적세를 살피며 작전계획을 숙의하였다.

이때에 이태조는 막사회의에 소집된 현지 장수들로부터 피아의 위치·병력·보급상황 등 자세한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내일 당장 행동을 개시하여 적을 공격하겠소. 이에 대하여 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하여 보시오” 그러니 장수들은 모두 우울한 표정으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태조는 배극렴을 보고 “배장군 의견을 말하십시오” “적이 지금 험한 산지대에 들어가 있으니 나오는 것을 기다려 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용기를 보고 “지장군의 생각은 어떻소” “적을 포위하여 식량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길에 나와 동행한 왕장군(왕복명)의 의견은 어떻소?” “현지 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이태조는 원수들을 하나하나 지명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모두 대답이 대동소이하니 눈을 부릅뜨고 제원수들을 노려보며 “군사를 일으켜 적을 치려 나온 장수는 적을 만나지 못할까 걱정하거늘 지금 적을 눈앞에 보면서 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언어도단이오, 또 적은 이만이고 우리 군사는 새로 도착한 원군을 합하면 4만이니 수로써 적을 압도할 수 있소. 적의 무차별 학살을 감안할 때 일각을 지체할 수 없소” 하고 미리 마련된 지도를 펼쳐 놓고 작전지휘를 하였다.

“적은 강청에서 일대까지 남북으로 전개하여 아군의 진출에 대비하고 있소. 수개처에서 이 적을 공격하여 분단 섬멸해야 하오. 이를 위하여 명일 자시에 행동을 개시하겠소. 변장군은 마하장병을 인솔하고 덕두산을 넘어 장항에 진출하고, 우장군과 도장군은 부운을 거쳐 강청에 진출하고, 박장군과 이장군은 만항을 거쳐 일대에 진출하고, 구룡에 주둔중인 배장군 휘하 경상도군은 오천·오봉산 사이에 매복하여 적의 퇴로(退路)를 차단하고, 지장군은 곡성·남원간에 전개중인 전라도군을 급히 이동하여 환봉·영원사간을 차단하오. 홍장군은 예비대로 운봉에서 대기하오. 나는 운봉 황산을 거쳐 인월에 진출하겠소. 왕장군과 이두란 장군은 나와 동행하오. 치중대는 홍장군의 휘하에 들어가고 전장병의 휴대 양식은 2일분, 제장은 다 같이 좌우의 우군과 긴밀히 연락하여 협동할 것이며 임전후퇴(臨戰後退)하는 자는

극형에 처할 것이니 전군에 주지시키도록 하오. 배·지 두 장군은 즉각 진발(進發)하오” 작전명령을 하달한 이태조는 군사회의를 끝냈다.

이태조는 작전 지휘대로 다음날 자정에 남원을 출발하여 운봉역에 이르러 조반을 마치고 인월가도를 거쳐 먼동이 틀 무렵 황산 기슭에 진출하였다. 왕장군에게 계속 진격을 명하고 이태조는 서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정산봉에 올랐다.

이때에 험한 산줄기에 포진중인 적은 아군이 접근하면 쏘지 아니하고 즉각 백병전으로 나왔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도 불리한 위치에 선 우군은 고지에서 내리 공격하는 왜군에게 압도되어 고전을 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패퇴하면 적은 승세를 몰아 호남평야로 쏟아져 나갈 것이므로 남북으로 산재한 적의 전선 중앙부를 급히 돌파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려야 한다고 판단한 이태조는 인풍에 돌입하기로 결심하였다.

다시 방향을 동으로 바꾸어 진격명령을 하였다. 갑자기 길은 우로 꺾이면서 급경사의 내리막길에 양편 산은 깎아 세운 듯 험하고 그 아래 인풍평야가 전개되었다. 이때에 청해백이 이태조의 앞을 가로 막으며 “장군 위험합니다. 일단 정지하고 적정을 살핀 후 다시 진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태조는 “척후가 앞을 달리지 않소?” “복병에는 척후도 흔히 실수합니다” “노련한 이원경이 척후를 지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소?” “이원경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세로 보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소 조심하면서 그대로 진격합시다” 하고 이태조는 그대로 말에 채찍을 가하여 진격하였다.

우로 꺾어져 한참 달리는데 별안간 좌우의 우거진 풀 속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날아왔다. “이두란 장군 우로”하고 이태조는 고함을 지르고 칼을 빼어 들면서 좌로 돌진하자 청해백도 거의 동시에 우로 돌진하였다. 좌우로 갈린 고려군은 무서운 기세로 칼과 창을 휘두르면서 적진에 돌입하니 보병을 수축으로 한 왜병 1000여명은 활을 쏘면서 슬금슬금 후퇴하여 고려군을

숲속으로 유인작전을 하는 기미를 보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전군의 돌격명령을 내리고 전군의 선두에서서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니 이에 용기를 얻은 고려군은 고함을 지르며 과감 신속히 돌격하니 왜구들은 미처 응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3백여 시체를 남기고 도주하였다.

고려군은 다시 진격하여 인풍평야로 밀고 내려갔다. 황산 줄기가 동으로 뻗어 인풍과 인월의 두 평야를 갈라놓은 돌출부에 집결한 왜구는 요충지대에 점거하고 맹렬히 대항하여 고려군의 진출을 막았다. 이태조는 이대중·우신충·이득환·이천기·지영수·오일·서언·진중·기서·김광주·원의·윤상준·안승준 등이 지휘하는 부대를 선봉으로 하고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고지대를 점거한 왜구들은 고지대를 향하여 저지대에서 진격하는 고려군을 내려다보며 활을 쏘니 그 겨냥이 정확하여 고려군사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굴러 떨어져 죽은 수가 점점 늘 뿐 전진을 하지 못하고 기세가 꺾여 진격을 중지하고 도리어 후퇴하니 이 기미를 포착한 왜병은 칼과 장창을 휘두르면서 총돌격을 감행하여 경사면의 고려군을 무찔렀다. 마침내 선봉대는 2백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이 광경을 본 이태조는 청해백·노명·이원경·조영무를 선두로 하는 자기의 주력부대로 하여금 총진격하자 적진 산 중북에서 일대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화살이 날고 창과 칼이 번뜩이고 피를 흘리는 피아의 병사와 군마의 비명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치는 일대격전을 이루었다.

이때에 적장(敵將) 한사람이 장창(長槍)을 휘두르며 앞만 보고 돌진하는 이태조의 배후를 엄습하니 전면을 향하여 활에 살을 먹이고 힘을 주어 활을 당기고 있던 이태조는 전연 적장의 기습을 알지 못하고 위기일발이었다. 이때 우측을 진격하던 청해백이 다급히 소리를 질렀다. “장군 뒤를 보시오, 뒤를 돌아보시오” 그러나 혼전중이라 알아듣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진격하며

활을 당기고 있었다.

적장의 장창이 거의 이태조 잔등에 닿을 지경에 이르렀다. 청해백은 일른 활에 살을 먹여 전심전력하여 활을 쏘았다. 시위 소리와 함께 적장은 창끝을 이태조의 잔등에 스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적장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에 그의 말이 명중되어 말이 앞으로 폭 꼬꾸라지니 이태조는 몸을 날려 말에서 뛰어 내려 조무가 끌고 온 말을 타고 다시 진격하였다.

그러나 또 적진에서 날아온 화살에 이태조의 말이 또 쓸어졌다. 조무는 얼른 말에서 내려 자기 말을 이태조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다시 말에 뛰어 오르는 순간에 또 다시 화살이 이태조의 왼쪽 다리에 명중하였다. 이태조는 한 손으로 뽑아 버리고 전진하려는 찰나 이미 접근하였던 적병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점점 포위망을 압축하고 있었다.

이 포위망 속에 있던 청해백·이태조·조부·조영부·노명·이원경 등 6명은 우측 평탄한 지점의 적을 향하여 돌진하며 일격에 적진을 돌파하고 포위망을 벗어나 우측에서 달려오는 우군과 합세하여 다시 반격을 전개하면서 좌측의 적을 짓밟고 다시 적의 배후로 우회할 태세를 갖추었다.

전선의 일각이 무너지고 또 배후에 위협을 받게 되자 적병은 급히 후퇴하여 정상으로 철수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한숨을 돌리면서 대열을 정비하고 다시 정상을 향하여 진격을 시작하였다. 이때에 왜장중(倭將中)에서 나이 불과 15,6세밖에 안되어 보이며 미모에 몸매가 날씬한 소년장수가 백마를 타고 머리에 구리 투구를 쓰고 몸에는 철갑을 입어 창과 화살이 범하여도 상하지 아니하는데 다가 그 장수의 무술이 효용하여 당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 그 장수를 아지발도(阿只拔都)라 하고 또 동두철신(銅頭鐵身)이라고 불렀다.

이 아지발도(阿只拔都)가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면 모두 피하다 참수되어

죽는지라 이태조는 그 무용을 아끼고 사랑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생포하고자 하니 더욱 군사를 많이 상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므로 청해백이 옆에 있다가 “공연히 아까운 우리 군사를 더 죽이지 말고 아지발도(阿只拔都)를 죽이자”고 권유하자 이태조는 그 말이 옳은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내가 아지발도(阿只拔都)의 투구를 맞춰 땅에 떨어뜨리거든 장군은 아지발도(阿只拔都)의 목을 쏘아 맞춰 죽이시오” 하고 즉시 활을 쏘아 아지발도(阿只拔都)의 투구를 맞춰 땅에 떨어뜨렸다. 이때에 청해백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지발도(阿只拔都)의 목을 쏘아 맞히니 아지발도(阿只拔都)는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왜적(倭敵)들은 천신같이 믿고 있던 아지발도(阿只拔都)가 힘없이 죽는 광경을 보고 모두 낙담하고 혼비백산하여 통곡하니 그 울음소리가 마치 황소 1만마리가 일시에 우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사기를 되찾은 고려군사는 일당백의 기세로 왜적을 무찌르는데 반하여 용장을 잃고 사기가 저상(沮喪)된 왜적은 항거(抗拒)도 제대로 못하고 피살되고 모두 구명도생으로 도주하였으나 사기왕성한 고려군 앞에 고양이와 쥐의 형국이였다.

그리하여 약 70명 정도의 왜구가 지리산 속으로 도망하여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전멸하였다. 왜병의 시체가 산적하고 그 피가 냇물에 섞여 1주일 동안이나 붉게 흘렀다고 하며 이 싸움을 황산대첩이라 하여 길이 역사에 전하여지고 있다.

이 황산대첩은 우리나라의 남부 전역을 거의 초토로 만든 왜적을 한번 싸움에 쳐 무찔렀고 군마 1,600필을 노획하고 그 외의 병기도 수없이 많이 노획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이 당당한 위엄으로 개선장군이 되어 취라격고(吹羅擊鼓)하고 회군하니 그 위세 천지를 진동하고 왜구에게 시달리던 백성이 단식

호장(簞食壺醬)으로 개선군(凱旋軍)을 맞이하며 칭송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판삼사 최영은 채봉 노리를 천수사에다 벌이고 한산군 이색·삼사좌윤 김용구·성균제주 권근이 시를 지어 하례하며 개선장군의 환영을 선례없이 성대히 하였다. 또 이 황산대첩 이후에는 왜구의 침입이 쇠약하여졌다.

10. 호발도 격멸

백두산 줄기를 타고 동서로 뻗은 개마고지에 영웅이 나타났다. 오랫동안 잠자던 여진족을 깨우고 동남으로 해안일대를 잠식하여 고려백성을 휘몰아갔다. 휘몰려간 고려인은 죽음을 각오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토지와 식량·애민정책으로 도리어 잘 살 수 있었다. 이에 오랜 세월을 두고 백성의 고향을 굶어가는 고려관사에 비하면 낙토가 아닐 수 없다.

이 소식이 이구전파 되어 고려의 양민이 많이 낙토를 찾아 그들의 영역으로 잠입하여 백성되기를 자청하여 날로 인구가 증가할 뿐 아니라 고려군과 싸움이 벌어지면 고려농민이 자진 출정하여 완강히 대항하니 그 위세 날로 강성하여지고 또 그의 용맹이 관우·장비와 같았다. 동북면 백성들은 그를 호발도라 칭하고 개경의 왕씨를 버리고 개마고지로 향하고 충성을 다하였다.

호발도는 동녕부의 잔당으로 요양·반양 등지에 출몰하며 가끔 우리나라의 북방변경에 침입하여 약탈과 사람을 나포 도주하는 일종의 마적떼들이었다. 공민왕 21년(1372) 2월에 압록강변을 내범하였고 우왕 8년(1382) 정월에 적병 천여명을 인솔하고 의주에 침입하여 의주 상만호 장려의 집을 포위하고 노약(擄掠)하여 많은 재물과 말 50필을 탈취하고 압록강 이북 요동으로 도주하였다.

그 다음해 우왕 9년(1383) 8월에 요동번적(遼東蕃賊) 4만여명을 규합 인솔하고 대거 단주로 침입하여 단주·삼철(북청) 등지를 석권하고 남하하

였다. 이때에 단주 상만호 육려, 청주 상만호 황희석 등이 맞아 싸웠으나 패하고 적세 날로 강성하여 지는데다가 고려 백성들이 이에 가세하니 그 성세 동북지방을 품미하니 고려 조정에서는 일대 충격을 받아 이태조로 도원수를 삼아 호발도를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었다.

이태조는 함주에 도착하여 군량과 병사를 징집하고 훈련을 강화하여 정병을 기르는 한편 조정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서·남해에 왜구가 침입한다는 이유로 원병을 거부하므로 함주에서 더 이상 복진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다시 원군을 조정에 요청하여 8월경에 조인벽은 동북면도체재사, 한방언은 동북면상원수로 임명하고 기·보병 혼성부대 1만5천을 주어 함주에 도착하여 이태조 휘하 장병 1만명과 합류하여 총병력 2만5천의 대부대를 삼군으로 편성하였다.

좌군은 조인벽, 우군은 한방언, 중군은 이태조가 각각 지휘하며 단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때에 이태조는 북청주를 지나면서 마침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에 돌아와 복상중에 있는 청해백에게 조영무를 보내 적세의 강대함을 말하고 “국가 사직이 위급하니 모상은 사사요, 국가의 안위는 만백성의 공사니 참으로 미안하오마는 상복을 벗고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청해백은 상복을 입고 하늘에 사배하고 불효에 대한 용서를 빌고, 다시 갑주를 입고 승전을 축원한 후 출정하였다.

이때에 호발도는 단주에서 함주에 있는 이태조의 병력이 불과 만명 미만으로 복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방심하고 있던 중 의외에 삼군으로 나뉘어 약 3만 대군이 쳐들어오니 단주의 병력 5천으로는 대적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길주로 총철군하여 삼해양 평야에 포진하고 고려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려군의 좌군을 지휘하는 조인벽은 김지동을 거쳐 적의 서남으로부터 압박하고 우군을 지휘하는 한방언은 해안선을 따라 적의 좌익과 대치하였다. 중군의 선봉대장 청해백은 송령을 넘어 삼해양 평야에 진입하여 쌍포천

에서 적의 선봉과 접전하여 화살 한대에 적장 한명씩 10여대에 적 10여명을 사살하니 감히 앞으로 나오는 적병이 없고 청해백이 가는 앞에서는 서로 피하여 도망가니 고려군의 사기가 충천하여 총 돌격전을 전개하였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선두에서 장검을 휘두르며 적의 중군을 충격하여 일대혼전을 벌이고 좌우군이 압축공격을 강행하니 적은 두미를 가릴 수 없어 일대혼란에 빠져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이루어 모두 창과 칼을 버리고 도망하니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다. 호발도는 하는 수 없어 수하 5,6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쏜살같이 북으로 도망하니 모든 적병이 총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며 전부 살길을 찾아 북으로 도망가고 미처 가지 못하는 고려군의 칼 아래 고훈이 되니 시체가 산같이 쌓였다.

11. 요동사 응징

우왕 9년(1383) 7월에 대명요동도사라는 깃발을 날리며 해산의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여 백마산 서록(西麓) 여진부락에 덩도한 파파산은 문밖에 쌓인 눈성을 뛰어 넘어 발길로 대문을 걷어찼다.

그리하여 여진사람을 동원하여 백마산 넘어 조선인 부락의 사정을 탐지하고 그 익일에 조선인 부락을 침공하였다.

이때에 고려의 북청주 수비장 김득경은 패한 척 적으로 하여금 안심케 하고, 적이 술에 만취되어 잠든 틈을 타서 이를 일격에 함락시켰다.

이때에 명나라는 고려가 원나라와 친하고 신흥하여 중원을 차지한 대명제국을 소홀히 한다고 갖은 압력과 트집을 부리던 중 이번 파파산 사건은 도리어 고려가 대명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정여(程興)라는 문책사를 보내 왔다.

이때에 청해백은 고려의 예의판서로 있었다. 그러므로 부하관원을 인솔하고 북교에 나가 요동도사의 문책사(問責使) 정여(程興)를 영접하기 위하

여 기다리고 있었다.

요동도사 문책사(問責使) 정여(程興)는 위인이 교만 방자하여 압록강을 건너면서 부터 살기등등하여 도중에서 영접하는 고려의 지방관장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마구 퍼부으며 채찍으로 마구 치면서 길을 재촉하여 개경으로 달리고 있었으나 그의 임무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는 하도 트집을 잡은 명나라인지라 다방면으로 정여의 오는 목적을 검토하였다. 필연코 백파파산(白把把山)이 북청주에 침입하였다가 패망한 것에 대한 생트집도 예상에 두었다. 이 백파파산의 패망은 침입자를 격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남을 침공한 자가 침공을 당한 자에게 시비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설마 그런 일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연도의 관원에게 정여(程興)의 오는 목적을 내탐하라 하였으나 모두 허탕이고 다만 정여(程興)의 태도가 험악하다는 보고뿐이라 조정 대신은 당황하기만 하였다.

북교에 영접사로 나가 정여(程興)를 기다리는 청해백은 북녘 하늘을 주시하며 정여(程興)의 오는 목적에 대하여 궁리하기를 이 사나이는 거센 정치바람을 몰고 오는 것에 틀림이 없는데 공물을 더 많이 바쳐야 한다고 호령할 수도 있고 젊은 미인들을 요구하러 올 수도 있고 북청주의 패전한 분풀이로 생트집도 할 수 있는 정여(程興)의 그 후안무치한 중국인의 모습을 그리며 있었다.

요동도사의 청기가 바람에 나부끼며 산모퉁이에 일대의 인마가 나타나자 청해백은 도열한 관원의 대오를 정제하고 다시 북녘을 바라보니 청기를 받쳐 든 기병의 좌우에는 마중나간 의장부병사들이 호위하고 그 뒤에 정여(程興)를 선두로 명나라 병사 100여기, 또 그 뒤에는 의장부병 30여기가 따르고 있었다.

청해백은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이 알맞은 거리에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정

여(程興) 일행은 마침내 그들 앞에 당도하여 행렬을 멈추었다. 청해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읊하고 동역관의 동역으로 인사하였다. “예의판서 이두란입니다. 원로에 수고하셨습니다.”

마상의 정여(程興)는 청해백을 아래위로 훑어보고 나서 호통치기를 “당신들 임금의 처소에 안내하오.” 청해백은 시중 임견미의 지시대로 오늘은 빈관에 모셔 놓고 그의 속을 떠볼 작정으로 “원로에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터인데 오늘은 빈관에서 편히 쉬시고 내일 뵈옵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즉 정여(程興)는 “피곤하지 않소” 청해백은 다시 “곧 해가 떨어질 터인데 내일로 하시지요.” 하였더니 정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왜 그리 말이 많소. 시키는대로 해요.”

청해백은 정중히 달래기를 “상감께서는 오늘 미령하시다는 기별이 있으니 내일로 미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여(程興)는 손에 들고 있던 채찍으로 청해백의 어깨를 내리치며 “잔소리 마라” 하였다. 청해백은 이를 악물고 정여(程興)를 쳐다보았다. 독수리같이 매서운 눈으로, 정여(程興)는 별안간 채찍을 날려 청해백의 얼굴을 후려치며 “나를 가로막을 셈이냐” 하고 외쳤다.

청해백은 두 주먹을 쥐었다가 그대로 놓으면서 시중 임견미의 끝까지 은근 정중하라는 부탁이 없었던들 이 표독한 사나이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에서 타는 울분을 진정하며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읊하고 “죄송합니다.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여(程興)를 조정으로 안내하였다.

고려 우왕 앞에 버티고 선 정여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주먹을 휘두르며 “국왕은 무슨 연고로 지난 신달 귀국 북청주에 진주한 명태자의 군대를 격살하였소” 하고 외쳤다. 우왕은 역관의 통역이 끝나자 대신들이 귀뜸해 준 대로 “그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यो” 하고 대답하였다. 정여는 화를 버럭

내며 “북청주에서 대명국군사가 격살당한 사실을 모른단 말이오?” 하고 샷대질을 하였다. 우왕은 “나는 이 시각까지 전연 알지 못했소. 사실이라면 이렇게 황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고” 라고 침착한 태도로 대답하니 정여(程興)는 점점 더 화를 내고 발을 구르며 우왕을 노려보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오” 라고 대궐이 떠나가도록 호통하니 우왕은 사색이 되어 “정말 몰랐소” 하고 대답하니 정여(程興)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대신들을 향하여 “당신들도 몰랐소”하고 힐문(詰問)하였다.

이때에 너무 갑작스럽게 정여(程興)가 입궐하였기 때문에 시립한 대신은 시중 임견미·염홍방 외에는 높은 대신들은 없었다. 임견미는 “그런 풍문이 있기에 지금 조사중입니다” 하고 미소 띤 얼굴로 태연하면서 조용히 대답하였다. 정여(程興)는 임견미를 보고 통명스런 어조로 “당신은 누구요” 임견미는 “네 시중 임견미 올시다” 하고 대답한즉 정여는 힐문조로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사중이라니 그것도 말이라구 하는 것이요” 하며 육박하였다.

임견미는 공구하는 태도를 양작하면서 “미안합니다. 원래 북청주가 벽지인 데다가 현지 관원들이 게을러서…… 속히 처리하지요.” 정여가 “어떻게 처리하겠소?” 임견미가 “진상을 알기 전에는 무어라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정여 화를 내며 “그따위 핑계가 어딴소. 천자의 군대를 격살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소. 북청주 상만호 김득경이란 놈을 당장 이리 내놔요?” 하며 힐책하였다.

궁지에 몰린 임견미는 손을 비비며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법에 의하여 조치하겠소” 한즉 정여는 발을 구르며 “누가 당신더러 조치하랬소, 경사에 압송해야겠소” 임견미가 “좀 생각할 여유를 주시오” 하니 정여는 빈정대는 어조로 “생각해야 알겠소?” 하며 우왕 앞으로 다가서며 노한 눈으로 우왕을 노려보며 “국왕도 생각해야 알겠소. 우리 대명국의 군대를 막아낼 자신이

있소? 생각하든지 명나라 군대와 싸우든지 양자택일하시오” 하고 펄박하니 왕은 안색이 창백하여지며 찢찢맸다.

임견미가 두 손을 마주잡고 정여의 앞으로 다가서며 “김득경을 잡아 올리지요.” 한즉 정여는 승자의 오만한 태도를 하며 우왕에게 “국왕의 결말을 직접 들어야겠소. 김득경이란 놈을 잡아 오겠소, 못오겠소” 하니 우왕은 힘없는 소리로 “김득경을 잡아 오지요.” 정여가 “언제 잡아 오겠소?” 하니 우왕은 “내일 잡아 오지요” 정여가 놀라서 반문하기를 “내일?” 이에 놀란 임견미는 당황한 나머지 왕과 정여의 문답에 끼어들어 말하기를 “아니 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에서는 전연 모르는 일이라 상감께서는 전후 사정에 어두우십니다. 북청주까지 왕복 10일은 보아야 합니다.” 하였더니 정여는 태도를 좀 부드럽게 하며 “좋소, 10일 후에 김득경이란 놈을 내 앞에 붙들어 오지 않으면 그 때는 용서없소” 라고 하니 임견미는 허리를 굽히며 “맹세합니다” 하고 확약을 한즉 정여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돌아서 성난 얼굴로 퇴궐하였다.

며칠 후 김득경은 북청주로부터 소환되어 정여의 입회하에 사헌부 마당에서 시중 임견미의 국문이 시작되었다. “네 이놈 어찌하여 함부로 상국의 군대에 대항하고 이를 격살하는 무도한 짓을 자행하였느냐?” 김득경은 임견미를 쳐다보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임견미는 김득경에게 “왜 대답을 못하느냐?” 하며 독촉하니 양 팔을 뒤로 묶여 꿇어앉은 김득경은 육중한 몸을 천천히 움직여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자기 국토에 쳐들어온 외국 군대를 쳐부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하고 반문한 즉, 임견미는 말이 막혀 대답을 못하였다. 김득경은 또 계속하여 공세를 퍼부었다. “더구나 조정에서 중국놈들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니 방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릴 것이며 쳐들어오면 사력을 다해 격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임견미는 북청주로 김득경을 잡으러 간 사람에게도 일렀고 도중에 사람을 보내서 김득경에게 “자기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대답만 하면 뒷일은 잘 처리해 주겠다고 미리 내통하였건만 김득경의 대답은 사실을 지적하여 도리어 시중 임견미를 공격하였다.

정여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며 눈이 빛나기 시작하고 임견미는 분을 참지 못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발을 구르며 “네 이놈 조정의 어명까지 조작하려 드느냐? 이 불충막심한 놈아” 하고 꾸짖으니 김득경은 입가에 멸시에 찬 미소를 띄고 임견미를 쳐다보며 “시중 대감 고정하시요. 그 지시는 바로 대감이 내리신 것이 아녘니까?” 하니 임견미가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단 말이냐” 한즉 김득경이 “그 당시의 공문을 보여 드릴까요? 하니 임견미는 당황하여 정여의 눈치를 살피며 “이놈아 잔소리 말고 이실직고 하렸다” 한다. 김득경은 유연한 태도로 임견미를 조소하는 투로 “공문을 보여 드릴까요?” 하니 임견미는 “저놈이 미쳤구나, 공문이 무슨 공문이나, 이실직고 하렸다” 하고 김득경은 “인생이 가련해서 공문은 접어 두지요. 혼자 오래 오래 사시요.” 한다. 임견미는 “저런 죽일놈 같으니 라구”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여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그 공문 이리 내놔” 하니 김득경은 앉은 자세로 상반신을 돌려 정여를 흘겨보면서 “네게 보일 공문은 없다” 하니 정여는 분을 참지 못하여 몸을 떨면서 “이 놈이 어느 앞이라구 함부로 응 이놈~”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득경은 태연한 자세로 “정여 주책없이 떠들지 말구 네 나라로 썩 물러가라” 하고 응수하니 입장이 난처하여진 임견미는 “이놈, 말이면 다 하는 줄 아느냐” 하며 길길이 뛰었다.

김득경은 임견미를 쳐다보며 “시중대감 백성의 운명을 한 손에 쥔 양반이 잔재주가 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훈계식으로 말하니 임견미는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느냐” 한다. 김득경이 “내 입은 머지않아 다물 겁니다. 시중대감 그 전에 한마디만 해두지요. 어디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

깜깜하외다” 하니 임견미는 분을 참지 못하여 나장에게 “저 놈을 매우 쳐라” 하고 명령한다. 좌우에 있던 두 놈의 나졸이 마구 치니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어 매질하는 군졸도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고 흐르는 피가 땅에 고이고 곤장에는 피와 살이 한데 엉켜 그 처참한 형상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김득경은 신음소리 한 마디 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축 늘어져 혼수상태로 실신하였다.

임견미는 모든 죄를 김득경에게 뒤집어 씌워 정여에게 인계하고 정여는 김득경을 인수하고 개경을 떠났다. 이때에 김득경은 사지를 묶고 자루에 넣어 말 잔등에 밧줄로 단단히 묶고 중국 기병이 양측에서 압송하고 있었다.

이 행렬을 전송나온 청해백은 동대문을 거쳐 북교를 향하면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청해백은 정든 땅 북청주에서 사귀 친구로서 함께 나라를 걱정하고 함께 세상을 한탄하던 이 친구의 불행을 구하여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며 가슴 속으로 통곡하며 따랐다.

이를 지켜보던 정여는 청해백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북교 못 비쳐서 부대의 정지를 명령하고 청해백의 앞을 막아서며 채찍으로 샷대질을 하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왔소?” 한즉 청해백은 외면하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정여는 화를 내며 “내 말이 들리지 않소?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말이오?” 하고 다구쳐 물었다. 청해백은 “대인을 전송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정여는 “득경이란 놈을 전송하러 나왔다고 왜 못하오?”한다. 청해백은 “그것도 있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정여는 채찍을 들어 청해백의 어깨를 내리치며 “꼭 같은 돼지새끼들이로구나” 하니 청해백은 또 다시 내려치는 정여의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채찍을 뺏어들고 정여를 꾸짖어 말하기를 “문책사의 체통이 이래서야 되겠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중국 병정들이 정여의 뒤에 몰려들자 호송나온 고려의 병정

들도 청해백의 좌우에 몰려와서 서로 대치하니 정여는 위세를 부려 큰 소리로 “요동도사의 문책사는 곧 명나라 천자의 사신이거늘 이 무지몽매한 놈들이 어디라고 날뛰느냐” 호통하니 청해백은 분을 참으며 “정대인 생트집은 그만 두는게 좋겠소.” 하니 정여는 “너도 득경의 무리로구나” 청해백은 “다시 말하거니와 생트집은 그만두시요.” 정여가 “너도 끌려가서 오찰을 당하고 싶으냐?” 하자 청해백은 “그렇게는 안 될 것이요” 하면서 칼자루를 잡으면서 정여를 노려보았다.

궁지에 몰린 정여는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냐” 한즉 청해백은 “생각하여 본 일이 없으니 모르겠소.” 하니 정여는 “너도 묶어 갈테다” 한다. 청해백이 “정대인, 나도 요동에서 살던 사람이라 그 고장 사정을 약간 알고 있소. 생트집이 통할 줄 아시오?” 하고 정색하며 정여를 노려보니 이때에 김득경의 억울함에 분을 참지 못하던 고려 군사들도 제각기 임전태세로 한 발한발 다가서니 그 공기가 심히 험악하여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다.

이제까지 호통 한 마디면 고려조정이 찢찢매매 통하지 않던 것이 없었던 정여는, 의외로 청해백의 위풍이 늠름하며 그 당당한 이론에 겁을 먹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며 작은 목소리로 “그럼 내가 오해했던가 보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번 내왕에는 수고 많았소. 요동에 돌아가면 경사에도 대인의 수고를 아뢰도록 하겠소. 길이 바쁘니 여기서 헤어지도록 합시다” 하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청해백은 정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의 나라에 외국군대가 쳐들어와서 약탈·살인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하니 정여는 대답을 하지 못하니 청해백은 “쳐부수겠지요?” 하고 그의 대답을 유도하였다. 정여는 “그야 더 물을게 있소?” 하고 응대하였다. 청해백은 “김득경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요. 강약이 부동해서 죄인으로 끌려갈망정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법도 있소?” 하니 정여는 “천조에 죄를 지었으니 할 수 없소” 라고 잘라 말했다.

이 때에 자루 속에 묶여 있던 김득경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통장군, 통장군. 그러지 마시오. 내 소원이오. 나를 송장이라 생각하고 버려 두오. 이번에 만나서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하려고 했는데? 통장군 부디 잘 있소.” 목이 메어 말을 잘 잊지 못하고, 청해백의 두 눈에는 눈물이 서렸다.

이 기회를 포착한 정여는 “자 그럼 나는 가 봐야겠소” 하고 떠나려 하였다. 청해백은 화한 얼굴로 정여를 향하여 읊하며 “문책사께서는 도중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니 정여는 “고맙소” 하며 말에 채찍을 가하여 북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북으로 사라져 가는 죽음의 사자, 개처럼 끌려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청해백은 소리없이 울었다.

12. 함주 개선

황산대첩 이후 간간이 왜구들이 서해와 남해에 출몰하였으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번번이 희생이 크므로 왜구의 침범이 없었던 동북면 쪽으로 대거침략을 단행하기 위하여 우왕 11년(1385) 9월에 왜선 150척을 몰아 함경도 연안지대에 침입하여 그들의 만행 그대로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하였다.

이때에 원수 찬성사 침덕부, 지밀직 홍징, 밀직부사 안주, 청주 상만호 황희석, 대호군 정승가 등이 대문령 북쪽에서 왜적과 싸웠으나 원수 침덕부는 다리에 창을 맞아 중상을 입고 모두 패해 돌아왔다.

이에 이태조는 자원하여 동북면 도원수가 되어 청해백으로 하여금 선봉장을 삼고 여진 군인을 규합, 북진하여 함주에 이르러 왜구가 집결하여 있는 토아동(함흥 북쪽 고천사) 동네 양쪽에 토벌군을 매복시키었다.

이때 왜적은 토아동 동서 양쪽 산을 모두 점거하고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이태조는 상호군 청해백, 산원 고려, 판위위사사 조영규, 안종검·한나해·김천·최경·이현경·하석주·이타·김세·한사우·이도경 등에

게 각각 100여기를 거느리고 서서히 두산 사이를 통과하였다.

이태조는 작전계획대로 진의 위치가 정돈되자 청해백과 고려·조영규에게 적병을 유인해서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한 후에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적병을 전후에서 협공하니 적병은 두미를 서로 돌보지 못하고 군중이 혼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우리나라 군사에게 모두 죽음을 당하고 일부가 천불산으로 도망갔으나 나중에 전부 생포되어 이 왜구의 난은 평정되었다.

이태조는 토끼골 어귀 중평에 도열한 전투부대를 열병하고 상원수 심덕부에게 명령하였다. “모든 장병에게 술이나 한 잔씩 주어 승전을 축하하도록 하오” 그리고 다시 “전후에 군기 단속에 특히 유의하오” 하고 지시한 후 청해백과 마주앉아 대적하였다.

이태조는 추억의 땅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떠난다 생각하니 다시 서운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아가니 자연 취기가 생겨 더욱 감회가 간절하여졌다. “이두란장군, 내일은 떠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함주에 다시 올 일이 있을 것 같소.” “글쎄요, 사람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기는 그렇소” “장군, 지난 일은 다 잊으시요.” “여기 오니 자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되살아나는군요” “서울 가면 자연 잊으실 겍니다.” “그렇겠지요.”하면서 지화의 밝은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청해백은 다시 술잔을 이태조에게 권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장군, 이번에 개경으로 개선하면 더욱 몸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이태조는 의아한 태도로 “왜?” 한다. “공에 붙어 다니는 것이 모험이 아닙니까?” “들은 말이요” “장군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답니다.” 이태조는 얼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 무슨 말이요?” “임견미·염홍방 대감 께에서 말입니다.” 이태조는 이에 칭송이라는 말뜻을 알아들었다.

청해백은 한참 있다가 다시 술을 권하며 “장군, 방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는 공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방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옳은 말이오. 앞으로 명심하리다” 하고 그 다음날 회군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번 싸움에 여진인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였고 개선하여 돌아온 이태조에게는 정원십자공신, 청해백에게는 선력재명공신에 밀직부사(종이품)를 봉하였다.

주: 이번 대화가 후일 이인임의 모함을 피하게 되었다.

III. 조선조 창건

1. 위화도 회군

공민왕 17년(1368) 원나라가 중원에서 쫓겨나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자 공민왕은 반원친명정책을 써서 공민왕 19년(1370)7월부터 명나라 연호 홍무를 사용하고 원나라의 동녕부를 치고 요동을 정벌하는 등 친원세력을 몰아내는 데 힘을 다하였으나 동녕부와 요동을 확보하지 못하여 마침내 명나라의 영토가 되고 말았다.

공민왕이 죽고 우왕이 즉위하자 다시 친원파의 세력이 대두하여 고려의 정치는 친원 친명 두 파로 갈리어 엇치락뒤치락 하다가 우왕 3년 2월에는 친원파가 승리하여 다시 북원의 선광 연호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해인 우왕 4년 6월에 친명파가 다시 득세하여 명나라 연호 홍무를 사용하였다.

고려는 북원과 명나라 두 세력 틈에 끼어서 몹시 괴로운 입장에 처하여 갈팡질팡하며 그때그때의 형편대로 대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연의 이해에만 얽매어 조령모개식의 대외정책이 통일되지 못하고 친원 친명 두 파로 분열되어 명나라에도 의심을 받고 또 북원에도 귀여움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양국의 눈치 보고 비위맞추기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두 파의 세력은 서로 물고 뜯어 급기야는 상대방을 해치는 방법이 국제적으로 변하였다.

명나라 사신 임밀(林密)·채빈(蔡斌)들의 호송책임장수인 고려 김의라는 자가 명사호송 도중 봉황성에 이르러 채빈의 부자를 죽이고 임밀(林密)을 북원의 장수 납합출에게 인계하여 고려와 명나라의 사이를 분열케 하였으며 또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나라에서 장차 처녀와 수재환자(내시)를 각 천명과 우·마 각 4천필을 바치라고 할 것이라 하여 조정대신은 물론 일

반백성까지도 분개하고 흥분케 하여 반명의 기운을 선동하던 차에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온 사신 설장수의 복병에 의하면 “명태조가 구전하기를 철령이북은 원래 원나라 영토이었으므로 이것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하였다.

이 철령이북 즉 함경도는 원래 고려땅이었던 것을 원나라가 강제로 침범한 것으로서 청해백이 고려에 베풀하면서 부터 철령이북이 완전히 고려영토로 수복된 것을 명나라에서 원나라의 것은 전부 명나라에 귀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이다.

우왕 14년(1388) 2월에 명태조는 철령이북을 요동에 속한다는 조서를 고려에 보내오고 그 다음달 3월에 사신을 보내어 철령위의 설치를 통고하여 음으로 고려에서는 우왕과 최영 및 친원파의 주동으로 공요론이 대두되어 우왕은 서경에 행행하여 전국에 동원령을 선포하고 최영을 팔도도통사〈총사령관〉 이태조를 우군부통사, 조민수를 좌군도통사로 봉하고 전군10만을 거느리고 출정하라 명령하였다.

이태조는 우왕에게 이번 거사가 네 가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중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니 그 이유는 ①이소역대(以小逆大), 고려같이 작은 나라로 명나라 같이 강대한 나라를 상대하여 싸울 수 없다. ②하월발병(夏月發兵), 더운 하절에 군사출동은 불리하고 고생이 많다. ③거국원정(擧國遠征) 왜승기허(倭乘基虛), 전 국력을 다하여 원정을 하면 왜구가 그 허함을 타서 침범할 것이다. ④시방서우(時方署雨) 노궁해교(弩弓解膠) 대군질료(大軍疾遼), 때가 마침 더운 장마철이라 활의 아교풀이 녹아 활이 못쓰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군대의 질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후세에서 사불가론이라 한다.

우왕은 이태조의 간언을 듣고 그 이유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를 중지할 뜻을 시중 최영에게 문의한즉 최영은 사불가론은 친명파의 잔꾀라고 비난하면서 가만히 왕에게 속삭이기를 “이성계와 그의 일당 이두란, 이성계의 아

들 방원 등이 모두 인물이 범상치 아니하고 또 항간에 목자득국이라는 동요가 유행하고 있어 후일 무슨 변고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인물이니 차제에 명나라를 쳐 요행히 이기면 국토가 확장될 것이고 만고에 패하면 이번 일은 모두 이성계가 한 일이라 하고 이성계를 잡아 명나라에 보내고 사과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일거양득이니 강행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일정한 주견이 없고 평시 이태조를 무서워하던 우왕은 최영의 감언이설을 믿고 이태조에게 출병을 강요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이태조는 하는 수 없이 4월 18일에 군대를 인솔하고 평양를 떠나 공요의 길에 올라 4월 20일에 의주에 도착하여 4월이 다 가도록 움직이지 아니하니 최영의 독촉은 성화같았다. 이 성화 같은 독촉에 못이겨 고민하던 이태조는 청해백을 자기 막사로 불렀다. 청해백은 공요정책을 반대하는 장수로서 출병 당시부터 이태조에게 그 불가함을 주장하여 온 사람이며 또한 모든 전략을 청해백과 의논하여 결정하던 중 진퇴양란에 처하게 된 이태조는 청해백에게 “이두란 장군은 이 형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물은즉 청해백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서 신중히 대답하였다. “이번 일의 성패는 시중대감이 오고 아니 오는데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조는 “시중대감은 못 올 것이니 못 온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한다. 청해백은 이의 대답을 망설였다.

이태조는 정색하며 말하기를 “이두란장군,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오. 소신대로 말해 보시요” 청해백은 “아니될 일은 그만 되야지요” 하고 조용한 태도로 대답하니 이태조는 “웁소 문제는 어떻게 그만 두느냐 하는 방책이 문제요” 청해백 “그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조정에 품신하여 어명으로 출정을 중지하든지 불연이면 출정군 자체가 단합하여 회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이태조는 “시중대감은 한번 결심한 일을 도중에서 굽힐 인물이 아니지” 하며 긴 한숨을 쉬고 “이 이상 의주에 머

물수도 없게 되었소. 벌써 16일이 지났소. 진군하지 않으면 군률로 다스리겠다는 임명이 왔소”

청해백이 “조통사(曹統使)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즉 이태조가 “조통사(曹統使)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오? 명령대로 내일 당장 진군하자는 거지요” 한다. 청해백이 “장군, 우선 위화도에 건너가 놓고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고, 계속하여 “단합은 격리된 환경에서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또 “또”하면서 이태조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계속하여 “격리된 환경하에서는 장군의 의사를 전군의 의사로 전환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도통은 호인이시니까요” 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태조는 청해백의 헌책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알겠소 그런 전제하에서만사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시오.” 하고 단을 내리었다. 청해백은 “네” 하고 일어서서 걸어서 문간까지 갔다가 다시 천천히 되돌아서 이태조 앞으로 다가와서 “장군”하면서 이태조를 주시하니 이태조는 근엄한 태도로 마주 쳐다보았다. 청해백은 “임려마시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준비를 진행중입니다” 라고 음성은 낮으나 힘주어 말하고 다시 돌아서서 나갔다.

5월 7일 비가 몇고 날씨가 개었다. 좌우도통사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조전사 최유경의 선도로 천천히 압록강에 부교를 놓고 강중섬 위화도에 상륙하여 둔치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압록강 물은 때마침 장마로 물이 많이 늘어서 도강하던 군졸 수백명의 익사자를 내어 군중의 원성이 자자하였다.

이때의 군대의 편성을 보면 충지휘관은 팔도도통사에 최영, 좌군도통사에 조민수(창성부원군)를 임명하고, 그 예하로 침덕부 이하 12원수를 배치하였다. 우군도통사에 이태조를 임명하고 청해백 정지 등 16명의 원수를 배치하고, 좌우군 모두 삼만팔천팔백삼십명 겸속이 일만일천육백삼십사명 말이 이만일천육백팔십이필로서 10만대군이라 칭하였다.

우왕은 공료를 선포함과 아울러 국민과 군대에게 다시 호복을 입을 명령하였다. 이 얼마나 비굴한 사대주의 사상이며 고려조의 정치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위화도에 주둔한 고려군은 심한 장마에 막혀 더 진군하지 못하고 재삼 요동정벌을 중지할 것을 우왕에게 건의하였으나 번번이 각하하고 도리어 속히 진군하여 요동을 공격하라는 독촉이 성화같았다. 모든 군사는 장마에 시달리고 또 명분없는 투쟁을 싫어하여 우왕과 최영을 몹시 원망하며 회군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였다.

우왕과 최영의 독촉에 못이겨 요동으로 진군하고자 한즉 폭우가 쏟아져 진군할 수 없고 이를 중지한다 하면 일기가 청명하여 지는지라 모든 군인은 역천을 하느님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구전파하여 군심이 몹시 흥흥하였다.

청해백은 이번 거사는 역천이라고 출병 당시부터 이태조에게 그 불가함을 주장하여 온 사람이라 회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 군심이 흥흥함을 보고 기회도래라 하고 군중에서 가만히 “이도통사는 우군을 거느리고 곧 동북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유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들은 좌군도통사 조민수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급히 말을 타고 우군진영으로 이태조를 찾아와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공이 혼자서 동북면으로 가시면 나와 남은 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며 “공이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우리 다같이 행동하자” 하였다.

이태조는 조도통사의 손을 잡고 서로 행동을 같이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회군할 뜻을 밝히고 모든 장수를 모아놓고 “이번에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상국의 천자에게 죄를 지는 것으로 종묘와 사직 그리고 백성들까지 그 죄와 화를 당할 것이므로 왕에게 수차 역천지거를 하지 말자고 상서하였으나 우왕이 혼미하고 또 옆에 최영이 노망한 말로 이를 강행케 하니 이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으니 나와 그대들이 다같이 왕의 앞에 나가 옆에 있는 노망한 무리를 제서하여 10만대군의 생명을 보전하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한즉 제장이 모두 춤을 추며 이에 찬성하므로 즉시 회군할 것을 결정하고 제군 원수들은 산회하였다.

이때에 청해백은 전군의 조전원수로서 전군을 안전하게 도강회군 시킬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그리하여 회군의 결의가 끝나자 즉시 조전사 최유경을 자기 막사에 불러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너 죽고 싶느냐? 살고 싶느냐? 하니 최유경은 놀라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면서 “장군님 별안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다. 청해백은 벌벌 떨고 있는 최유경에게 “너의 직책이 조전사지” 하고 또 다짐을 하였다. 최유경은 “네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청해백은 최유경을 한참 주시하다가 입을 열어 “오늘 저녁부터 회군한다” 하니 최유경은 의아한 눈으로 청해백을 주시하면서 “네?”하고 반문조로 대답하니 청해백은 “압록강을 건너 개경으로 돌아간단 말이다. 이 도하작전에 성의를 다해서 편의를 보겠느냐 못하겠느냐?” 하고 호령하니 최유경은 어안이 병병하며 미처 대답을 못하였다.

청해백은 큰 소리로 “못하겠느냐?” 하고 호통하니 최유경은 겁이 나서 “아, 아니올시다. 뜬 소문인줄 알았더니 사실이군요” 하고 반문하니 청해백은 정색하고 “사실이다. 배와 뗏목을 총동원해서 협력함은 물론 부교에 손을 대는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하였다. 최유경은 “네” 하고 대답하니 청해백은 “대답이 신통치 못하구나 시키는대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고 다그치니 최유경은 허리를 굽히며 “네,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 가려하니 청해백은 “아직 얘기가 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너 직책상 매일 조정에 군사동태를 보고하기로 돼 있지” 하니 최유경은 겁에 질려 허리를 꾸부리며 두 손을 마주 잡고 “네” 하고 대답하였다. 청해백은 최유경에

게 “회군하는 선봉이 안주에 닿을 때까지 회군 사실을 단 한마디도 조정에 보고하면 참형에 처한다. 알겠느냐” 하니 최유경은 “네 네 잠자코 있겠습니다. 안주에 도착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 청해백은 점두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즉시 전군의 도강준비를 명령하였다. 최유경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위화도의 고려군 5만여명은 사지에서 삶을 찾은 기쁨에 생기가 넘쳐 불과 수각에 출동준비가 완료되어 청해백의 독촉을 받은 우군도통사 이태조는 제원수를 거느리고 도열한 군졸 앞에 백마를 타고 사열을 끝내고 이번 회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공식 선언하였다.

“우리가 명나라 국경을 침범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큰 화단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यो. 나는 좌군도통사 대감과 더불어 역순의 사리를 다하여 조정에 글을 올려 군을 철수할 것을 요청하였건만 주상전하께서는 살피심이 없고 시중 겸 팔도도통사의 중책에 있는 노망한 최영은 들어주지 않았소. 나는 모든 제군 군졸과 같이 직접 어전에 나가 화복의 도리를 아뢰고 임금님 측근에 있는 악한 무리를 제거하여 도탄에 빠진 수천만의 생명을 평안케 하고자 하오. 모든 군인은 일사불란의 질서하에 행동할 것이며 특히 도중에서 어가를 뵈옵는 경우 추호라도 소홀함이 있는 자는 대역으로 다스릴 것이요. 백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범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니 휘하장병들은 그릇됨이 없도록 하기 바라오” 하였다.

이태조의 선언이 끝나자 안주 도원수 정지가 한걸음 앞으로 나와 답사하였다. “도통사 대감 생등 전군지휘관 일동은 회군의 대의를 받들고 군기를 엄수하여 호말의 그릇됨이 없기를 이에 맹세합니다. 동방 고려의 운명은 이 거사에 달려 있으며 도통사대감의 두 어깨에 달려 있으니 도통사께서도 자애자중하사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는데 진충알력 하시기 바랍니다. 생등은 명령에 수화를 불사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태조는 전군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마침내 칼을 빼어 높이 쳐들어 진군명령을 내렸다. 이에 맞추어 진군의 나팔소리가 위화도에 울려 퍼져 식양의 햇빛을 받으며 압록강을 도강하는 군마로 들끓었다. 병사는 부교로 건너고 군량과 군수품은 배와 뗏목에 의하여 도강하였다.

이태조는 청해백과 제장의 독촉을 받고 회군을 단행함에 백마를 타고 붉은활과 흰 깃털로 만든 화살을 메고 압록강변에 우뚝 서서 모든 장졸이 다 건너오도록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군사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군사를 사랑하는 장수에게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다” 하였다.

군사들이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강물이 별로 불어나지 않았는데 후군이 막 다 건너자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위화도가 물속에 묻혀 버리었다. 이 광경을 본 군사들은 “이는 하늘의 뜻이다. 이를 어기는 자는 망할 것이다” 하고 이도통사는 하늘이 내신 분이라” 하며 온갖 충성을 다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이태조는 압록강을 건너 회군하여 전 군대를 이끌고 서서히 남진하고 있었다. 조전사 최유경이 우왕에게 달려가 이태조가 임의로 회군하였다는 소식을 보고하였다. 이때에 방우(진안대군)와 방과(정종) 청해백의 장자 화상(추밀공)이 우왕 처소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밤중에 도망하여 회군하는 청해백과 이태조 앞에 이르니 이태조는 기뻐하며 “이는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 하였고 후세에서 이를 위화도회군이라 칭하고 있다.

2. 폐가 입진

이태조와 청해백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서서히 개경을 향하여 남진하고 있는 소식을 보고받은 우왕과 최영은 놀랍고 다급하여 성주온천에서 서경(평양)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개경으로 돌아와 군세를 정비하여 이태조의 회군을 막고자하나 모든 정예부대는 이미 공요군(攻遼軍)에게 참가하고 나

머지는 노피(老疲)한 군대로서 간신히 성문을 수비하는 정도이므로 급히 모병을 하니 이에 응하는 자가 없어 할 수 없이 상금을 내걸고 용병을 모집하니 이 모두 남의 집 종들로 오합지졸이라 아무 쓸모가 없었다.

최영은 하는 수 없어 정몽주에게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고 계책을 상의한즉 정몽주선생 왈 “당초에 명나라와 같은 대국을 치려고 함이 잘못이고 또 게다가 용맹이 범과 같고 변화가 용과 같은 이성계와 이두란에게 그 많은 군대를 맡겼으니 이는 범에게 날개를 붙여주고 용에게 여의주를 준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제는 별도리가 없으니 모든 정권을 이성계에게 맡겨 왕씨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는 길밖에 없다” 한즉 최영은 더욱 마음이 불안하여 침식을 전폐하고 우왕을 시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때에 이태조는 서서히 남진하여 회군부대가 황주에 이르니 방원(태종)이 개경으로부터 마중 나와 영접하는지라 이태조는 태종을 반겨 맞이하며 “내가 지금 사세 부득이 하여 회군을 하는 것인데 병권을 놓는 날에는 나와 나의 동지들은 다 죽을 것이니 너의 소견으로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고 의견을 물으니 방원은 서슴지 아니하고 “부친께서 몸소 시석풍진을 무릅쓰고 수십차례 전장에서 대공을 이루었사오니 앞으로는 부친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데 최영은 공연히 부친을 시기하고 모해함은 만백성이 다 아는 바이오니 빨리 진군하여 이들 요망한 무리들을 징치하심이 가할 줄로 압니다” 하고 대답한즉 이태조는 미소를 지우시고 점두하였다.

이태조는 진군하여 개경십리 밖에다 전 군대를 주둔하고 우왕에게 회군의 이유를 구신하고 이의 책임자인 최영을 인계하여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나 우왕은 최영을 붙들고 내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방 성문을 굳게 닫고 성내의 수비를 더욱 강화하며 제주에서 올라온 신장 억이라는 사람을 진중에 두고 신장을 부려 독전하였다.

이태조는 하는 수 없이 성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성하에

가서 백룡도를 높이 들고 최영을 꾸짖으며 성문을 빨리 열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라 하니 그 음성이 어찌나 웅장하였던지 최영의 옆에 있던 김일손은 최영에게 “이장군의 목소리가 마치 용의 천둥소리 같아 이 싸움은 아마도 이 장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즉 최영은 들은 채하지 아니하고 신장 억이(億耳)를 시켜 이태조를 공격케 하였다.

이태조는 억이(億耳)를 맞아 세 번 싸워 다 패하였다. 청해백은 억이(億耳)의 군사가 신병임을 알고 이태조에게 “거울로 비춰 보라” 하며 거울을 본즉 아무것도 없는지라 이태조는 이에 신병인 것을 깨달았고 백룡도를 높이 들고 휘두르니 신병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때를 맞춰 청해백은 동철을 던져 신병을 불러 성을 넘어 성문을 열게 하고 동문으로 쳐들어가고 다른 좌군 조민수부대는 선의문으로 들어와 함세하여 진군하니 성내 노소남여의 백성들은 단식 호장으로 회군군대를 맞이하였다.

이리하여 이태조는 황룡대기를 앞세우고 선죽교를 지나 남산으로 올라가는데 먼지는 하늘에 닿고 북소리 나팔소리와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하였다. 한편 선의문으로 들어온 좌군 조민수는 흑룡대기를 앞세우고 들어오다가 영의서 앞 다리에서 최영의 군대에게 밀려 전진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에 최영은 동문(송인문)과 선의문으로 회군군대가 조수처럼 밀려들어오자 사세 불리함을 깨닫고 화원으로 가서 문지기 군사를 죽이고 화원속에 들어가 숨었다. 최영을 추격하던 군대들은 화원을 에워싸고 광충보가 군사를 시켜 화원을 살살이 뒤져 최영을 찾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청해백의 건의로 궁중에 있는 흉악한 요승들을 모조리 잡으라 하고 이학정을 시켜 궁중을 조사케 하니 기화요초로 선경같이 꾸며놓고 요승들이 들어 있으므로 모두 잡아 처치하였다.

이때에 우왕과 최영은 팔각전에 있으면서 아무리 나오라 하여도 나오지 아니하므로 군인들이 담을 부수고 광충보 등이 우왕 앞에 나가 최영을 내놓

으라 하니 우왕의 손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최영은 사태가 면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우왕에게 재배하고 곽충보를 따라 나왔다.

장수를 거느리고 태정 문에서 기다리던 조민수와 이태조는 백발의 노재상 최영이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천천히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최영은 무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쏘아 보았다. 조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이태조가 입을 열어 “이와 같은 일은 실로 저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정벌은 대의를 거역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국가는 편치 못하고 백성은 피로곤비하여 원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만부득이 하였습니다” 최영은 노기찬 음성으로 “그것도 말이라고 하오” 라고 질타하였다.

이태조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잠시 고봉현(고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디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최영을 정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영은 국가의 원훈이요 생명의 은인이다. 자신이 오늘이 있게 한 제2의 아버지다. 만약에 최영이 없었던들 이인임 일파에게 모해되어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리었다.

이때에 세상만사를 체념한 최영은 옹지를 알아주지 못하고 경망하게 백년대계를 이룩하지 못하게 한 이 우매한 인간들이 측은하고 또 자기가 친자식처럼 키워온 사람에게 배은망덕을 당하니 만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최영은 돌아서 곽충보가 고삐를 잡은 말에 올라탔다. 조민수·이태조 이하 모든 장수들은 허리를 굽히고 이태조는 다시한번 인사를 드렸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최영은 임금이 있는 전각 쪽을 묵연히 바라보다가 말에 채찍을 가하였다.

우왕은 심히 불안하여 6월 4일 밤에 내관을 거느리고 조민수와 이태조를 사저로 찾아가 궁중의 격식은 타파하고 인간대 인간으로 흥금을 터 놓고 말

하고자 궁중을 나와 조민수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조민수는 서대문밖 병영에 있고 집에 없었다. 하는 수 없어 이태조의 사저를 찾아갔으나 이태조도 역시 집에 없고 동대문밖 병영에 있었다.

우왕은 환궁하는 길에 변안열의 집에 지나게 되어 환관을 시켜 물어 보니 변안열도 집에 없었다. 우왕은 환궁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6월 5일 남은은 이화·조인옥과 청해백의 막사를 찾았다. 이때에 청해백은 칼을 닦고 있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남은은 웃으면서 “장군 손수 칼을 닦고 계십니까” 하고 말한즉 청해백은 “하도 심심하여”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남은이 “잠깐 의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앉으시오” 하고 네 사람이 좌정한 후 남은이 정색하고 “장군 참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두 사람과 얘기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장군을 찾아 왔습니다. 간밤에 상감이 병정들을 휘몰고 조시중택과 송교리, 우리 장군 댁, 그리고 변장군 댁을 습격해 왔답니다” 하고 말하였다.

청해백은 남은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아무 대응이 없었다. 남은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못 믿으십니까” 하였다. “나도 그 얘긴 들었소. 환관들이지 어디 병정들이요” “환관도 무장하면 병정 아닙니까” “80명에 창 한자루가 무장이요” “품에는 모두 비수를 품고 왔답니다” “난 그런 얘기 못들었소” “궁중에는 벌써 우리 첩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무장하고 습격했지만 그분들이 마침 안 계셔서 허탕치고 돌아갔답니다.”

“습격을 하였다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다쳤을게 아니요” “상감도 약합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선물을 놓고 돌아갔거든요” 청해백은 그들을 외면하고 다시 칼을 닦기 시작했다.

남은은 또 다시 “이두란장군은 이 중대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 모르겠소” 하고 계속하여 칼을 닦고 있었다. 남은은 또 “장군도 협력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력하란 말이요” “차제에 상감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청해백은 머리를 들고 그들을 쏘아보며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남은은 다시 “어치피 없애야 할 상감이 아닙니까.” “그런건 나하고 얘기하지 마시오” “대감께서 가장 신임하시는 분이 바로 이두란장군 아닙니까! 장군이 앞장서셔야 성사가 됩니다.” “나는 앞장 못 서겠소” “이두란장군은 우리 대감의 부하가 아니신가요” “난 책사가 아니요” “누군 책사라서 이런 얘길 듣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다 나라를 위하고 우리 대감을 받드는 성의에서 나온게 아니요” “못한다면 못 하오” 하고 청해백은 돌아앉아 칼을 만지고 남은·이화·조인옥 세 사람은 할 수 없어 밖으로 나갔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나란히 누웠다. 이태조는 어둑속에서 청해백에게 말을 걸었다 “이두란장군 우리 이렇게 한방에서 자본지도 오래된 것 같소” “호말도 치러 동북면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니까 한 3년 되겠습니다” “이두란장군, 남은의 얘기 들었소”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오” “잔재주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두 사람은 한참 침묵이 흘렀다.

청해백은 잠이 오지 않아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최영을 몰아냈고 이인임·임견미·염홍방 등 고려의 대대로 내려온 충신들은 다 가고 그 위에 임금마저 쫓겨나면 아홉 살 난 왕세자가 대를 이을 터인데 소위 무인들은 제각기 사병을 거느리고 파벌을 형성하며 서로 기회를 노리고 국내의 치안은 말할 수 없이 혼란한데다가 남은이 같은 모사는 앞으로 점점 갖은 충동질을 다할 것이니 앞으로 무서운 난세가 아니올 수 없었다.

청해백은 고향을 떠날 때 진원사의 스님은 굳이 말리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허공에 있건 바다에 들건 산간 바위틈에 숨을지라도 편히 앉아 업을 피할 고장은 하늘 아래 이 세상엔 없느니라.” 라는 생각이 나서 이를 되새겨 외우고 있었다.

이태조는 또 다시 “이두란장군” 하고 불렀다. “네” “우리는 이제 전쟁을 논할 때가 지나고 나라를 논할 때가 왔소.” “네” “이제 부터는 정치가 주가 됐

단 말이요.” “그렇습지요.” “정치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겨야 하오 패자는 할 말이 없는 법이요. 전쟁에 성식이 통하오? 안 통하지요. 정치도 그런 면이 있소. 양동 위편 다 필요하고 억지와 무자비도 가끔 쓸모가 있소. 이두란 장군은 어찌 생각하오” “알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의 얘기도 일소에 붙이고 말 것은 아니요” 하고 이태조는 말하고 청해백의 반응은 기다렸으나 청해백은 잠자코 있었다.

이태조는 또 다시 말을 계속하여 “이제 상감은 어차피 조치해야 하오. 지금 형편으로 생트집이 아니고 조치할 수 있겠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은의 계책에도 일리가 있단 말이요” 라고 이태조는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말을 계속하여 “요는 상감을 아주 깨끗이 없애 버리느냐 옥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하는데 있소 이두란 장군은 어느 편이 좋겠소.” “장군 사람의 피란 묘한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의 피가 아십니까? 충분한 준비없이 손댈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4백년 동안 백성들의 머리에 임금으로 딱 박혀온 왕씨입니다. 지금은 아들이니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서 백성들은 장군이나 조대감을 신주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백성들이란 본래 잊음이 빠른 것입니다. 이 때 별안간 임금을 죽여 보십시오. 동정은 모두 그리로 쓸릴 것입니다. 자칫하면 수습할 수 없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소” “장군 상감을 물러나게 하는 일은 장군께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시면 남은이 다 할 것입니다.” “남은을 잘 아시오?” “잘 압니다. 책사지요. 책사는 술책을 부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이두란장군의 생각이 그럴 듯하오” 하고 그들은 바깥이 흰히 밝아오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다.

6월 6일 하오 비가 그치고 동대문에는 햇살이 내리쬘었다. 문루에서 조민수·이태조·변안열·청해백을 제외한 각 군 장수의 긴급회의에서 남은

이 열변을 토하여 “임금이 밤중에 중신들을 암살하기 위하여 내관에게 무장을 시켜가지고 조대감·이대감·변장군택을 기습하였으나 그 분들이 마침 집에 없어 화를 면하였다”고 주장하고 또 “그분들을 암살한 다음에는 순군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반대파 죄인들을 방면하며 근왕병을 모집하여 우리들을 모조리 쳐부술 계획이라”고 선동하여 모든 장수를 극도로 흥분케 하였다.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하극상의 맛을 들인 장수들에게는 임금이 안중에 없고 제각기 잘났다고 날치니 사회질서가 말이 아니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남은은 다시 자위책을 내세워 “궁중의 병장안마(경비)를 모조리 접수하고 경비병정을 전부 우리 병사로 대체하여야 하며 최영의 딸 우왕비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일을 하는 데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법이니 이 자리에서 제일 격이 높은 심덕부원수가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니 제장들이 모두 함성을 지르고 대궐로 몰려 들어갔다.

6월 7일 하오에 심덕부 이하 대표로 뽑힌 장수들이 궁중 대관전 앞에 집결하고 임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환관의 선도를 받으면서 나온 우왕은 충혈된 눈을 두리번거리며 용상에 힘없이 앉았다.

이때에 심덕부가 앞으로 나서며 목청을 가다듬어 “신 심덕부 황공하오나 제장의 결의를 아뢰오. 성상께옵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이와 같은 광도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오로지 역신 최영의 죄책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사 최영은 유배로 그쳤습시다마는 그는 멸족하여도 오히려 부족한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최영의 여식이 곤전(坤殿)에 계심은 진실로 천리를 거역함인가 합니다. 제장의 마음이 불편하고 민심이 흉흉하오니 즉시 대궐에서 내치사 제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편케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왕은 입술을 떨 뿐, 말을 하지 못하였다 심덕부는 다시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왕에게 대답을 독촉하였다. 우왕은 “머칠 동안 생각할 여유

를 주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제장의 대표사로 지정된 심덕부는 “세장들의 회의에서 정상전하의 즉답을 받들기로 결의 되었습니다” “.....” “곧 성지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독촉하니 우왕은 일어나며 부들부들 떨면서 “신하로서 어찌 감히 국모를 놓고 왈가왈부하오. 정 그렇다면 나도 금비와 함께 이 대궐을 나가겠소” 하고 불의의 역습을 하니 심덕부 이하 제장은 감히 말을 못 하고 장내는 적연하였다.

이때에 뒷줄에 있던 남은이 머리를 쳐들면서 크게 기침을 하고 아뢰었다 “그러하옵시다면 그것도 만불득이 합니다. 이제 와서 제장의 결의를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이 하늘 아래 없습니다” 하였다. 우왕은 하도 어처구니없어 실신한 사람같이 용상에 풀썩 주저앉았다.

남은은 호기도래라고 즉감하며 소리를 높여 제장에게 물었다. “정상전하의 의도를 받드는 것은 신하의 도리로서 당연하오니 대궐을 나가시면 강화도에서 유유자적하시며 여생을 평안히 보내시도록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람되오나 제의합니다.” “좋겠습니다.” 하고 조인옥의 찬동에 따라 제장이 이구동성으로 “좋소” 하고 아무도 반대하지 아니하였다.

남은은 큰 소리로 “전원일치로 찬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부름 하겠습니다” 하고 열중에서 나와 전정에 서 있는 별장에게 “여봐라 안마 열 필을 당장 이리로 대령하여라” 하고 명령하고 또 다른 별장에게 “너는 내전에 들어가서 근비마마를 당장 이리 모시고 와.” 하고 명령하니 미구에 안마와 근비, 명순옹주가 울면서 끌려왔다.

남은은 손짓으로 말들은 층계 밑에 끌려오고 장수들은 일어서 두손을 앞에 마주잡고 우왕도 따라 일어섰다. 한참 망설이다가 힘없는 소리로 “안에 들어가 옷이나 갈아입고 나오겠소” 하니 남은은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어의는 모두 뒤따라 보내 올리겠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우왕은 하는 수 없이 층계로 내려와 별장이 드리는 채찍을 받아 쥐고 말에 올라타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떠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애소하였으나 제장들은 모두 묵묵부답하고 외면하였다.

우왕은 하는 수 없이 영비를 위시하여 후궁 쌍비와 더불어 지난날에 화려하였던 부귀와 권력을 다 버리고 파도와 물새 소리만이 들리는 적막한 강화도를 향하여 회빈문을 빠져나가니 무심한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이 그 뒤를 비치었고 모든 장수들은 인간의 무상함을 느껴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우왕은 최영이 떠난 후에 우왕의 아들 창을 세워 왕을 삼고 조민수와 이태조간의 세력의 암투가 시작되었다. 조민수와 이태조 사이에 각도 병권을 반분하여 동북면·삭방(북방)·강릉도 도통사는 이태조가 맡고 양광·전라·경상·서해·교주 도통사는 조민수가 맡기로 협약하여 전국의 반에 해당하는 병권을 차지한 이태조의 막하의 제장의 움직임은 활발하였다.

이에 조민수는 조민수대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하여 조정은 조민수 대 이태조의 두 세력으로 형성되어 사사건건이 맞서 일은 점점 복잡하여지고 진척되지 아니하니 국고는 텅텅 비고 치안은 문란하여 서로 의심하여 중상모략으로 옥사가 끊임 없이 일어났다.

이태조를 지지하는 노력의 핵인 심덕부 이하 제장은 조민수 및 남성리 허인 등을 순군옥에 가두고 개경안에 비상계엄을 실시하니 하루아침에 고려의 천지는 완전히 이태조일인의 장중에 들어갔다.

일이 이에 이르니 남은의 계략활동은 점점 극에 달하여 우둔한 곽충보를 협박하여 상왕 우를 모함하고 정도전은 “상왕 우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므로 창왕은 신돈의 손자이지 왕씨가 아니라” 하여 결국 창왕을 폐하고 신종의 칠세손 정창군을 세워 왕을 삼으니 이 분이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이다. 그리고 후세에서 이 사건을 폐가입진이라고 한다.

3. 녹전 폐지

녹전이라 함은 고려말 공민왕 10년에 홍건적 재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어 개경을 버리고 복주(안동)로 몽진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개경을 수복하고 환도하였으나 국고가 고갈되어 관원의 녹봉을 지급할 수 없어 임시조치로 녹전봉상색이라는 관청을 두어 지방조세전을 관사에게 배정하여 그 수곡으로 녹봉을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유래하였다.

고급동서를 막론하고 간신과 정상배들이 만조정(滿朝廷)하면 정치는 부패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생불여사의 지경에 이르나 일부 고급 관사는 일익치부하며 주택은 궁전이 무색할 정도로 사치하되 그 욕심은 한도가 없이 부익부를 위하여 갖은 악법을 악용, 백성의 고혈을 착취하거나 심하면 백성의 재산과 토지를 탈취함은 일반적 현상이었다.

고려말 공민왕 때 녹전제도가 실시되어 신우왕 8년에 이르러 고려의 정치는 극도로 부패하여 녹전을 빙자한 관사의 수탈이 극심하였다. 이 때 임견미·염홍방·이인임 등 당대 명문사족들이 앞을 다투어 치부취재하는데 그 수단방법은 법을 벗어나 하향 백성으로서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자가 있으면 여하한 구실과 억지를 부리며 강탈하고야 말았다.

매사에 세도가의 하는 짓이 이 지경에 이르니 약삭빠른 사람은 미리 재산과 토지를 세도가에 바치고 인연을 맺은 후 그 세도를 역용하여 이중착취를 감행하니 민생고의 참상은 말할 수 없었다. 당시 왜구의 침입과 호족의 약탈로 백성은 하루도 영일이 없는데다가 관사의 기강이 문란하여 위와 같은 착취로 백성은 집과 전장을 잃고 유리개걸(流離丐乞)하니 농촌은 피폐할 대로 피폐하였다.

이때에 청해백은 이태조와 함께 동북면 지방에 들어섰다. 8년 전에 보던 산천에 변함이 없는데 농촌은 피폐하여 기와집은 헐리고 초가집은 움막으로 변하여 고향산천을 그리며 철령을 넘은 청해백은 심회가 심히 울적하였

다. 이 일행을 영접하기 위하여 병사와 관원을 거느리고 마중나온 동북면 도순무사 겸 화령윤 황숙경의 안내를 받으며 청해백은 이태조와 조무·이원경·조영무 등과 같이 농촌부락을 답사하여 농촌이 이같이 피폐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이때에 황숙경이 말하기를 “도지휘사께서 오시게 되어 지령부터 동북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다.” 하며 선두에 서서 이태조와 청해백을 농촌부락에 안내하였다. 이때에 모닥불 중심으로 몰려앉은 부락민들의 파리한 얼굴에는 애수에 싸이고 웃음이 없었다.

그 중 한 노인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물러가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나라 관원들이 더 못됐단 말ियो” 라고 하였다. 또 한 노인은 “후열이 무섭소. 모두들 쓸데없는 말마시오. 장군님들이 떠난 후에는 어찌 되겠소.” 하므로 청해백이 “마음 놓고 말하세요” 한즉 노인들은 “자유가 없으므로 말 못하겠습니다.”한다.

그때 이태조가 “자유롭게 말 하세요” 한즉 한 노인이 “지령 제일 곤란한 것이 세금과 부역입니다. 세금은 농민과 서민들만이 내고 관원이나 녹전에는 세금이 없으니 우리들이 녹전과 관사의 세금을 합하여 내게 되니 세금 때문에 큰 집을 헐어버리고 오막살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고관대작들은 세금을 면제하고 서민들만이 납세의 의무를 질 수 없다” 하고 이 제도를 시정할 생각을 가졌으나 이태조와 청해백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었다. 전국의 사정을 살펴보면 남도에서는 눈치도 보고 또 조심하는데 동북에서는 마음대로였다. 이리하여 관원은 불어나고 이에 따라 녹전이 자꾸만 늘어 나갔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녹전은 자꾸만 늘어나니 못살 것은 남은 백성들이다. 그리하여 짐을 꾸려 오랑캐 땅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잘 살폈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힘 있는데까지 이를 시정하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국가가 흥하는 것이다. 청해백은 조무를 데리고 매일 같이 말을 달려 벽지까지 들어가 자세히 조사하였다. 남으로는 고주(고원문천)에 이르고 북으로는 정주에 이르면서 군영을 찾고 백성들의 형편을 살폈다. 다 해진 군복을 걸친 병사들의 검은 얼굴에는 피로와 굶주림이 역력하고 오막살이 집에서 얼굴을 내미는 농민들의 흰 눈에는 말없이 반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절박한 분위기를 의식하면서 황숙경을 불렀다 “이래서야 되겠소 쓸만한 병사가 어디 있으며 민을 백성이 어디 있소. 이러니 이 땅을 어떻게 지탱하겠소” 하고 질책하였다.

황숙경은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말하기를 “저도 지나간 4년 동안 무척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됩니다. 관원들이 녹전을 넓혀 가는 것은 도순문사의 권한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밭이 닳도록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녹전이 아니고 속으로는 녹전입니다. 문서에서는 뚜렷이 백성 아부개 땅인데도 세공은 안 들어오고, 관원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관원들은 자기가 벼었다고 안합니다. 가뭄이니 홍수니 염병이니 해서 언제나 핑계를 마련해 두었다가 발각되면 그것을 들이 댁니다. 또 백성들과도 짜고 있습니다. 관원들에게 밍게 보이고는 못 사는 게 백성입니다. 못된 관원을 적발해도 소용없는 것이 개경의 높은 어른들이 줄이 닿아서 도리어 본인들에게 부당한 압력이 옵니다. 부역이나 군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이나 끌려오게 마련입니다.” 하고 자기 입장과 그 당시의 세정을 설명하였다.

이 말을 들은 두 장군은 지방의 사정과 황숙경의 심정을 잘 알고 장병들을 거느리고 북진하여 함주에 도지휘사영을 설치하였다. 도지휘사영을 설치한 두 장군은 급히 농촌에 나가 직접 농민들과 일문일답하였다. 한 농부가 말하기를 “이장군님이 아니 계신 동안에 관원들의 행패가 한량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네들의 녹전에 들어가야 죽이라도 먹는 형편이요” 라고

호소하였다. 화령 백성들이 호소하던 현상과 여기의 사정이 마찬가지로였다.

또 한 백성이 말하기를 “거년에 두 늑이 와서 세미 스무 섬 내라는 것을 모두 열 섬밖에 못되어 빌어도 용서치 않고 뽕뽕 묶여 관가에 가는 도중 큰 소리로 나는 “이장군과 친척이다. 한즉 그날 밤으로 닭 두 마리 가지고 와서 세미는 아주 안 받을 터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용서해 줬더니 그 후부터는 까딱 없습니다” 라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이후 이태조와 청해백 두 장군은 평북 차림으로 조무와 같이 민정시찰을 나갔다. 시찰중, 한 촌락민가의 돌배나무에 두 청년이 배를 따먹고 있었다. 이때에 낫선 사람을 본 이 두 청년중에 한 사람이 조무에 대하여 “너는 누구야” 하고 나무에서 내려 조무에게 덤벼들었다.

조무는 “미안하오. 미안하오” 하였다. 두 청년은 조무의 가슴과 턱을 치박으려고 하였다. 순간 조무는 두 청년의 허리를 들이쳤다. 두 청년은 “이놈의 새끼 사람 몰라보구” 하며 대들었다. 조무는 달려들어 주먹으로 눈통을 쥐어박았다. 이때에 비로소 도지휘사 이태조와 청해백이 군영을 설치한 줄 알고 이 지방의 농민이 이와 같은 부랑패들 30여명이 있다는 것을 호소하여 왔다.

청해백은 이태조와 의논하고 이들 30명을 잡아 놓고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민정을 살피러 왔다” 하였다. “누가 민정을 살피랬느냐” “개경부사 임재미 대감께서 했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잘 못했습니다” 하였다. “그래 땅은 얼마나 먹었느냐” “고주 이남의 역전에 좀 손을 댔습니다. 백성들 땅은 삼분지일을 먹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에는 무슨 연고로 무단분숙하고 돈도 안내는 거냐” 한즉 “관원들이 알선해 주었습니다” 한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황숙경에게 “악질 관원과 이놈들에게 제멋대로 탈인전토하고 탈인노비한 죄로 수괴 길 의식은 참형에 처하고 그 외는 장 1백에 처하라” 하였다.

이후 민정제도를 다시 개정하여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한 원칙을 세웠다.

첫째, 악질관사와 민폐를 하는 자는 참형 내지 장 1백에 처한다.

둘째, 녹전을 없애고 기와집으로 재건에 힘쓰고 경전다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세째, 적을 막는 방책은 관민일치가 되어 실기 없도록 한다.

네째, 군대의 명맥은 군량ियो 백성의 명맥은 민량이다. 농사에 힘쓴다.

다섯째, 염근정직한 사람은 공선하여 관원으로 한다.

이리하여 동북면지방이 다시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위화도회군 후 정권을 잡은 이태조와 청해백은 공양왕 2년(1390) 공사의 전적을 불사르고 일대개혁을 가하여 동북면지방과 같이 전국의 녹전제도를 철폐하니 농촌은 평온을 찾아 백성들은 이태조와 청해백을 높이 추앙하였다. 이로써 녹전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농촌은 다시 부흥하여 농민들은 격양가를 부르며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4. 민심이 천심

소위 폐가입진이라는 우왕·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는 심덕부가 시중이 되고 이태조는 도총이 되어 모든 정사는 이태조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태조의 막하 젊은 모사들의 획책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생트집을 만들어 경하면 유배, 중하면 처형하니 세상이 공포에 싸여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태조 일파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인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무인정치가 진행되니 세상이 공포에 싸여 민심이 흉흉할 뿐 아니라 하루밤을 자고 나면 또 어느 대신이 옥에 갇히고 또 누가 참수된다 하는 말로 민간에서는 아침 인사가 “밤사이 안녕하십니까”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이 인사말을 쓰고 있다.

민심이 이같이 흉흉하니 천심인들 변하지 않을 리가 있으랴. 공양왕 2년

(1390) 5월에 때 아닌 진눈깨비가 내리더니 6월에는 연일 비가 퍼부어 전국에 홍수 소동이 나서 집을 잃고 전장과 생명을 잃는 자가 속출하여 세상 인심은 더욱 흉흉하여 이구동성으로 “임금 죽인 백성이 잘 될리 있나 천벌이 내리는 거야” 하며 쑥덕공론이 그치지 않고 밤이 되면 개경 거리에 “생사람 잡는 이성계 얼마나 잘되나 보자” “똥 되놈의 앞잡이 이성계 타도” “여우같은 조준·남은·정도전을 죽여라” “이성계는 주원장의 아들, 다같이 벼락을 맞으리라” 등등의 방이 처처에 나붙었다.

순군들은 혈안이 되어 골목마다 지키건만 방을 붙이는 사람을 붙잡지를 못하고 애꿎진 집 주인을 잡아다가 마구 때리며 욕보이니 민심은 날이 갈수록 이태조에 대한 반감과 원성이 높았다.

6월 14일 지화의 생일날 지밀직사사로 있던 청해백은 이태조를 싸리골로 찾아갔다. 바깥체에 손님이 들끓었으나 이태조는 만 사람들을 물리치고 대청에 술상을 차려 놓고 청해백을 반가이 맞아 술잔을 주고 받았다. 이때에 술심부름은 지화가 손수 정성을 다하여 거행하였다.

첫 잔을 반쯤 마시고 난 이태조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지화에게 “가만있자, 중문을 닫아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오.” “그렇지 않아도 걸어 났어요. 파수병에게도 일러 놓고요” 청해백은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머리는 참으로 민첩하십니다” “이두란장군이 오시면 중문은 걸리게 마련 아니에요”

이태조는 만족한 얼굴에 미소 지우며 “허허, 그렇던가?” 하고 청해백을 쳐다보았다.

술이 두어 잔 돌아간 뒤에 이태조는 술잔을 청해백에게 권하며 “요즘 어떻게요.” “글쎄… 어떻다고 할까요 그저 앉아 있는 거지요” 하며 둥근 얼굴에 씩씩한 웃음을 띠었다. “어전에 제일 가까이 계신 대감께서 홍이 안 나시나 봐” “그 대감 소리는 그만뒀 주십시오.… 저는 역시 시원한 산과 들이 좋습니다.” “이두란장군은 철두철미한 군인이시니까요” 지화는 옆에서 신설로

를 거들고 있었다.

청해백은 이태조를 정시하면서 “대간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젊은 패들의 모락이 도에 지나친 듯 합니다” “가령 어떤 일 말이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금저의 옥사에서 선왕 부자를 죽이기까지 모두 그 패들이 한 일이 아닙니까 저도 요즘에야 그 전모를 알았습니다마는” 하고 말하였다.

이태조는 비오는 안마당을 내려다보면서 탄식조로 말하였다 “나도 얼마 전에 해주가 있는 방우의 편지를 받고 처음으로 알았소. 결국 젊은이들의 함정에 걸린 거지요… 자초지종을 알았다면 것처럼 비루하게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을게요” “…”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고 이제 기호지세가 아니겠소”

“과거를 따지자는게 아니라 그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들은 말이라도 있소” “지금 간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렇게 억울할 데가 있습니까, 윤유인은 윤이의 친척이니 그럴 수가 있다 치더라도 총인계·최공철같은 공신을 짐승처럼 때려 죽여서야 쓰겠습니까, 인재를 아껴야 합니다. 좀 의견이 다르다고 살육을 일삼아서 안 됩니다. 젊은 패들이 대감께 충실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공에 성급하고 덕없이 사람을 잡아 없애 버리는 풍조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그들이 승진하는데는 편리하겠지만은 나라를 위하는 길은 아닙니다” 이태조는 안마당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청해백은 다시 정색하고 “장군, 옛날 장군께서 품었던 뜻이나 제가 장군에게 대마지역을 다해온 뜻이 사람을 무턱대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태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해백을 정시하면서 “이두란장군의 뜻을 알겠소마는 지금 같은 변동기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게 마련 아니오”

“불가피한 희생이라면 몰라도 뻔히 알면서 생사람 잡는 법은 없습니다. 자고로 인명을 소홀히 다룬 자가 흥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반생에 억울한 죽음을 얼마나 많이 보았고 얼마나 한탄하고 분개 했습니까” 이태조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청해백은 다시 힘주어 “장군 영단을 내리십시오” “모두 석방하지요.” “겸해서 다른 죄인들에게도 대사를 내리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민심이 자칫하면 장군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헌부에서는 김진양을 탄핵하느라 야단인데 사람을 잡고야 말 기세입니다. 흑을 흑이라 하고 백을 백이라 했다고 벌을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큰일에는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태조대왕(왕건)을 보십시오. 조금도 서둘지 않고 긴 세월을 두고 천하 사람들을 다 포용하여 대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젊은 패들이 지나치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요. 허나 내가 장군에게 분명히 해둘 것은 언젠가도 얘기 했소마는 이 이상 더 욕심이 없소”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요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했고 이제 그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한 일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못됩니다. 김진양은 구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하자는 것이오” “파면 정도로 그치면 어떻겠습니까” 이태조는 빙그레 웃으며 “이두란장군의 뜻대로 합시다” 청해백은 머리를 숙이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나를 위하여 하는 충고인데 내가 감사해야지요 자 한잔 드시다” 두 사람은 기쁜 낮으로 술잔을 들었다.

이때에 지화가 이태조에게 “여보 이두란장군께 그 말씀 안드리세요” 이태조는 술잔을 놓고 지화를 가리키며 “이 사람 오늘 자기 생일기념으로 장군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청해백은 지화를 보면서 “제게 좋은 소식이라... 무엇입니까” 지화는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청해백을 주시하면서 “소식이라

기 보다 선물이에요” “부인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무조건 받아야지요” “저의 친절 조카 보신 일이 있지요 작년 추석에 여기 왔던 애 말이에요” “강계권 장의 따님 말씀이지요, 생각이 납니다.” “그 애 어떠세요” “잘 생겼습니다” “그 애가 벌써 몇 해째 혼자 살고 있어요. 랑군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우리끼리는 벌써 전부터 의논이 있었는데 장군만 괜찮으시다면 정혼할라고요”

“아니 말씀은 고맙습시다마는 이미 넷이나 있는데 또 장가 갑니까” “뭐 어떠세요 모두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청해백은 사양하면서도 싫은 얼굴은 아니었다 “금년에 꼭 서른 살이에요. 내월쯤 식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두 분의 조카뻘이 되는가 봅니다” “윤과부 하고는 달라요. 보따리 하나 받는 셈 치구 받아서는 안돼요” “허허, 옥이야 금이야 하구 받겠습니다” 하고 3인이 모두 파안대소하였다.

이튿날 순군옥에 간헐던 사람들은 모두 석방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전국에 대사령이 내려져 이죄이하(二罪以下)는 일률로 방면하였다.

5. 건주위 정벌

명태조 25년(1392) 고려 공양왕 4년 4월에 만주 건주위 지휘사 여진추장월로첩목아가 명나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명태조는 명나라 장수 남옥으로 하여금 건주위란(建州衛亂)을 평정하도록 명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원군을 요구하되 원군의 대장은 반드시 청해백으로 달라는 지명 요구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청해백을 원수로 삼고 또 청해백의 장자 화상을 부원수를 삼아 출병하였다.

그 당시 청해백의 명성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있었다. 명천자가 일부러 청해백을 지명하여 출정을 요구한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사실 그대로 지용을 겸비한 명장이므로 난을 평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청해백은 원래 남송 병무목왕의 후손으로 만주일대의 여진인의 추앙을 받

을 뿐 아니라 철령위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청해백은 명나라를 위한 원군을 거느리고 건주위에 출병하여 별로 힘들이지 아니하고 월노첩목아(月魯帖木兒)의 항복(降伏)을 받아 난리를 평정하였다.

이 공로를 명천자는 높이 포상하여 청해백에게 백이라는 높은 지위의 벼슬을 수작하고, 청해백의 장자 화상에게는 예부상서겸(禮部尙書兼) 추밀부사(樞密副使)에 봉하였다.

명나라에서 건주위란(建州衛亂)의 평정을 구실삼아 청해백의 부자로 하여금 원병으로 출정케 하여 명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한 후 후한 대우로 호감을 사서 명나라에 남아 있게 하고 철령위 일대의 여진인을 명나라에 귀화시킴으로써 철령위 영토가 자연 회복될 것이므로 이 일조이석의 정치적 목적에 청해백을 이용하자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청해백은 이미 뜻이 굳어 있는지라 명나라의 그 교묘한 정치수단을 출병전부터 미리 갈파하고 있는 터이라 건주위란(建州衛亂)을 평정하고 즉시 회군할 뜻을 명천자에게 진달하고 재삼만류를 뿌리치고 추밀공(樞密公)만을 잔류케 한 후 고국으로 개선하였다. 이로 인하여 명나라의 여진회유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야 끝끝내 철령위의 설치를 하지 못하고 조선의 영토로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6. 이태조의 등극

위화도 회군후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자 정몽주가 왕수가 되어 왕을 교수하게 되자 자연 정몽주를 주축으로 하는 보수파 즉 고려왕조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형성되어 이태조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혁신파의 거물인 정도전·조준 등을 정계에서 몰아내고 기회를 보아 이태조를 제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군사·정치·경제의 모든 실권을 장중에 쥐고 있는 이태조를 정

면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공양왕 4년(1392)에 이태조가 해주에 사냥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몹시 다치었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간관 김진양이 왕 앞에 나가 부복하고 이태조를 죄주어 없이 하자고 극간하였으나 그 당시 이태조에 대한 조야의 신망이 높을 뿐 아니라 조정대신이 거의 다 이태조를 신봉하는 처지인지라 공양왕은 감히 김진양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중 해주에서 조정의 이상한 분위기를 전하여 들은 이태조는 조용히 가마를 타고 개경으로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은 보수파의 거두인 정몽주는 이태조의 병세와 혁신 세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문병을 빙자하고 이태조의 사저를 방문하였다. 이때에 태종은 정몽주를 접대하기 위하여 주연을 베풀었다. 정몽주는 술을 마시며 노래하기를 “금일풍광심악심악(今日風光甚惡甚惡), 오늘의 공기가 몹시 좋지 않으나 어찌하는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좋지 않도다 하면서 태종이 화답하기를 “성황당후원퇴락차여하차여하(城隍堂後垣頽落此如何此如何) 성황당 뒷담이 무너졌으니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하였다(이 뜻은 비유의 말인데 참 뜻은 고려왕조가 망하였으니 새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아니하냐는 뜻이다).

정몽주가 다시 화답하기를 “此身死了死了 一百假更死了 白骨委塵土 魂魄有也無 一片丹心 寧有更易也哉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고 혼이야 있건 없건 일편단심 다시 바꿀 수 있으랴” 하니 태종은 정몽주의 굳은 마음을 돌릴 도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태종은 하는 수 없이 정몽주를 죽일 결심을 하고 그 형 방과와 상의하고 그해 3월에 청해백에게 정몽주의 처치를 부탁하였다. 청해백은 이 부탁의 말을 듣고 정색하며 이 일을 이태조가 아느냐고 반문하자 태종은 모른다고 답하였다.

청해백은 “이태조가 모르는 일을 내가 어찌 감히 하며 또 익양(정몽주의 존호익양군)은 충신이거늘 내가 어찌 차마 충신을 암살하여 스스로 불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마침내 듣지 아니하니 태종은 하는 수 없어 조영규에게 말한즉 조영규는 분연히 대답하기를 “명령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해주목사 조영무 중랑장 고려·이부 등과 더불어 정몽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도중에서 정몽주를 쳤으나 잘 맞지 않았다.

이에 놀란 정몽주는 말을 채찍질하여 도망하는 것을 조영규가 쫓아가 다시 철퇴로 내려치니 이번에는 말의 머리를 때려 말이 꺼꾸러지는 바람에 정몽주는 말에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 도보로 도망하는 것을 고려가 뒤 쫓아가 선죽교에 이르러 쳐 죽였다. 그런데 그 후에 정몽주가 격살된 자리에서 대가 나왔다 하여 그 다리를 선죽교라고 불려왔다.

인조 때 사람 김상헌은 청음집 가운데서 정몽주격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지란으로 하여금 사전 정몽주를 격살하라 하였는데 이지란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여 결국 조영규를 시켜 격살시켰다. 후세에 조영규의 후손은 번성치 못하였는데 청해백의 자손은 번창하여 오늘날까지 청해백의 명성은 드높이 전하여지고 있으니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태조는 정몽주가 조영규에게 격살될 때에 영령역에 있으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비보를 전하여 듣고 몹시 놀라고 슬퍼하였다.

그 이유는 정몽주가 정치이념은 다르다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정의는 심히 두터웠고 또 학식과 덕망이 높아 늘 존경하고 아끼어 오던 친우를 살해한데 대한 죄책감과 서운한 감정, 더 나가서 모든 국민 앞에 수치감을 면할 길이 없어 한동안 고민하였다. 그러나 이왕 격살된 일을 고민한다고 재생될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태조는 자기에게 일언반사의 상의도 없이 과격하게 처사하는 아들 방원(태종)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두 부자의 의견조정을 청해

으로 반가운 체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규제하고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해명하고 질병이 있으면 서로 치료하고 환난이 있으면 서로 구제할 것입니다.

신들의 자손과 전하의 자손이 다같이 맹서를 지켜서 절대로 변함이 없고 만약 변하면 신명은 그 자를 죽이옵소서.

개국공신록(一二三等 三十九人)

* 일등공신 15인

백 · 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벼슬	노비	토지
益安大君	李芳毅		李太祖의 第3子		
星山伯	裴克廉	補祚功臣	門下左侍中	30口	220결
平壤府院君	趙浚	佐命功臣	門下右侍中	30口	220결
上洛府院君	金士衡	佐命功臣	門下侍郎贊成事	25口	200결
興安府院君	李濟	佐命功臣	門下侍郎贊成事	20口	170결
義安大君	李和	佐命功臣	商議門下府事	20口	170결
鷄林府院君	鄭熙啓	佐命功臣	參贊門下府事	20口	170결
淸海伯	李之蘭	補祚功臣	參贊門下府事	20口	170결
宜城君	南閭	佐命功臣	判中樞院事	25口	200결
花山府院君	張思吉	補祚功臣	中樞院事	20口	170결
西原府院君	鄭摠	補祚功臣	中樞院事	15口	150결
漢山府院君	趙仁沃	補祚功臣	中樞院副事	20口	170결
宜寧府院君	南在	佐命功臣	사헌부대사헌	20口	170결
淸城府院君	鄭擢	佐命功臣	大將軍	20口	170결
益和君	金仁贊	補祚功臣	中樞院事	15口	150결

* 이등공신 9인

백 · 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벼슬	노비	토지
坡平府院君	尹 虎	佐命功臣	判司三事	10口	100결
平 原 君	趙英珪	佐命功臣	禮曹典書	10口	100결
商山府院君	李敏道	佐命功臣	工曹典書	10口	100결
漢川府院君	趙 溫	佐命功臣	平壤尹	10口	100결
復興府院君	趙 胖	佐命功臣	知中樞院事	10口	100결
玉川府院君	劉 敬	補祚功臣	中樞院事	10口	100결
南陽府院君	洪吉旼	補祚功臣	左副承旨	10口	100결
平 海 君	黃希碩	補祚功臣		10口	100결
平城府院君	趙 狷	補祚功臣	晉州牧使	10口	100결

* 삼등공신 15인

백 · 군	공신이름	공신칭호	벼슬	노비	토지
興寧府院君	安璟恭	翊載開國	都承旨	7口	70결
鷄林府院君	金 樞	翊載開國	中樞院副使	7口	70결
文 陽 君	柳爰廷	翊載開國	前漢陽尹	7口	70결
星山府院君	李 稷	翊載開國	前知中事	7口	70결
寧城府院君	吳思忠	翊載開國	戶曹典書	7口	70결
安平府院君	李 舒	翊載開國	刑曹曲書	7口	70결
漢山府院君	趙英茂	翊載開國	判殿中寺事	7口	70결
完城府院君	李伯由	翊載開國	前禮曹判書	7口	70결
興原府院君	李 敷	翊載開國	判奉常寺事	7口	70결
廷城府院君	金 輅	翊載開國	上將軍	7口	70결
高城府院君	高 呂	翊載開國	典醫監	7口	70결
東原府院君	咸傳霖	翊載開國	開城少尹	7口	70결
西原府院君	韓尙敬	翊載開國		7口	70결
上 黨 君	韓 忠	翊載開國		7口	70결
驪興府院君	閔汝翼	翊載開國		7口	70결

회군공신의 명단

공신이름	벼슬	등급	공신이름	벼슬	등급
沈德符	青城伯	1등공신	崔允壽	僉節制使	"
李和	義安伯 商議門下府事	"	黃順常	前晉州牧使	"
柳蔓殊	判開城府事	"	사망공신 이름	벼슬	등급
崔永沚	門下侍郎贊成事	"			
李之蘭	參贊門下府事	"	曹敏修	門下侍中	1등공신
慶補	前判慈惠府事	2등공신	裴克廉	門下左侍中	"
慶儀	參贊門下府事	"	尹虎	判三司事	"
尹思德	三司左僕射	"	邊安烈	檢校侍中	2등공신
鄭曜	商議門下府事	"	王安德	判三司事	"
林永忠	同知中樞院事	"	池勇奇	判三司事	"
崔鄂	前判慈惠府事	3등공신	趙仁璧	三司左使	"
干寶	前雞林府尹	"	李元桂	完山君	"
金天莊	前密直副使	"	鄭地	門下評理	"
南成理	前開城尹	"	崔公哲	忠州節制使	"
李至	前漢陽尹	"	등19인	判慈惠府事	3등공신
張子忠	工曹典書	"			
			安慶	晉州牧使	"
			金賞	開城尹	"
			李伯		

(太祖實錄에 의함)

8. 여진교화

태조 2년 8월에 조선왕조 창업의 기반이 이루어지자 이태조는 내치에 힘이 기울이며 일변 변방수호에 큰 역점을 두어 청해백에게 동북면도안무사(東北面都按撫使)의 대임을 맡겨 철령이북에 거주하는 여진인의 귀순교화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리하여 여진추장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幹朶里的 豆漫溫猛哥帖本兒・火兒阿의 豆漫古論阿合出・托溫의 豆漫高卜兒・閼哈蘭都, 達魯花赤, 奚灘訶郎合, 參散(北靑)의 猛安古論豆蘭帖本兒, 移蘭豆漫의 猛安甫亦莫兀兒, 住海洋(吉州)의 猛安托兒牙火矢帖本兒, 阿都哥的 猛安奧屯完者, 實眼春의 猛安奚灘塔斯, 甲州의 猛安雲剛括, 洪肯(洪原)의 猛安括

兒牙兀灘, 海通의 猛安米胡貴洞, 禿兀(端川)의 幹合(鏡城)의 猛安奚灘薛列, 兀兒忽里的 猛安朱胡引答忽, 約出闊失의 猛安朱胡完者, 籠吾所의 猛安暖禿古魯, 土門(慶源北方)의 猛安古論孛里, 阿木刺唐, 活奚灘古, 活兒牙, 八兒速, 古州(高原)의 活兒牙, 乞木那, 答比那, 可兒答哥, 速平의 江南突阿, 刺合伯顏, 眼春의 括兒牙, 禿成改等이다.

철령이북의 여진족은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때고 그 반복이 심하여 하루도 변방이 편한 날이 없어 이들의 교화가 난제중의 난제였다.

그러므로 이태조는 조선개국 후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해백으로 하여금 여진인을 외형부터 개선함에 있어 그 피발습관을 고쳐 조선인과 같이 상투를 틀게 하고 관대를 하게하며 조세와 병역의 의무도 조선인과 같이 차별없이 지게하고 조선인과 혼인도 권장하여 본토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며 예의를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그 추장에게 예속하여 노예대우를 받은 것을 추장 예속에서 해제하며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케 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부하를 잃은 추장에게는 그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조선조정의 벼슬 제도에 따라 천호·만호 등의 벼슬을 주어 그 벼슬에 대하여 지급되는禄과 대우로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성명도 조선인과 같은 식으로 개성명하여 완전히 조선사람이 되게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철령이북의 행정구역에 획정과 관아설치를 하기 위하여 정도전을 동북면도선무찰리사(東北面都宣撫察理使)로 임명하고 청해백과 같이 동북면 일대의 행정기관의 설치 및 관재를 편성하였다. 이 일을 함에 그 노고에 대하여 李太祖의 관심이 대단하였다는 증거로 조선왕조실록 태조편 13권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太祖七年戊寅正月「遣工曹典書李和尚賜醢于東北面都宣撫察理使 鄭道傳」(註釋 工曹典書李和尚을 보내서 東北面都宣撫察理使 鄭道傳에게 御酒를 하사하였다)

이때에 특사로 이화상(추밀공)을 택한 것은 청해백이 동북면도안리사(東北面都按理使)로 임명되어 여진인 교화귀순의 대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장자인 이화상을 특히 파견한 것으로서 이태조의 흉중을 가히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9. 한양 천도와 해안택

이태조 원년(1393) 7월 7일 수창궁에서 왕위에 등극하고 개국공신들에게 후한 봉작을 내리는 한편 대사령을 내려 모든 죄인을 사면하여 민심을 사려 하였으나 인심은 구정을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 조선왕조에 대하여 잘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두문동의 72인 같은 고려의 현관들이 조선왕조의 벼슬을 거부하고 두문동에 은거하여 공공연히 조선왕조를 배척하고 개경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가 고려 왕씨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 조선왕조를 좋아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협력을 거부하는 상태이므로 세상에 별의 별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고 민심이 흉흉하여 관민이 잘 협조를 이루지 못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독재자에게는 강압정치를 하게 마련이다. 조선왕조도 예외는 아니다. 민심이 흉흉한 것은 왕씨가 있기 때문이라 하여 모든 왕씨에 대하여 체포령을 내려 전국에 있는 왕씨를 체포하여 강화도의 급한 물살에 고혼이 되게 하고 또는 남해 거제도 앞바다에서 물살을 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일을 감행한 이태조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편할리 없다 그리하여 점점 개경이 싫어지게 되어 천도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천도설이 나오자 제일 먼저 공주 계룡산이 후보지로 등장하여 이태조는 청해백 이하 수십명의 관원과 수십명의 친위군을 거느리고 계룡산에 직접 가서 궁궐터를 닦다가 중지하고 한양에다 신도읍(新都邑) 터를 정하고 태조 2년(1394) 8월에 이태조가 친히 한양에 가서 궁궐과 종묘의 터를 선

정하고 그해 12월 4일 이태조 스스로 종묘 터에 나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 개기식(着工式)을 거행하였다. 그와 같은 시각에 권근의 주재로 경복궁의 개기식이 경복궁터에서 거행되었다.

이리하여 신 도읍지(新 都邑地)에 새로운 궁궐과 관아 및 각급관료의 주택축조공사로 엄동설한을 뚫고 목재와 석재가 한양으로 반입되고 각 사찰에 동원령이 내리고 각지 수령에게는 물자와 노력동원의 령(令)이 내리어 새 대궐 짓는데 국력을 경주하였다. 그리하여 교주도(강원도)에서 거목을 베어 뗏목으로 한강을 뒤흔으며 수백리 물길을 돌아 한강용산강(漢江龍山江)에서 상륙시켜 목도와 달구지로 대궐터로 속속 반입되었다.

그리하여 개경의 궁터보다 훨씬 넓은 터에 수창궁 보다 더 웅장한 궁궐과 종묘·사직단(杜稷壇)·대소 관청의 건물과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도심지 도로공사 등 제반공사가 다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태조는 그 공사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자기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 가는 쾌감에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태조 4년(1395) 9월에 신도의 궁궐·도로·하천·관청 및 대소 관원의 주택이 완성되었다. 이 공사는 이태조의 회갑을 새 궁전에서 성대히 베풀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일에 게으른 눈치가 보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리고 목을 베었다. 일을 그르치는 자는 볼기를 때려 군률로 다스리고 기강을 세워서 채찍질을 멈추지 아니하고 강행하였다.

이태조는 이리하여 궁궐과 같이 완성된 관원의 주택중 소정동의 100간짜리 호화주택 한 채를 청해백에게 하사, 태호를 해안택이라 칭하고 청해백의 원비 함안군부인 윤씨에게 해안택주의 첩지를 내리어 인신의 부인으로서 최고 지위의 외명부 대우를 하며 공신에게 주는 철권(지금의 훈장)을 주어 그 자손대대로 병역 기타 특전을 받아 후손까지 특별대우를 하도록 하였다.

IV. 초야의 은거

1. 1차 왕자란

이태조는 등극 후 그달 28일에 개국공신들에게 공신칭호를 내리고 8월 2일에 공신도감을 두어 그들을 보살피 주게 하고, 8월 5일에는 부인 강씨를 현비(왕비)로 삼고, 아들과 사위에게 각각 군을 봉하였다.

이태조는 큰아들 방우를 왕세자로 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방우는 아버지 이태조가 고려왕씨의 신하로서 이신벌군하여 왕위를 찬탈한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매일같이 독한 소주만 마시고 세상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태조의 등극의식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방우의 사람됨이 상식하고 충녕인자 하여 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자연 시간이 흐르면 마음을 돌려 기정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도우려니 생상하던 차에 큰아들 방우가 아버지 이태조를 찾아와 절하고 시립하였다. 내심 기쁨에 찬 이태조는 만아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현실을 인정하는 줄로 생상(生想)하고 시립하여 있는 궁여를 다 물리고 만아들 방우와 단 둘이 마주 앉아 인자한 말로 방우에게 소주를 먹어 몸을 해치지 말라고 타이르며 왕세자에 봉할 것을 예고하고 몸가짐을 근신하도록 지시하였다.

방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주시하고 입을 열어 “저는 안됩니다. 사람마다 다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흥미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제가 그런 자리에 앉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를 거절하자 이태조는 노기찬 음성으로 “너는 두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강압하였으나 방우는 단호히 “아니올시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잘라 말하고 듣지 아니하니 이태조도 하는 수 없어 방우를 왕

세자로 봉하는 일은 단념하였다.

이때에 이 사실을 알아차린 현비 강씨는 자기 소생의 아들 방번과 방석들 중에서 왕세자를 봉하리라 생각하고 이태조에게 “장자를 왕세자로 봉하지 못할 바에는 왕자 중에서 덕 있는 자를 택하여 왕세자를 봉하자”고 졸라대고 찬성사정도전(贊成事鄭道傳)과 그 외 중신들에게 자기 아들 중에서 왕세자를 봉하도록 추진하라고 내통을 하였다.

이태조는 원비한씨 부인에게서 아들 6형제 방우·방과·방의·방간·방원·방연(유시사망)을 두었고 계비 강씨의 몸에서 아들 형제 방번·방석을 두었다. 한씨부인은 이태조가 등극하기 전에 별세하였고 계비 강씨는 그 당시 총애를 받은 터이라 연로한 이태조는 총애하는 강씨가 졸라대는 바람에 못이겨 강씨 소생의 아들 중에서 왕세자를 봉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태조 원년(1392) 8월 20일 아침 조하가 끝난 뒤 좌시중 배극렴, 우시중 조준, 찬성사정도전(贊成事鄭道傳)을 편전으로 불러들여 놓고 “경등이 며칠 전부터 동궁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좋겠소” 하고 하문하자 좌시중 배극렴이 “어느 분이라고 지정하기는 곤란하오나 연장자나 또는 공이 많은 분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아뢰오” 하였다.

이태조는 세 대신을 바라보며, “말은 그럴 듯 하오마는 구름 잡듯 막연하오. 연장자는 공이 없고 공이 있는 자는 연하이니 이런때는 어떻게 하겠소” 하고 반문하니 세 대신이 모두 마주보며 대답을 못 하고 있다가 정도전이 입을 열어 “모두 영특하시니 신 등으로서는 얼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태조는 이에 단도직입으로 “방번이 어떻소” 하니 세 중신이 한참 침묵하다가 좌시중 배극렴이 옆에 있는 우시중 조준에게 “그분은 좀 경솔한데가 있어서” 하고 껄속말을 하였다.

우시중 조준은 공양왕을 세울 때 말 한마디 빚나갔다가 혼이 난일이 있어

이번에는 자기 의사를 일절 표명하지 아니하고 “글썸을시다” 하고 어름어름 대답하고 정도전은 못들은 체 하였다. 이들 중신 3인의 태도를 지켜보던 이태조는 “좌시중의 말이 옳소 방변이는 좀 경망한 데가 있소. 차라리 방석이가 좋지 않겠소.” 라고 단언하니 좌시중 배극렴은 국궁하면서 “지당하신 줄로 압니다” 라고 찬의를 표하니 다른 두 사람은 이의없이 따라서 국궁하면서 머리를 조아려 찬의를 말없이 표하니 이태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럼 방석으로 결정하겠소.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소. 즉시 책왕세자의(왕세자 책봉식)를 준비하고 거행토록 하오” 하고 하명하니 3인의 중신은 어전을 물러나와 그길로 모든 준비와 절차를 밟아 책왕세자의를 거행하여 방석이가 조선왕조 초대 왕세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전격적으로 방석이가 왕세자가 되니 이태조의 적출아들 5인이 다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야심이 만만하고 조선왕조 창건에 절대적인 공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추종자를 포유하고 있는 방원은 마침 함흥에 있는 선조의 묘소를 추존왕릉으로 개축하는 공사감독차 동북지방에 가 있는 중에 이루어졌다.

왕세자 책봉이 끝난 후에 이 일을 안 방원과 그의 추종자들은 말할 수 없이 분개하고 절치부심하며 그로부터 이를 반드시 전복할 음모를 암암리에 진행하면서 시기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방석의 모친 강씨가 우연 득병하여 세상을 떠나니 이태조의 비통은 극에 달하여 조정일에 뜻을 다하지 아니하고 강비만을 생각하는 반면에 방원의 야심은 점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데 가담하였던 정도전은 그의 일파인 남은(南閼)등을 규합하여 영구집권을 위한 정략으로 왕자분산론을 제기하여 각 왕자들로 하여금 지방에 분산 거주하여 지방행정을 감독케 함은 중국에서 왕자를 제후로 봉하는 제도를 본받는다는 구실로 왕자들의 세력을 분산약화

를 꾀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왕자들의 원망만을 사게 되었다.

이리하여 서로 틈만 있으면 일격에 박살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 이태조 7년(1398) 8월에 이태조의 병세가 악화되어 8월 26일에는 명재경각이라 하여 모든 왕자 왕손 및 종친들은 권정문안에서 며칠째 밤을 세우며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도전 일파는 왕자들을 근정문 안에 대기하게 하여 놓고도 부왕의 병구완과 문병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정도전 일파는 이태조가 운명하면 적출의 왕자들을 몰살할 준비를 하고 그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방원의 일파는 하륜·이숙번·조영무·이무·고여·민무질·민무구 등이 가병과 지방의 병력을 은밀히 동원하여 대기중에 있었다. 일이 이에 미치니 자연 소문이 어디서 났는지 이모형제의 왕자들을 몰살한다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

각처에 정보망을 펴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방원 일파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근정문(勤政門)안에 반연금(半軟禁)상태에 있는 방원을 불러낼 구실이 없어 고심하던 방원의 부인 민씨는 기지를 짜내서 “별안간 복통이 나서 죽겠다”고 하면서 하인과 말을 궁중에 보내어 방원의 환가를 촉구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탈출할 구실을 찾던 방원은 기회도래라고 쾌재를 부르며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타고 근정문 밖으로 탈출하였다. 사지에서 활로를 얻은 기분, 천하를 뒤엎을 시기도래에 대한 흥분 만감이 일시에 몰려 흥중이 터질 것만 같았다.

방원이 말을 달려 자기 집으로 가서 중문에 들어서니 혼자 안마당에서 서성거리던 부인 민씨는 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중문의 빗장을 질러 닫아걸고 속삭였다. “소식 못 들었어요” 하고 방원에게 궁중소식을 물었다. 방원은 말뜻을 잘 몰라 “무슨 소식 말ियो” 하고 반문하면서 부인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며 가슴을 조이고 있는데 중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민씨부인이 달려가 문을 열자 민무질과 이무가 함께 들어섰다.

민부인은 “상감이 오늘밤을 못 넘기신대요, 애가 아까 소식듣고 왔는데 당신은 전연 몰랐어요” “통 못 들었어 뽕수가 있어야 알지” 민부인은 민무질을 가리키며 “네가 직접 말씀드려라” 하니 민무질은 방원의 앞으로 다가서며 “아까 오월이가 몰래 사람을 보내왔어요. 상감이 아침부터 숨을 허덕이며 가끔 정신이 혼미해 지신대요 의원이 김사형 보고 별 방법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오늘이 고비라고 발입니다. 그래서 김사형이 일관을 불러놓고 초저녁에 피병을 하자고 의논하며 만약에 그냥 운명하시면 피병조차 해드리지 않았다고 나도 좋지 않겠거니와 당신도 재미없을 거라고 쭈근거리더랍니다.” 뒷짐을 짊고 고개를 숙이고 잠깐 생각하던 방원은 이숙번을 찾았다.

민무질은 “이숙번이 오늘밤 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달은 작아서 그름이 모래 글피라 기슭에 좋고 또 상감께서 이 밤으로 운명하시고 세자가 일년 등극하고 나면 일이 매우 어려워신다 하면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합니다.” 옆에서 이말을 듣고 있던 민부인은 방원에게 다가서며 “당신 어떻게 하실래요, 모두 해치워요” 하고 다구치니 방원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소” 하고 유예미결하니 민부인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성즉군왕이요 패즉역적인데 무엇을 주저해요” 하고 재촉하였다.

방원은 단을 내리었다. “좋다. 무병, 너는 집에 남아있고 무구는 이숙번에게 가서 갑병을 거느리고 이 앞 신극례의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라” 하고 대궐로 말을 달려 들어가 동복형제에게 “정도전이 우리 형제를 몰살하려드니 빨리 피신하라”고 이르고 곧 회정하여 혁명군의 집합장소로 와서 모든 군비를 검열하니 여기에 집결된 사람은 이숙번을 위시하여 이방원 · 이방의 · 이방간 · 이맹종 · 이거역 · 이백경 · 조영무 · 이무 · 고여 · 신극예 · 서익 · 문빈 · 심구령 · 박포 · 조박 · 민무구 등이 무장하고 있었다.

이숙번은 밤 이경에 남은의 집에 정도전 등이 모여 있는 것을 탐지하고

전군을 남은의 집 주위에 배치한 후 고여로 하여금 남은의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하여 나오는 사람을 전부 살해하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정도전·남은을 암살한 후 우정승 김사형, 좌정승 조준 두 정승을 강압하여 정도전일당이 방원의 동보형제를 살해하고 개국원훈공신들을 살해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적출왕자들에게 도리어 도륙을 당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태조에게 바치고 강제로 재가를 받은 후 왕세자 방석과 그의 동복형인 방번 및 매부 이제를 같은 죄로 몰아 죽이었다.

이태조는 병중에 당한 이 무참한 일로 세상이 허무하여 만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왕위를 방과에게 선위하고 상왕이 되었다. 이 난리를 후세에서 제1차 왕세난이라고 한다.

제1차 왕자난의 공로자에 대한 논공을 정사공신이라 하고 그 공의 대우를 개국공신보다 더 후대하였다. 그런데 정사공신록을 살펴보면 그 난리협잡에 가담한 공이 없는 청해백에게 이등공신의 영광을 내리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1. 청해백은 강비의 질여 강씨부인을 후처로 삼은 관계로 강비와 특별한 혈연관계가 있으나 원래 성품이 강직하고 물욕과 정권욕이 없는 분이라 강비에게 아부하여 왕세자 방석의 편을 한번도 들은 일이 없이 공명정대한 공사이외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정도전의 일당 제거가 용이하였다.

2. 청해백은 정도전의 간교함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어 이태조에게 정도전과 박포는 그 간교한 자기 재조 때문에 자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진언하고 정도전과 사귀지 아니할 뿐더러 이 난은 개국원훈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기 때문에 개국원훈을 대우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사공신의 명단

공신이름	벼슬	등급	노비	토지	지급받은 물건
李 和	義 安 公	1등공신	25口	200결	말 1필, 안장, 고삐, 금허리띠 1개, 관복 1벌
芳 毅	益 安 公	"	"	"	"
芳 幹	懷 安 公	"	"	"	"
芳 遠	靖 安 公	"	"	"	"
李 伯卿	上 黨 候	"	"	"	"
趙 浚	左 政 丞	"	"	"	"
金 士衡	右 政 丞	"	"	"	"
李 茂	參贊門下府事	"	"	"	"
趙 璞	"	"	"	"	"
河 崙	政 堂 文 學	"	"	"	"
李 居易	參 贊 門 下	"	"	"	"
趙 英茂	參 知 門 下	"	"	"	"
良 祐	寧 安 候	2등공신	10口	100결	말 1필, 은허리띠 1개, 관복 1벌
沈 淙	青 原 候	"	"	"	"
福 根	奉 寧 候	"	"	"	"
張 思吉	參 贊 門 下	"	"	"	"
李 之蘭	門下侍中贊成事	"	"	"	"
趙 溫	商 議 門 下	"	15口	150결	"
金 輅	判 中 樞 院 事	"	10口	100결	"
朴 苞	前 商 議 中 樞	"	"	"	"
鄭 擢	前 中 樞 院 學 士	"	"	"	"
李 天祐	同 知 中 樞 院 事	"	15口	150결	"
張 思靖	商 議 中 樞	"	10口	100결	"
張 湛	同 知 中 樞	"	"	"	"
張 哲	中 樞 院 副 事	"	15口	150결	"
李 叔蕃	右 副 承 旨	"	"	"	"
辛 克禮	上 將 軍	"	"	"	"
閔 無咎	大 將 軍	"	"	"	"
閔 無疾	戶 曹 議 郎	"	"	"	"

(定宗實錄에 依함)

〈御製 教文〉

이 글은 제1차 王子亂後 正宗大王이 青海伯을 定社二等功臣에 봉한다는 教文이다. (洪武 31년 1398년 己卯 11월)

教純忠佐命開國定社功臣青海君李之蘭

王曰盖聞有功於民者不若有功於君有勞於事者不若有勞於國稽茲周禮司勳一職自王功國功而次其等第銘之太常均之爲報典也而王功國功特冠於諸功之上豈偶然哉扶擁社稷弘濟艱難必如平勃然後亦可以居其次也卿之先世仕于大金得大官嘉績多于時至有地三百蓋本深者末茂德厚者流光至于卿身英豪武毅氣淳以方忠足以寄百里之命勇足以奪三軍之帥爲國長城爲王瓜牙因一世之名將也我 上王自潛邸時得卿爲編裨常汗馬以從役略無破骨出鏃之患屢收斬將擐旗之功一駕而走納氏再駕而却胡氏昇天之役一矢飲羽而賊鐸摧引月之戰麾兵一呼而賊勢破此雖出於上王之能軍而亦縣卿出入行伍長槍快劍之力也以重哀滅賊於咸州則訴日月而告罪以大義回軍於威化則翼上王而決疑惟其有孝之實移以爲忠者無不盡矣雖然此特論諸功之盛者爾當麗運之衰叔視天命人心之歸扶日月誓山河載盟府者已不細矣今又臣奸根據嘯聚不遑聲勢相依羽翼已成覘我 上王不悅利挾幼孽謀握國柄將賊我同氣之親幾墜我艱成之業安危在於呼吸之間惟時宗室懿親舊勳大臣聞難咸憤而卿與聞協贊撥亂於橫流之際反正於累卵之中既左運而開國又推誠而定社其王功國功之偉者鏗鏘於前後輝映於史冊謂非平勃之流亞可乎卿成重造之功永不忘在我家故繪像鐫功爵贈宥恩并依開國典例至如土田臧穫金帶一腰表裡一套馬一匹信由中出卿其領也於戲撥亂反正誠萬世之難忘崇德報功豈一人之私意故茲教示想宜知悉

純忠佐命定社功臣 青海君 李之蘭에게 내린 教書

왕은 이르노라. 들은 바로는 백성에 공이 있는 것이 임금에 공이 있는 것만 못하고 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만 못하다 하니, 주례에서 공훈의 직제를 조사해 보면 왕에 대한 공과 국가에 대한 공을 등급으로 정해서 등급 차례로 대상(주나라에서 관직을 통관하는 벼

슬)에 기록해서 공평하게 상을 주는 법전을 마련하였으니, 왕에 대한 공이 모든 공로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니 험난함을 물리치고 사직을 붙든 공이 반드시 한나라의 진평이나 주발 같아야 그 차례에 앞게 될 것이다.

경(임금이 신하에게 하는 말)의 조상들은 금나라의 대관으로 공이 많아서 3백리의 땅을 공으로 받은 일까지 있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성하고 덕이 두터우면 빛이 흐르는 법이다. 경으로 말하면 영특하고 준수하고 굳세고 순후하고 방정한 사람이다. 충성은 가히 백리의 나라를 보전할 왕명을 부탁할 수 있고 용맹은 족히 삼군의 원수를 잡아올 수 있어서 나라의 장성이요, 임금의 수족으로 한 세상의 명장이었다.

우리 상왕(전 임금의 칭호)이 임금이 되시기 전에 경은 부장으로서 항상 말의 땀을 흘리며 갓은 고생을 다 겪었으며 뼈를 쪼개고 활촉을 뽑아내는 것 같은 부상도 없이 여러차례 큰 공을 세워서 적장을 죽이고 적기를 빼앗아 한 번 진격에 납함출을 도망치게 하고 두 번 진격에 호발부를 쫓았으며 승천 싸움에서 한번 쏜 화살에 적세가 꺾어지고 인월 싸움에 한번 호령으로 군사를 지휘해서 적군을 파했으니 이것이 모두 상왕의 만능한 전술로 된 것이나 사실은 경이 군중에 있어서 군졸을 잘 지휘통솔하고 장창과 쐬검을 잘 썼기 때문이다.

함주(咸州) 싸움에는 상주의 몸으로 하늘에 불효의 죄를 고하고 대의를 위해 위화도에서 철병해서 상왕을 도와 의리를 지켰으니 효자의 도리와 충신의 공적이 모두 극진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러나 모든 공중에서 가장 찬란한 것을 들어서 말하자면 고려의 운명이 다해서 천명과 인심이 돌아감을 지켜보고 상왕을 도와 나라를 일으켜서 천지에 맹서한 것이 맹부(태조대왕과 개국공신들이 모여서 하늘에 맹서한 기록)에 실려 있으니 이것도 또한 적지 아니한 일이다.

이제 또 간신의 괴수놈들이 한자리에 모여 못된 놈들을 모아 힘이 점점 커져서 상왕이 좋아하시지 아니함을 알아차리고 어린 서자를 끼고 국권을 잡으려고 장차 우리 동기의 의를 끊게 해서 간신히 이루어 놓은 대업의 안위가 순간에 달렸으므로 종친(임금의 동성인 집안)과 의친(임금의 이성인 친척) 원로대신들이 모두 분을 참지 못하던 터에 경이 마침 이 소문을 듣고 협조해서 부패하는 나라를 바로잡고 어지러운 대세를 정돈시켰으니 개국의 공도 크지만 나라를 바로잡은 공도 크도다. 임금에 대한 공과 국가에 대한 공이 전후로 혁혁해서 사기에 명백하게 기재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한나라 때의 진평이나 주발에게 비할 것이라.

경이 대공을 거듭 세운 것은 우리집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므로 화상을 그려서 공을 새기고 작위를 주어서 은총을 베풀고 아울러 개국공신의 법전에 맞추어서 토지와 종과 금대 한 개와 관복 한 벌과 말 한필을 내리니 실로 나의 충심에서 우리나라의 정성이니 경은 이것을 받으라. 반정이란 만세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이니 그 공을 갚는 것이 어찌 나 개인의 의사이겠나, 그러므로 여기에 글로써 표시하니 잘 살피기를 바라노라.

2. 2차 왕자란

1차 왕자의 난 후 군신과 부자의 천륜도 다 무시되고 오직 승자 방원의 지휘로 이무의 정예부대가 궁궐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니 과거 세상을 마음대로 하던 이태조도 나이먹고 병들어 서양정에 누웠으니 제왕의 권력도 무색하고 흘러들어오는 암담한 소식에 처음으로 겪는 패자의 참담한 현실 앞에 가슴을 쥐어뜯었다.

노년에 국권을 잡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자 하였으나 애처의 간청으로 왕위를 막내아들에게 전위하고자 왕세자를 막내 방식으로 책봉한 것이 화근이 되어 후처소생의 아들 방번·방석 두 형제 및 그 소생의 손자들까지

무참한 화를 당하였다. 남도 아닌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 무서운 배신과 반역을 당하니 그 당시의 이태조의 심정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리하여 일대혁명을 일으켜 무참한 살생을 감행한 방원은 아버지 이태조의 병세가 호전되어 차도가 있자 병세 회복후 이태조가 제왕으로서 이번 왕자란에 대한 보복처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이를 여하한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의 막료와 숙의 끝에 아버지 이태조로 하여금 왕위에서 물러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중의가 모아졌다.

8월 29일 밤에 이태조는 병세에 많은 차도가 있어 서량전에서 강녕전 서침실로 옮기었다. 강녕전에 누운 이태조는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비명에 죽은 아들과 어린 손자의 모습이 눈앞에 아물거리는 것이었다. 한숨을 쉬면서 독백하는 말이 “형제를 학살하는 놈은 사람일 수 없다. 방원이란 놈을 어떻게 처치해야 내속이 풀리지” 하며 속을 태우고 있었다.

이때에 새로 세자로 책봉된 방과를 신두로 빙의·빙간·빙원의 사형제가 몰려와 마루에 꿇어 엎드렸다. “아버지 심려를 끼쳐 드려 미안합니다” 하고 왕세자 방과가 대표로 인사를 올렸으나 이태조는 인사는 들은채도 아니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휘청걸음으로 일어서서 벽에 걸린 칼을 잡아 뽑으면서 주저앉았다.

이태조는 칼든 손을 떨면서 방원을 노려보며 “이놈, 방원아 이 도적 같은 놈, 능지처참하여도 부족한 짐승같은 놈” 하며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옆에 모시고 있었던 시녀들이 달려들어 이태조의 손을 붙잡았다. 이태조는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주었으나 늙고 병들어 손에 힘이 없어 맥없이 시녀에게 칼을 빼앗기니 이태조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치며 “이놈 너도 사람이냐 이놈” 하고 힘없는 호령을 하였다.

꿇어 앉아 고개를 숙인 방원은 잠자코 있었다. 왕세자 방과가 앞으로 다가 왔으며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무엇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 이태조는 방과를 보며 “너도 같은 한패거리로구나. 용상이 그렇게 좋은 줄 아느냐 이놈들아” 하며 다시 방원을 노려보며 “이놈 방원아” 하며 일어서려 하니 시녀들이 다시 그를 붙잡고 방원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와 버렸다.

기진한 이태조는 주저앉았다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방과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방간아, 이 일을 어찌면 좋으냐” 하니 우직한 방간은 서슴치 아니하고 “아버지는 늙으셨어요” 하고 또 계속하여 “형님께 다 맡기시고 한가로이 지내세요. 어련히 잘 하실라구요.” 하고 의외의 대답을 하였다.

이태조는 대노하여 “이 무엄한 놈, 나더러 물러나라는 말이냐” 하고 방간을 노려보며 몸을 일으키려다 힘없이 도로 베개 위에 누워 천정을 바라보는 태조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뇌가 흐르고 있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태조는 힘없이 “방과야” 하고 부르고서 “나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결해라” 이 말을 하고 은근히 아들로부터 사양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이태조는 육체와 혼이 동시에 맥이 탁 풀려 나가는 것을 느끼며 “치사한 것이 인간이로구나” 하며 인간에 회의를 느끼었다.

이때에 방간이 한쪽 무릎을 세우면서 방안을 둘러다보고 “그런데 아버지 대신이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편찮으신 동안만 대리로 일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리를 물려 주시는 겁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태조는 실의에 찬 눈으로 아들들을 보니 방과와 방의는 머리를 숙이고 있고 방간은 자기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태조는 다시 천장을 쳐다보며 답답한 목소리로 “방과야 선위 할 테니 차비를 차리라고 해라. 그리고 밤도 깊었으니 물러가라” 라고 하니 방과 등이 물러나와 그 밤으로 정부 요직의 인사이동을 대폭 단행하고 그 익일인

9월 1일에 이를 발표하니 정부가 방원 일파로 충만하였다.

9월 5일에 이태조는 왕위를 왕세자 방과에게 선위하니 이 분이 정종공정 대왕이시다. 이리하여 상왕이 된 이태조는 마음이 천근같이 무거우며 공허한 가슴에는 슬픈 추억만이 겹겹으로 쌓이고 눈에 보이는 산천이 모두 적막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전전반측할 뿐이었다.

그 다음에 춘삼월에 이태조는 건강이 거의 회복되어 정원을 거닐 수 있으나 두 아들의 참화를 겪고 왕위마저 버리고 나니 한양이 싫어지고 개경이 그리워서 3월 7일에 아들 방간과 친지 청해백 그 외 수행원을 데리고 경복궁을 나와 북쪽으로 개경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3월 9일에 개경에 도착한 이태조는 새로 단장한 옛날 변안열의 집에 거쳐 하다가 다시 윤환 시중이 살던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 옛날 살던 개경에 와도 마음의 적막은 여전하니 한양이나 개경이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1차 왕자란에 죽은 사위 이제의 아내며 막내딸 경순공주가 보고 싶었다.

3월 26일 깊은 밤에 홀로 말을 타고 집을 나선 이태조는 봉명산을 좌로 끼고 북으로 달려 박연폭포에서 말을 세웠다가 다시 말을 달려 성거산 밑에 있는 관음사에 당도하여 말에서 내려보니 사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산문 밖에 말을 매고 정적속의 마당을 가로질러 조용히 층계를 올라 사당 안을 보니 외로운 등하에 경순공주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기원하고 있었다. 이태조는 나지막한 소리로 “경순아” 하고 불렀다.

한양에서 불의의 참변으로 남편을 잃고 이절에 온지 7개월 만에 뜻밖에 아버지의 부름에 놀란 경순공주는 아버지 이태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을 못하다가 한참만에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고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이태조는 딸의 손을 잡고 “네가 보고 싶어 왔다” 이리하여 그리운 딸과 같이 정원을 거닐면서 나무와 탑 사이를 돌고 또 돌고 있었다.

이태조와 딸 경순공주가 그리운 회포를 풀고 있을 때에 개경에서는 대소

동이 야기되었다. 이는 이태조가 밤중에 없어졌기 때문에 왕궁과 정부가 발각 뒤집혀 야단을 떨고 있었다. 이때에 청해백은 “이태조가 필연코 딸 경순공주가 있는 관음사에 갔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말을 달려 관음사로 이태조를 찾아갔다.

청해백과 그의 추종이 관음사 산문 밖에 도착하니 과연 이태조의 애마가 홀로 나무에 매어 있었다. 초롱불을 켜들고 이태조 앞에 나가 청해백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성체 무고하시니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니 이태조는 청해백의 손을 잡으며 “이거 청해백 아니오” 하고 반가워하였다.

청해백과 이태조는 서로 기쁜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다. “갑자기 행차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경순이를 보고 갑갑한 김에 평주온천에나 가볼까 했소” “우선 오늘밤은 개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놀라서 큰 소동입니다” 하고 청해백이 이태조에게 개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종용하니 이태조는 아무 대구가 없었다.

청해백은 이태조의 옆에 있는 경순공주에게 “전하께서 적적하시니 공주께서도 개경으로 옮기시면 어떠하옵니까” 하니 경순공주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그렇게 하지요” 하고 승낙하니 후일에 다시 데리러 오기로 약속하고 환궁길에 올랐다.

이태조와 청해백은 말고삐를 나란히 하여 길을 가면서 환담하였다. 이태조가 청해백을 보고 “내 청해백 보기가 부끄럽소” 하자 청해백이 “인간사가 다 그런거 아닙니까 ‘여풍어공중’ 바람이 공중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무 미련없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안의 말을 하니 이태조는 한숨을 쉬며 탄식조로 “그렇게 됐으면 오죽이나 좋겠소” 하며 비애·통분·고독에 몸부림치며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다. 정종대왕(방과)도 아버지 이태조를 따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니 왕실의 종친과 정부가 다시 개경으로 돌아왔다.

조선조 개국부터 왜구의 출몰이 점차 안식되어 정종조(定宗朝)에 이르러서는 해변이 평온하여 어민이 고침락업(高枕樂業)하며 동북방여진반란(東北方女眞反亂)도 안정교화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정종대왕은 즉위 후 세자를 책봉하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모두 입산수도를 명하여 중이 되게 하니 자연 동궁이 비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욕심 많은 방간·방원 두 왕제들이 다시 동궁자리를 놓고 싸우게 되었다.

방간은 방원만 없이 하면 다음 왕좌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박포와 더불어 방원을 제거하려다가 도리어 방원 일파에게 패하게 되어 박포는 주살되고 방간은 토산에 유배되니 이 난을 후세에서 2차 왕자난이라 칭하며 이때에 방원을 도와 방간의 일당을 숙청하는데 공이 있어 공신록에 기록된 사람을 좌명공신이라고 한다.

청해백은 2차 왕자난에도 1차 왕자난과 같이 어느쪽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좌명공신록에는 삼등공신으로 되었으니 그 이유는 1차 왕자난 때와 같은 것이다.

좌명공신록은 다음과 같다.

좌명공신의 명단

공신이름	벼슬	등급	공명신칭	노비	토지	지급받은 물건
李 佇	上 黨 候	1등	盡忠佐命	13口	150결	白銀 50兩, 官服 1벌, 말 1匹
李 居 易	門 下 左 侍 中	"	"	"	"	"
河 崙	門 下 左 侍 中	"	"	"	"	"
李 茂	判 三 軍 府 事	"	"	"	"	"
趙 英 茂	門 下 侍 郎	"	"	"	"	"
李 叔 蕃	左 軍 摠 制	"	"	"	"	"
閔 無 咎	中 軍 摠 制	"	"	"	"	"
辛 克 禮	左 軍 同 知 摠 制	"	"	"	"	"
閔 無 疾	驩 城 君	"	"	"	"	"

공신이름	벼슬	등급	공명 신칭	노비	토지	지급받은 물건
李 來	藝文春秋館學士	2등	翊戴左命	10口	100결	白銀 25兩, 官服 1벌, 말 1匹
李 和	義 安 公	"	"	"	"	"
李 天祐	完 山 侯	"	"	"	"	"
成 石璘	昌 寧 伯	3등	"	8口	80결	白銀 25兩, 官服 1벌, 말 1匹
李 淑	完 川 君	"	"	"	"	"
李 之蘭	門下侍中贊成事	"	"	"	"	"
黃 居正	開 城 留守	"	"	"	"	"
尹 抵	知 三 軍 府 事	"	"	"	"	"
金 英烈	知 三 軍 府 事	"	"	"	"	"
尹 坤	右軍同知摠制	"	"	"	"	"
朴 嘗	刑 曹 典 書	"	"	"	"	"
朴 錫命	都 承 旨	"	"	"	"	"
馬 天牧	上 將 軍	"	"	"	"	"
趙 希閔	判 殿 中 寺 事	"	"	"	"	"
柳 沂	奉 常 卿	"	"	"	"	"
趙 璞	參贊門下府事	4등	"	6口	60결	"
趙 溫	三 司 左 使	"	"	"	"	"
權 近	參贊門下府事	"	"	"	"	"
李 稷	三 司 右 使	"	"	"	"	"
柳 亮	參知三軍府事	"	"	"	"	"
趙 卿	中 軍 摠 制	"	"	"	"	"
金 承霍	左 軍 摠 制	"	"	"	"	"
徐 益	右軍同知摠制	"	"	"	"	"
洪 恕	前 同 知 摠 制	"	"	"	"	"
尹 子當	兵 典 曲 書	"	"	"	"	"
李 原	左 承 旨	"	"	"	"	"
李 升商	右 承 旨	"	"	"	"	"
金 鼎卿	漢 城 尹	"	"	"	"	"
徐 愈	右 副 承 旨	"	"	"	"	"
李 從茂	上 將 軍	"	"	"	"	"
李 膺	上 將 軍	"	"	"	"	"
沈 龜齡	上 將 軍	"	"	"	"	"
廷 嗣宗	大 將 軍	"	"	"	"	"
金 宇	大 將 軍	"	"	"	"	"

(대종실록에 의함)

〈敎書〉〔建文 3년(1401) 2월일〕

이 글은 제2차 丁巳의 亂 후에 太宗이 青海伯을 좌명 삼등공신에 봉한다는 敎文이다.

建文 3년 2월 일

敎純忠奮義開國定社佐命功臣青海君李之蘭

王若曰自古王者必賴忠義之士以成大業此周禮所以立司勳而不視功載也卿天與拳勇才膺矢石衽金革北方之強鎮邦國百夫之特從我 太上每爲選鋒奮興鷹揚之烈屢宣虎闕之威摧倭奴於引月之戰走納氏於北鄙之役凡在行陣每立殊勳眞所謂干城之將也歲在戊寅權奸用事謀挾幼孳以煽禍亂卿與諸公杖義協力旋即戡定天倫既紊而復整國祚幾危而再安及逆臣朴苞懷奸構亂推誠翊衛終始不渝俾我不穀繼承丕緒其立大功於王室者亦屢矣宜示崇獎之典以勵忠義之節是用圖形記功追贈先代宥及後昆錫之土田臧穫又賜白金文綺廐馬等件其可領也於戲丹書以盟冀傳芳於有永黃河如帶期永保於無窮故茲敎示想宜知悉

純忠奮義開國定社佐命功臣青海君李之蘭에게 敎書를 내린다.

왕은 이르노라. 왕이란 것은 충신의 힘을 입어서 대업을 이룩하므로 주께에 공훈의 조례를 규정해서 공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해놓았다. 경은 하늘이 낸 용장으로 전법에 능통해서 갑옷을 입는 것은 북방의 강한 기운을 가졌고, 나라를 진압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서 특이한 재주를 가졌다.

우리 태상왕을 쫓아서 번번이 선봉이 되어 매[鷹]처럼 날랜 재주를 발휘하고 호랑이처럼 늠름한 위엄을 나타내어서 인월에서 왜놈을 잡아 눕히고 북변에서 납합출을 짓밟아서 싸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수훈을 세웠으니 정말 나라의 방패가 될 만한 장수이다.

지나간 무인(1397)년에 괴수간신놈들이 어린 서자를 끼고 환난을 꾸몄을 때에 경진이 모든 대신들과 협력해서 즉시로 환난을 진압해서 문란했던 천륜이 정돈되고 위태로웠던 국운이 편케 되었으니 정성을 바쳐서 임금을

추대하는 마음이 끝끝내 변치 아니해서 나같이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의 대통을 계승하게 한 왕실에 대한 큰 공이 또한 밝혀졌다.

마땅히 정중한 대전을 베풀어서 충의의 절을 권장해야 하므로 화상을 그리고 공을 기록해서 선대의 조상을 추증하여 벼슬을 내리고 후세의 자손에게 복이 미치게 하기 위해 전사와 노비를 지급하고 또 백금·관복과 말 한 필을 내리니 경은 받으라. 천지신명에 대한 맹서를 맹부에 실어서 황하수가 실오리만큼 남을 때까지 꽃다운 이름이 길이길이 보존되어 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므로 이에 교서를 내리니 그리 알지어다.

3. 낙 향

정종 2년(1400) 정월의 2차 왕자난을 치른 후 2월에 정종대왕은 방원(정안대군)으로 왕세제를 삼았다가 그해 11월에 왕위를 재임 2년만에 왕세제 방원에게 선위하니 이 분이 바로 왕권을 위하여 고려왕조의 충신이며 석유인 포은 정몽주의 타살과 두문동칠십이인의 현량을 몰살은 물론, 왕씨를 전부 잡아 몰살하는 등 골육지간의 유혈참살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였던 조선왕조 3대왕인 태종대왕이다.

정종이 왕위를 아우 태종에게 선위하니 왕가규범에 의하여 정종은 상왕이 되고 그 당시 상왕이던 이태조는 태상왕이 되니 이태조의 심정은 더욱 착잡하여 세상사에 흥미를 잃고 또 아들 태종이 보기 싫어졌다. 그리하여 자기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서 은거 중 죽은 강비의 친척인 조사회를 앞세우고 반정을 하다가 태종의 반경으로 패북하였다.

조선왕조를 창건한 지 불과 10년에 3차에 걸친 부자 형제간의 골육상쟁 끝에 결국 욕심의 화신인 태종이 왕위를 차지하니 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위하여 삼강오륜을 짓밟고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살육한 공으로 공신칭호를 받으며 전답과 비복을 비롯 고위의 관직을 받고 의기양양하는 정상배는 그

후에도 계속 사리를 위하여 서로 모함 살육을 함으로써 조선조 오백년은 실로 피의 역사로 얼룩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모함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 처해 있는 청해백은 칠대조모 악무목왕비 이씨의 현몽중의 유훈 “나의 친가 후손중에 왕업을 이룩할 사람이 있으니 너는 그를 도와 왕업을 이루도록 하여라”는 말과 나유선생의 교훈 “너는 후일에 창업을 만나 큰 일을 한 후에 틀림없이 인륜의 변이 있을 것이니 이때에 부귀영화에 탐닉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면 다시는 세상 사람을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고 명심하여 비의를 범하지 말라”를 명심하여 개강에서 이태조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모든 지혜와 성의를 다하여 조선왕조를 창건 국태민안한 태평성대를 바랐다.

기이하게도 나유선생의 예언과 같이 개국 초부터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골육상쟁으로 영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이태조가 선위하고 함흥으로 가게 되니 청운에 마음이 없어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자기고향인 북청 포청사로 돌아가 불도를 닦고 기러기를 벗삼아 여생을 안온하게 지냈었다. 그 숭고한 뜻은 아래와 같은 상소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上疏文

臣 遭遇聖王 誤忝司命 南征北伐 濫殺甚多 鐵券之寵 雖極地獄之禍 司懼伏願 祝髮爲僧 以免冥保

신이 훌륭한 임금을 만나 맡은 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싸움터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나라에서 주는 은전은 비록 더할 수 없이 극진하나 지옥에 가서 당할 벌이 몹시 두렵습니다. 앞드려 원컨대 머리를 풀고 중이 되어 명부에서 당할 벌을 면하고자 합니다.

4. 관 작

청해백이 낙향할 때에 사의를 표한 상소문을 보면 남정북벌 여러 전장에서 마구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므로 나라에서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 등등 가진 우대를 다할지라도 나의 양심은 평안치 못하여 머리 풀고 중이 되어 전장에서 마구 죽인 사람의 명복을 빌어 주겠다는 뜻이다.

청해백이 남정북대에서 죽인 사람은 전부 왜적과 북방의 호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약탈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살인방화 무수한 약탈을 감행한 도적들이라 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도리어 우리 민족이 죽게 되므로 의당히 죽일 놈을 죽이고 수많은 동족을 구출하였건마는 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참회하며 그 사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더할 수 없는 부귀영화도 다 버리겠다는 그 인자한 마음씨, 반면 권세와 부귀를 탐내어 충량은 물론 형제와 동족을 마구 죽이고 또 이 악독한 일을 도와 정사·좌명 등의 공신이라고 득의양양하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딸·손녀 또는 친척의 딸을 양녀로 삼아 임금의 후궁으로 바쳐 권세와 부귀를 사고자 하는 그 무리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부귀영화는 사람마다 다 갈구하는 것이건만 이를 마다하는 청해백의 겸허한 태도와 철인적인 처세는 참으로 후세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일이며 경모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청해백이 고려와 조선에서 지낸 중요한 벼슬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지란이 받은 주요벼슬

연 대	벼슬 이름	문무	품계	동 기	출 처
禡王 11년	宣力佐命功臣密直副使	무	종2	禡王 11년 李成桂와 함께 咸州 兔兒洞에서 왜구격퇴	高麗사권 116 열전 29 이두란, 太祖실록권1 총서
"	商議同知密直司事會議都監事	"	"	禡王 14년 의화도의 회군에 참가	高麗사 권116 열전
창왕 원년	密直司事	"	"	"	"
공양왕 2년	密直使	무	종2	禡王 14년 의화도의 회군에 참가	공양왕 2년 3월 임인高麗사권 116 열전 이두란
" 4년	判都評議司事知門下府事	문	정2	공양왕 2년 서해도에서 왜구격퇴	高麗사 권116 열전 이두란
太祖 원년	大匡輔國崇祿大夫青海伯 叅贊門下府事青海君義興親衛軍節制使補祚佐命開一等功臣 輔國崇祿大夫	검	정1	建州衛亂平定	
" 2년	叅贊門下府事回軍一等功臣	문	"	이성계를 신왕에 추대. 개구의 공훈	太祖 원년 9월 갑오
" 2년	東北面都安撫使	무	"	禡王 14년 의화도의 회군에 참가	太祖 2년 7월 을축
" 6년	東北面都兵馬使	"	"		太祖 2년 8월 을해
" 7년	門下侍郎贊成事判定刑社曹事 義興三軍府事中軍節制使	검	"		太祖 6년 12월 임인
정종 원년	門下侍郎贊成事定社二等功臣	문	"	太祖 7년 1차 왕자의 난	太祖 7년 9월 계유
정종 2년	門下侍中贊成事	"	"		太祖 7년 10월 계유
太宗 원년	翊戴佐命三等功臣	"	"	정종 2년 2차 왕자의 난	정종 2년 5월 임신 태종 원년 정월 을해

5. 채 읍

태종이 대위에 올라서 가장 존경하고 신임하는 청해백에게 우시중 벼슬을 주어 국정을 일임하고자 예우를 갖추어 승지를 북청으로 보내 청해백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청해백은 승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별안대 북쪽 3리쯤 되는 곳에 있는 조포암(造泡庵) 중을 불려 삭도를 들고 미리 대기했다가 승지가 들어오니 관복을 입고 임금의 조서를 읽고 나서 즉시로 관복을 벗어 불태우고 중을 시켜서 머리를 깎게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승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복명을 해야 할 터인데 뭐라고 상감께 아뢰옵니까” 하니 청해백이 佐上定國 人臣之分 極矣 削髮爲會 君臣之義 絕矣 斷無他言 “임금을 받들어 나라를 세웠으니 남의 신하된 도리는 다했고 머리 깎고 중이 되니 군신의 의를 끊는 것이니 다른 뜻이 없노라” 하므로 승지가 그대로 태종에게 고하니 태종이 청해백이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할 줄을 알고 북청일부를 청해현(靑海縣)으로 개편하고 청해백의 채읍(유공한 특정인에게 한 고을을 맡겨서 그 고을 세금은 나라에서 관계치 않고 그 세금은 그 분의 단독 소유가 되는 일종의 봉진제도)을 만들어 여생을 고요히 지내게 하였다.

V. 태백성의 승천

1. 청해백의 하세

청해백은 북청 포청사 별안대로 낙향하여 불도에 전념하며 한운야월에 기러기를 벗삼아 여년을 한가이 지내다가 태종 2년(1402) 3월 3일 진시(오전 7~9시)에 천지가 혼돈함을 느끼자 스스로 자기 명이 다하였음을 깨닫고 태종대왕에게 상소를 하였다.

청해백은 臣之本土人 死於他國則 焚其屍 還葬其土 願 殿下 使臣從土風 又願 殿下 恐懼修德 永保朝鮮 : “나의 본토 사람들은 타국에서 죽은즉 그 시신을 화장하여 백골을 자기 고향에 갖다 장사지내는 풍습이 있으니 전하에게 청하오니 그대로 하게 하여 주심을 바라며 또 전하께 부탁하오니 아부쫘록 덕을 닦아 조선을 영구히 보존하기를 바란다” 라는 상소문을 올리었다.

그해 4월 11일에 향년 72세로 별안대 현재 청해사 자리 자택에서 고요히 영면하시니 이때에 아드님 사형제중 장자 화상은 조졸하고 나머지 삼형제 화영·화미·화수가 다 한양에 있어 종신을 하지 못하였다.

태종대왕은 청해백의 운명한 비보와 또 상소문을 접하고, ‘상도심 철조삼일’ 몹시 슬퍼하며 3일간을 조정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명나라에서 마침 사신 축맹헌이 와있어 태평관에서 환영연을 베풀게 되었다.

태종대왕은 명나라 사신 축맹헌 환영연에 참석하기로 되었는데 청해백의 부음을 듣고 철조삼일을 선포하였으며 또 진심의 조의를 표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3일간을 소식하며 국민을 접대하는 연회에도 병을 청탁하고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다.

태종대왕은 청해백이 생전에 조선조개국에 이바지한 공적과 자기 아버지

이태조와의 교분히 특별히 두터웠던 것을 생각하여 양열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자기를 대신하여 예관에게 장비를 보내며 제사를 지내고 장례절차는 청해백의 유언대로 불교의식에 의하여 집행하게 하고 그 묘의 사방주위에 수석과 장명등을 비롯 봉분의 규모가 흡사 왕릉과 같이 웅장하게 치산하고 청해백의 화상을 그려 영당과 사당을 세우고 춘추로 제향을 받들도록 전토와 비복을 내려 영구히 향화를 받들게 하였다.

부인은 함안군부인 해안택주 윤씨(반의정 윤희보의 따님), 상산군부인 곡산 강씨(예의판서 상호군 보대의 따님이며 신덕왕후 강씨의 조카 따님이시다)이고, 아드님 네 분이 있었다. 장자 화상(보국승록대부 판공조사 추밀부사 겸 예부상서 청해군), 차자 화영(보국승록대부 판도총제부사 의흥삼군부사 겸 판형조사), 삼자 화미(판한성부사), 사자 화수(예조참판).

2. 종묘 배향

태종 8년(1408) 5월에 태상왕 이태조가 승하하고 3년 상을 마치고 종묘에 신위를 봉안할 때 태종대왕은 영의정 하륜과 그 외 중신들을 회합하고 이태조의 배향할 공신을 선정하였다. 이때에 태종대왕이 청해백은 개국원종공신일 뿐 아니라 태조대왕과 사생고락을 동맹한 분이고 또 개국에 절대적인 공훈이 있는 원훈공신이므로 전열에 특선하여야 한다고 하명하여 지금까지 종묘에 배향하고 있다.

태조 묘에 배향함과 아울러 이태조의 건원릉·정종대왕의 제릉·태종대왕의 헌릉 등 세릉의 신도비에 청해백은 개국공신·정사공신·좌명공신으로 명각되어 있어 삼대 왕조에 거쳐 청해백의 공훈을 불후의 공적으로 기명하고 있어 위의 능을 참배하는 사람에게는 청해백을 추모하게 한다.

청해백에게 태종대왕이 내린 시호는 양렬, 관직과 공신칭호는 수충분의 익찬경은 개국공신 대광보국승록대부 문하시중찬성사 판도평의사사 겸 판

형조사 의흥삼군부도절제사 청해백이다.

宗廟配享 祝文

勳蓋海東 緒遺隴西 百世如左 薰蒿長棲 : 공훈은 동쪽 나라에서 제일
요 계통은 룡서의 후예로다. 영구한 세월을 한결같이 향화를 받들며 길이
추모하리다.

3. 북청도호부

本高句麗舊地久爲女眞所據高麗睿宗二年遣尹瓘逐女眞(置九城時稱號未詳) 後沒于元稱三撒恭愍王五年收復舊境置安北千戶防禦所二十一年改今名爲州置安撫使兼萬戶我 太朝七年改青州府太宗十七年以與清州牧同音復稱北青 世宗九年改爲都護府(邑名三撒安北青州青海)

〈건치언혁〉

함경도 건주라 하여 그 내력을 말함.

근본 고구려 땅으로 여진이 점령하였었는데 고려예종 때(예종 2~3년:1107~1108)에 윤관을 보내어서 여진을 정벌하고 함주·영주·웅주·길주·북주·공준진·통태·송녕·진양 등 구성을 만들었으나 그 다음 해 예종 4년(1109) 7월에 다시 여진에 환부하고 그 뒤에 원나라 영토로 되어서 삼살이라 하였다가 공민왕 5년에 다시 수복해서 안북천호 방어소를 만들었고 21년에 건주로 고쳐서 안무사겸만호를 두었고 이태조 7년에 청주로 고쳤고 태종 17년에 청주목을 두었다가 다시 북청으로 고쳤고 세종 9년(1427)에 도호부를 두었다(읍명을 삼살이라 함은 청주·안북·청해의 세 고을을 말함).

그 도호부의 위치는 동으로 이원현 지경까지 68리, 남으로 함흥부지경까지 125리 서로 홍원지경까지 56리 북으로 갑산부까지 180리이다.

4. 영혼의 계시

나라에 큰 변이 있을 때마다 능하에 사는 자손들이 꿈에 신기한 계시가 있었다.

ㄱ. 병자호란

1636년 인조 14년 병자년 8월에 별안간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묘 앞에 있는 석탑 뚜껑이 저절로 열리므로 나무꾼이 발견하고 자손에게 연락해서 여럿이 와서 보니 석탑 뚜껑이 무거워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육중한 것이었는데 그 속에서 검붉은 빛으로 쓰인 ‘금래(金來)’ 두 글자가 나왔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두 몰랐는데 그해 겨울에 청태조 노미합적(奴彌哈赤) 한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것이 후세에서 말하는 병자호란으로 사람들은 모두 청해백의 영혼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우매하여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무서운 치욕의 변을 당하였다고 후회하였다.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북쪽에서 1616년에 명나라가 약한 틈을 타서 만주지방에 여진족의 노미합적(奴彌哈赤)을 중심으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부족들을 통일하고 마침내 광해군 때 후금을 건설하였다.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의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썼으므로 큰 충돌 없이 지냈다. 그러나 인조가 들어서면서 후금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였다. 이 무렵 이합이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하자 그 잔당들이 후금으로 달아나 광해군의 폐위를 전하고 조선으로 침입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자 노미합적(奴彌哈赤)을 이은 후금의 태종이 조선에 침입해왔다. 조선은 이를 막지 못하고 강화하여 형제의 관계를 맺어 후금의 군대를 1627년에 물러가게 하였다. 이를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그 뒤 후금은 더욱 강해져 국호를 청이라 고치고 임금을 황제라 하였다.

그리고는 조선에 대하여 각종 공물을 요구하고 군신의 관계를 맺자고 하였다.

조선이 강경하게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는 (1636)년에 다시 대군으로 쳐들어왔다. 인조는 일부 신하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피난가서 청군의 포위 공격에 맞섰다. 그러나 강화에 피난가던 왕자와 왕족·신하들이 포로가 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화친하니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이로서 청나라의 간섭으로 명나라에 대한 친선외교를 끊고 청나라와 외교를 맺게 되었다.

ㄴ. 신도비석

영조 49년 갑오 1773년에 9대손 빈이 남병사가 되어 신도비를 세우게 되었는데 비문글자가 이천삼백여자나 되어서 그 자수가 다 들어갈 만한 돌을 구하기 위해서 석공을 시켜서 사방으로 물색하였으나 도무지 알맞는 돌이 없어서 걱정중이었는데 꿈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시조 청해백인데” 하고 묘하 동방 몇 보 밖을 가리키며 “이곳을 파면 쓸만한 돌이 있으리라” 하므로 그 꿈에 가리킨 곳을 파더니 과연 돌이 나왔는데 마치 금방 정으로 다듬은 것처럼 훌륭하였다.

ㄷ. 자 식형

청해백이 돌아간 후부터 영조 49년까지 근 4백년의 긴 세월이므로 청해백에 대해서 별도로 부르는 자함이 가승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문적에도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또 꿈에 청해백이 나타나서 “나의 자는 식형이다” 하고 벽에다 써놓고 가므로 깨어서 보니 글자의 형체가 뚜렷하게 보이더니 두 번 다시 보려고 하니 벌써 없어져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자가 식형임을 알게 되었다.

ㄹ. 수해

신유년(辛酉年) 물난리 때에는 서도리 일대가 전부 수침이 되어 자손 전부가 다른 데로 옮겨가려고 하였는데 꿈에 한 노인이 와서 가지 말라고 시한 수를 일러주고 갔다.

不濁斯井部枯渴 鮮鮮綠錄祖基東
柳挾東西無毀患 沙添爲沃占家豐

우물은 항상 깨끗하고 마르지 아니하며 푸르고 아름다운 괴화나무는 조상이 살던 터의 동쪽에 있다.

동서로 버드나무가 늘어 서 있어서 무너질 염려가 없고 모래가 쌓여지면 땅은 더 기름져서 풍년이 든다.

이로 인해서 자손들이 옮겨가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아무 걱정이 없었다.

ㄱ. 군졸과 차마

1908년 무신년 난리 때에는 묘소에서 수많은 군졸과 차마가 나와서 동구 밖으로 나갔다가 3일만에 돌아왔고, 을해년 변란 때에는 혼자서 말을 타고 나타나서 동구 밖으로 나갔다가 그 이튿날 돌아왔다.

5. 청해백 화상

ㄱ. 청해백 영정(英祖 22년(1746) 9월)

英宗大王謂筵臣曰青海伯畫像存乎提學元景夏曰有矣 上曰見之乎景夏曰臣見之矣石相曰青海伯畫像生氣勃然矣 上曰益安大君畫像存乎景夏曰有矣 上曰青海伯益安大君畫像爲先推入九日青海伯益安大君李牧隱黃翼成李鰲城畫像並進御 上曰吾一生欲見青海伯之像矣今見之貌類婦人不可以貌論將矣 景夏曰青海伯之像壯矣射彈塞彈之說至今流傳矣 上曰其像好矣 太祖知遇隆

矣景夏曰自北方從而爲功臣矣 上先製牧隱致祭文呼承旨書之次製青海伯致祭文而命書之曰青海伯第一矣如唐太宗之於敬德約爲兄弟也

영조대왕 즉위 22년 9월에 조정에 있는 대신들에게 “청해백의 화상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대제학 원경하(1698~1761)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즉 대왕은 다시 “보았는가” 하므로 원경하는 “신이 보았습니다.” 하니 석승상이 옆에 있다가 “청해백의 화상은 생기가 발발합니다” 한즉 대왕은 또 “익안대군의 화상도 있나” 하고 물으니 원경하가 “있습니다” 한즉 대왕은 청해백과 익안대군의 화상을 찾아서 들어오라” 하므로 왕의 명령이 내려진지 9일만에 청해백, 익안대군, 이목은(1328~1396) 방촌황희(1363~1452) 오성 이항복의 화상을 모두 가져다 바쳤다.

영조대왕이 보면서 “내가 평생에 청해백의 화상을 보기를 원했더니 지금 보니 모양이 부인 같으니 장수는 모양만으로 논할 수 없구나” 한즉 원경하는 말하되 “청해백의 상이 위대합니다. 탄환을 쏘아서 뚫은 구멍을 탄환을 쏘아서 막았다는 전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즉 부녀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태조가 쏘아 뚫은 구멍을 청해백이 숨을 끼워 쏘아서 막았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대왕은 다시 말을 이어 “그 상이 좋고 태조가 극진히 대접하였지” 한즉 원경하는 “북방에서부터 전쟁에 참가하여 끝에 가서 공신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대왕이 먼저 목은의 제문을 지어서 승지를 불러서 쓰이고 다음에 청해백의 제문을 지어서 쓰이면서 “청해백이 제일이다. 마치 당태종이 경덕과 의형제를 맺은 것과 같다” 하였다.

ㄴ. 영조대왕 신장

漢代留侯唐鄂公才全智勇古難同畫傳好女休相怪誠是人間第一雄，會記天官謁聖人龍顏日表儼威神丹青今見英雄相更覺遭逢古絕倫。

한나라 때의 장량과 당나라 때에 악공의 지혜와 용맹을 겸했으니 옛날에도 드문 사람이다. 화상으로 보아서는 부인 같으나 이상하게 인간에 제일가는 영웅이로다. 일찍이 태조의 화상을 배알한 기억이 나는데 군왕의 상으로 위품이 늠름하시었다. 이제 이 영웅의 상을 보니 군신이 서로 만난 것이 천고에 드문 일임을 다시 깨닫겠도다.

ㄷ. 화상찬

技妙穿楊勳高開國奠太平之基於萬歲名垂簡冊澤及雲仍建長遠之業於百世斯可謂英豪之功能而在公猶爲餘事小藝惟其以千萬吾往之勇退然若憫夫於善竹之謀以富貴同享之時超然若高人於青海之隈此可以不朽於千秋疎髯如戟英眼如神渥丹其顏點砂其唇一片難畫者心尙髣髴兮七分之眞

退漁子 金鎮商 撰

재주는 활을 쏘아서 버들잎을 맞추고 공은 높은 개국공신이다.

만년토록 태평한 터전을 마련해서 이름은 사기에 빛나고 복록은 자손에게 전했다. 백세토록 길이 전할 대사를 이룩했으니 이야말로 영웅과 호걸의 일ियो. 공무에 바쁘면서 문학을 숭상했으며 가던 길을 용감히 물러섬은 천고에 단 한 사람이다.

그러나 선죽교의 모의로 협박을 당했고 부귀를 남과같이 누릴 수 있었건만 초연히 모르는 것처럼 청해로 돌아가니 이것이야 말로 그 사적이 천추에 길이 남을 것이다. 창같이 뾰뾰한 수염, 신기하게 광채가 나는 눈, 물들인 것처럼 붉은 얼굴, 주사를 찍은 듯한 입술, 그리기 어려운 것은 한치의 마음이나 십분의 칠분은 얼굴에 근사하게 나타나 있도다.

退漁子 金尙商鎮 지음

Ⅵ. 유 적

1. 별안대

1398년 8월 20일 1,2차 왕자들의 난으로 이태조는 고향 함흥본궁으로 가야하고, 청해백은 고향 박청사(현 북청)로 돌아가셨다. 함흥은 이태조의 출생지는 아니다. 출생지는 함남 영흥군 흑석리다. 이곳에서 성장하여 함흥으로 이사, 제일 높은 운주봉(819m) 밑 정화촌에 집을 짓고 살면서 매일 귀주사에서 공부를 하였다.

귀주사 앞에는 정화능이 있고 회상동에서 귀주사로 가는 중간에 이태조가 살던 집 자리는 일제시대에도 철망으로 보호했고 귀주사의 태조가 공부하던 자리도 역시 보호하고 있었다. 함흥에는 본궁과 정화능(태조의 선조릉) 그리고 청해백 모친능이 있어서 선조 때는 물론 일제시에도 영친왕 이은이 방자여사와 함께 1년에 1회씩 이 능을 참배하였다.

박청사는 청해백의 출생지요, 장성시에 이태조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뜻이 맞아 활쏘기와 여러 무술을 이곳에서 단련하던 곳으로 청해백의 고향이다. 이와같이 각기 고향에 돌아가 살고 있다.

정종·태종 때에 여러 번 사관을 보내어 시중으로 소명하였으나 서울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북청부에서 동쪽으로 약 20리쯤 되는 오지양가면안곡리에 은거, 별장을 짓고 연못을 파고 기러기를 기르며 산수와 자연을 사랑하며 여생을 보냈다.

태종의 소명을 거절하고 삭발 위승하면서 기르던 기러기를 전부 자유로이 놓아 보냈다. 때문에 후세에서 이 곳 지명을 별안대라 불렀고 지금도 그 연못과 그 터가 남아 있다.

2. 청해백의 능

公之墓在於青海府東別雁臺枕甲之原制如 陵寢而四圍置獸石西南有一石
函刻以龍頭雲形藏公易簣日沐浴之水函今不渴者也遺傳以水之潤渴驗世之
治亂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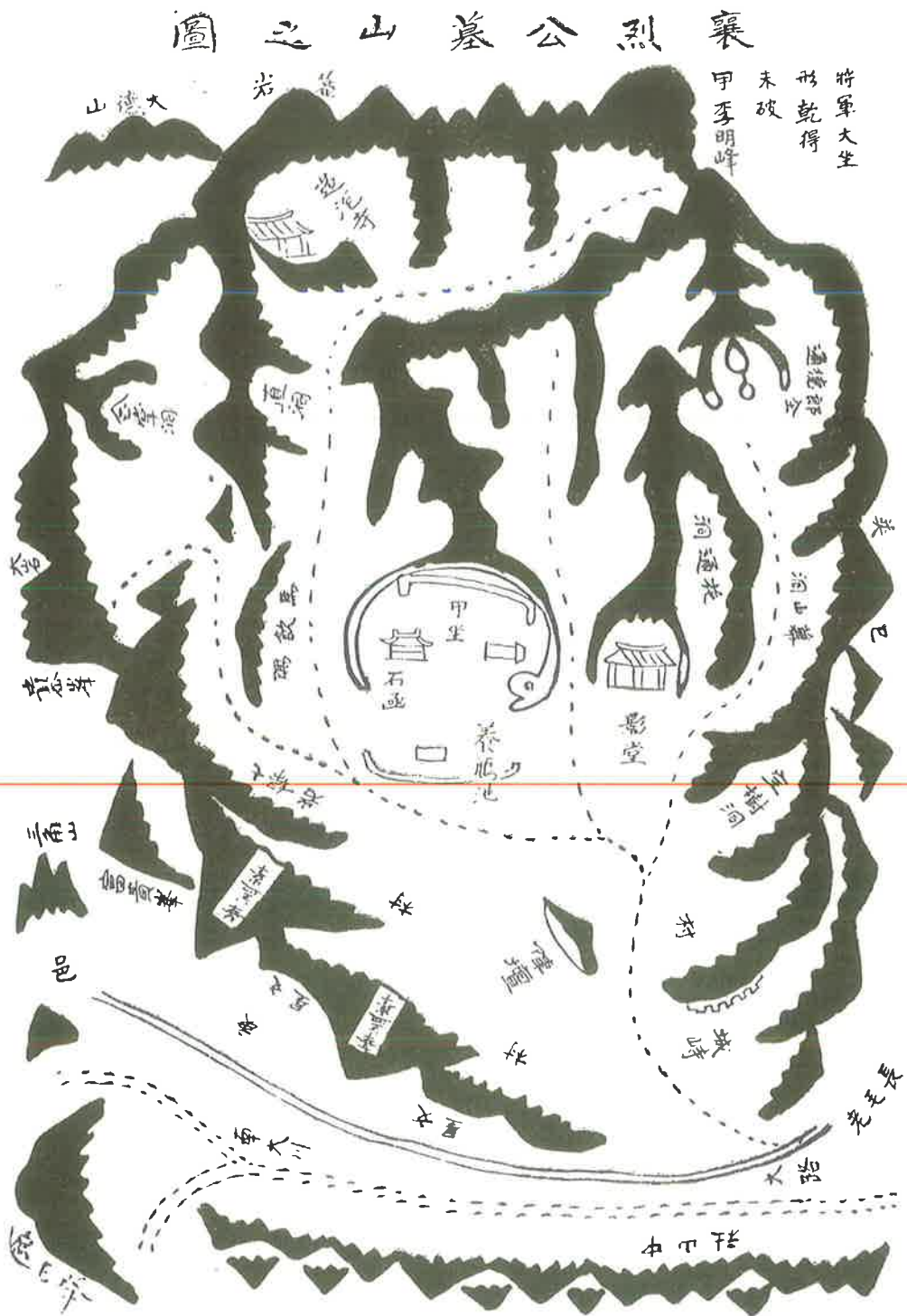
청해백 시양열공의 능은 북청부 동쪽 이명지봉의 첫 정기를 받아 기봉으로 떨어져 산수가 청아하고 풍경이 좋은 별안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향은 갑좌경향이다. 능소의 모양은 왕능처럼 꾸며져 있어서 사방 둘레에 수석을 두었으며 서남쪽에 돌로 만든 함이 있는데 함 머리에는 구름과 용의 머리가 그려져 있고 그 함에는 청해백이 돌아가서 시체를 목욕시킨 물을 담아 두었는데 지금까지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마르고 안 마르는 것으로 난리가 나고 안 나는 것을 짐작한다고 한다.

그 개국의 공훈은 이 능묘만이 지닌 듯 수백년의 세월은 흘러서도 부절의 참배객들이 안곡을 찾아 청해백의 능묘 앞에 머리숙여 그의 유덕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니 그는 오직 불멸영생의 호국영혼이시다.

3. 유 허

청해백은 처음에 박청사이며 일명 세섬리 라고도 하는 지금의 서도리에 살았었는데 동쪽에 우물을 파고 우물 동쪽에 괴화나무를 심었다. 후세 사람들이 그 우물을 괴정이라 하고 그 곳을 괴정촌 또는 괴정리라고도 불렀다. 그 정천 주위에는 많은 신화를 지니고 있다. 청해백은 정묘를 하직후 이 곳 중앙부에 유허지를 정하게 되자 이곳 사람들은 나라에서 청해백의 부인 함안군부인 윤씨에게 하사한 혜안택주라는 택호를 그대로 호칭하여 이 부락을 한 때 혜안촌이라고도 했다.



청해백 양렬 이지란공의 묘소 산형도
 〈청해백씨 세보에서 전재〉

청해백께서는 산·수·로, 삼불근(三不近)을 택하여 서도리를 유허지로 정하였으나 남해에 조수가 상승하므로 인하여 주민과 농작물 성장에 불길하다는 예상이 있어 주저하다가 문득 서남쪽에 있는 압해산으로 이 결함을 보완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결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세섬리는 남대천 하류의 냇가로서 홍수의 피해로 자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거의 폐허가 되었던 곳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년전의 일이다. 그 후손 한 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벽상에 써 있는 글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놀라 깨어 벽상을 본즉 과연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시구(詩句)가 써 있었다.

不瀾斯井不枯渴 鮮鮮緣緣祖基東
柳挾東西無毀患 沙添爲沃占家豐

일찍 선조가 터잡은 동방은 괴화나무가 우거지고 우물이 맑아 생생하게 마르지 아니하도다. 부락의 동서 양편에 양류가 늘어서 터전이 무너져 나갈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기름진 땅에 사질이 옥토가 되어감은 가가호호에 풍조임을 가이 짐작할 수 있다.

어느덧 붉은 빛은 동천에 솟아오르는 햇빛과 더불어 이글은 사라졌다. 신기하게 여긴 후손은 인근친족들에게 이 연유를 알린 즉 모든 후손들은 이는 시조 청해백 양열공의 계시라고 이구동성으로 감읍하였다.

그 후 경인년 홍수로 인하여 이제까지 서류하였던 남대천이 신창쪽으로 동류함으로써 서도리 일대는 복새로 뒤덮어 놓아 토질이 좋게 되었고, 제방에 버드나무도 심고 살기좋은 곳으로 됨에 따라 사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다시 모여와 근 500여호 부락을 형성, 조석으로 괴정신천을 마셔가며 유허비전을 가꾸고 학이시습에도 힘써 현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 있다.

圖之島西墟道伯海青



청해백 양렬 이지란공의 서도리 유허도
 〈청해백씨 세보에서 전재〉

4. 괴 정

청해백이 현 서도리에 낙향하여 동리 중앙에 굴정하고 그 주위에 괴화나무 수십 주를 심었다. 그리하여 이 우물을 괴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라에 큰 변이 생길 때면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어 이를 예고하여 부락민을 놀라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샘물의 맛이 산갑하며 동리 수백 호에서 이 물을 전용하여도 부족함을 모르고 아무리 가물어도 수량이 감하는 일이 없고 아무리 장마가 저서 동리 다른 우물이 다 탁하여도 이 괴정만은 독야청청하여 동리 사람의 갈증을 면하게 하였다.

이 우물을 판지 거금 육백여 연간에 이 부락에는 백치 또는 불구자와 전염병이 생긴 일이 없어서 부락 사람들은 이는 청해백의 은덕이라 하며 이 우물을 장수신천이라고 경칭하고 있다.

이 괴정에 얹힌 근세 실화 몇 개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14년 갑인년 홍수 때 1동이 전부 침수되어 동중의 우물 10여 곳이 전부 탁수로 변하였건만 유독 괴정만이 맑은 그대로 있어 동민의 갈증을 면하였다.

②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국 각처에서 전염병이 성행하여 사망자 및 이환자가 많았고 또 10월에 독감이 유행할 때에도 이곳만은 1인의 이환자가 없었다.

③ 구한국시대 청해백의 19세손 이재우씨가 과거보러 가는 날 새벽에 괴정우물을 길어 밥을 지었더니 수수밥같이 별거스레한 길조가 보여 수수밥을 먹고 떠나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

④ 또한 1945년 8·15광복을 미리 알리는 예보도 있었다고 한다. 8·15 얼마전에 괴정에서 기이한 소리가 나서 동민을 놀라게 하더니 나라에 해방의 영광을 비쳤다고 한다. 이렇게 그 자손들이나 국가 앞날에 이변이

있을 때마다 암시의 징조가 보이므로 이 괴정을 둘러싼 가지가지의 전설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었다.

5. 청해사 서원

이 서원은 조선 개국 원훈공신 청해백 양열 이지란공을 봉사하는 서원으로서 청해백의 고향이며 능소가 있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 안곡리에 있다.

창건 당시에는 소박한 영당으로 충열묘라 칭하고 일명 안대사(속칭)라고도 칭하였다. 북청군지에 의하면 청해사와 동서원은 본시 전군 유림에서 숭정 4년(1361) 안대사 서원을 창건하고 숭정 기원후 267년 조선 현종께서 청해사라는 액을 하사하심에 따라 청해사 서원으로 개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청해이씨 가승에 기록된 충열묘 중건기 및 청해사 중건상량문을 참고로 하여 추리하면 당초의 충열묘라 칭한 것은 지세하는 알지 못하나 첫머리 충자는 청해백이 일편단심 애국애민하여 일생을 충성으로 호국하였기에 충자를 따고 다음 열자는 현대의 의자와 같은 것이다. 이는 청해백이 생전에 의 아닌 일에는 참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몽주 타살사건의 거부와 1,2왕자난에 불참한 사실 등이 모두 의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열자를 따서 충열묘라 칭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사(왕이 아닌 충신·공신을 제 지내는 사당, 현충사·민충사·창열사 등)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묘(묘는 역대 제왕을 제 지내는 종묘, 관운장을 모신 관성묘 즉 동묘, 남묘 등)자를 붙인 것은 조선시대의 왕권정치하에서는 참칭으로서 왕의 충허 또는 하교 없이는 붙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태종대왕이 청해백이 하세후 사당을 모실 때 익호양렬과 같이 충열묘로 하교하여 주신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北青良家社別鴈臺青海祠圖



청해백 양렬 이지란공을 제향하는 청해사서원 도
〈청해백씨 세보에서 전재〉

병자호란 전에 청해백의 영혼이 출현하여 금래를 예시하신 후 얼마 안되어서 몽고족 대금의 후에 청태조가 인조 5년(1627) 정월과 인조 14년(1636)에 12월 대거 남침하여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참화와 모욕을 당한 병란을 겪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그 때에야 청해백 영혼의 계시한 뜻을 깨닫고 청해백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어 영당의 규모를 서원과 같이 증축하고 유림이 중심이 되어 매년 3, 10월 중정일 대향사일로 정하여 제향을 올리고 제향일 전후 3일간은 유림들이 모여 작시·작부는 물론 칭소년의 시강·백일장 등을 시행하여 장학의 기풍을 진작하며 미풍양속과 충정한 마음을 기르는 서원으로 되었다.

매월 삭·망일에는 유림중에서 선출된 임원인 장의·유사·원감·색장 등이 체번으로 소제·분향·참배하여 향화를 끄치지 아니하다가 1945년 해방후 공산당이 이복을 점거한 후에 자연 향화가 끄졌다.

여기에 청해사 춘추 중정 제향 축문, 충열묘 중건기, 청해사 중건 상량문을 첨기하여 둔다.

7. 청해사 춘추중정 칠향 축문

崇禎紀元後幾年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干支某官姓名敢昭告于
 青海伯襄烈李公伏以佐 命純忠定社元勳惟茲
 采邑永祀苾芬謹以特幣粢盛清酌庶品式陳明薦 尙 饗

송정 기원 후 ○○년 세차 ○○년 ○○월 ○○삭 ○○일 간지
 ○○관 ○○○감히

청해백 양렬 이공에게 고하나이다.

충성을 다하사 개국과 정사의 공훈이 제일 크심으로 이 청해를 채읍으로 하여 길이 제향을 받들게 하였기에 삼가 희생과 청주, 모든 제수를 갖추어 신명께 드리오니 흠향하소서.

L. 충열묘 중건기

通訓大夫前行監察 林芝秀 撰

青海治之東二十里鴈臺之原有一祠宇焉卽開 國功臣青海伯襄烈李公之影堂也堂之右數十步外又有坐甲向庚而獸石佳城如

陵制焉此乃伯衣履之所藏而堂之所以設者也伯之子孫每歲四月十一日祇奉影幀而享祀焉是日卽伯之忌辰也蓋伯越之蠡漢之良際遇 聖祖攀附定 社以伯之鬼勳壯烈宜享富貴之樂而乃超然脫屣於青海之鄉而終焉其智勇豈非泛海把仙之儔哉噫堂之設殆近四年之久而厥初尙其朴素仍其遺墟而只建四間影堂未有來室每年受禧之孫瞻拜之客不無陝諡之歎矣今春諸孫倡而新之影堂則仍舊而修其塗墍典祀廳則改制而屬之於堂右乃立東西齋皆四間東齋宿飲福之所也西看護直守之居也南建三門左右其夾而墻垣周遭竹苞松茂烏葦暈翔今而後堂稱於祠伯其肯曰有子有孫矣抑未知范相國張留侯之歸也孫奉享亦果如伯之於鄉者耶否乎噫先烈雖如彼苟無此後昆則修廢倡新者難矣而是堂之役執事獨賢之勞者列書于左使後之雲仍世世肯構而肯堂也。

忠烈廟 重建記

通訓大夫 前에 監察를 지낸 林芝秀 지음

청해 고을 동쪽 20리 안대 언덕에 한 사당집이 있으니 이것이 곧 개국공신 청해백 양열이공의 영당이다. 영당 우측 수십보 밖에 수석을 갖춰 능과 같은 산소가 있으니 이 산소가 바로 청해백의 능이며 여기에 영당을 세웠다. 이 영당은 백의 자손이 매년 4월 11일에 영정을 모시고 제향을 올리니 이 날이 곧 백의 기진(忌辰)이다.

백은 월(越)나라의 팽려(彭蠡)와 한나라의 장량과 같이 이태조를 만나 받들고 도와서 나라를 세운 백(伯)의 높은 공훈으로써는 의당 부귀영화를 누려야 할 것인데 초연히 고향으로 돌아오시어 천수를 다 하시었다.

그 지혜와 용맹이 어찌 바다를 덮고 신선을 짝 지을 수 있지 않으랴! 아

슬프다. 사당을 지은 지 4백년이나 오래 되었는데 처음에 너무 소박하게 그 분이 사시던 디에 단지 사간만 세워서 영당에 협실이 없어 매년 제향에 참석한 자손과 참배는 객이 집이 좁다고 탄식하였다.

금년 봄에 여러 자손이 힘을 합하여 영당을 수리하고 도장하였고 전사청은 다시 당 우측에 개축하고 동서로 네칸씩을 신축하니 동재는 숙식하며 음복하는 곳이고 서재는 수직하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남쪽에 삼문을 세우고 그 서쪽에 담장을 쌓고 주위에 송림이 무성하여 새들이 깃들고 날아든다. 이제부터는 당을 사당이라 칭하고 백은 자손이 있으니 범상국과 장유후만 못할 것이 없도다.

자손이 제향을 백의 고향에서 받들지 않느냐! 아 슬프다. 선열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종가에서 개수는 하지만 새로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역사를 도운 사람의 이름을 열서하여 좌편에 걸었으니 대대로 사랑하고 당을 빛낼 것이다.

ㄷ. 청해사 중건상량문 (청해백의 사당을 중수할 때에 이 글을 지어서 대들보에 파고 넣은 것임)

聞其風莫不興者永篤沒世之思因故廟易而新之聿循多士之議衿紳動色輪奐增輝恭惟我先祖襄烈公問世之英爲時而出海夜照啓明之宿毓精靈於厥初少日入長白之帷玩圖象於太始韜光蒲社待青邱之昌期受訣羅師完黃石之奇遇及夫依光日月托契風雲發奇夢於桐閨適會价江之射鹿結近聯於椒掖遂許象山之委禽約爲弟兄類闕張之翊漢托以心腹若褒鄂之遇唐於是櫛沐於風雨之場攀附於矢石之所殫拔都於引月勁虜氣沮摧納哈於昇天群醜膽落拓女眞千餘里地盡入版圖之藏奠我邦億萬年基永作磐泰之勢斯實英豪之業所以酬報者隆誓盟山及雲仍而不替銘彝繪閣並竹帛而永垂山川草木亦皆知名婦孺輿僮無不誦績然功烈卽其細耳而平生尤有大焉秉江漢朝宗之誠倡回戈於威島嘉熊魚取舍之義不染血於竹橋謝簪朝端幾謹獻陵之召脫屣方外高臥中坪之居大防不差於危疑雖吉人而無愧完名

終保於出處伊其志則甚微嗟年代之屢嬗溯典刑而寢遠體魄之托在是行客指下馬之陵杖履之遊莫攀居人說焚魚之蹟枯林生葉占嘉祥於舊栽穹碑成苔撫陳跡而永歎維舊祠於焉傾仆伊後人曷其瞻依芬苾以時只是諸子孫報本之舉荒頓有歲殊失鄉先生祭社之儀茲乃增大其規庸作崇奉之地捐財帛而叶力役不煩公募匠石而董功神若有相正規度於新構爰倣白鹿之重修因面勢於舊基不用青鳥之改卜不獨爲英靈安處之所抑亦士子藏修之方齋室講堂成之不日圓冠方領來者如雲作昕夕絃誦之場想鴻烈而矜式薦春秋俎豆之禮瞻象設而永懷崇德象賢慕周典而寓意經義治事倣湖齋而揭規一路爲之增光四方爲之拭目今差穀日將舉修櫟敢揚七偉之聲聊薦六方之頌拋櫟東豆江一帶海濤通留與英名傳億代待巨川渴始應窮拋櫟西日邊歸路望中迷恍惚英靈來去地麟臺高處五雲低拋櫟南茫茫海水碧如藍當日心期誰會得巨溟難以一蠡探拋櫟北長白山光雲外直箇中何處遇神人蚤噴義圖兼孔翼拋櫟上列宿昭回天宇曠井底祥芒夜動搖知應太史觀其衆拋櫟下陰森靈牖臨平野一方多士得依歸濟濟春秋執豆者伏願上櫟之後廟貌永屹人才蔚興士知向方不忘陽秋之義鄉化善俗各勉忠貞之心庶無愧於前修期有辭於後世

後孫 昌錫撰

선현의 이야기를 들으면 추모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고 묵은 사당을 새로 중수함은 여러 사대부의 의논에 따른 것이다. 날아가는 듯한 산뜻한 기분에 심신이 엄숙해지기만 한다. 우리 선조 양열공은 계명성 정기와 장백산 영기를 타고 그 때를 위해서 태어나신 세상에 드문 영결이시다. 북청에서 숨어 계시면서 조선이 일어서기만 기다렸고 황석공과 같은 라도인을 만나서 진결을 받아서 바람에 구름 쫓듯 좋은 임금을 만나셨다.

왕모의 꿈이 맞아서 개강에서 사냥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강비의 근처에 장가를 드셔 더욱 가까운 인연을 맺게 되어 형제와 같은 정분은 관운·장비가 한나라 왕실을 보호한거와 같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 것은 당나라의 포악과 같다. 바람과 비를 무릅쓰고 쓰라린 싸움터로 횡행하여 인월

역에서 아지발도를 죽여서 왜놈의 사기를 꺾고 승천(함주의 오가 아닌지?)에서 납합출을 처부수어서 오랑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천여리의 여진 땅을 개척해서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억만 년토록 보전할 반석같은 터전을 닦으셨으니 이렇게 영특한 대업을 이루었으므로 그것에 대한 보수가 큰 것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천지에 맹서해서 자손에게 전해가며 영구히 변하지 아니하고 철권에 공명을 새기고 기린각에 화상을 곁어서 사기에 영구히 남아 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남의 집 하인까지도 그 공덕을 칭송하고 산천초목도 그 덕택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에 대해서 가장 작은 일ियो. 이보다 더 큰 일이 또 있다. 위화도에서 철병해서 되돌아감을 주장했으니 대국을 섬기는 충성ियो, 선죽교에서 살육이 났을 때에 간섭하지 아니했으니 의리를 지킨 것이며, 태종이 후한 대접과 높은 벼슬로 불러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중(忠)이 되어서 청고하게 말년을 보냈었다.

위험하고 의심스런 자리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욕될 일을 아니한 것은 고인을 대해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큰 공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천명을 마쳤으니 그 뜻을 누가 알까, 연대가 멀어짐에 따라서 유적이 점점 아득해진다. 이 곳에 있는 묘소는 행인이 말을 타고 지나지 못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고 평소에 거쳐하시던 곳은 이제와서 알아볼 길이 없으며, 사람들이 공의 공부하던 터만 말한다. 죽은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니 길조임을 알 수가 있으나 허물어진 비각에 이끼가 끼었으니 옛 일을 더듬어서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옛 사당이 점차 무너져가니 후세의 사람으로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 절기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 대해 효도하는 도리이나 몇 해를 겹쳐든 흉년으로 선생에 대한 향예를 꺾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사당의 규모를 더 확장해서 숭배하고 경모하는 전당을 만들게 되므로 인력과 재력이 병합해서 관가의 힘을 빌지 아니하고 목수와 석

공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니 신명이 돕는 것 같다.

백록동 서원을 모방해서 구조를 새로 변경하고 구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새로 자리를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비단 명령이 안식하게 될 처소일 뿐 아니라 실은 선비의 수학하는 장소이다. 재실과 강당이 다 마련되니 의관을 갖춘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조석으로 글 읽는 소리가 양양하게 들려와서 성현의 시대를 연상시켜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춘추로 향례를 치루어 엄숙한 제례로 경모하는 정성이 길이 살아 있게 된다.

도덕을 제일로 삼고 현인을 숭배함은 주나라의 제도를 본뜬이요 경의를 강론하고 예락으로 규제함은 호당의 규모대로 좇은 것이다. 모든 것이 혁신되어 전부가 새롭게 됨에 따라서 상량식을 계기로 축하를 올린다. 동쪽을 바라보니 한 줄기 두만강이 바다로 흐른다.

비나이다, 빛나는 공명 이 강물이 마를 때까지 전하여라, 동쪽을 바라보고 석양의 나그네길 바라보니 아물아물 분명히 명령이 오가던 길 기린각 높이 솟아 오색채운이 영롱하다. 남쪽을 바라보니 망망한 바닷물은 남빛같이 푸르도다. 바다같이 깊으신 명령의 마음 쪽박으로 헤아릴손가, 북쪽을 바라보니 장백산은 구름위 하늘 밖에 솟아 있다. 저 산속 어디에서 신인을 만나 도를 닦아서 창업을 도왔던가 왼쪽을 바라보니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둘러쌌다. 쏟아지는 그 정기가 우물속에 들어가서 천문관의 영통한 법, 미래를 밝혔도다. 아래쪽을 바라보니 창문 밖 넓은 들에 수목이 울울하도다.

봄·가을 두 절기에 많은 선비 모여들어 제사 받드는 그 곳이다.

정성으로 비는 상량한 뒤에 사당도 새로우니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걷게 하고 충의와 정절을 배양해서 영구히 변함없이 향토를 빛내기를 후세에 바라옵나이다.

후손 창 석 찬
(단양인 이종유찬)

ㄹ. 청해사 육육정기

六六之亭爲誰而作也慨然於青海君之無地起樓臺而作也亭之成其制爲下六楹上六桷故因合以名六六蓋其意得於屋之制而著於事之實也夫六者卽天地太陰之數而北方坎之六也是以居北者多以六行其數然則世之談青海君之始終於北者不於六字上申其辭則惡能盡千古英烈之實也嗚呼六之爲義也大矣哉爲天之柱六極分爲地紀六合闢生六極之下居六合之內者惟人也而有立極統合之聖南面出治則六氣和於上六府治於下六爻生而易道明六甲出而曆數備人和於六親以定天下之倫士遊於六藝以開天下之學此則治世之所不能舍其六也然而六爲北方之數而主陰精行肅殺肅殺乃天地之兵氣也其在人也周武之道多出於六六者兵家之數也六丁之六奇門者之訣也六壬之六遁數者之術也太公演其數爲六韜畧李靖得其數爲六花陣學六韜之畧用六花之陣通六丁之奇門闡六壬之遁數翊聖祖定東方六十六之疆土者伊誰之力也其惟青海伯李公乎伯卽宋岳武穆六世孫之子而興价江六鎮之界應渭水六非之卜果過於霸王之聖結之以桃園之義從征太祖鎮六軍之衆一戰而昇天之賊散仗六尺之劍一揮而引月之寇息北鄙之役五伐六伐而納氏降矣南海之戰六合而倭奴遁矣際聖祖乘六龍之世輸忠奮義立大功於王室者可以銘彝鼎圖麟閣而雖以漢之六出計之陳平六出祈之武侯固無以加此矣噫自伯之後是六也無主徙然爲在五之後居七之前而已則惜乎六之爲數也豈特止於三六十八五六三十區區計計者之用也哉是故吾以名於亭亭也者乃伯影宇之門樓也凡屋之制皆用四面而獨斯亭之六其楹六其隅者蓋非偶然也六楹則應天之六極六隅則象地之六合時和而歲豐則是非六氣之調乎民殷而物庶則此非六府之理乎手易而坐感而遂通則可以觀六爻之吉凶携酒而上飲少輒醉則可以消六甲之光陰化黎俗而雍睦則六親於是乎和矣得英才而教育則六藝於是乎習矣然則所謂六者無愧爲天地太陰之數而亦斯亭之扁其楣者足以當六六之義而且不愧於六六之名也哉

六六亭記

육육정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이냐 이는 청해백을 위해서 지은 누대이다. 그 정자의 구조가 아래에 기둥이 여섯 개요, 위에 지붕의 모가 여섯 개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육육정이라 한 것이냐 사실은 청해백의 전부를 나타낸 것이다. 육이란 것은 북방 수의 성수이므로 음양점술에 육을 북수로 지정하니 청해백은 북에서 마쳤으므로 육자를 들지 않고는 그 천고에 영렬한 공적을 표명할 도리가 없다.

여기에 육자의 대의를 설명하면 천에는 육극이요, 지에는 육기니 즉 육합이라 하니 이것은 동서남북과 상하의 여섯 방위를 말함이요. 사람은 천의 육극과 지의 육합내에서 살고 있으며 성인이 천명을 받아서 임금이 되면 풍우일월 성진의 육기가 천에서 조화되고 수화금목토곡의 육부가 지에서 순성해서 육효로 주역을 만들고 육갑으로 역서를 만들고 사람은 부부, 부자, 형제의 육친으로 인륜이 정해지고 예·락·사·어·서 수의 육예로 천하의 학문을 개척하니 이것은 세상이 태평한 때에 육자의 응용이요, 육은 북방 수이므로 음이 되어서 살별이 그 수의 본질이니 살별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병가의 무술이 특히 육수를 상징한다.

그 예로는 기문의 육정육갑과 육임의 육둔이 병술의 대중으로서 강태공이 그 수를 이용해서 육도삼략을 만들었고 이정이 그 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강태공의 육도삼략과 이정의 육화진법은 기문의 육정육갑과 육임의 육둔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태조가 동방의 육육(六六) 삼백육십주(三百六十州)를 정한 것이 누구의 힘이냐 이는 바로 청해백 이공의 힘이다.

청해백은 바로 송나라 악무목의 육세손의 아들로 개강육진의 경계에서 태어나서 문왕이 강태공을 위수에서 만나듯이 이태조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고 태조를 따라 육군을 거느리고 한 번 싸워 승천의 왜적을 쳐 무찌르고 인월 싸움에 육척장검을 한 번 휘둘러서 왜적들이 자취를 감추고, 북방 싸

움을 5차 6차 거듭해서 납합출이 항복하고, 남해싸움에 육합칠합이 못 되어서 왜적이 도망하고 태조가 개국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해서 왕실에 큰 공을 세웠으니 그 이름과 화상을 기린각에 높이 걸어도 그 공이 남을 것이다. 한나라 때 육출기계한 진평과 육출기산한 무후도 이보다 공이 더할 것이 없도다.

아 슬프다. 백이 가진 후에 이 육이 주인을 잃고 한 개의 숫자로서 육의 수의 앞에는 오가 있고 뒤에는 칠이 있을 따름이다. 애석하도다 육으로 수가 어찌 삼육 십팔 오육 삼십, 구구하게 계산하는 데만 쓰는데 그칠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정자 이름을 육육정이라 함은 곧 청해백 영당의 문루이다. 모든 집 구조는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정자만은 기둥이 여섯 개요, 그 모가 여섯 모로 되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둥 여섯은 천의 육극을 응하고 여섯 모는 지의 육합을 상징한 것이며 시화연풍은 곧 음양풍우회명의 육기가 잘 조정되는 것이요,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백물이 풍성하여지는 수화금목토곡의 육부가 잘 마련되는 것이다.

지성으로 신명을 감동시키면 주역육효로 길흉화복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요, 세상이 지리하면 한잔 술로 깊이 취해서 육갑의 광음을 보내게 되는 것이요, 순후한 풍속을 만들어서 모두 화목하면 부모 형제 처자의 육친이 화목하는 것이요, 영재를 길러내어서 교육에 힘쓰면 예락사어서수의 육예가 익혀지는 것이다.

그러면 육의 수는 천지태음의 수이며 정자의 이름을 짓는 것이 육육의 의에 적합할 뿐 아니라 백의 공적에 대해서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세종 27년 정해(1531) 윤오월 기망십육일

청주후인 이 종 유 글

평산후인 신 학 천 씀

6. 삼의사

(북청군지전재)

삼의사는 한말 고종황제 광무 5년(1902) 황명으로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동리 동덕산록에 설립한 것이다.

이 삼의사는 청해이씨 전주이씨 금령(김해) 김씨 세성의 북청입북 분파 시조를 봉안하고 세성의 후손들이 춘추 3월, 9월 정자 일에 천사하여 소도원 결의의 선조 의리를 추모하며 친목을 돈독히 하는 연중향사가 그 유래를 이루었다.

여기에 봉안된 삼위신은 다음과 같다.

1. 청해백 양열공 이지란
2. 완풍대군 전주이씨 이원계
3. 익화군 충민공 김인찬

청해백 양열공 이지란은 3인 중의 최연장자이고(북청군지 인물편 참조) 완풍대군 이원계공은 태조대왕 이성계의 백씨로서 평상시에도 이지란 김인찬 등과 형제로 지칭하여 우의를 교류하였으므로 삼의사에 합사한 연유는 결의형제중 이성계는 군왕이기에 군신 관계로 동열에 배향키 곤란하여 전주 이중보씨도 입북하여 그 후손다수가 각 읍면에 산재하는 관계로 백씨인 원계공을 대신 모시게 된 것이다.

김인찬공은 최연하이며 두 분이 모두 무관인데 반하여 김인찬공만은 문재에 뛰어난 분이였다.

이성계는 본시 전주인으로서 선대에서 함남에 이주하여 도조환조가 영흥군 순영면 흑석리에 거주하였다. 이성계는 이곳에서 출생하였으나 함흥에서 성장하여 여말에 두만강정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지란을 상봉하여 응지를 품고 정장직을 버리고 개경으로 상경하는 도중 안변군 석왕사 대로변 객주가에 조반을 청하였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양식은 있으나 반찬이 없다고” 하였다. 이성계는 “밥이나 지어 달라”고 하고 야외에 나가보니 쌍합이 뿔나

무에서 일어나 날아가는지라 활을 겨누어 살을 쏘았더니 일시에 두 마리가 꺾어져 떨어짐을 보던 이지란도 그 활 솜씨에 놀랐다.

이때에 안변부사의 아들 김인찬이 이 광경을 바라보다가 이성계를 만나 통성명하고 자기 신분을 밝혔다. 3인은 여기에서 의사가 상통하여 삼인결 의형제 될 것을 합의하였다.

때마침 춘삼월이라 객주집 후원에 도화가 만발하였기에 옛날 중국 후한 시 유·관·장삼인의 도원결의를 모방하여 소도원결의를 맺고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 때 김인찬은 맹문을 지었고 그것을 상천에 고하였다.

그 맹문은 아래와 같다.

一體三人一世同	才疎敢望三千弟
一生苦樂一心中	身老願從八十翁
濟世安民其就任	關張之誼皆知己
尊君立紀有吾躬	豈爲他年竹帛功

이 결의의 취지는 우리 3인이 형제로 결의하는바 동연 동월 동일 출생은 아니지만 동연 동월 동일에 공사할 것을 원하는 것이고 혈언혈로 맹세하니 백씨에 이지란, 신씨에 이성계, 계씨에 김인찬이었다.

맹문시를 뜻풀이 하면 다음과 같다. “결의하여 한 몸이 된 우리 3인은 같은 세대에 나서 일생의 고락을 같이 하는 오직 한 마음뿐이다. 재조는 가히 삼천 제자를 가진 공자를 바라보고 몸은 늙어서 강태공을 쫓겠다. 세상을 건지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은 군주의 할 일이요, 임금을 섬기고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나의 할 일이다.(두 분 중에 한 분은 군왕이 될 것을 원망한다는 뜻이다.) 관우·장비의 의는 지기상합하는데 있고 어찌 후세 사기에 공이 기록되기를 위함이라.” 라는 뜻이다.

이 영시(靈時)는 천추로 내려오면서 전하여지고 있다.

상경한 3인이 문무취관하니 만조가 다 부러워하였다. 후일 3인이 협심협력하여 이룬 것이 곧 조선의 개국이었다.

이성계는 태조대왕이요, 이지란은 북청 고후인 청해군 청해백에 봉하고 익호를 양렬공이라 사하였던 것이다. 김인찬은 익화군 안성백으로 봉하여졌다(안동군 일직면 조탑리 근성서원에 배향).

7. 신도비명 병서

(대제학 황경원 찬)

有名朝鮮國輸忠奮義翊贊景運開 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同判都評議司事兼判刑曹事判義興三軍府都節制使青海伯襄烈李公

洪武二十有五年 太祖卽位策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襄烈李公爲青海伯加大匡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判刑曹事公固辭歸于青海留不返建文二年 太宗特拜右侍中遺承旨 召之不至 太宗猶賜功臣祿以終其身餘年壬午夏四月卒于青海賜吊祭輟朝三日永樂八年 命配享 太祖廟庭公諱之蘭字式馨青海人也或曰初姓修氏諱豆蘭恭愍王時投高麗賜姓李氏云其先入元以戰功封五千戶世所稱浮海是也於公爲五世祖至公皇考諱雅遠仕女眞官至征西大將軍公旣貴贈補祚功臣領議政府事初征西在女眞時有大星垂于井甃望氣者曰此啓也明也其下必生偉人已而公生及壯爲人勇敢善騎射元至正中 太祖從征古匡城懿妃崔氏夢老人來言价江有射者伯王之輔也會公射鹿价江上 太祖一見大奇之結爲兄弟每出師必與公俱公由是始歸北青辛禍西狩至大寧命武臣射以白金二寸爲之的 太祖輒射中其的禍甚喜公諷 太祖曰才美何示人多也 太祖悟益服其智蒙古丞相納哈出率數萬騎入洪原公引兵踰咸關嶺大戰良久乃收兵明日又與蒙古兵陣于哈蘭大野中納哈出揮鎗直前 太祖陽北納哈出令敢死士追 太祖幾及 太祖垂身若墜馬仰射其腋公挾擊之納哈出乃注矢以鄉 太祖太祖起立馬鞍上矢出袴下公又突前捍衛之納哈出知不可敵遂遁去倭奴夜襲江華殺府使金

仁貴又由窄梁入昇天府中外大震禍率妃嬪欲出奔兵衛環立闕門外公從 太祖自海豐疾趨昇天有銳將跨白馬犯公陣公乃抽矢射殺倭奴遁去未幾樓船五百艘入鎮浦屠燒郡縣又入湖南陷雲城屯引月驛 太祖諭公曰湖南千里之塗死者相枕公力戰以灑此恥公整兵馳至鼎山倭奴將引弳直躡 太祖之後公躍馬疾馳大呼曰請視後 太祖移目未及視公已抽矢射其將立殺之阿只拔都年僅十五勇冠諸將倭奴推爲上將軍 太祖命公生得之公曰不殺心傷人因趣戰阿只拔都着重甲銅面具太祖謂公曰我中其胄公中其面阿只拔都可殪也既而 太祖中其胄墜下公乃射阿只拔都竟殺之於是倭奴皆大哭棄兵遁去女真將軍胡拔都率四萬騎入端川公方居母夫人憂 太祖使人言於公曰社稷將危公雖在憂服之中爲予起復擊拔都可乎公哭且拜遂從行 太祖以公爲先鋒與拔都戰于雄城大破之拔都亡去 太祖曰李某臨敵最果敢真名將也端川旣平公歸鄉以終母喪青松伯沈公德符禦倭奴于中門嶺敗績倭奴遂屯兔兒洞 太祖至哈蘭部署諸將選精兵伏於山中公乃與趙英珪等百餘騎按轡徐行已而 太祖令疾戰公遂先登引致之倭奴直犯 太祖陣於是太祖陽退兵入于伏中乃反兵射倭奴公又走馬馳擊之伏兵且起倭奴軍無不披靡自咸關嶺至牛頭山三十里亘尸蔽野當是時公以勇敢雄四方蒙古諸族皆慴伏倭奴亦遁五十年不敢窺邊故 太祖佐命之臣公名最盛以叅贊門下府事充都兵馬使鎮朔方風諭女真而綏來之女真皆願爲國民服征役納租賦無敢後期數百年被髮之俗盡襲冠帶由長白抵訓春江千餘里入於版圖公之功也辛禍遣使朝北元議犯遼東以 太祖爲都統使公爲元帥發平壤次于滅化禍遣金完賜璽書趣令進兵 太祖建議欲班師恐禍疑之議不決公慷慨爲 太祖言曰率子弟而攻父母此悖義也與其得罪於天下曷若班師以安一國乎於是 太祖遂班師天子下詔褒大義國人始安益陽伯鄭先生夢周見王氏社稷將亡內憂傷與金震陽謨竭力以扶王氏 太祖置酒益陽伯悲歌自誓諸將勸公擊殺之公正色曰益陽忠臣吾何忍賊害忠臣以自陷於不義哉其後高呂趙英珪等殺益陽伯而公不與也 太祖開國策功臣賜公鐵券公稱疾閉門不出諸公卿爲之嗟歎 太祖夜宴景福召功臣飲命伶人歌文德曲

諭公曰寡人之至於斯也鄉等之功也公謝曰章大義以基天命 殿下之德也臣何力焉 太祖嘗遣近臣召臥內問群臣諸將賢不肖公因言鄭道傳奸必不令終後道傳誅太祖始知公之有先見

太宗嗣位以公能辨道傳奸又策推忠秉義翊戴定社功臣青海君公既卒又策奮忠效節同德佐命功臣諡襄烈公容貌靚和端麗如婦人及爲將威振四方其大節不可奪也歸青海十年而卒享年七十有二以其卒之年某月某日葬于府東雁臺之原配咸安郡夫人惠安宅主尹氏領議政希甫之女也配象山郡夫人谷山康氏禮儀判書普戴之女也有子四人曰和尚判工曹事曰和英判刑曹事曰和美判漢城府事曰和秀禮曹叅判玄孫挺豪以修撰論金安老坐貶死七世孫僉節制使希唐從攻鞠景仁死于白塔靖 社功臣忠壯公重討李适死于猪灘希唐子出身三立禦敵于合浦亦能死之豈皆有公之遺風歟公自朔方從 太祖爲諸將首百餘戰北遂蒙古南挫倭奴懷柔女真闢地千里又能秉貞仁之德不犯 天子不殺忠臣受伯爵列於功臣然去就出處之際其志微人莫之識也當承旨之 諭召也公豫聞承旨之來招浮屠持刀以待及承旨入宣 諭書公冠帶拜而受之卽席上焚其冠帶因斷髮惟存其髻嗚呼名果逃耶豈不斷其髮則無以逃其名耶百世之下其必有知公之者矣公之苗裔不可勝記而後孫慶泰慶遇益新技植世寬等謀所以立碑於墓造余門請與之銘銘曰

桓桓襄烈奮于朔方佐我 太祖戎旅是揚 太祖聖武寔天所降濯征四國惟公之從公伐山戎烝徒棲棲群醜稽首莫不盡襲公伐島夷彤弓有輝殲彼大酋泰功不遲北方既靖南土既寧召矛龍盾有駿其靈彼幸不庭于遼進帥公曰 天子不可犯之益陽矢死將加以刃公曰忠臣如何不愍惟公秉心質彼明神顯顯其義赫赫其仁邦之初定武功是策青海之濫輦錫伯爵公有大勇直也戰舍彼朱芾曾莫之戀 太宗嘉之徵公于野皇皇璽書竦動里社公拜受書乃焚朝服乃斷其髮乃絕爵祿北山巖巖橫水瀾瀾休矣明哲令聞永垂從食

太祖其澤孔長我作銘詩刻示范范

神道碑銘 吳 序文譯

有明朝鮮國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同判都評議司事兼判刑曹事判義興三軍府都節制使青海伯襄烈李公

홍무25년(1392) 태조가 왕위에 올라서 양열공 청해백을 수충분의익찬 경운개국공신(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으로 책정하고 대광보국승록대 부문하시중찬성사(大匡輔國崇祿大夫門下侍中贊成事) 판형조사의 직책을 맡기니 공이 한사하고 받지 아니하고 고향인 청해로 돌아가서 살면서 조정 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건문 2년(1400)에 태종이 우시중을 삼고 승지를 보내서 불렀으나 역시 올라오지 아니하니 태종이 공신의 록을 주어서 여생을 지내게 되었다.

건문 4년 임오(1402) 사월에 청해에서 영안승천 하였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직제를 올리고 3일간 철조하고 국사를 보지 아니하였고 영락 8년(1408)에 태조와 같이 종묘에 배향했다.

공의 휘는 지란이요, 자는 식형이니 청해사람이다. 혹 말하기를 처음 성은 통(修)씨요 명은 두란이다. 공민왕때에 고려에 귀화해서 이씨 성을 주었다고 한다. 그 조상은 원나라에 벼슬해서 전쟁에 공을 세워 오친호를 봉했으니 그 분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부해란 분이니 공의 회조요, 공의 아버지의 휘는 아원이니 여진이 벼슬해서 정서대장군이 되었고 뒤에 공이 귀하게 되어서 보조공신영의정부사를 증직하였다.

이 정사공이 여진에 있을 때에 큰 별의 정기가 우물로 쏟아지므로 천문보는 이가 하는 말이 “계명성이니 그 밑에 반드시 위인이 나리라” 하더니 그 뒤 얼마 안 가서 공이 탄생해서 성인이 되매 용감하고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다.

원나라 지정 연간에 이태조가 고광성을 정벌하러 갈 때에 이태조의 모친 의비 최씨의 꿈에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기강(浙江)에 가면 사냥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이 바로 임금을 도울 사람이다” 하였다. 이때에 공이

마침 기강(价江) 상류에서 사슴 사냥을 했었다. 태조가 첫 눈에 신기하게 생각하고 의형제를 맺고 정벌하러 나갈 때면 반드시 공과 같이 나갔다.

이 인연으로 공이 북청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신우왕이 서쪽지방에서 사냥할 때에 대녕에 이르러 모든 무관을 모아놓고 이촌자리 백금을 걸고 활을 쏘게 하였다. 이태조가 쏘아서 맞히니 우왕이 대단히 기뻐했다. 공이 이태조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재주가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라” 한즉 이태조가 그 말의 진의를 깨닫고 공의 뛰어난 지혜에 탄복했다.

몽고 승상 납합출이 수만 군대를 이끌고 홍원으로 들어왔다.

공이 군사를 이끌고 함관령을 넘어서 한참동안 싸우다가 군대를 거두고 그 이튿날 합란들에서 다시 싸우게 되었는데 납합출이 진두지휘해서 태조를 범하므로 태조가 거짓 패한 체하고 쫓겨서 달아나니 납합출이 결사대를 시켜 태조를 추격해서 태조가 거의 붙들리게 되었을 때 태조가 말에서 떨어지는 체하며 뒤로 자빠지면서 납합출의 겨드랑이를 쏘고 공은 옆에서 납합출을 중간에 두고 공격하니 납합출이 활을 당겨서 정면으로 태조를 쏘는즉 태조가 말안장을 딛고 일어서니 그 화살이 태조의 바지가랭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공이 앞으로 나와 납합출에게 정면으로 충돌하니 납합출이 당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도망쳐 버렸다.

왜놈이 밤에 강화도를 습격해서 부사 김인귀를 죽이고 승천부(개풍)로 들어오니 온 장안이 놀라서 갈 바를 못 찾고 우왕은 비빈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대궐문 밖에 수많은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다. 공이 태조를 따라 해풍으로부터 급히 승천으로 쫓아오니 왜놈의 날넨 장수가 백마를 타고 공의 진을 공격하므로 공이 화살 한 대에 왜장을 쏘아 죽이니 왜놈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

그 뒤 얼마 안가서 왜선 오백척이 진포로 들어와서 군과 읍을 도륙하고 불을 지르고 호남으로 들어와서 운성을 무찌르고 인월역에 진을 치고 있었

다. 태조가 공에게 “호남 천리 길에 시체가 즐비하게 깔렸으니 공은 힘차게 싸워서 이 수치스런 일을 씻어버려야 하겠다” 하셨다.

공이 군대를 정돈하여 가지고 정산에 이르니 왜장이 활을 겨누면서 곧장 태조의 뒤를 따르므로 공이 말을 달리며 큰소리로 “뒤를 돌아다 보라” 하였으나 태조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 공이 이미 활을 쏘아서 왜장을 죽였다. 왜장 아지발도는 나이 겨우 15세로 용맹이 모든 장수보다 뛰어나서 왜놈들이 상장군으로 추대했다. 태조가 공에게 아지발도를 산 채로 잡으라 하니 공의 말이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람이 많이 상한다” 하고 정면으로 맞붙어 싸웠다.

아지발도가 두꺼운 갑옷을 입고 구리투구로 얼굴을 가리었다. 이태조가 공에게 “내가 저놈의 투구를 쏘아서 땅에 떨어뜨리거든 공은 그 놈의 얼굴을 쏘면 아지발도를 죽일 수가 있으리라” 하고 태조가 투구를 쏘아서 땅에 떨어뜨리자 공이 뒤밀쳐 아지발도를 쏘아서 죽이니 왜놈들이 모두 통곡하고 군장비도 모두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여진장군 호발도가 사만 병력을 이끌고 단천으로 들어왔을 때에 공이 마침 모부인의 상을 당해서 복상중에 있었다. 태조가 사람을 시켜서 공에게 청하는 말이 “나라가 위태로우니 비록 복상중이나 나라를 위해서 호발도를 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므로 공이 모친 영전에 통곡재배하고 바로 나섰다. 이태조가 공을 선봉으로 삼고 웅성에서 호발도와 싸워 크게 이기니 호발도가 도망쳐 버렸다.

태조는 말하기를 “이두란장군은 적을 만나서 싸울 때 가장 과감하니 참으로 명장이다” 하였다. 단천이 평정되니 공은 다시 갑옷을 벗고 모친의 3년상을 마쳤다.

청송백십덕부가 중문령에서 왜적을 막다가 패해서 왜놈이 토아동까지 쳐들어와 주둔하였다. 이태조가 군대를 이끌고 합란에 가서 군중에서 가장 용

감한 군사를 끌라서 산속에다 매복해 두고 공은 조영규등 백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서서히 전진하니 태조가 빨리 진격하라 하므로 공이 선두에 나서 유도작전을 쓰니 왜놈이 곧바로 태조의 진으로 범해 들어왔다.

이때 태조가 거짓 패해서 북병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격을 가하고 공은 측면에서 공격하는 찰나에 북병이 또 쏟아져 나오니 왜병이 전멸이 되어 함관령에서 우두산까지 삼십리 사이에 시체가 즐비하게 깔렸었다.

이 일로 공의 용감한 위명이 사방에 전하여져 몽고 여러 부족들이 모두 떨면서 항복하고 왜놈들도 모두 도망쳐 오십년 동안은 감히 다시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했다.

태조의 좌명공신 중에서도 공의 이름이 제일 높았었다.

그 뒤에 참찬문하부사 도병마사가 되어서 북방을 다스릴 때에 여진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잘 타이르니 여진족이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해서 의무적으로 부역도 하고 조세를 바치고 그 후 감히 반하는 자가 없었다. 수백년 동안 머리를 풀어 흐트리고 다니던 풍속이 모두 의관지족으로 화해서 장백산에서부터 훈춘강까지의 천여리의 여진 땅이 우리나라 영토가 된 것은 실로 공의 공이었다.

신우왕이 사신을 북원에 보내어서 조공을 바치며 일조에 요동을 치기로 모의하고 태조로 도통사를 삼고 공을 원수로 삼아서 평양을 출발, 위화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왕이 김완에게 친서를 주어 빨리 진격하도록 명령했다.

태조가 되돌아가려고 우왕에게 건의하려 하다가 혹시 반역자로 몰릴까 염려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지라 공이 강개한 태도로 태조에게 “자식이 아버지를 친다면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천하 사람에게 죄를 짓느니 보다 되돌아가서 나라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한즉 태조가 그 말을 듣고 군사를 돌이켰다. 이 사실을 뒤늦게 명천자가 알고 조서를 보내 대의를 지킨 것을 아름답게 여겨 포창하니 비로소 나라와 백성이

모두 평안하게 살았다.

익양백 성몽주 선생이 왕씨기 장치 망하게 됨을 근심해서 김진양과 같이 힘을 합해서 왕씨를 붙들기로 합의하였다. 태종이 술자리를 베풀고 익양백을 청해서 같이 술을 마실 때에 익양백이 비장한 노래로 마음이 변치 아니할 것을 맹서하니 여러 장군들이 공을 보고 때려 죽여 없애라 한즉 공이 엄숙한 태도로 “익양은 충신이야, 나 어찌 충신을 죽여 스스로 옳지 아니한 일을 할 수가 있나” 하고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얼마 안가서 고려와 조영규의 무리가 익양백을 살해하고 공은 이일에 관여하지 아니했다.

태조가 건국한 즉시로 공신을 책정해서 공에게 공신의 직첩(사령장)을 내리자 공이 병을 핑계하고 문 밖을 나오지 아니하니 모든 재상들이 탄복하였다.

태조가 밤에 경복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공신들을 청해서 즐겁게 놀 때에 태조가 광대를 시켜서 문덕곡을 부르고 공에게 하는 말이 “과인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공등의 공일세” 한즉 공이 대답하되, “대의를 밝혀서 천명을 받았으니 전하의 덕이 높으신 때문이지 신이 무슨 공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태조가 어느 날 근신을 보내 공을 침전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신하와 장수들 중에서 누가 착하고 못한 것을 물으니 공이 “정도전이 간사해서 반드시 제 명에 못 죽으리다” 하였는데 그 뒤에 과연 정도전이 사형을 받아 죽으니 그제야 태조가 공의 탁월한 선견지명을 감탄했다.

태종이 왕위에 올라서 공이 정도전의 간사함을 미리 판단했다 하여서 추충병의익대정사공신청해군(推忠秉義翊戴定社功臣青海軍)으로 책정하고 공이 돌아감에 또 분충효절동덕좌명공신(奮忠效節同德佐命功臣)으로 책정하고 양열의 시호를 내렸다. 공이 용모가 부인같이 아름답고 장수가 되어서는 위엄이 천하를 진동시키며 그 대절은 누구라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공이 고향인 북청으로 내려간지 10년만에 72세로 돌아가시고 그해 모월모일

에 북청부 동쪽 별안대 언덕에 장사지냈다.

원부인은 함안군부인 해안택주 윤씨로 영의정 희보의 딸이고 다음 부인은 상산군부인 곡산강씨로 예의판서 보대의 딸이다. 아들이 사형제다. 맏이는 화상이니 판공조사요, 다음은 화영이니 판공조사요, 다음은 화미니 판한성부사요, 다음은 화수니 예조참판이고, 고손 정호는 수찬으로 김안노의 죄장을 논하다가 무고로 몰려죽고, 칠세손 첨절제사 희당은 국경인을 치다가 백담에서 전사했고 정사공신 충장공 중노는 이괄을 치다가 저탄에서 전사하고, 희당의 아들 삼립은 무과로 출신해서 적을 막다가 함포에서 또한 전사했으니, 이것이 모두 공의 유훈이 아니겠는가.

공이 북방에서 태어나서 태조를 쫓아 모든 장수중에서 으뜸가는 장수가 되어 전쟁을 백여 차례나 치루어서 북쪽으로는 호고를 쫓아 버리고 남쪽으로는 왜놈을 무찌르고, 여진을 회유 귀화하게 해서 국토 천여리를 넓히고, 또 충정과 인의를 지켜 천자를 범하지 않고 충신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공신의 대열에서 백작까지 받았으나 자궁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처신한 그 뜻은 소인배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승지가 왕의 조서를 받들고 부르러 갔을 때에 공이 승지가 온다는 소문을 미리 듣고 절의 중을 시켜 삭발도구를 휴대하고 대기했다가 승지가 들어와서 어명을 전달하니 공이 의관을 정제하고 조서를 받은 뒤에 즉석에서 관대를 불태우고 머리를 깎고 수염은 그대로 두었으니 오호라, 공의 생각에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였던가, 머리를 깎지 않고는 이름을 숨기지 못했던가, 백세 뒤에는 반드시 공의 뜻을 알 사람이 있으리라.

공의 후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가 많다. 후손 경태·경우·익신·지식·세관등이 묘소에 비를 세우기로 의논하고 나를 찾아와서 글을 청하므로 아래와 같이 새기고 새겨 쓰노라. 씩씩한 양열공은 북방에서 태어나 우리 태조를 도와서 정벌에 이름을 날렸다. 위대한 태조는 실로 하늘이 낳으

서서 사방을 정벌할 때에 오직 공만이 따랐었다. 오랑캐를 쳐서 군적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왜놈을 무찔러서 대장을 죽이니 그 공이 하나·둘이 아니었으며 북과 남이 모두 편하게 된 것은 실로 공의 거룩한 공이었다.

신우가 요에게 반기를 들자 천자를 치지 못한다 하고, 포은을 죽이라 하자 충신을 어떻게 죽이라 하고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니, 공의 마음가짐은 신명이 증명하는 오직 인과 의 뿐이다. 나라가 처음으로 세워지매 북청 한 모퉁이에 개국공신이 생겨나서 백작을 받게 되었으니 공의 짝이 없는 용맹은 싸움에는 당할 사람이 없었으며 부귀를 급급하게 빛내지 아니하고 벼슬을 조금도 거리낌없이 내버렸다. 태종이 공의 뜻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초야로 돌아간 공을 움직여 다시 벼슬자리로 돌아오도록 친서를 보내어서 북청이 진동하였으나 공이 친서를 받고 나서 관복을 불사르고 머리를 깎아서 영구히 벼슬을 사양하였다.

북산은 높고 횡수는 양양히 흘러 쉬지 않도다. 공의 명철한 덕행을 영구히 인멸되지 않고 전하여 지리라·태조묘에 배향에서 그 공덕이 길이 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한쪽 시를 돌에다 새겨 오는 세상에 알리노라.

송정기원후 삼 갑오(1773) 10월 일 립

8. 송포백운

- 북청군지에서 -

이 송포는 청해백이 현 서도리를 은거지로 정한 후 서쪽 오리 떨어진 중산맥 하단 방축산 중턱 안좌형 고개가 보여 앞으로 그 부락에 화재와 동족간 불화를 가져올 기세가 있으므로 이를 제압방어 하여야 한다고 부락과 방축산 중간에 수많은 소나무를 심어 안좌형 고개가 보이지 않게 하여 장래의 재앙을 예방한 것이다.

지금은 노송이 울창하여 행인 또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연 옷깃을 여미

고 경건한 마음으로 청해백을 추모케 하고 있다.

이 송포는 단오절에는 부녀자들의 추천(그네)이 또한 가경이며 하절에는 피서객의 안식처가 되고 동절에는 강설로 때 아닌 백화가 송지에 만개하고 또 바람에 휘날려 낙화처럼 백설이 떨어지는 경치 또한 가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9. 영 당

조선개국 원훈공신 청해백 양렬 이지란공은 비단 조선개국의 원훈공신일 뿐 아니라 간신 정도전·박포등의 간사함을 예견하여 정사좌명의 공이 있어 정종대왕의 교문에 개국과 정사에 공이 위대하여 이씨왕조로서 영구히 그 공을 불망하기 위해 화상을 그리고 공작을 새겨 만세에 잊지 못할 그 공에 보답 운운한 것으로 보아 정종 원년(1398)에 화상을 그리고 태종 4년(1404)에 청해백의 삼년상이 지나고 신위를 사당에 모실 때 영당을 짓고 신위와 화상을 같이 모시고 충열묘라는 칭호가 태종대왕의 제호로 내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위치는 현 함경남도 신북청읍 안곡리 능소 앞 구 유허지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건립 당시는 단지 소박한 영당으로 4간을 건립하였다가 병자호란 후에 중건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서원으로 변모되어 후손 이외의 전군 유림이 매년 춘추로 제향을 드리고 있어 청해백의 사당이며 영당이자 유림의 서원으로 되어 있다.

북청에 있는 청해사 이외에 수원·양주·포천·고창·봉산·양덕등지에 영당이 있다.

1. 수원 : 경기도 화성군 조산읍 가수리

영조 22년(1746) 무후공 제오자파 종가에서 영정과 신위를 모시고, 매년 4월 11일과 7월 11일 시조 청해백의 기일과 동비강씨부인의 기일을 제

사하며 사당이라 칭하고 있다.

2. 양주 :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용정리(하독정)

무후공 제일, 이자는 무후하고 제삼자와 종가에서 상기 주소지에 영당을 건립하여 청해백의 영정을 모시고, 매년 음 3월 15일에 제향을 지낸다.

3. 포천 :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이 영당은 무후공 제육자 후손 팔세 중노 청홍부원군 충장공의 민충사에 서 청해백의 영정을 모시고 충장공 제일에 제향을 받들고 있다.

4. 고창 : 전라북도 고창군 월암 고창종가 운하나 미상하므로 이하 생략함.

5. 봉산 : 황해도 봉산 서호

정조 22년(1798) 황해도 종인들이, 시조 청해백의 묘소와 청해사 영당 및 서원은 북청에 있어 거리가 심원하여 자손으로서 성묘를 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수원·양주·포천·고창의 예를 본받아 영당을 건립하여 영정을 모사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을 받들고 있다.

6. 양덕 : 평안남도 양덕군 쌍용면 용연리(현 용전리)

철종 14년(1863) 평안남도 종인들이 북청 영당의 규모와 같이 영당을 건립하고 북청에 봉안한 영정을 모사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을 받들고 있다.

7. 봉산서호방영당봉정기

(12세손 경승 근식)

我李之落拓海西者幾至數百年而北青有始祖水原有祠宇俱是遠地不得趨謁其爲子孫者得不赧然而罪悚乎哉歲在戊午冬族兄慶勳汝一甫因事上洛遍訪諸宗林洞靑陵君宗家及月巖高敞宗家皆奉影幀以移模之意言及則僉曰唯唯其臘晦以書委問滿紙答言從龍歸一謂以有志者事竟成也越明年正月晦治送族弟慶億于京作模眞之行仍與族兄慶佐晦甫氏慶曄忠幹氏方營建祠高柱臣樑旁求四索不得善材適聞松峴孔氏建夫子廟未就而中止云故遣族弟慶信給價買得擔負輸來又採南山石斲作柱礎湖素石儉偶然得此豈非神慳而鬼秘乎三月十三日模眞奉還以祠宇未成權奉不肖家奄過春夏秋三朔建祠六閱月

而訖役同年八月初六日辰時擇吉奉安遺像端肅生氣勃然獲拜始祖顏面于數
 百年之後此誠眞耶夢耶不覺愴慕而感泣曾聞提學元景夏之奏感九日之乙覽
 今讀退漁金鎮尙之撰認七分之得眞湖西諸族吾宗素貧苟無陰雨之備難供春
 秋之享方鳩略干之物欲作永遠之計嗟我諸兄諸弟諸子諸孫勉之哉勉之哉

鳳山西湖坊 影堂에 影幀을 奉安한 글

12世孫 慶 昇 畝

우리 이씨의 후손이 해서에 와서 산지 수백년이 되었다. 북청에는 시조의 묘가 있고 수원에는 사당이 있으나 둘 다 원거리지방이라 가서 뵈일 수 없어 자손된 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도다.

정조 22년(1798) 무오 겨울에 족형 경훈이 일이 있어 서울에 갔다가 마침 제종인을 심방하였더니 임동(林洞)의 청릉군 종가 및 월암고창종가는 다 청해백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었다. 영정을 모사(模寫)하여 모시자고 발의하니 다 좋다고 하였다. 그해 선달 그믐날 연락을 하였더니 모두 찬성하는 회답이 오고 말하기를 모두 뜻을 모아 추진하면 반드시 성사할 것이라 하였다.

다음해 정월 그믐날 족제(族弟) 경역을 서울에 보내서 영정을 모사(模寫)케 하고 족형(族兄) 경좌·경화과 더불어 영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큰 기둥과 보감을 구하나 좋은 재목을 얻지 못하였다.

마침 송현 공씨가 공자묘를 짓다가 중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족제 경신을 보내 사서 가져오고 남산에서 돌을 끊어 주석을 장만하니 이곳은 돌이 귀한데 이같이 좋은 돌을 구하게 되니 어찌 신기하고 이상하지 아니한가. 3월 12일에 영정을 모사하여 봉환하였으나 영당의 건축이 완성되지 못하여 임시로 나의 집에 모시어 두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영당을 6개월만에 완성하고 그해 8월초 6일 진시에 영정을 봉안하니 화상의 기상이 발발하였다. 수백년 후에 시조 앞에 절하고 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진실이

나 꿈이나 사모하고 감격하여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일찍이 대제학 원경하가 주상한지 9일만에 봉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되어자 김진상의 화상 찬 글에 거의 진영 같다는 것을 알겠다.

호서(황해도) 모든 우리 일가는 본래 가난하고 구차하여 여축한 재산이 없어 춘추로 제향을 받들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영구한 대책을 강구중이니 우리 모든 형·동생·아들·손자들은 힘을 합하고 합할지이다.

ㄴ. 양덕용연리영당봉안기

十七世孫承祐謹識

凡爲人道者莫不追遠而報本焉況功被社稷業垂雲仍百世觀德者乎此昔 朝家所以特賜不祧之典也惟我始祖青海伯襄烈公際遇 太祖結之以桃園之義伉之以椒掖之親北逐蒙古南挫倭奴懷柔女真威島之役爲天子而班師益陽之禍護忠臣而不與其豐功盛德畝不誦而傳之仰而慕之凡我八域含生之類亦當家戶戶祝而爲其子孫者豈無報本之誠乎是以青海焉建院水原焉祠幀繪像于鳳山寔由於在在不忘之義也惟我關西之子孫幾至五百年獨無數椽之祠不肖之責誠是難免去癸亥春以移奉影幀之意門議僉同治行于北青移模眞幀而歸時則夏四月也仍權奉于齋室七月初吉祠宇始役而翼年甲子工匠告訖時則春三月也是月之辰涓吉奉安肅清之像魁偉之貌眞可謂曠百世而一值不可常常見之也今奉烈祖之遺像追感英廟之宸章生氣勃然於七分之上而孝思愀然於四月之旬矣夫勅議祠事余與門老建奎錫祚敬錫氏同謀之移模眞幀余與族從宗桃雨植雲植甫同行之堂建之制一樣於青海之院宇而扁額之揭徐叅判承輔氏所題也鳩射之方莫非諸宗之勉力而營造之事余亦不無力焉凡我諸宗各盡人道世世尊奉而以寓其追報之誠焉

陽德 龍淵里 影堂을 모신 글

무릇 사람이 해야 하는 길은 먼 조상을 생각하고 근본에 보답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하물며 공훈은 나라의 사직을 덮고 업적은 수백 대를 두고 추앙을 받은 분이라. 옛적에 조정에서 특별히 불천지위 사당을 모시게 한 것이라!

우리 시조 청해백 양렬공은 이태조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늘 짝지어 북으로 몽고족을 쫓아버리고 남으로 왜구를 쳐서 몰아내며 여진을 회유하는 한편 위화도에서 천자에게 거역하지 아니하게 회군하였으며 정몽주가 화를 입을 때 충신을 보호하여야 한다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함은 그 많은 공과 그 높은 덕을 누가 칭송하고 우러러 사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리오, 무릇 우리가 사는 지역의 사람은 모두 추앙하거늘 그 자손된 분들이 어찌 조상을 위하는 정성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청해에는 청해사서원이 있고 수원에 사당, 봉산에 영당을 모시어 대대로 잊지 않고자 함이다. 그러나 우리 관서의 자손은 거의 오백년이 되도록 한 칸의 사옥도 없으니 불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도다.

지난 계해년 봄에 영정을 모시자는 문중의결에 따라 북청에 가서 진영을 모사하여 돌아온 것이 하사월이라 임시 재실에 모시고 칠월초길일에 영당의 역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순조 4년(1804) 갑자춘삼월에 공사가 준공되었기에 그달의 길일을 택하여 모시게 되니 엄숙하고 청수한 기상과 늠름한 모양이 수백년 만에 한분씩 날 분으로 항상 볼 수 없는 분이다.

이제 시조의 영영을 모시니 옛적에 멀리 영조대왕께서 청해백의 존영을 보시고 기상이 발발하여 살아 있는 것 같다는 말이 생각나며 추연한 효심이 생긴다.

이 영당을 짓기로 발의한 나와 문중노인 건규·석조·경석씨와 또 진정을 모사하여 모시기 위하여 종중의 종도·우식·운식은 같이 북청에 가서 청해사의 제도와 모양을 똑같이 모사하여 오고 현판은 서참판 승보씨가 쓴 것이다. 이 사당을 이룩하게 된 것은 모든 종인이 힘을 합하여 된 것이다. 나는 힘이 없으나 우리 종중 모든 사람은 각기 자손된 도리를 다하여 대대로 높이 받들어 조상에 대한 효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십칠세손 승우 근식

10. 치제문

英祖大王(22년) 致祭文

丙寅(1746) 9월 일

惟靈攀龍附鳳起自北方贊我 聖祖開闢漢陽名登鐵券勳蓋一邦流傳史乘百
代洋洋今見遺象其正其剛愴然追感叙懷此章命官設酌欽格我觴

신령님께 **고**합니다. 장군은 용을 받들고 봉황을 도와 북쪽에서 일어나 우리 태조를 도와 한양 도읍을 세우니 이름은 철권(한고조가 천하를 정한 뒤에 모든 공신의 이름과 사적을 철에다 새겨서 금궤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국가의 소중한 문서는 철권이라 함)에 오르고 공훈은 한 나라를 덮어 수백대를 지나도록 생생하도다.

이제 유상을 보니 그 정대하고 강직했던 기질이 자연 마음에 떠올라 이 글을 지어 제관을 보내 잔을 드리니 내 잔을 받아 흠향하소서

英祖大王(26년)致祭文 〈庚午(1750) 9월〉

天惻世亂卽降神武又生英豪以翼以羽緬維青海際我聖朝奮挺掘起雲龍風
虎韃洞驟馬納虜戰股荒山射賊鐵額飲咎威島彰義寔典佐伍翊 聖除昏拓羗區
宇山礪河帶錫姓胙土功成告退展彼圭組賸食

廟庭一體千古向覽遺像思切聽鼓酌文親錫龔絕異數有命錄後申之選部溫
宮戎蹕路出畿輔祠版之藏寄在荒莽聖恩昧昧偉績追撫倂官錫祭酌茲清醑

하나님은 세상이 어지러워짐을 측은히 여기사 신무한 태조를 내보내고 또 영웅호걸을 탄생케 해서 날개와 깃처럼 돕게 하였다. 오직 청해백이 우리 태조가 태어날 때에 같이 태어나서 구름이 용을 쫓고 바람이 범을 쫓듯 분발해 일어나서 달동 싸움에 납함출을 항복받고 황산 싸움에서 왜장의 이마를 쏘아 뚫고 위화도에서 대의를 밝혀서 선을 돕고 악을 없애서 나라를 세워 천지에 맹서하여 성을 주고 땅을 주었다. 큰 공을 세우고 물러났으나 태조의 사당에 같이 모셔서 천만년을 태조와 함께 누리게 하였다.

화상을 보고 제향의 북소리를 들으니 장군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수백 년 된 오늘날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게 하니 때는 다르나 이것도 연분인가 하여 선부에 명령해서 장군의 사적을 다시 기록하게 하였다. 마침 온궁으로 가는 길에 장군의 사당 앞을 지나게 되므로 장군의 위대한 공을 흠해서 제관을 시켜 제사를 지내노라.

正祖大王 致祭文(一)〈庚戌 1790 2월〉

聖有天縱人爲詩出藝祖之業青海是彌塵埃識眞風雲契密移轉山河震盪星
日神武所贊八域歸一帶礪存盟勳庸鮮匹凡厥偉烈疇與公軼夙舉祀典歲將芬
苾英考讚像宸翰撫實路涉祠鄉薄言停蹕溯念今古惕若增忭倂官侑靈表予追述

하늘이 임금을 내게 되면 도울 사람이 또한 그 때를 따라서 나오게 되느니라. 태조가 창업하실 지음에 청해백이 도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수많은 사람중에서 참다운 주인을 만나 바람과 구름이 얹히듯 정분이 친밀해서 산천을 주름잡고 칼날을 휘둘러 신무를 도와 팔도가 통일되었다.

천지에 맹서하니 둘도 없는 큰 공이다. 모든 영웅 열사가 공을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나. 그 전부터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고 특히 영조대왕께서 화상을 칭찬하였고 제물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셨다. 나도 마침 사당 동네를 지나게 되어 잠깐 길을 멈추고 지나간 일을 추모하며 사신을 시켜 제사로 나의 뜻을 표하노라.

正祖大王(19년) 致祭文(二)〈乙卯(1795) 閏 2월〉

桓桓青海開國元勳射穿七札勇奪三軍塵埃識眞攀附鱗翼起自關北奄定大
策紀之彝鼎繪于麟閣守信釋權子儀多福屹然遺廟在彼之阿靈衛園寢氣壯山
河向歲修葺曰嘉乃功輦路塵清颯爽英風

썩썩한 청해백은 개국의 원훈이다. 벼들잎을 뚫을 수 있는 활 재주를 가졌고 삼군의 장수를 빼앗을 만한 용맹이 있었다. 옳은 임금을 만나서 용의

비늘과 봉의 날개와 같이 받들고 도왔다. 관북에서 태어나서 대공을 세워 이름은 사기에 기록되고 화상은 기린각에 걸려 있다. “후한 광무황제가 한나라를 중흥시킨 뒤에 공신 28명의 화상을 기린각에 붙였으므로 후세에 그 예를 좇아서 공신을 찬양하여 인각공명이라 한다.”

믿음을 지키며 권세를 버리니 객자의처럼 복이 많다. 우뚝한 옛 사당이 저 언덕에 있어서 영혼은 원침을 둘러싸고 영기는 산천처럼 웅장하다. 거년에 사당을 중수해서 이제 준공을 보게 되었기에 지나는 길에 수레를 멈추고 영웅의 기풍을 잠깐 구경하노라.

정조대왕 즉위 19년(1795년) 윤 2월 12일에 또 다시 용릉을 참배할 때 부호군 윤득규를 제관으로 삼아 청해백 사당에 치제하시다.

純祖大王 (4年) 致祭文 (一) 〈甲子(1804) 9月 日〉

天挺豪俊爲時篤生龍飛鷹揚震盪日星密勿風雲整頓乾坤翊贊洪業萬世一元豐功偉烈海山崢嶸至今赫赫婦孺誦名立祠效炯歲將苾芬 宸章讚像凜然七分喬陵蹕路溯古興想倅官侑靈庶幾顧饗

하늘이 때를 맞추어 영웅을 탄생시키니 고명한 재주는 일월을 흔들리며 바람과 구름을 마음대로 하여 천지를 정돈해서 개국에 세운 큰 공은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아서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혁혁하여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이름을 외게 되었다.

교외에 사당을 세워시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다. 선왕께서 화상의 능름함을 찬양하여 이미 그 공덕을 칠분이나 밝혔다. 선왕의 능침에 다녀오는 길에 추모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시켜서 영혼을 위로하니 흠향 하소서.

순조대왕 즉위 4년(1804) 9월 27일에 수원에 있는 아버지 정조임금의 건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서좌랑 박정검을 치제관으로 삼아 청해백의 사당에 치제케 하였다.

純祖大王 致祭文 (二) 〈庚午 (1810) 12月 日〉

龍躍天衢籍以風雲應時挺豪豐烈偉勳名垂簡冊誦騰婦孺像讚

宸章祠近蹕路九原難作溯昔興懷英靈不味我酒之偕

용이 하늘로 뛰어올라서 바람과 구름을 타고 다니듯이 때를 만나 재주를 발휘해서 큰 공을 세워 이름이 사기에 올라서 부녀자들까지도 알게 되었고 선왕께서는 화상을 찬양하는 시까지 지으셨다. 사당이 나 다니는 길 가까이 있어도 황천에서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 옛적 일을 생각하니 감계무량하다. 영명한 혼령은 내 술을 맛이 없다 하지 말고 흠향하소서.

순조대왕 즉위 10년(1810) 7월 27일, 수원에 있는 선왕의 능을 참배할 때 청해백의 사당으로 제관을 보내어 치제하고자 하였으나 뒤로 미루어져서 그해 12월 15일에 예조 좌랑 민영세를 제관으로 삼아 치제케 하였다.

純祖大王 致祭文 (三) 〈壬申 (1812) 7月 27日〉

粵昔壬申皇祖受命塵埃識眞英豪翊聖卿時遇巷魚水契隆穿楊妙技執鈞奇功拔都授首女眞歸心倡義協謀同德二三一統洪業樹立甚宏山河帶礪竹帛功名休戚與共恩寵最優睠彼青海秩視公侯若唐世勳比周召虎麟閣龍光照耀今古洪休逮予舊甲周星緬懷開勗倍憶丹青無疆寶錄肇自涪灘籍彼冒石基我措磐功載丕視曠百相感 南殿奠酌餘懷曷堪元祀咸秩庸寓酬報英靈蠶庶幾歆酬

옛날 임신년(1392)에 태조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 왕위에 오르셨다. 초년부터 태조가 천명을 받은 것을 알고 영특하고 호걸스럽게 태조를 돕기 위하여 야인으로 서로 만나서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교분이 깊었고 버들잎을 마치는 뛰어난 궁술로 큰 공을 많이 세워서 아지발도를 죽이고 여진을 귀순 시키며 의병을 일으켜 2,3 동지가 협력해서 나라를 창건하니 천지에 맹서하여 고와 낙을 국운과 같이 해서 이름이 사기에 빛났다.

임금의 신임이 제일 두터워서 청해백에 봉하였으니 당나라의 이세적과 같고 주나라의 소공과도 같아서 기린각에 이름이 오른 영광은 천추에 빛나

있다. 대통은 끊임없이 전해 와서 개국하던 그해 임신년이 돌아왔으므로 창업하던 그 때의 일을 더듬어 보니 실로 감개무량하도다. 오늘날 우리가 무궁한 복록을 누리게 된 것은 실로 창업 때에 우리에게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공을 세운 경은 수백년 뒤에 태어난 우리에게 기맥이 서로 통하니 감동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전에서 잔을 드리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도다. 원 제사는 함경도에서 지내나, 이번 임시 제사에 대하여 영혼은 부족하다 마시고 흠향하소서.

“순조대왕 즉위 27년(1812) 7월27일 태조 임금의 조선왕조를 창건하여 왕위에 오른 지 7회갑(420)되는 기념일이였다. 이에 순조임금은 이날을 맞이하여 특히 개국공신을 흠모하는 감회가 새로이 떠올라 특별담화를 한 동시에 각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그 공신의 사당에 예관을 보내어 치제케 하였다. 이때에 청해사에 치제를 맡은 예관은 이중진이었다.”

憲宗大王 致祭文 〈癸卯(1843) 2월 일〉

聖朝愛命粵自任申英豪爲時攀附翼鱗有周十亂若漢三傑 予曰禦侮惟卿襄烈塵埃識眞風雲合契天生猿臂穿陽妙藝奮武鷹揚先驗馳獵贊協大義開瓶洪業膚奏女眞凱旋拔都石室金券雲臺畫圖圭組燁赫世襲芬芳武休今日邦祿無疆蹕路入望古祠歸存曠百興感倂官侑奠

태조가 하늘의 명을 받들어서 처음 왕위에 오르신 것은 옛날 임신년이였다. 영웅호걸들이 때를 맞춰 태조의 보필이 되어서 여러차례 난리를 평정하였음은 한나라의 삼걸과 같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경은 태조의 장래를 미리 알고 바람에 구름 쫓듯 군신이 서로 만나서 버들잎을 맞히는 특이한 궁술은 사냥할 때에 이미 알게 되었고 여진을 항복받고 아지발도를 무찔러서 개가를 올리고 대의를 굳게 지켜 대업을 이루어서 화상은 기린관에 높이 걸리고 이름은 사기에 빛나서 대대로 자손이 복록을 누리고 오늘날까지

국운이 흥왕한 것은 실로 경의 위대한 공훈의 덕택을 힘입은 것이다. 지나
는 길에 사당을 바라보니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새로워서 사신을 시켜서 잔
을 드리노라.

哲宗大王 致祭文 〈壬子(1852) 11월 일〉

聖朝龍興寔伏同德徐商炳畿褒鄂効力整頓宏業諒爲時出天挺元勳翼翼襄
烈塵埃識眞托契密勿三箭天山羯奴褫魄雲臺繪像石室紀績名遂身退晚節尤
特邇對辨奸人服卓識恩推錫姓報崇配食金來字跡炳靈幽宅靡門存場報佑邦
國爰及苗裔圭組煒赫輦路興感顧予忝酌

신성한 태조가 대업을 이룩하심에 하늘이 원훈 청해백을 탄생하시어서
서상이나 포악처럼 충성을 다하게 하였다. 민간인으로 계실 때부터 정다운
친구로 천산싸움에 화살 몇 개로 오랑캐의 혼을 잃어 버리게 하고 운대(공
신각)에 화상이 높이 걸려서 사기에 이름이 실렸었다.

큰 공을 세우고 산야로 물러나서 벼슬을 탐내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킨 것
은 더욱 특이하고 임금 앞에서 간신의 장래를 미리 판단한 그 높은 식견은
누구라도 탄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은혜를 베풀어서 성을 주고 작위를 높
여서 태조의 종묘에 같이 모셨고 무덤에서 금이 온다는 글자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저승에서 혼령이 나라를 보호해서 자손 대대로 벼슬하여 혁혁
(赫赫)하도다.

지나는 길에 추모하는 감회가 간절해서 사신을 시켜서 잔을 드리니 흠향
할지이다.

① 철종임금 즉위 3년(1852) 11월 18일에 선왕처럼 수원에 있는 선대
왕의 능을 참배하러 지나는 길에 예조좌랑 금정원을 제관으로 삼아 청해백
사당에 치제케 하였다.

② 고종황제 즉위 5년(1868) 11월 24일에 수원의 여러 황릉을 참배하
러 가는 길에 예조좌랑 김국현을 제관으로 청해백의 사당에 치제케 하였다.

VII. 후 손

1. 추밀공 화상

추밀공의 휘(諱)는 화상이고 청해이씨의 시조 청해백 이지란의 아드님 사형제중의 맏아드님으로 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났다.

추밀공은 아버지 즉 조선개국 원종공신 청해백 양렬공 이지란을 도와 고려말·조선조초기에 남정북벌에 그 공훈이 많아 조선에서는 보국숭록대부 판공조사 청해군을 중국명조에서는 추밀부사겸 예부상서의 작위를 받은 조선개국의 원종공신의 한 분이다.

추밀공은 아버지 청해백을 닮아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무장으로서 고려 공민왕 20년(1371년) 신해 2월에 아버지 청해백을 따라 북청에서 개경으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다.

공은 개경에 와서는 자연 이태조와 아버지 청해백과의 관계로 인연이 되어 늘 이태조의 아드님 방우, 방과들과 같이 사귀게 되었다. 특히 이태조의 아드님 중 방원과 같이 아버지를 도와 이태조가 조선왕국을 창업한 때 그 이바지한 공이 많았다.

이조실록 일권총서에 의하면 고려말 신우십사년에 이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이태조의 아들 방과(후에 정종대왕이 됨)와 방우(진안대군)와 같이 우왕을 따라 성주(지금의 성천)온천 우왕 처소에 있었다.

이태조가 위화도로부터 회군하여 압록강을 건너 안주를 지나 개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방우·방과와 같이 우왕 처소를 탈출하여 회군하는 이태조의 군대 앞에 이르렀다. 이들을 본 이태조는 반가워하며 너희들의 이번 거사는 하느님이 도우신 것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해

백이 천하의 명장이라는 사실은 중국 명나라에 까지 알려져 있었다.

마침 명태조 25년(1392) 4월에 건주위(지금의 만주) 여진추장 월로티 무르(월노첩목아)가 명나라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었다. 명나라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원병을 요청하면서 청해백을 주장으로 삼아 출병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주일대의 지리풍습에 익숙한 청해백을 도원수로 삼고 그의 큰아드님 추밀공 화상을 부원수로 삼아 군사 1만을 주어 출병하게 하였다.

청해백과 그 아드님 추밀공은 대군을 인솔하고 건주위에 당도 하자 여진 발란군은 청해백의 위명을 익히 아는 바라 미리 겁을 먹고 있어 한번 싸움에 대패하고 풍지박산되어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건주위 여진 반란을 평정시켰다.

명태조 주원장 당시 천자는 골치 아픈 여진족의 반란을 이같이 힘 들이지 않고 쉽게 평정된 것을 심히 기뻐하고 또 청해백의 무용을 후대하여 청해군(당시 조선에서는 청해군을 봉하였던 것임)을 청해백(백이라는 벼슬의 지위는 제후 즉 왕과 같으나 국토와 국민이 없음)에 봉하고 그 아드님 추밀공은 추밀부사 겸 예부상서에 봉하였다.

그 후 청해백은 곧 회군하여 우리나라로 돌아왔고 추밀공은 명태조의 만류로 명조에 남아 있다가 수도불복으로 병이 나자 명태조는 부득이 귀국을 허락하고 수도 좋은 고국에 가서 요양하라고 하였다.

추밀공이 귀국하자 조선에서는 공의 공훈을 높이 평가 찬양하고 산수 좋은 강원도에서 요양하라고 강원감사를 제수하여 주었다 그러나 공은 오래 지 않아 조졸하였다. 기일은 5월 16일이고 묘는 강원도 이천부 비파동 침인의 언덕이다.

이 묘에 대한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면 공이 조졸하자 그의 고향인 함경

도 북청으로 운구하는 도중 영구(靈柩)가 이 지점에 이르자 일진광풍에 명정이 날려 현 묘소 자리에 떨어지고 영구가 요지부동이 되어 도저히 운구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장사를 지냈다는 전설이 있다.

공은 청년시절부터 조선조 삼대왕인 태종 방원과 같이 힘을 합하여 조선 개국에 이바지한 공이 그의 부친인 청해백 못지 않으나 그 당시 군대제도는 전부 가병제도로 되어 있어 공신록권에도 누구의 몇 명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이 조졸하여 후광을 받지 못하였고 또 그 후손 중 첫째, 둘째 아들이 모두 조졸 무후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모두 나이 유충하여 부친의 위훈을 계승받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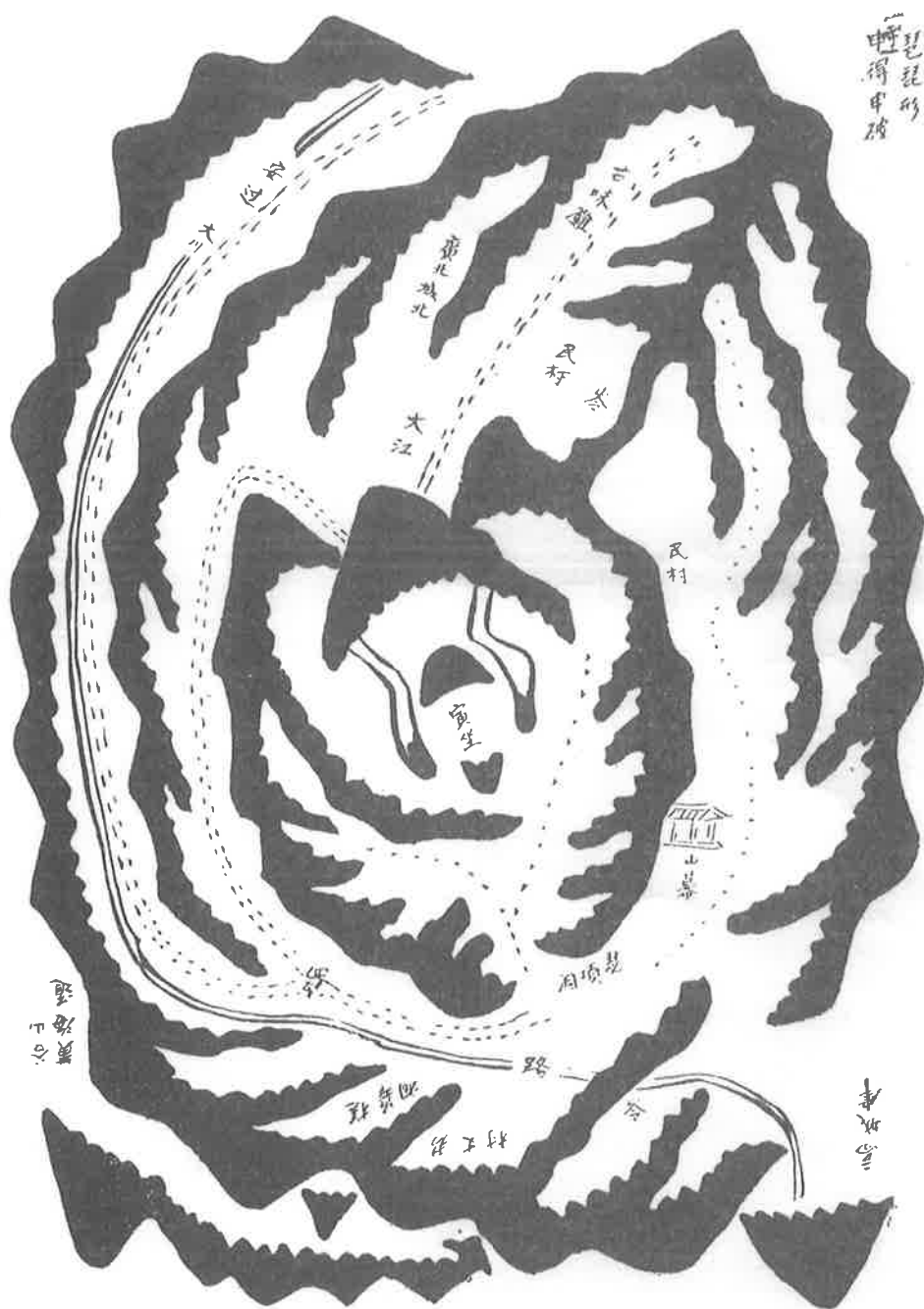
공의 아버지 청해백이 서거하였을 때도 공은 그 전에 이미 조졸하고 그 자손은 유충하여 공의 둘째 아우 무후공 화영이 여진의 추장을 계승받은 사실과 청해백 서거 당시의 태종실록을 보면 청해백이 아들을 화영·화미·화수 삼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추밀공의 조졸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또 그 후손이 조졸하여 가업의 계승과 종가로서의 구실을 잘하지 못한 실례를 들면 추밀공의 산소를 실전하였다가 약 사백년 후 무자년 가을에 공의 11세 후손인 중달이 추밀공의 산소가 강원도 이천 비파동에 있다는 가승의 기록을 보고 강원도 이천 비파산 주위를 두루 돌며 노인들에게 수소문하였다.

한 노인이 추밀공의 산소를 가리키며 “이 산소를 이정승묘라고도 하고 또 통장군 산소라고도 합니다”. 하기에 그 산소의 좌향과 그 치산한 규모로 보아 짐작은 가나 수백년간 돌보지 않아 고봉이 다 되어 잘 알 길이 막연하였으나 추원의 감회를 금치 못하였다.

그날밤 그 산소아래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젊은 장수가 말하기를 “나는 너의 9대조인 추밀공이다. 그 묘는 나의 묘소이며, 또 지식이 있으니 파 보면 알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하므로 후손인 중달은 목욕

伊川琵琶項樞密公墓之山圖



청해백의 장자 화상 추밀공의 묘소 산형도
〈청해이씨세보에서 전재〉

재계 후 택일하여 산소에 제사를 지냈다.

사초를 하고 지석을 파서 본즉 과연 보국승록대부 판공조사 추밀부사 겸 예부상서를 청해군 이화상지 묘라고 조각되어 있는 서자가 분명하므로 산역을 마치고 고향인 북청으로 돌아가서 후손으로 하여금 다시는 산소를 실전하지 말도록 유언하였다 한다.

추밀공은 청해백 양열공의 장자로서 모부인으로는 함안군부인혜안택주 윤씨, 영의정 윤희보의 따님이고, 또 둘째 모부인으로 상산군부인 곡산 강씨, 예의판서 강보대이 따님이다.<주, 이 분은 이태조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의 친정 조카 따님이시다>

부인은 정경부인 안동 권씨, 이조개국 일등공신 화산부원군 권씨의 따님이고 다음 계비는 정경부인 동평 리씨, 사재부령 이숭조의 따님이시다.

아드님은 오형제 분이 있었다. 첫째 효원, 둘째 효형 두 분 다 청해군으로 봉군 조졸 무사하여 자손이 없으며 세째 효적, 네째 효장, 다섯째 효철이 있어 그 자손 중 일부가 서울 또는 경기도지방에 거주하고 그 외에는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에 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문제가 있다. 청해백의 장자와 차자에 대한 장·차의 분쟁이 조선 영조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말까지 계속하여 온 관계로 청해백에 대한 기제사를 북청(추밀공의 자손)과 오산(무후공의 자손) 두 군데에 사당을 모시고 각기 장손이라 칭하고 봉제사하여 왔으므로 이제 여기에 그 장차에 대한 문제를 명백히 기술한다.

추밀공이 청해백의 장자라는 증거로서

1. 청해백 신도비(산소앞에 세운 비석)에 명백히 아드님 사형제가 있고 그 서열로 화상, 화영, 화미, 화수라고 기명되어 있고,

2. 조선왕조실록 제1권 총서 이십삼매 전면 제칠행에 “상왕여기형방우급 리두란자화상등자성주우소분우군전” “상왕이 그 형 방우 및 이두란의 아들

화상 등과 같이 우왕 처소로부터 탈출하여 군전에 왔다”고 하였다.

이 당시가 고려말 신우왕14년(1388)에 이태조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을 반정할 때의 기록의 일부로써 추밀공은 고려말에 방과(정종), 방우와 같은 계급의 벼슬을 하였고 위화도 회군과 조선개국에 공헌하였고, 무후공은 아직 그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아 추밀공보다 연하로서 그 당시 미성년임이 틀림없다.

3. 추밀공은 1392년 4월 청해백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 원병으로 건주위 정벌 부원수로 위명을 떨치었으며 태조 7년에 공조전서로서 이태조의 특명으로 동북면 도선무찰리사 정도전에게 사온(賜醢)한 일이 있었고 무후공은 태종원년에 예조전서에 임명되어 추밀공보다 3년 후인 태종원년에 전서에 승진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연하임이 명백하다.

4. 동국여지승람 청해백편 중 그 자제란(子弟欄)에는 화상·화영·화미·화수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밀공이 형으로 되어 있다.

5. 무후공은 18세부터 조선조에서 처음 낭장이 되었으며, 추밀공은 고려조에서 신우왕을 시종한 사실로 보면 그 활동년대 차이가 사, 오년이나 떨어져 있으므로 추밀공이 장형임이 틀림없다.

6. 임오보 즉 청해이씨세보 서문 첫머리에 아리지관청해기사백연이구무보보금성의(牙李之貫青海幾四百季而舊無譜譜今成矣) “우리 이씨의 본은 청해다. 거의 사백년이 지나도록 오래 되어도 세보가 없다. 그러나 이제 세보가 되었다.” 라고 기술하였고 그 세보 추밀공 란의 기사를 보면 舊譜序居第一而北青所在功臣子孫錄券載以第二印跡斑斑而北單亦以第二子書來且以武厚公承祀一款看之公之序居第二無疑故錄之仲位 “구보에는 제1자로 되어 있으나 북청에 있는 공신자손록권에는 둘째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도 선명하며 북청에서 보내온 단자에도 역시 제2자로 써왔다. 또한 무후공이 제사를 받들은 예로 보아 공이 둘째임에 의심이 없으므로 둘째로 기록한다” 라

고 되어 있는데 이 세보를 주간한 분이 세보서문을 썼는데 서문에서는 “사백년이 되어도 세보가 없었는데 이제 세보가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추밀공란에는 구보에는 첫째로 「서거제일」 있으나 운운등으로 있는 세보를 없었들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임오보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 구보에 추밀공이 장자로 되어 있다는 점.

이상 외에도 추밀공이 장자로 기록되어 있는 동해명장전 조선 인물전에 모두 청해백의 아드님 사인의 순위는 화상·화영·화미·화수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무후공이 장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에 기록하여 양쪽 주장을 비교 검토하기로 한다.

1. 청해백이 서거하였을 때 조선왕조실록에 「上悼甚輟朝三日謚曰襄烈及葬如其請三子和英和美和秀」 “임금님이 심히 슬퍼하여 3일간을 조회를 파하고 시호를 양렬이라 하고 장사는 그가 청한대로 허락하고 아들은 3인 화영, 화미, 화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열로 보아 화영이 장자라고 한다.

2. 무후공이 서거하였을 때 세종대왕 사세문 중에 惟卿以勳盟之胄將家之胤 “경은 개국공훈이 많은 장수집을 이어받은 사람 운운의 윤(胤)자를 신옥편(新玉篇)에 맡아들 윤자라고 하여 장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옥편에는 ‘胤’을 “繼也(이을다), 嗣也(대 이을다). 子孫相承續也(자손이 서로 이르고 이은다)”로 반드시 맡아들 윤자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임오보에 장자로 되어 있다.

이상 양쪽 증거문헌을 조사 고찰하건대

① 추밀공과 무후공의 기록상 년대의 차가 추밀공이 무후공 보다 4,5년이 앞서 있고,

② 청해이씨세보(임오보) 이외의 타인이 저술한 서적에는 추밀공이 장자로 기록되어 있다.

③ 청해백 묘소 앞에 세워있는 신도비는 임오보를 주관하여 만든 경태씨가 그 당시 당대 문장인 대제학 황경원에게 부탁하여 그 비문을 작성하여 명각한 비문에 분명히 아드님을 화상·화영, 화미, 화수의 순으로 기명되어 추밀공이 장자로 되어 있다.

④ 임오보 이전 세보에 추밀공이 장자로 되어 있고,

⑤ 임오보에 무후공 승사 운운하였으나 무후공의 자손은 전부 경기이남에 거주하고 묘소도 역시 경기이남에 있는 점으로 보아 나라에서 세워준 복청에 있는 충열묘 청해사 사당에 승사 운운은 전연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⑥ 청해백 서거 당시 조선왕조실록에 청해백의 아드님이 3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추밀공이 청해백보다 먼저 조졸하여 없었기 때문에 3인으로 기록된 것이 자명하고,

⑦ 무후공 장례에 세종대왕 사제문 중에 무후공을 「冑將家之胤」(註:근대어와 고대어와의 문자 표현의 차이와 변천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라고 한 것을 근대어로 직역하여 장군집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나 이는 장군가의 가업을 계승한 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로는 추밀공은 조출하고 또, 그 자손이 연유하여 무후공이 청해백이 위훈과 추장을 이어받아 가문을 빛나게 하였기 때문에 장군집의 계승자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그 당시는 국가에서 반드시 장자만이 왕통을 계승하지 아니한 예, 태조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봉했던 일, 추후에 제2자인 정종 다음에 제5자 태종 그리고 태종의 제3자인 세종이 왕통을 계승받은 사실을 고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⑧ 임오보에 무후공이 장자로 되어 있으나, 임오보는 전후의 착오 등으로 보아 신빙성 보다 추밀공이 장자라는 증거를 더욱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상의 제문헌과 고증으로서 청해백의 장자는 추밀공 화상이고 무후공 화영은 제2자임이 명확함으로 이에 청해백의 장자는 화상 추밀공임을 명기

하여 둔다.

또 한가지 밝혀 둘 것은 백산학보기재 이지란 연구에서 무후공을 청해백의 장자로 단정하고 추밀공 화상을 차자로서 장수하여 조선왕조 8대왕 예종 때 국장도감을 지냈다고 하였는데 추밀공과 무후공의 장·차에 대하여는 위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고 추밀공의 장수 운운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예종 원년과 고려 신우14년 사이는 80여년에 해당한다. 그러면 추밀공이 신우왕 14년 위화도회군 때 나이 20세로 추정하면 예종원년에 추밀공의 나이 백세이다. 조선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백세의 노재상이 현직에 있었던 사실이 없다. 겹하여 국장도감은 왕릉의 치산공사를 현지에서 총감독하는 책임대신으로 강건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다. 이러한 국장도감을 백세노인에게 임명할 리가 없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색인부에 동명이인 리화상을 한데 발췌하여 잘못 조사 채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충분한 고증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청해백은 남송악무목왕의 후손인 한민족을 여진족이다 하고 단정하며 추밀공이 조졸하였는데 백세가 넘도록 생존하였다고 기술하는 등 참으로 재삼 삼가야 할 것이다.

2. 무후공 화영

무후공 화영은 청해백 양열공 이지란의 차자로서 그 출생년대 및 출생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무후공은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늠름한 무인으로써 약관 18세부터 아버지 청해백을 따라서 낭장으로서 무공을 세웠다. 초년의 기록이 없어 자세하지 않으나 공신록을 보면 원종공신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조선조개국 당시에 공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1차(정사) 제2차(좌명) 왕자란의 공신록에 청해백이 2,3등 공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청해백의 인생관으로 보아 방원의 왕권욕을 위하여는 무참한 골육상쟁과 무자비한 살육을 자행하는 일에 가담하여 협력하였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무후공과 판윤공은 나이 태종 방원과 비슷하고 또 평소 친부가 형제 같은 사이라 아마도 가병을 거느리고 그 대열에 참가하여 공훈을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에 청해백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였다면 어찌 2, 3등 공신에 봉하였으리오 당연히 관록으로 보아 1등 공신으로 추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군제는 무인정치로써 무인은 가병을 영솔하고 있었다. 본인이 직접 출정하지 아니하고 가장이 대신 출정하여도 그 공은 가장의 명의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무후공은 태종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아 태종원년에 예조전서가 되었다. 이때에 사간원에서 시무에 대한 상서문중에 “예락에 관한 직책은 예락을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임명된 예조전서 이화영, 이현, 의랑 허형, 봉상판사, 신유정, 최지우, 령 박질 등은 전혀 예락을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임명하였느냐” 하고 시정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태종2년(1402) 4월에 아버지 청해백이 북청에서 하세하시자 모든 관직을 사임하고 아우 판윤공 화미, 예판공 화수 등 가권을 데리고 북청에 가서 장례를 집행함에 있어 장형 추밀공 화상은 조졸로 없었고 장손은 연유하여 그 장례의 집행을 무후공이 집행하고 복상중에 있던 중 그 해 11월에 안변 부사 조사의가 이태조를 업고 강씨의 소생 방번, 방석(1차 왕자란)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의 기병을 하여 안변에서 개경을 향하여 철령을 넘어 관서 쪽 길을 택하여 남진하였다.

이때에 북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무후공은 즉시 상복을 벗고 갑주로 갈아 입고 아우 판윤공 및 예판공을 데리고 급히 상경하던 중 철령에서 조사의

의 경비병의 검문과 조지를 받자 무후공 삼형제와 가병이 분전하여 경비선을 돌파하고 태종대왕 앞에 나가 절하니 태종은 심히 기뻐하며 자기 옷을 벗어서 입히고 잔등을 어루만지며 “하늘이 나를 도와 명장의 후예며 용맹이 과인한 화영을 내게 보내시도다” 하였다.

무후공은 이같은 태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용전분투하여 조사의의를 안주·덕천에서 파하고 조사의는 패전을 거듭하여 도로 안변으로 갔다가 그의 아들 홍과 간이 관군에게 나포되어 주살되었다.

이번 공으로 태종의 총애는 더욱 돈독하여 태종 초년에 무인의 가병제도를 혁파하고 모든 가병을 전부 관군에 편입할 때 오직 청해백가에 한하여 가병을 그대로 존치할 것을 허가하였다.

무후공은 조사의 난의 평정한 공을 2등공신의 예우를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 청해백은 모친의 거상중에 호발도 침입이 있어 고려군이 누차 패하자 이태조의 간청으로 상복을 벗고 응복을 입고 출정하였고 무후공은 부친의 거상중 조사의 난의 소식을 듣고 자진하여 상복을 벗고 출정한 것은 흡사한 것 같으나 딱 대조적이나.

무후공은 태종대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아 태종이 수렵이나 행복할 때에는 무후공으로 수도대장을 삼아 서울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태조대왕이 청해백에게 하사한 정동의 혜안택을 아마도 무후공이 인계받아 거주하고 청해백의 종손은 북청에 거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후공은 무인으로서 조선조개국 후 1, 2차 왕자란과 조사의 난(亂) 후에 별로 큰 병란이 없어 전공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것은 없으나 아버지의 유업인 여진인 교화 단합으로 명나라 유치에 끌려가지 않고 조선인으로 영주하도록 교화하여 함경도 일대의 안진인과 그의 추장들을 포섭하여 명나라로 하여금 철령위 설치정책을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함경도 천리 국토를 영구히 조선에 귀속되도록 한 불후한 공적이 있었다.

이때에 명나라에서는 함경도가 원나라 때 철령위 관할의 여진땅이었으므로 원나라를 정복한 명나라는 “원나라의 영토는 전부 명나라에 귀속한다” 하고 함경도에 철령위를 설치하고 여진인을 유치귀화 시켜 함경도를 명나라 영토로 귀속시키고져 가진 노력과 유감을 다 하였으나 함경도에 거주하는 여진인들은 청해백의 위은이 감복하여 청해백이 고려에 여진을 병합한 이후부터 고려사람이 되고 조선조건국 후에는 조선의 백성이 되어 명나라 유치에 불응하다가 청해백의 하세 후에 무후공이 그 유업을 계승받아 잘 지켜와서 오는 날까지 함경도가 우리나라 국토로 존속한 것이다.

만약에 무후공이 명나라의 유혹되어 명나라로 가서 여진인을 명나라로 유치하였다면 그의 대우가 조선에서 대우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무후공은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여 변심하지 아니하고 끝끝내 그 사업을 완성하였으니 이는 효도를 다한 것이며 또 충의를 지킨 충효겸전한 위인이다.

무후공은 태종대왕에게만 우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태종의 아드님 세종대왕에게도 태종에 못지않게 예우를 받았다. 그 예로 무후공이 세종5년(1423)에 기세하신 후 세종대왕은 삼일간철회조하고 치제문과 장례비를 하사하고 익호를 무후라고 지어 내리었다. 무후는 글자 그대로 무용이 천하 제일이라는 뜻으로 그의 무용을 평시 예찬하여 온 증거이다. 무후공의 중요한 벼슬의 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태조7년(1398) 보공대장군(상장군)

태종원년(1401) 예조전서

태종2년(1402) 좌군동지총제

태종6년(1406) 우군도총제

태종9년(1409) 지의정부사 --- 평양도첨절제사

태종10년(1410) 우군도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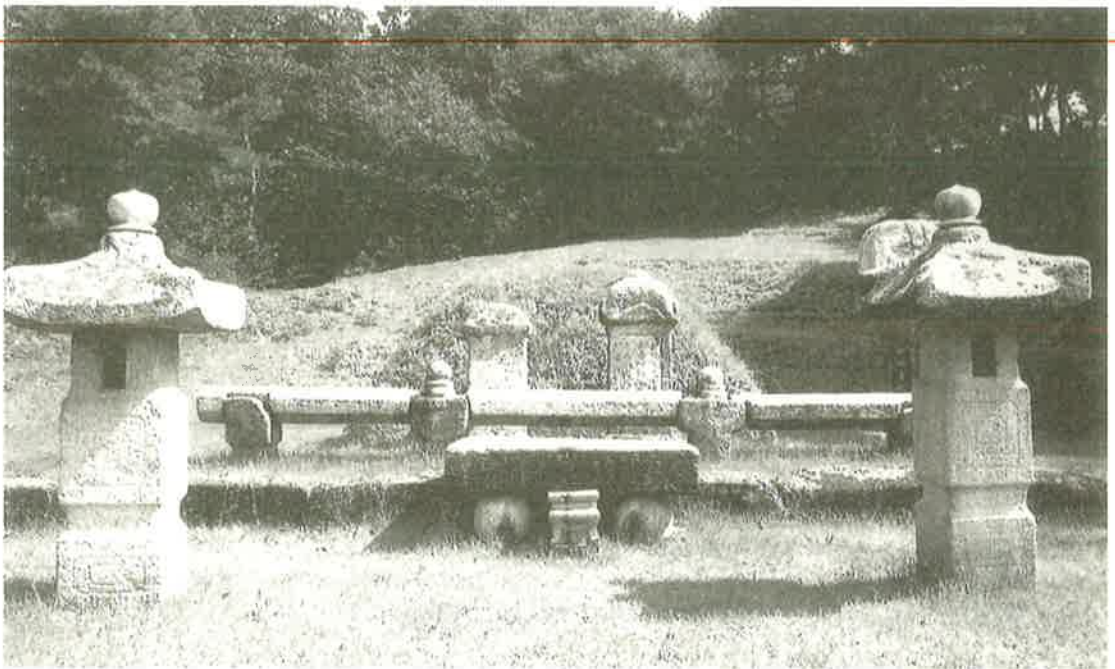
태종16년(1416) 의정부참찬

태종17년(1417) 판좌군도총제부사

세종원년(1418) 좌금위일번총제사

세종5년(1423) 보국숭록대부(정일품) 판도총제부사, 의흥삼군부사, 겸
판형조사

부인은 칭해이씨 세보에는 징숙부인 동성동씨(선서동안로의 따님)한분
만 기록되어 있는데 서병국 발표 백산학보 이지란 연구에 의하면 부인이 3
인인데 첫째 부인은 소생이 없고 성씨불명 둘째부인 고씨 소생은 장자 효
량, 셋째 부인 동씨 소생은 효정, 효온, 효검, 효양, 효강, 안서 이의생(공
정대왕정종의 삼자) 여서 이례(익안대군 방의의 손 : 여서는 세보 인용),
묘는 동소문의 미화이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리에 있다가 서울시도시계
획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가수리에 천묘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양
주군 진건면 용정리(하독정)으로 천묘하여 현재에 지함.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용정리(하독정)에 있는 무후공 화영의 묘소

3. 판윤공 화미

판윤공 화미는 청해백의 삼자로 출생에 대한 년월일 및 장소는 기록이 불명하고 또 전설도 없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기골이 장대하고 용력이 과인하여 아버지 청해백과 같이 비범한 무인으로서 조선조에 벼슬하여 판한성 부사를 지내고 태종 14년(1414)에 졸하니 비교적 짧은 생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태종 2년(1402) 4월에 아버지 청해백의 상을 당하여 중형 무후공과 아우 화수와 같이 북청 빈소에서 거상중 조은의 난을 당하여 급거상경 도중 철령에서 반군의 저지를 받아 중형 무후공과 같이 분투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고 태종앞에 나가니 태종이 대단히 기뻐하며 극구 칭찬하였다. 아마도 조은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웠을 것으로 추리된다.

태종10년(1410)에 상호군으로 있을 때 건주위 사정을 두루 살피기 위하여 검교한성윤 최야오내(여진추장)를 데리고 건주위 추장 동맹가첩목아(동맹가티무르)를 찾아가 조선국왕이 보내는 예물로 저마 각 10필 청주 20병을 전해주고 건주위 사정을 정탐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태종14년(1414)에 장년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태종대왕은 자기 친동기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미두 30석, 백지 100권, 관곽을 내려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기록에 명기된 바 없어 자세치 않으나 제1.2차 왕자란에 청해백이 가담한 것처럼 되어 정사, 좌명공신 칭호를 추가작하였는데 청해백의 처세관으로 보아 골육상쟁하는 그 참변에 직접 가담할리 만무하고 필연코 그 난에 판윤공은 중형 무후공과 가병을 인솔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말 이조초의 군제는 무인정치의 유풍으로 무인가에는 가병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 그 휘하에 장수들이 예속되었던 관계로 조선조초기 공신록을 보면 무인에 대하여는 모의 ○○인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고찰하

면 제1, 2차 왕자난때 청해백이 직접 진두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아드님들이 참가한 것이라도 그 당시 군제상으로는 그 가장의 명의로 공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차이없을 것이다.

태종대왕과 판윤공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왕자 1, 2차 난과 조은의 난의 평정에 직접 간접의 공이 있고 또 선대부터 격별한 친교로 마치 형제같은 우애로 태종대왕이 특히 판윤공의 무재를 사랑하였고 또 그 충직한 성품을 신용하여 건주위 사정 정탐을 실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참 나이에 세상을 떠나 미처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판한성부사로 맞았으니 애석하도다.

청해이씨 세보에 따르면 부인 양씨 아드님은 독자로 돈으로 돈녕도정을 지나고 묘소는 황해도 서흥군 월은동 묘좌이며 그 후손들의 묘소가 서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손들이 황해도지방에 산재하여 있고 봉산 서호방영당도 그 후손이 건립 제향하고 있다.

4. 예판공 화수

예판공 화수는 청해백 양렬공 이지란의 제사자로서 그 출생과 사망연대가 기록에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청해백이 북청에서 하세하였을 때 중형무후공 화영 계형 화미와 같이 북청으로 가서 장례에 참석하고 조은의 난에 형들과 같이 철령을 넘어 오다가 반란군의 저지선을 뚫고 태종대왕 친정군에 가담하였던 기록이 있을 뿐 별다른 기록은 없고 청해이씨세보에 의하면 최종 벼슬이 예조참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보의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예판공은 아마 무인이 아니고 문관으로 있었던 것같이 추측된다. 태종원년에 중형 무후공이 예조전서가 되었을 때 사간원에서 “예조는 예락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임무를 다할 수 없는데 화영은 무인으로 예락을 알지 못하니 적임이 아니라” 하고 시정을 요구한

예로 미루어 그보다 더 상격인 예조참판은 실제 책임자로서 상당한 학식과 예락에 능통하지 아니하면 외국과의 관계 및 유교의 복잡 섬세한 예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의 체면에 큰 손상을 가져오는 자리이므로 사실상 문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직위이다. 이상 사실로 미루어 문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무겸전한 분으로 추측된다.

부인은 홍주이씨(영의정 안평부원군 문간공서의 따님) 아드님은 독자로 효공 단양군수를 지냈다. 묘소는 양주 해동으로 기록되었으나 그 후손은 육대 이후는 세보에 설락(洩落)되어 자세히 알 길이 없다.

5. 충신통훈대부 창렬공 희당

공의 이름은 희당(希唐)이고 조선조개국 원훈 양렬공 청해백의 칠세손이며 추밀공의 육세손이다.

공은 1559년 가정(嘉靖) 38년 명종 10년에 북청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노는 것이 보통 아이들과는 다르게 점점 자라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유명한 조상의 후손인데 어찌 무예를 아니 배울 수 있는가 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힘써 무예를 배우려고 하나 집이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밤이면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을 배우기 10여년에 그 무예가 대성하여 경인년 25세에 무과에 급제, 동부주부(東府主簿)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정은 당파싸움으로 국정의 혼란을 탄식하며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북청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때때로 활 쏘고 사냥으로 낙을 삼고 유유자작하며 지내는 때에 마을 동쪽 고개에 큰 범이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무수히 해치나 마을사람들은 누구 한 사람 감히 범을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공포에 떨고만 있었다.

공은 분연히 일어나 활을 메고 화살을 차고 고개마루로 달려간즉 호랑이가 큰 바위에 웅크리고 공을 노려보며 큰 입을 벌리고 어흥하고 소리를 치

며 당장에 달려들 자세를 취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골짜기가 요란스럽게 진동하는데도 공은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활에 살을 메겨 호랑이의 머리를 겨냥하고 쏘니 화살이 뒹하고 날아가 호랑이의 이마에 박히자 호랑이는 또 한번 천둥같은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그 무서운 호랑이를 잡아 마음놓고 살 수 있게 되자 서로 기뻐하였다.

壬辰년 다시 주을온만호(朱乙溫萬戶)가 되었다. 그 해 6월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병이 승승장구하여 부산 동래에서 서울을 거쳐 평안도와 함경도까지 침입하여 옴으로써 당시 선조대왕 정부는 의주로 파천하고 백성은 이리저리 피난생활로 그 참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장 중 가장 용맹이 뛰어난 가도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이 승세를 몰아 함경도에 침입, 이에 대항하여 싸우던 병마사 한국성이 크게 패하여 도망가 버리자 왜병은 크게 승세하여 길주, 명천, 경성, 무령 지방까지 이르렀다. 경성의 아전 국세필과 회령의 관노 국경인이 같이 외적에 아부하여 두 왕자와 수삼 명의 대신이 외적에 잡히게 되었다.

왜장 가도기요마사는 8월에 큰 군사를 이끌고 길주에 진주하자 모든 고을이 전부 왜적에게 함락되어 인심이 몹시 흉흉하였다.

그러나 오직 공만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키고 있어 비분강개한 심회를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때마침 북평사 정문부가 난병에 쫓겨 해변가에 은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공은 곧 뜻을 같이하는 이봉수 등 4인과 같이 가서 정공을 만나 의논하여 의병을 모아 왜적을 치기로 하고 정공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피를 마시며 같이 충성과 의리를 위하여 같이 살고 죽기로 맹세하며 원근에 산재한 패잔병과 의병을 모집하여 9월에 정공은 경성에 들어가 지키게 되었다.

길주에 있던 왜병이 성 아래 이르러 포위가 심히 급한지라 공과 미전첨사

김범이 같이 성위에 올라 아래로 활을 쏘아 적병을 무수히 살상하자 적병은 드디어 도망가는지라 공과 강문우, 구항 등 15인이 도망가는 왜병을 30여 리나 추격하여 싸우기 10여 차례에 왜병이 살에 맞아 죽는 자 수없이 많아 길은 피로 물들고 시체는 들에 가득하여 말과 옷과 갑옷 기타 전리품을 많이 노획하였다.

공은 10월에 동관진첨사(潼關鎮僉使)로 승진하였다.

그 다음 해에 단천에서 세번 싸워 세번 이기고 길주로 돌아와 군대를 쉬게 하고 있었다.

왜장 가도기요마사는 왜병이 여러차례 패전한 것을 알고 대부대를 보내 길주성을 공격하는 지라 공과 정문부는 군사를 이끌고 백탑평남용림(白塔坪南溶林) 아래서 일대격전을 하게 되었다.

공은 선봉이 되어 힘을 다하여 적진중을 무인지경 같이 횡행하며 적을 사살하자 휘하장병이 모두 용기 백승하여 무비일당백이라 외적의 대부대가 점점 붕괴하기 시작하여 패주하기 시작하는데 날이 이미 저물기 시작하였다.

공은 싸움을 그치고 회군하려든 중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당시 공의 나이 35세였으며 그 날이 1593년 정월 28일이다. 이 싸움에서 이봉수도 전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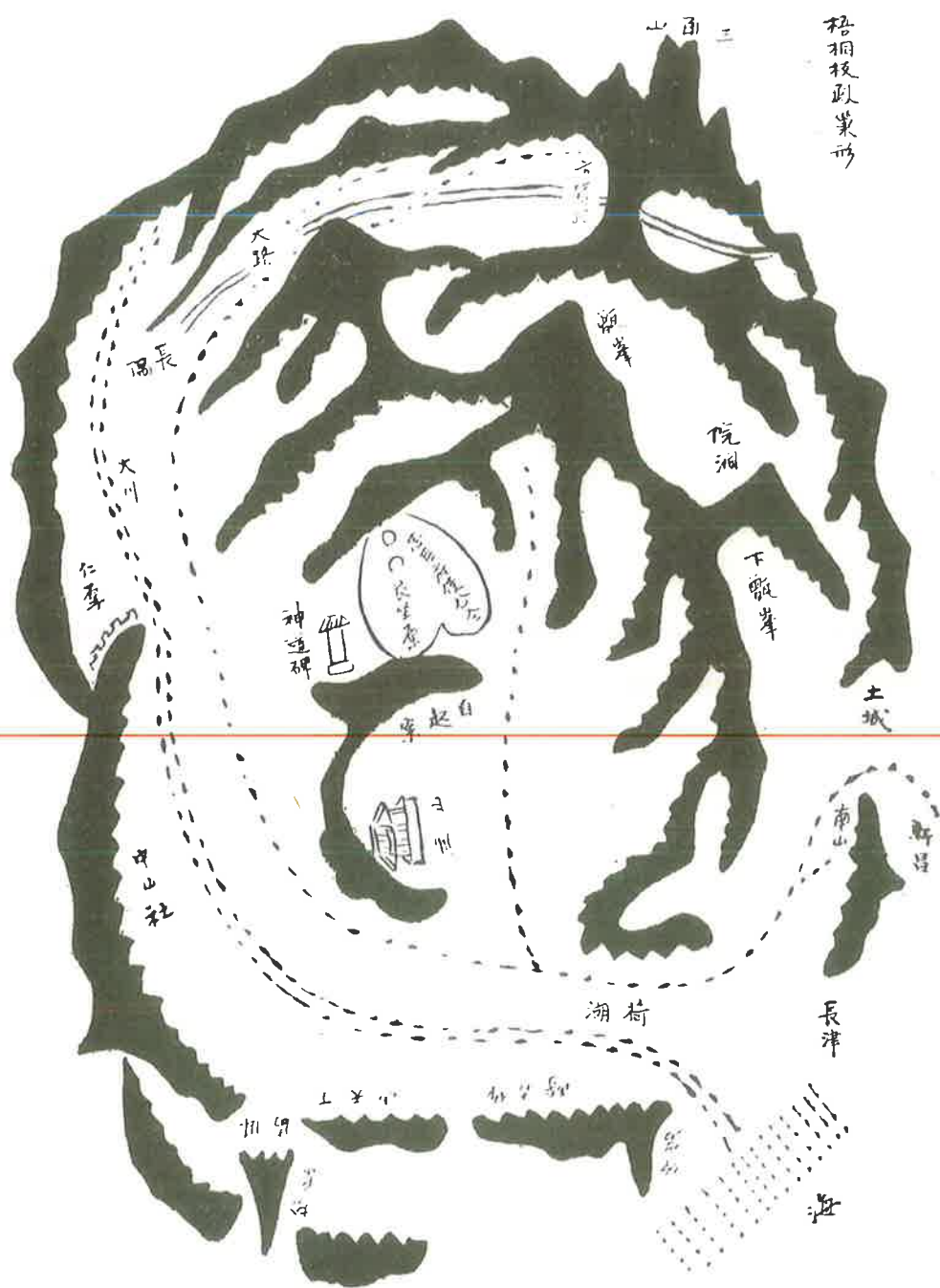
이 싸움에서 비록 공과 이봉수가 전사하였으나 왜병은 그후 다시는 북쪽으로 더 침입하지 못하였다.

의주행궁에 있던 선조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한참동안 차탄하다가 공에게 훈련원왕을 추증하고 익호를 창렬이라 하였다.

공이 전사하기 전에 조정에서는 공이 여러차례 왜병을 격파한 전공을 가히 여겨 경원부사에 임명하였으나 미처 부임하기 전에 전사한 것이다.

그 후일 임진왜란이 평정된 후에 조정에서는 공과 정문부·이봉수 등의 충렬을 길이 표창하기 위하여 북청에 창렬사를 짓고 정문을 세워 충렬의 영혼을 추모하였다.

忠臣彭烈公·荷湖墓之圖



청해백의 칠세손 창렬공 희당의 묘소 산형도
 〈청해이씨세보에서 전제〉

6. 충장공 종로

충장공 종로는 청해백의 제2자 무후공의 제6자 효강의 6세손으로 청릉군 인기(麟奇)의 제삼자로 선조10년(1577) 2월 16일에 출생하였다.

충장공은 유년시절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용력이 과인하여 나이 16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다음 해에 선전관이 되었고 광해군 13년(1621)에 이천부사가 되었다. 그 당시 나이 45세로써 인조반정의 핵심 인물인 금류, 이귀, 이괄 등과 의기삼합하여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이등정사공신이 되었다.



충장공 영정

선조대왕의 제2자인 광해군이 임금이 되어 처음에는 선정을 하다가 북인의 당쟁으로 차츰 황음무도한 정치로 변하여 인목대비를 서관에 유폐하여 가두며 영창대군을 강화에서 살해하고 능창군도 무고 살해하는 등 갖가지 악정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헤메는데 당시의 세도가 대신들은 고대광실과 고량진미의 사치가 극심하여 백성은 해가 뜨면 저 해가 언제 지느냐 하고 원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 갔다.

이때에 광해군을 내몰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새 임금이 된 분이 인조반왕이다. 이 일을 인조반정이라고 하며 이에 가담한 공신을 정사공신이라 하고 그 논공행상에 있어 충장공은 이등공신에 청홍군을 봉하였다.

인조반정 후에 광해군과 그 아들을 강화도 위리안치하고 별장을 두어 감시하던 중 광해군의 아들은 남몰래 70여척의 땅굴을 파고 밤중에 도망치려

다가 나졸들에게 나포되었다. 이때에 강화부사로 있던 충장공은 감독을 잘 못한 책임으로 일시 금부에 호출되어 문책당하다 석방되어 포도대장으로 있다가 이괄의 난을 만났다.

이괄은 인조반정때 북병사로 있었고 반정군의 총지휘대장이 되어 반정에 성공하였으나 김류와 이귀에 의하여 일등공신이 되지 못하고 정사 이등공신이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강계부사로 가 있는 것을 기회로 하여 강계 일대의 군병을 잘 훈련하여 막강한 정병을 만든 후 일거에 서울로 쳐들어와 삼일천하를 한 맹장이다.

인조2년(1624) 정월에 강계부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정병을 인솔하고 무인지경처럼 남진하여 오므로 인조는 충장공에게 경기강원양도좌방어사를 삼아 이괄을 치게 하였다. 이때에 충장공은 석방어사 이성부와 함께 황해도 평산 예성강에서 이괄의 군을 만나 격전하였다.

이때가 마침 정월이라 예성강은 결빙되어 육지나 다름이 없어 북방에서 맹훈련된 이괄의 정예부대를 당할 길 없어 예성강 상류 저탄에서 반란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니 그 때의 나이 48세로써 인조2년(1623) 2월 6일이 었다.

이괄의 난에 평정된 후에 인조대왕은 충장공에게 병조판서를 추증하고 그후 60년 후인 숙종대왕 10년(1684)에 좌의정 청홍부위군에 추서하고 익호를 충장이라 내리고 황해도 김천에 민충사를 창건하고 저탄싸움에 전망한 충장공, 이성부, 박영신을 영구히 제향하고 있다.

이괄의 난에 충장공이 예성강 저탄에서 전망하신 후 그 유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이때에 기습에 의하여 참살된 시체가 산적하여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 곤란하던 중 부인 정씨가 상시 남편의 넓적다리에 큰 점이 있는 것을 보아 왔기에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하여 저탄에 가서 그 많은 시체를 일일이 검시하여 자기남편의 유해를 찾아 내었다. 그 사실에 대한 일이 정종

대왕께 알려져 정종8년(1784)에 부인에게 열녀 정문이 내려졌다.

부인은 정경부인 동래정씨(우의정 언신의 따님)이고 아드님은 네 분으로 장자 문웅(영주군수), 차자 문위(무과 병마절도사), 삼자 문회(충훈도사), 사자 문준(장락첨정)이며 묘는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에 있고 묘하에 영당을 건립하여 청해백의 영정과 충장공의 영정을 같이 모시고 제향을 지내고 있다.

충장공의 부인 정씨는 남편이 전사한 후 십년간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며 당시 아들에게 “아버지의 원수 이수백을 잡아 죽여라” 하고 격려하다가 10년 후에 아들 문웅과 문위가 박영신의 세 아들 지병, 지담, 지번과 합세하여 이수백을 노상에서 격투 끝에 살해하니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의 사당에 원수 갚았음을 고하고 상복을 벗었다.

이수백은 충장공이 저탄에서 전망하였을 때 관군의 전사자를 검열하여 충장공 등 여러 장수의 목을 베어 이괄에게 보내니 관군의 사기는 저상되고 반란군의 사기는 충천하여 일사천리로 서울까지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괄이 서울 점령한지 3일만에 패잔병을 수습하며 추격하여 온 관군 도원수 장만과 부원수 정충신에게 안현에서 크게 패하여 이천을 도망간 것을 이괄의 부하 기익헌·이수백이 묵방리에서 이괄의 목을 베어 바침으로써 반란의 죄를 면사받고 있었던 자이다.

어머니 교훈에 따라 아버지의 원수 이수백을 충장공의 장자 문웅과 차자 문위가 박영신의 세 아들과 합세하여 이수백을 죽인 후 대궐로 가서 인조대왕에게 상소하여 아버지의 원수인 이수백을 살해함을 고하고 처벌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조정에서 의논이 분분하였다.

영의정 윤방은 “자식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효도를 다함이니 특히

다른 살인죄와 같이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수백은 나라에서 일단 죄를 특사한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사원과 같이 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조대왕은 충장공이 나라를 위하여 순절하였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그 아들에게 중죄를 면하고 장자 문웅은 전주 차자 문위는 익산으로 유배하여 그 후손이 오늘날 전남북에 산재하여 살게 되었다.

충장공의 아버지 이인기(1549~1631)는 학자로서 호를 송계라 하며 청해백의 칠세손이다. 선조22년(1589)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도화서별제(圖畫署別提)를 거쳐 경안도찰방, 내자사주부, 형조좌낭 1605년에 보은현감이 되고 다시 내직으로 형조정낭 다시 외직으로 영덕현감을 지낸 뒤 인조반정 후 가평군수가 되었다가 이괄의 난에 아드님 충장공이 전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여생을 저서와 훈육으로 보냈다.

충장공의 충절을 인조대왕이 특히 사랑하여 송계공에게 가선대부를 제수하고 그 후에 다시 좌찬성 청룡군으로 추봉되었다. 송계공은 당대 학자들의 추앙을 받은 학자로서 시문은 물론 서화에도 능통하고 특히 초서는 당대명필로 지칭을 받았다. 아들 충장공을 늘 애석하게 생각하여 손수 화상을 그려 벽에 걸어 두었던 것이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서로는 송계집(松溪集)이 있다.

7. 봉군록

ㄱ. 청해부원군 아원 청해백의 부친

원나라에서 정서대장군

조선조 중 보조공신 영의정 청해부원군

주 옛적에 큰 공신이나 영의정급 관작을 받게 되면 그 부친을 추존하여 상당한 직위를 추증함.

고로 청해백의 공이 크므로 그 부친에게 부원군과 영의정을
추증한 것임.

ㄴ. 청해백 지란 양열공

조선조에서 청해군

명조에서 청해백

ㄷ. 청해군 화상 추밀공

청해백의 장자 습작 봉군 조졸

ㄹ. 청해군 효원

청해백의 장손 습작 봉군 조졸

ㅁ. 청해군 효향

청해백의 손 효원의 제 습작 봉군 조졸

ㅂ. 청해군 화영 무후공

청해백의 차자(원종공신)

ㅅ. 청해군 효정

무후공의 장자(청해백의 손)

ㅇ. 청해군 인기(추증)

청해백의 칠세손 무후공의 제육자 효강의 고손

ㅈ. 청해군 중노(정사공신)

청해백의 팔세손 무후공의 제육자 효강의 고손인기의 삼자

ㅊ. 청해군 사종(추증)

청해백의 십세손 무후공의 제오자 효양의 팔세손

ㅋ. 청해군 후영(추증)

청해백의 십일세손 무후공의 제오자 효양의 팔세손 사종의 장자

ㅌ. 청해군 시우

청해백의 십이세손 무후공의 제오자 효양의 팔세손 사종의 손

- 주 1. 추밀공은 세보에는 없고 가승에 기록되어 있어 기록하고 추밀공의 장자, 효원 차자 효향은 세보에 봉군 무후로 기록되어 있어 청해군으로 기록하였음.
2. 무후공은 세보 및 가승에 기록된 바 없으나 원종공신이며 또 그의 장자 효정의 세보에 봉군 무후로 기록되어 있어 삼대 봉군례에 의하여 청해군으로 기록하였음.
3. ㄷ. 청양군(추증) ㄱ. 청해군(추증) ㄷ. 청원군은 영조대정 26년(1750) 8월에 원손 탄생후 경연에서 제신에게 “청해백의 화상이 있느냐” 하고 하문하시니 대제학원경하가 “있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영조대왕은 “보았느냐”. 원경하 “신이 보았습니다” 또 우의정이 말하기를 “청해백의 화상은 생기가 발발합니다” 하고 상진하였다.

영조대왕은 “청해백과 익안대군의 화상을 가져오라” 한후 9일만에 북청 영당에 보존되어 있던 영정 세벌 중에서 한 벌을 갖다 바치며 그 후손으로 수원에 살고 있던 무후공의 제오자(第五子) 효양의 종손 12세손 시우를 천거하였다.

영조대왕은 청해백의 가승을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해백의 위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12세손 시우와 그 부친 조부까지 삼대를 봉군추존한 것이다.

8. 공신록

- ㄱ. 증 보조공신 영의정 청해부원군 휘 아원 비조 청해백 양열공 이지란의 부
 ㄴ. 조선개국일등공신 위화도회군일등공신 정사이등공신 좌명삼등공신
 명조 봉 청해백 대광 보국숭록대부

조선조 책 수충분의익찬경운개 국공신보국승록대부문하시중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겸판형조사판의홍삼군부도절제사

익양열공 배향 태조묘정

휘 지란 우 : 식형

ㄷ. 원종공신 조선조 보국승록대부판공조사청해군

명조 예부상서겸추밀부사

휘 화상 청해백의 장자

ㄹ. 원종공신 보국승록대부판도총제부사의홍삼군부사겸판형조사 청해군

익 무후공

휘 화영 청해백의 차자

ㅁ. 증 순충적덕보조공신 좌찬성 청릉군

휘 인기 청해백의 칠세손 무후공의 제육자 효강의 고손 송계공

ㅂ. 정사공신 증 좌의정 청홍부원군

익 충장공 이괄 란의 순절

휘 중노 청해백의 팔세손 무후공의 육자 효강의 고손 인기의 삼자

ㅅ. 영국공신 경원부사 증 훈련원정

(임진왜란 순절 창렬공 창열사 배향) 휘 희당 청해백의 장자 추밀공
의 삼자효적의 오세손

ㅇ. 갑란원종공신 선약장군

휘 성남 청해백의 십세손 추밀공의 삼자효적의 팔세손(선약공)

ㅈ. 임란원종공신 사복첨정

휘 호정 청해백의 십세손 추밀공의 사자효장의 팔세손

ㅊ. 임란원종공신 사복첨정

휘 호걸 청해백의 십세손 추밀공의 사자효장의 팔세손 호정의 제

ㅋ. 영국공신(임진왜란 순절) 조봉대부 동몽교관(증직)

휘 삼입 회당의 삼자

Ⅴ. 단사공신 사복사첨정 증 병조참판

휘 문주 인기의 손

Ⅵ. 영국종훈 무훈련원정

휘 창남 청해백의 구세손 무후공 육자 효강의 칠세손

부 록

1. 송시고금만성통보악씨세계(宋時古今萬姓統譜岳氏世系)

岳飛字鵬舉湯陰人有沮背忠字少負氣節好左氏春秋孫吳兵法誓以忠義擬國初授河南北諸州招討使轉少保志圖恢復用兵能以寡敵衆屢破強敵未嘗一敗大業垂成爲秦檜所害後追封鄂王謚武穆五子雲雷霖震霆雲左武大夫隨飛征數立奇功雷霆雲俱閣門祗候霖敷文閣侍制震茶鹽提舉霖子珂知嘉興府雲武穆長子年十二從征數立奇功飛輒隱之能以手握兩鐵椎重八十斤潁昌大戰數十入敵陣中甲裳爲赤以功授左大夫弟雷授文資卒年二十三孝宗贈安遠軍承宣使霖武穆三子孝宗朝帥慶州道出章貢父老率子弟來迎垂泣曰不圖今日復見公子也

震父飛討李成駐兵黃梅詔進屯洪州以士卒經擾攘之後他人莫可懷輯留震彈壓後被秦檜禍變姓名匿大河民間子孫遂家焉至今遺有故宋敕命

霆飛五子雲雷與難霖臨陣亡震霆潛住黃梅故鄉賢舊祀有曰忠臣岳震然飛死於高宗紹興十一年至二十五年乙亥上距辛酉十五載矣檜宿恨猶存惡岳州與飛同姓改爲純州子孫亦不敢以岳爲氏孝宗登極鄂錄與恩者祇原徙嶺南雲雷支裔而此派不及至追贈忠武岳王震霆子孫在梅地者悉從鄂姓入金析爲鄂家云元爲長水烏梅村子雨從俗爲母姓地爲女眞所據云

악비의 자는 봉거(鵬舉)니 탕음(湯陰)사람이다. 등에 충자가 그려져 있고 젊어서부터 꺾지 못할 기질이 있어서 좌씨춘추와 손오병서를 좋아해서 읽고 충의로 입신할 것을 다짐했다. 남송에서 처음 남북 여러 고을 초토사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소보로 전직되어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을 꾀했다. 전술이 항상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이겨서 강적과 싸워 한번도 패한 일이 없었고 남송을 세우고 나서 진회의 박해로 목숨을 잃은 뒤에 억울함이 판명

되어 악왕으로 추봉하고 무목으로 시호를 받았다.

아들이 윤, 퇴, 림, 진, 정 오형제로 윤은 좌무대부로 십이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에 많은 공을 세웠으나 아버지가 항상 그 공을 숨겨서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힘이 세어서 팔십근 철추를 한 손에 하나씩 양 손에 들고 휘두리며 영창대전에 군신으로 적진 속으로 몇 차례나 뛰어들어서 갑옷 치마가 피로 물들었다.

다음 퇴는 문관으로 23세에 죽어서 효종이 안원군승선사를 증직하였다.

셋째 림은 효종조에 경주도사가 되어서 지방을 순제할 때에 노인들이 자제를 데리고 마중에 나와서 울면서 “오늘에 다시 공자를 만날 줄 몰랐다” 하였으니 이것은 악비의 공덕을 생각하는 때문이었다.

넷째 진은 아버지 비가 이성을 토벌하기 위해서 황매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 어명으로 홍주로 진군하라 할 때 이 지방이 다년간 전쟁에 시달려서 민심을 수습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진을 시켜 사기를 대신하여 그곳을 진압시켰다.

그 뒤에 진희의 모해를 피하기 위하여 변성명을 하고 대하 민간에 숨어 살어 자손이 영구히 그곳 사람이 되었다.

정은 비의 다섯째 아들이다. 윤과 퇴는 모두 난에 참여하였고 림은 전쟁에서 죽고 진과 정은 황매촌에서 숨어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이 충신 악진을 오래 제사 지냈다. 그러나 악비는 고종소흥 11년 신유에 죽고 그로부터 15년을 지나서 소흥 25년 을해에 진희가 그때까지 악비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증악한 나머지 악주의 악자의 성자와 같다는 이유로 악주를 순주로 고쳐서 부르게 됨으로 그 자손이 감히 악씨로 행세하지 못하였다.

효종이 황제가 된 뒤에 퇴의 자손인 악록이란 분은 평소에 은덕을 입은 기원이란 사람을 쫓아서 영남으로 옮기면서 그 자손은 그곳에서 살고 윤·림의 자손은 없고 황매촌에서 살던 진과 정의 자손은 모두 악씨로 행세하였

다. 황매촌은 원나라 때에 장수오매촌이 되었고 정의 아들 우가 그 곳 풍속을 좇아 어머니 성을 따르게 된 것이며 오매촌은 그때부터 여진땅이 되었다고 한다.

2. 행렬약서(行列略叙)

本府姓氏李趙人物本朝李之蘭初名豆蘭

吾李之散在各處者名行不一非但昭穆之不明甚者至於犯嫌心有所慨歎者久矣 今因修譜以五行字定行至於求而止自求而下別以甲乙字預定十世之名行附于下凡我同宗世世謹守勿貳其名深所望也

북청부의 인물지에 이씨와 조씨의 두 집을 들어서 말하였는데 이지란의 초명은 두란이라 하였다.

이씨가 각처에 흩어져 살아서 행렬이 통일이 안되어 행렬이 분명치 않고 또 조상의 휘자인 줄 모르고 그대로 범한 것이 있어서 개탄을 금하지 못하던 중 족보를 계기로 행렬자를 마련해서 여러 자손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였으니 21세 구자까지는 오행(수목화토금)으로 정하고 구자 다음 22세부터는 天干(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31세까지 정하고 종인들은 대대로 이를 잘 지켜서 이름을 두가지로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청해이씨세보에서>

청해이씨행렬자(청해이씨세보전제)

代 · 世	16	17	18	19	20	21	22	23
行 列 字	承 從上	季 從上	性 從上	在 從上	鎬 從上	求 從上	遇 從上	氣 從上
參 考				喜	鏞	泰濟永	萬材植 來	容
代 · 世	24	25	26	27	28	29	30	31
行 列 字	曷 從上	寧 從上	茂 從上	選 從上	庾 從上	壁 從上	廷 從上	揆 從上
參 考	均							

3. 청해백양렬공묘소개봉축사기(青海伯襄烈公墓所改封築事記)

公之墓所在於府之東二十里許良家社別雁臺枕甲之原而卽公下世之時自朝家命葬所也其制則頗異常禮別成一規似用浮屠法而參以陵墓之制抑或麗季禮壞習尙國初未盡制而然歟數十年前秋史金公正喜咏鵬茲州奉審墓所深責誤稱浮屠之人而爲言曰此非火葬也乃前朝一代只用之國制云云金公則博識曠世寧可說道無稽之言乎第其封塋之制則鑿石爲四層臺而第一層則安一盤于地面而如布席子樣第二層鑿石爲圓而有稜其周一圍有餘其高一尺有半而兩頭濶中腰狹如筑形第三層鑿石削十二稜樣如博子而其周其高差小於下層第四層則鑿石爲冠制如屋薨而通其高爲七尺許此乃公之幽宮也臺之四圍置獸石其北築曲牆臺之南置床石床之南置長明燈其前置香爐盒石此其幽宮之儀物也又於左右排列五石函制如石閣而盖如屋簷高各二尺許廣各一尺有半許其中一閣稍大於四而在於中南西隅刻以龍頭雲影傳道藏公易簣日沐浴之水而屆今不竭者也餘四閣東二西二而其在東者一在於曲牆內巽己方四步許一在於牆外午丁方九步許其在西者一在於牆下辛戌方七步許一在於乾亥方十步許此其塋域內儀物而謹守於五百年者而其所火葬禮葬之辨參徵無據信疑無質矣歲庚午秋以時制改封築之意門議大發而衆論不齋恬常守古者憚其生事怯懦拙汗者畏其毀政豪傑枉邁者勇於有爲於是乎橫說豎說雷動於其間或云此乃國朝特命之制而承傳謹守者五百年于茲矣猝難私改也說者曰命葬之制猝難私改者言則然矣又有所不然者命葬之制非先王不易之常制也乃一代剏新之謬禮也經曰遵先王之法而過者未之有也又曰死葬之以禮今以遵先王之禮而改封我先祖之墓者一以補先朝一代差舛之禮一以追先祖萬歲非禮之葬者有何不可乎且使我子孫世世守護一如今日小無甚事萬世之後脫有一朝之事變兵燹一過則此石未知轉於誰手乎且觀前朝與國朝右族大臣之墓則舉皆遵禮封築而判獨異制者顧吾始祖之墓而已也從衆從禮爲國爲先豈不合宜乎甲之者又云墓所儀物雖云非禮而乃朝家之必有所有爲也吾人之亦有所受而世世尊奉者也世世尊奉遂古之儀物一朝居

然無難毀撤則必有無常之奇禍也爲乙者曰天地之間伸而屈屈而伸者乃造化之正理而變爲陽變爲陰一闢一闔而無常者卽理與氣也且吾始祖所稟性命之理氣者乃亦天地之正理也今雖旣屈而往必返於本也今吾人所營事革非禮從正理則若有感通者存焉寧有奇禍哉假使縱有禍往古及今從道理爲先事者雖刀鉅在前鼎鑊在後只見那道理不見那鉅鑊也今吾人所圖之事若非道理則已若果道理則禍福何足論也哉於是乎一二宗議幸同詢僉歲十月二十五日擇吉爲定而前一日齋明盛服先薦素享以遵禮改封築事具文告由而期日暴風大作屋茅皆揚將事之時風勢輒止燭影不撓翌朝割牲致告群鳥啁晰翱翔撲地及其讀祝衆囂秘聲參事之人皆稱神異也乃其改封時先下上層石冠又下次層十二稜石則第二層圓石內方鑿中略安炭與骸骨而又有紙函墨質金字狀如篆字樣雖視而不能解旣見骸骨則不可緩時故因蓋第上石冠而其舊蓋十二稜石下安於傍而合封瑩加莎草矣族後門議更作旣見體骨則開壙而具棺槨築灰隔依禮封墳宜合情禮也云云越閏十月二十五日以穿壙改封事擇吉而及期開封又下第二層則第一層盤石圓鑿其中廣圍餘卽公體魄安安之窀穸也滿槨骸骨完有生氣焉暫時權安於傍淨掃其中則底有一孔圍爲拱餘而以片鐵藉其孔以中朝古錢布其下矣因除去片鐵以通地氣因舊貫奉安而蓋之以上層之冠改封瑩城而其中間二層石下安於左右傍而合封誌石則模出碑字亦埋墓前其東西石閣舉蓋奉審則皆方鑿其中爲函而四皆月炭其一洗身之水迄今不盡渴矣名以其所掘坎埋置盛水一函依舊獨存以表其舊儀焉嗚呼旣封旣涉舊岡維新墓貌維完追遠有道依仰有據玄昧者擬若著見亡焉著恍若存焉噫今距公之厭世千將過半也其間雲仍豪傑之作者何恨而無朕改封之議暨今始發者是運有開塞而然歟人異柔剛而然歟抑有所不然者大人之行藏隱見有關於氣數吾公晚歲所遇者丕而明哲之應變永韜賁蠲畢生遵晦者迨將五百年而幸回泰運於冥冥之中也耶事之實蹟恐缺於後人之欲徵者故略記顛末以備來者之參考焉公之後孫李君冕秀俊彥氏屬不佞而記蹟不佞亦傍觀於其時故以不文辭不獲已猥自忘陋略叙其見聞云爾

崇禎紀元後五庚午閏十月下澣南平人文緯顯謹識

青海伯陵墓改封修築事記

백의 묘소가 북청부에서 동으로 20리쯤 되는 양가사 별안대 언덕에 갑좌 경향으로 앉아 있었으니 이 묘소는 즉 나라에서 정한 장소이다. 묘소의 제도는 보통 묘소와 현저하게 달라서 불교식 같이 보이고 또 능묘제도를 참고한 것인지 혹은 그때가 개국초이므로 모든 예절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고려 말기의 풍속을 쫓았는지도 모른다.

20년전에 추사 김정희가 이곳에 유배 왔다가 백의 묘소를 참배하고 사람들이 불교식 묘소로 오인함을 나무라면서 “이것이 화장한 것이 아니고 고려조의 묘소제도가 이렇다” 하였으니 추사로 말하면 세상에서 드문 대학자이니 전연 근거가 없는 말을 했을리가 없다.

봉분을 지은 모습이 돌을 깎아서 4층으로 쌓아 올렸는데 제1층은 지면에 돌을 깔아서 마치 자리 편 모양으로 되어있고, 제2층은 돌을 둥글며 모가 있게 하고 둘레는 한아름이 넘고 높이는 한자반이 되고 양쪽 머리는 넓고 허리가 좁아서 장고모양으로 되어 있고, 제3층은 돌을 열 두 모가 나게 깎아서 주사위 모양으로 만들어 졌는데 둘레나 높이가 아래층 보다 약간 작고, 제4층은 돌을 깎아서 갓을 씌웠는데 마치 지붕처럼 되어있다.

전체의 높이는 4층 모두가 7척 가량 되니 묘소가 흡사 대로 보이나 사실은 이것이 청해백의 묘소이다. 대의 사방에는 돌로 만든 짐승이 서 있고 북쪽에는 곡장을 둘러쌓고 남쪽에는 상석이 있고 상석 남쪽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앞에는 향로와 향합석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묘소에 갖추는 석물이다.

또 좌우에 돌로 만든 다섯개의 함이 있는데 그 제도가 돌집 같아 지붕처마가 완전히 나오게 하고 높이는 각각 두자가량 폭은 한자 반 정도이다. 그 중에 한 석함이 다른 네개보다 약간 크며 중앙에 있고 남쪽과 서쪽머리에 용의 머리와 구름을 새겼으니 전하는 말에는 이함에는 공의 시체를 묵욕시

킨 물을 담아두어서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있고 나머지 네개는 동쪽에 두개 서쪽에 두개로 동쪽에 있는 것은 하나는 곡담안 손사방(巽巳方)쪽으로 네 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하나는 담 밖 오정방(午丁方)쪽으로 아홉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서쪽에 있는 것은 담 밑 신술방(辛戌方)쪽으로 일곱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고, 또 하나는 건해방(乾亥方)쪽으로 열걸음쯤 되는 거리에 있으니 이것들이 모두 묘소 경내에 있는 석물로 오백년 동안을 잘 수호해 왔다.

그리고 이 묘소가 화장이나 예장이냐 하는 말에 대하여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었도다.

경오년 가을에 이 묘소를 현대식제도로 개축하자는 문중 공론이 크게 일어나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었으니 반대하는 수고파 측에서는 만일 잘못 건들었다가 무슨 화라도 있을런지 알 수 없다하여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횡설수설하였다.

혹자의 말인즉 “이것은 나라에서 특명으로 이 제도를 써서 오백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호해 오던 선산을 일조에 개인의 사건으로 고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한즉 이를 항변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나라의 특명으로 이루어진 제도를 고치지 못한다는 말은 옳다. 나라의 특명한 장례제도는 先王에서 내려온 제도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이는 그때에 창작한 변태예제(變態禮制)이다.

경서에서 말하기를 ‘선왕의 예대로 쫓아서 한계를 넘어서는 법이 없다’ 하였고 또 장사는 예법대로 지내라하였으니 지금 선왕의 법대로 우리 선조의 묘소를 개축하는 것은 한쪽으로는 한때의 잘못된 예를 시정하는 것이요. 한쪽으로는 우리 선조의 장사에 대한 선례를 예대로 고치는 것이니 무엇이 잘못인가. 또 하나는 우리 자손이 대대로 잘 수호하여 오늘날까지 아무 탈없이 지내왔지만 만일 다음 세대에 국가에 병난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 돌이

굴러서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시대의 여러 대가집 대신의 묘소들을 보니 모두 예법대로 봉분을 지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유독 우리 시조의 능묘만이 판이하게 다른 것은 웬일이냐. 대중을 쫓아가고 예법대로 따라서 나라를 위하고 조상을 위하는 것이 사리에 적합한 일이 아니겠느냐” 한즉 반대파에서는

“능묘소의 석물이나 제도가 예법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이것은 나라에서 꼭 이렇게 하여야만 된다 해서 만들었을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대대로 받들어 왔으니 대대로 지켜 내려온 의물을 하루아침에 거침없이 깨뜨려 없앤다면 반드시 불칙한 화가 있을 것이다” 한즉 찬성파에서는 또다시

“세상 이치가 굽으면 펴지고 펴면 굽는 것이 자연의 형태이므로 봄이 여름되고 여름이 가을되는 것과 우리 시조가 태어나서 돌아가신 것도 천지간 자연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묘소를 쓸 그 당시는 말하자면 펴졌던 것이요. 지금와서 보니 예법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굽은 것이니 이 굽은 것을 펴기 위해서 제도를 혁신해서 정리대로 쫓아가자는 것이니 만약 조상의 혼령이 계신다면 칭찬을 할지언정 화란 있을 수 없다.

설사 화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리를 위해서 조상 일을 하는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여도 눈에 보이는 것은 의리하나 뿐이요. 칼 따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우리가 지금 경영하는 일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몰라도 도리에 적합한 일이라면 그까짓 화복으로 논할 수 있나” 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의 종종공론을 거듭해서 결국 합의를 보아 그해의 10월 25일을 개축일로 결정하였다. 기일이 되어서 하루전에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정제한 후 간단한 제수를 차리고 예에 맞아 개봉축하는 사유를 들어 고유제를 지냈더니 그날 폭풍이 크게 일어 지붕이 다 날아갈 정도로 일기가 험악했었는데 일을 시작할 시간이 되자 바람이 잔잔하게 자서 촛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른 아침에 제물을 다루어서 치제할 때에는 모든 새들이 짹짹거리며 풀 풀 날아서 땅에 함박 모이더니 축문을 읽을 때에는 모든 새나 벌레들 까지도 숙연해서 소리 한마디 들리지 아니하니 여기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모두 신기한 일이라 하였다.

공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상층에 있는 돌로 만든 것부터 내리고 다음에 다음 층에 있는 열두모로 된 돌을 내린 즉 제2층에 해당되는 둥근돌에 네모나게 구멍안에 솟과 해골이 나타나고 한쪽 종이에 묵으로金字(金字) 비슷하게 옛날 전자체로 쓴 글씨 한장이 있어서 아무리 보아도 알아낼 도리가 없었다.

해골을 보았으니 오랫동안 외기를 쏘여서는 안됨으로 즉시로 상층석관을 덮고 열두모 돌은 그 옆에 안치하고 봉분한 후 사초를 하였다. 그 뒤에 문중 공론이 이미 해골을 보았으니 새로 광중을 헤치고 관곽을 갖추고 석회로 다시 광중을 개축하여 예법대로 봉분을 짓는 것이 도리에 옳다는 결론이 내렸다.

그리하여 다시 날을 정해서 그 이듬해 윤10월 25일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상층관석을 내리고 제2층 돌을 내리니 제1층 지반석이 나타나서 넓이가 한길 정도로 둥글게 함이 파여졌는데 이곳이 바로 公의 시체가 들어 있는 유택으로 관속에 들어있는 시체가 아직까지 생기가 나는 것 같았다.

잠깐 동안 시체를 곁으로 옮기고 그 속을 정하게 소제한 즉 밑바닥에 한 뼘 둘레의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무쇠조각으로 막고 중국고전을 한벌 깔아 놓았다. 그 쇠조각을 뜯어버려서 지기를 통하게 하고 옛날 모습대로 관 넓이 1척 반이오 길이는 6척로 하여 그 위에 돌관을 씌워서 봉분을 짓고 그 전에 있던 3층과 2층돌은 분묘좌우 곁에 놓아두고 지석은 비석 글자를 모방해서 묘소 앞에 문었다.

그리고 동서양 쪽에 놓여 있는 석함을 열어보니 모두 네모지게 파서 함을 만들고 함 4개에 모두 솟이 담겨져 있고 그 한 함에는 사체를 목욕시킨 물

이 있어서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다. 파헤친 구덩이를 모두 메워서 그전 모양대로 복구시켜 놓았다.

이 오래된 묘소를 개축해서 면목이 일신하니 자손으로서 조상을 받드는 도리라 하겠으나 아득한 조상을 다시 만나는 감이 생기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듯한 기쁨이 솟아나오니 公이 돌아가신지 오백여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자손중에 위대한 인물도 많이 있었지만 개축하자는 발론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오늘에 와서 비로소 개축을 보게 된 것은 역시 운수에 관한 것일까?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하면 公의 명철한 기백이 천지의 기운을 타고 두루 다녀서 5백년동안 잠적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그 체모를 나타낸 것인가.

이 사실을 후세 자손에게 일부러 알리기 위해서 시말을 소상하게 기재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公의 후손 면수씨 준언씨가 그 기사를 부탁함으로 나도 그때에 그 일을 곁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글은 잘못 짓지만 외람하게 붓을 들었느라.

1930년 庚午 閏十月 下旬 南平人 文緯顯 謹識

〈참고〉 이 묘소개축이 일본제국주의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즉 조선총독부에서 사무관 1명과 도에서 학무과를 대표하여 도시학과 경찰부를 대표하여 경부 1명 북청군수와 북청경찰서장 기타 면대표 등이고 각 군친족대표로서 북청 이면수, 이준언 서울 이승준, 이무년 홍원군 이재률 서천군 이일성, 이재건 갑산군 이심성, 길주군 이재형 경성군 이재종 함흥 이심일 등이 참석하였다.

참 고 문 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祖實錄)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한국사(韓國史)
- 고려사(高麗史)
- 동국야사(東國野史)
- 황송통보(皇宋統譜)
- 이성계열전(李成桂列傳)
- 동해명장전(東海名將傳)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이조오백년사(李朝五百年史)
- 청해이씨세보(靑海李氏世譜)
- 북청군지(北靑郡誌)
- 조선사천년사(朝鮮四千年史)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발 문

여기 이조5백년의 뒀안길에서 온갖 풍상에 문혔던 여말·조선초의 위인 청해백 양렬 이지란공의 사적을 살펴보았다.

그 명문세가의 후손들도 성조의 유지에 따라 세속의 탐욕을 잊은 듯 고요하기 만한 성웅의 일대기를 감히 집필함에 벅찬 마음이 앞서 감회가 컸다.

그러나 그 옛날 왕가 권세에 뒤덮인 왜곡된 문헌들 때문에 너무도 고심했으며, 또한 여러 차례의 병란으로 사료가 소실된 데다가 국토분단으로 자료가 희귀하여 아쉬운 감이 많았다.

대체적으로 청해백에 대한 일반기록은 공민왕20년 이후 것이나 그 청년 시절 이태조를 만나 결의형제하고 동고동락한 기록의 갈파, 그리고 역대 임금의 치제문과 청해이씨 가승에 의하여 그 이전 것도 간택되었다.

참고문헌이 불비한 중 더욱 적은 비재로써 그 허다한 애로를 극복하며 막상 탈고를 해놓고 보니 혹시 미흡한 점이나 없는지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맺힌 끝없는 한과 오직 조국통일, 그리고 오늘에 직면한 이 나라 국난극복과 번영에 다소라도 정신적 이정표와 지주가 되리라 믿고 거듭 심사숙고한 끝에 심오한 뜻으로 이 글을 편술했다.

또한 이 저서가 태동하여 단행본으로 빛을 보기까지에는 술한 분들의 숨은 지혜와 노고가 많았다.

예컨대 80노구로 노심초사하시던 고 이재현(일명 : 을) 초대 청해이씨 종친회장을 비롯하여 2대 회장 이춘익씨의 발의와 3대 회장 이재옥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호성·이재홍·이인준·이구온·이구제·이기지·이태직·이선영 제씨로 하여금 편찬위원회를 구성, 이춘익씨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집필위원에 이호성(주필) 이재홍(자료) 이인준(편술)씨를 위촉하여 1년여 수

십차 편차 및 집필회의를 거듭, 광범위하고도 객관적인 견지에서 사료를 더듬었다.

또한 측면에서 자료지원을 해주신 주용일·이재영·서병국 교수와 백의 존영을 제공해 주신 이재경씨 그리고 자문에 응하시며 성원해 주신 이철·이구연·이웅연·이병탁·이시환·이만길·이태준·이일구·이대호·이병우·이재덕·이영달·이태진·이봉환·이인갑·이대성 제씨에게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끝으로 알알이 다듬어 엮지 못한 점 아쉬워하며, 혹 누락된 부분은 후일 보완하기를 갈망한다.

1975년 6월 30일

편저 이 인 준

青海伯李之蘭

2017년 3월 일 인쇄

2017년 3월 일 발행

編 著 青海伯史記編纂委員會

發 行 青海伯李氏宗親會

印 刷 大翰情報印刷(株) / 02)2632-0416(代)
